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4. 10.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0

목 차

I.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5
제3절 연구 추진체계	6
II.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정책 동향 및 주요사례	7
제1절 국내 사회적금융 정책동향	9
제2절 유사 기금 정책동향	46
제3절 선진지역의 사회적금융 사례 분석	74
제4절 국내 사회적 금융 사례	101
III.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성과분석	117
제1절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19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성과 분석	132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의 주체별 의견 검토	200
IV.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217
제1절 SWOT 분석	219
제2절 비전 및 고도화 방향	222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224
제4절 사회적경제 임팩트펀드 조성 방안	241
제5절 사회적경제기금 거버넌스 구축 방안	261
제6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264
부 록	267
부록 1. 설문조사표	269

표 목차

〈표 2-1〉 공공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2021년 10월 말 기준)	12
〈표 2-2〉 20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 말)	13
〈표 2-3〉 2022년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	14
〈표 2-4〉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14
〈표 2-5〉 은행권의 대출외 지원 현황	15
〈표 2-6〉 은행권의 지원실적	15
〈표 2-7〉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 투자 포트폴리오(2023년)	17
〈표 2-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근거	19
〈표 2-9〉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련 조례 현황	19
〈표 2-10〉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현황(2023년 기준)	20
〈표 2-11〉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 및 소관부서	21
〈표 2-12〉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규모 : 전입금누계액(2015년~2023년)	22
〈표 2-13〉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사용현황 : 지출금누계액(2015년~2023년)	23
〈표 2-14〉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사업 유형	24
〈표 2-15〉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지출 사업 구성	25
〈표 2-16〉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운영 유형	26
〈표 2-17〉 융자사업 운영 유형별 예산사용 방식	27
〈표 2-18〉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채택 사업 유형	28
〈표 2-19〉 서울시 기금운용계획 상 기금사업의 목표 및 개요	29
〈표 2-20〉 서울특별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3년~2021년)	30
〈표 2-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집행액(2013년~2021년)	30
〈표 2-2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주요 융자사업(2018년~2021년)	31
〈표 2-23〉 서울특별시 임팩트 펀드 조성 현황	32
〈표 2-24〉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사용현황 : 지출금누계액(2015년~2023년)	32
〈표 2-25〉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상 기금사업의 목표 및 개요	33
〈표 2-26〉 경기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7년~2021년)	34
〈표 2-27〉 경기도 기금운용명세(2017년~2021년)	34
〈표 2-28〉 경기도 시·군별 융자현황(2021.12.31. 기준)	36
〈표 2-29〉 전라북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37
〈표 2-30〉 전라북도 기금운용명세(2021년)	37
〈표 2-3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의 주요 내용(2022년)	38
〈표 2-32〉 전라북도 사회적가치평가 중 기업의 사회적가치 고려요소	39
〈표 2-33〉 조직유형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실행건수(2022년 9월 기준)	39

〈표 2-34〉 경상남도 기금운용명세(2021년)	40
〈표 2-35〉 경상남도 융자조건(2022년)	41
〈표 2-36〉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9년~2021년)	42
〈표 2-37〉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명세(2019년~2021년)	43
〈표 2-38〉 세종특별자치시 이차보전 조건(2021년)	43
〈표 2-39〉 경기도 시·군별 융자현황(2021.12.31. 기준)	44
〈표 2-4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현황(2024년)	47
〈표 2-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현황(2024년)	47
〈표 2-4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별 융자계획 현황(2024년)	48
〈표 2-43〉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2024년)	50
〈표 2-44〉 근로복지기금 지원실적(2015년~2023년)	51
〈표 2-45〉 신용보증기금 개요	52
〈표 2-46〉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52
〈표 2-47〉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55
〈표 2-48〉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2024년)	56
〈표 2-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계획 현황(2024년)	57
〈표 2-50〉 새출발기금 현황	59
〈표 2-51〉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 프로그램 내용	60
〈표 2-52〉 제도권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의 비교	61
〈표 2-53〉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유형	61
〈표 2-54〉 제도권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의 비교	62
〈표 2-55〉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2024년)	63
〈표 2-56〉 양성평등기금 2023년 계획 및 집행실적	65
〈표 2-57〉 양성평등기금 2024년 계획	65
〈표 2-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규모	66
〈표 2-59〉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67
〈표 2-60〉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주요 사업	68
〈표 2-61〉 소셜벤처의 기준	69
〈표 2-62〉 소셜벤처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71
〈표 2-63〉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71
〈표 2-64〉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72
〈표 2-65〉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73
〈표 2-66〉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 주요 특징	74
〈표 2-67〉 그라민은행과 전통적인 은행과의 차이점	76
〈표 2-68〉 혁신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사례	77
〈표 2-69〉 BSC 소셜임팩트 매트릭스	82
〈표 2-70〉 트리오도스 은행 연혁	85
〈표 2-71〉 트리오도스와 일반 영리은행의 대출 프로세스 비교	86
〈표 2-72〉 트리오도스 은행의 자금운용(대출) 방법	88

〈표 2-73〉 사회혁신채권(SBI)의 주요 참여자와 역할	92
〈표 2-74〉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SBI)의 이해당사자	92
〈표 2-75〉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수행기관별 특성	93
〈표 2-76〉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성공요인	94
〈표 2-77〉 국가 및 지역별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주제	95
〈표 2-78〉 레가 코프의 소속 협동조합	97
〈표 2-79〉 레가 코프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	99
〈표 2-80〉 레가 코프의 전국 조직 및 주요 업무	100
〈표 2-8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104
〈표 2-82〉 감사지적사항 유형분류	107
〈표 3-1〉 연도별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실행현황(2024. 1 기준)	123
〈표 3-2〉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실행현황(2024. 1 기준)	124
〈표 3-3〉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현황(2024. 1 기준)	125
〈표 3-4〉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접수 현황(2024. 1 기준)	126
〈표 3-5〉 전체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126
〈표 3-6〉 협동조합 및 비협동조합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	127
〈표 3-7〉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시기	127
〈표 3-8〉 사회적경제기금 융자금액	127
〈표 3-9〉 사회적경제기금 활용동기	128
〈표 3-10〉 사회적경제기금 유입경로	128
〈표 3-11〉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128
〈표 3-12〉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129
〈표 3-13〉 신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129
〈표 3-14〉 실험이 대출 심사시 가장 중시한 부분	129
〈표 3-15〉 2023년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대출 계획	130
〈표 3-16〉 2023년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대출 규모	131
〈표 3-17〉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일반현황	133
〈표 3-18〉 자금조달 현황	134
〈표 3-19〉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	135
〈표 3-20〉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중소기업 정책자금	136
〈표 3-21〉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137
〈표 3-22〉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사회적경제 소액자금 대출	138
〈표 3-23〉 타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139
〈표 3-24〉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	140
〈표 3-25〉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실험 및 새마을금고 대출	141
〈표 3-26〉 타 금융기관 자금 조달용도	142
〈표 3-27〉 타 금융기관 대출 자금 상환 계획	143
〈표 3-28〉 타 금융기관 자금 이용시 애로사항	144
〈표 3-29〉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	145

〈표 3-30〉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목적	146
〈표 3-31〉 희망대출액보다 적게 받은 이유	147
〈표 3-3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동기	148
〈표 3-33〉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 여부	149
〈표 3-34〉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장점	150
〈표 3-35〉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매출액	151
〈표 3-36〉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매출액	152
〈표 3-37〉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영업이익	153
〈표 3-38〉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종사자 수	154
〈표 3-39〉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종사자 수	155
〈표 3-40〉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취약계층 종사자수	156
〈표 3-41〉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취약계층 종사자수	157
〈표 3-4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	158
〈표 3-43〉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고용 성과에 대한 인식	159
〈표 3-44〉 사회적경제기금이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160
〈표 3-45〉 (사회적 미션) 해결 희망 사회적 문제	161
〈표 3-46〉 충청남도 지역문제 해결 위한 활동	162
〈표 3-47〉 수혜대상	163
〈표 3-48〉 의사결정 참여 주체	164
〈표 3-49〉 의사결정과정에 실제 참여 비율	165
〈표 3-50〉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166
〈표 3-51〉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	167
〈표 3-52〉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168
〈표 3-53〉 공식적 교육기회	169
〈표 3-54〉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교육	170
〈표 3-55〉 공식적인 협력 활동에 매년 참여 빈도	171
〈표 3-56〉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도·시·군)	172
〈표 3-57〉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173
〈표 3-58〉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협의회/업종 네트워크	174
〈표 3-59〉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기업	175
〈표 3-60〉 네트워크 수준_시민단체·비영리조직	176
〈표 3-61〉 네트워크 수준_민간기업	177
〈표 3-62〉 네트워크 활동	178
〈표 3-63〉 (사회적 환원 노력) 사회공헌 지출 비용	179
〈표 3-64〉 수익금을 가장 많이 재투자하는 분야	180
〈표 3-65〉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81
〈표 3-66〉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인지경로	182
〈표 3-67〉 이차보전금 지원(3%) 관련한 인식	183
〈표 3-68〉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한 기업들에게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필요도	184

〈표 3-69〉 자금조달 필요시기	185
〈표 3-70〉 자금의 주요 용도	186
〈표 3-71〉 자금 조달 방식	187
〈표 3-72〉 자금 조달희망 규모	188
〈표 3-73〉 선호 상환 방식	189
〈표 3-74〉 1년 중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190
〈표 3-75〉 신용대출 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수준	191
〈표 3-76〉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192
〈표 3-77〉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장기 대출	193
〈표 3-78〉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단기 긴급자금 대출	194
〈표 3-79〉 충남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대출	195
〈표 3-80〉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대출	196
〈표 3-81〉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부동산(건물) 구입 대출	197
〈표 3-82〉 충남도 문제해결을 위한 소셜 창업 투자	198
〈표 3-83〉 충남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	199
〈표 4-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존 차등지원(안)	226
〈표 4-2〉 자금공급 수단별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230
〈표 4-3〉 주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231
〈표 4-4〉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라이선스 취득 현황	232
〈표 4-5〉 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	246
〈표 4-6〉 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 투자 사례	253
〈표 4-7〉 주목적 투자 대상 및 출자자(안)	254
〈표 4-8〉 충청권 소재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2023년 엑셀러레이터 등록현황)	258
〈표 4-9〉 서울 소재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2023년 엑셀러레이터 등록현황)	259
〈표 4-10〉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소요예산	265
〈표 4-11〉 충남 임팩트 펀드 소요예산	265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9
〈그림 2-2〉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유형별 구조	10
〈그림 2-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2023년)	18
〈그림 2-4〉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유형별 구조	26
〈그림 2-5〉 서울특별시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구조	31
〈그림 2-6〉 서울특별시 출자사업 집행 절차	32
〈그림 2-7〉 경기도 직접 재융자(상) 및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대행 구조	35
〈그림 2-8〉 전북특별자치도 융자사업 시행 구조	38
〈그림 2-9〉 경상남도 융자사업구조	41
〈그림 2-10〉 경상남도 이차보전사업구조	41
〈그림 2-11〉 세종특별자치시 융자사업 수행절차 구조	44
〈그림 2-12〉 중소벤처기업 융자사업 절차	49
〈그림 2-13〉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절차	50
〈그림 2-14〉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조	54
〈그림 2-1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융자절차	58
〈그림 2-16〉 장애인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자금운용 프로세스	66
〈그림 2-17〉 소셜벤처 현황	69
〈그림 2-18〉 기술보증기금 주요 사업	70
〈그림 2-19〉 영국 BSC 사업구조	81
〈그림 2-20〉 BSC의 주요 활동과 성과	83
〈그림 2-21〉 사회혁신채권(SIB)의 운영구조	91
〈그림 2-22〉 레가 코프의 협동조합 육성구조	99
〈그림 4-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SWOT	221
〈그림 4-2〉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고도화 방향	222
〈그림 4-3〉 투자조합 결성 절차	247
〈그림 4-4〉 충남사회적경제금융의 생태계 구조	261
〈그림 4-5〉 충남 사회적경제금융 추진체계	263

연구 요약

01

계획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계획수립의 배경

- 기금운용기관의 손실액 분담지원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심사기준 완화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용
- 지방기금법상 기금의 존속기한 내 1단계(5년, '20~'24) 운영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속 운용에 대한 필요성 도출하고 존속기한 연장

2025년 2단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운용방안 마련

☑ 계획수립의 범위

시간적 범위

2025년
~
2029년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내용적 범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성과 분석
2단계 고도화 방안
효과적 운영 방안 등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

0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개요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 설치 연도 : 2020년 7월 (조례제정 : 2019. 10. 30.)

기금 조성

기금 운용 재원은 신탁의 200억 원(신용융자 100억 원, 담보융자 100억 원)이며, 충남도는 20억 원 조성(현재 16.8억 원 조성) 추진

기금운용 추진체계

① 기금운용위원회

사회적기금의 거시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행사

② 충청남도

기금 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결산·성과평가와 기금 운용기관 모집·관리 역할

③ 기금 운용기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투융자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 사후관리를 비롯해 금융교육, 컨설팅 등의 비 금융사업도 함께 수행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추진 경과

- 사회적경제 민관 실무 논의 및 선진지 방문 (9회/ '18. 11.~'19. 6)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토론회('19. 4. 20/60명)
- 사회적경제 기금 포럼 (2회/ '19. 7월, 12월/ 충남연구원)
- 사회적경제 기금 수요 조사 ('19.10.)
-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19. 10.)
- 기금운용기관 공모 및 심사선정(신탁중앙회 /'20. 6.)
- 사회적경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민간 공청회 ('20. 7.)
- 기금운용에 따른 운용기관 및 사용자 교육(3회), 컨설팅 추진(9월)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 사업계획 심의, 의결
- 기금 운영 및 집행 평가
- 투·융자 규모 선정

충청남도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기금 운용의 결산 및 성과 분석
- 기금운용기관 선정 및 평가

기금 운용기관

- 기업대상 투·융자 사업수행
- 기업관리 및 교육, 컨설팅
- 사회목적투자사업 지원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2

0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개요

응자조건

구분	신용	담보
응자한도	최대 1억 5천만원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응자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응자금리	6.2% (1분기)	5.8%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1년)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평가방법

- 5천만원 초과 응자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5천만원 이하 응자 : 소액 · 간편 대출 서류심사
 -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또는 시군별 취급 신청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

▶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확인자료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3

0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정량적 성과 : 신청 및 승인

구분		연도	신청 현황		승인 현황	
			기업	금액	기업	금액
총 계			191	17,897	124	7,532
세부 내역		2023	25	2,160	24	1,920
		2022	31	2,670	15	642
		2021	57	4,740	39	2,135
		2020	78	8,477	46	2,835
		소계	110	15,447	63	5,792
		2023	9	1,610	9	1,410
		2022	14	2,170	1	292
		2021	32	3,990	21	1,650
		2020	55	7,827	32	2,440
		소계	81	2,450	61	1,740
		2023	16	550	15	510
		2022	17	500	14	350
		2021	25	750	18	485
		2020	23	650	14	395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4

0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정량적 성과 : 목표 대비 집행

이차보전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 연도	지출일	구 분	집행 계획 ①	집행 실적 ②	집행 잔액 ③=①-②	집행율 ④=②/①*100%
총 계			1,102,000	249,918	852,182	22.67%
2020	12.29.	'20년 3분기	110,000	4,181		
	계		110,000	4,181	105,819	3.80%
	4. 8.	'20년 4분기		10,940		
2021	6.14.	'21년 1분기	290,000	12,780		
	7.26.	'21년 2분기		16,439		
	12.7.	'21년 3분기		19,421		
	계		290,000	59,580	230,420	20.54%
2022	3.21.	'21년 4분기	327,000	21,546		
	6. 9.	'22년 1분기		20,974		
	8.11.	'22년 2분기		21,402		
	11.23.	'22년 3분기		21,716		
	계		327,000	85,638	241,362	26.19%
2023	4.27.	'22년 4분기	375,000	22,051		
	5.31.	'23년 1분기		22,374		
	8.17.	'23년 2분기		28,230		
	11..	'23년 3분기		27,764		
	계		375,000	100,419	274,581	26.78%

손실분담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	구 분	집행 계획 ①	집행금액 ②	집행 잔액 ③=①-②	집행율 ④=②/①*100%
총계		891,500	6,989	884,511	0.78%
계		437,500	6,989	430,511	1.60%
-	22.4분기		-		
-	23.1분기		-		
23. 9. 6.	23.2분기	437,500	6,989		
-	23.3분기		-		
계		194,000	-	194,000	-
2022년	21.4분기				
	22.1분기	194,000	-		
	22.2분기				
	22.3분기				
계		260,000	-	260,000	-
2021년	20.4분기				
	21.1분기	260,000	-		
	21.2분기				
	21.3분기				
계		-	-	-	-
2020년	20.3분기	-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5

0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 일반 기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율

충남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지원 및 사고발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적기업	보증지원	건수	20	51	43	7	10	4
		금액	9	23.3	15.4	3.8	4.9	1.4
	순사고	건수	-	-	1	1	-	6
		금액	-	-	0.44	0.5	-	1.75
일반기업	보증지원	건수	16,455	20,422	45,485	30,739	37,647	32,905
		금액	4,115	5,440	12,667	6,991	7,773	8,594
	순사고	건수	2,317	2,522	2,100	2,255	3,141	7,571
		금액	332	362	343	401	542	1,239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6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4. 5. 3.~ 6. 3. ■ 응답자 수 : 95개 조사(110개 대상) ■ 조사방법 : 방문 조사

		응답자수(명)	빈도 (%)	(평균)			응답자수(명)	빈도 (%)	(평균)
성별	[전체]	95	100.0		성장단계	창업기	1	1.1	
	남성	63	66.3			초기 성장기	38	40.0	
	여성	32	33.7			고도 성장기	34	35.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2	33.7			성숙기	22	23.2	
	50대	38	40.0		법인 유형1)	사단법인	2	2.1	
	60세 이상	25	26.3			영농농조합	8	8.4	
대표자 연령 평균(세)				53.9		주식회사	53	55.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4	35.8			일반 협동조합	22	23.2	
	일반기업	29	30.5			사회적 협동조합	10	10.5	
	사회적경제기업	17	17.9		사회적경제 유형2)	인증 사회적 기업	45	47.4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	12.6			예비 사회적기업	16	16.8	
	기타	3	3.2			마을기업	8	8.4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4	25.3			협동조합	29	30.5	
	5~10년 미만	42	44.2			모르겠다	3	3.2	
	10년 이상	29	30.5						
법인 설립 기간 평균(년)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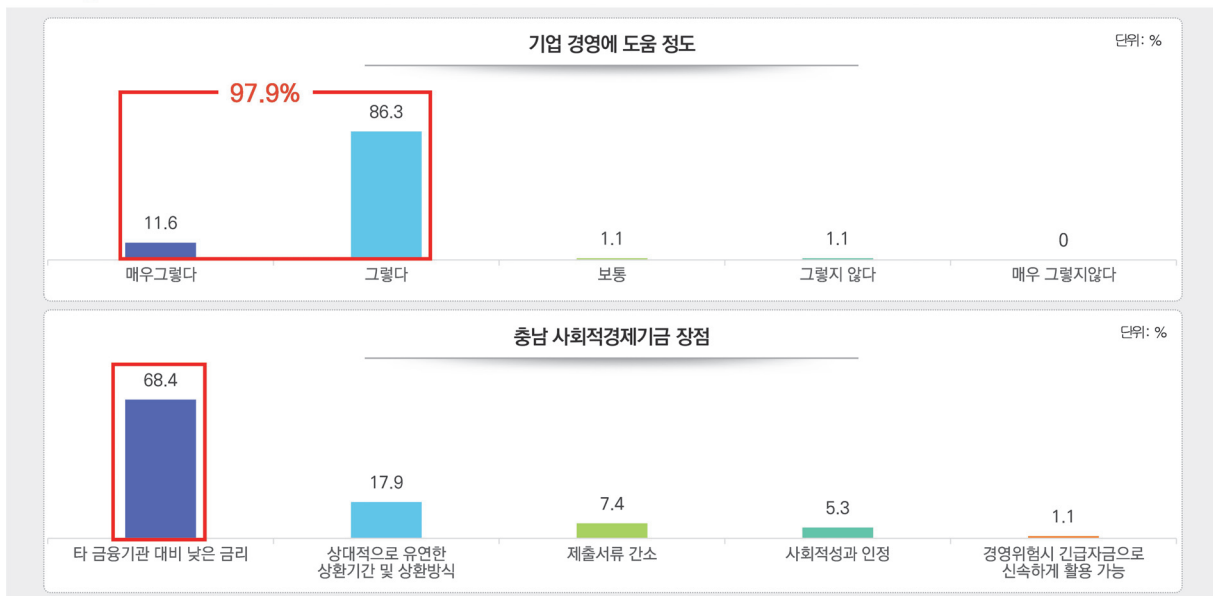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7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일반 현황

1 사회적경제기금 도움정도 및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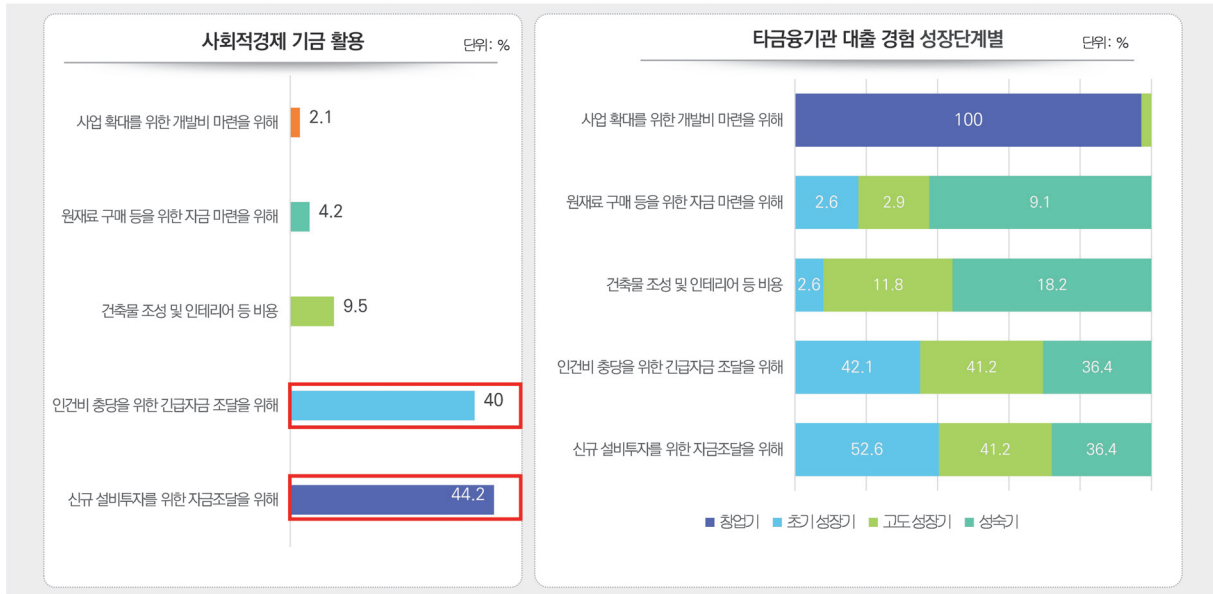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8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일반 현황

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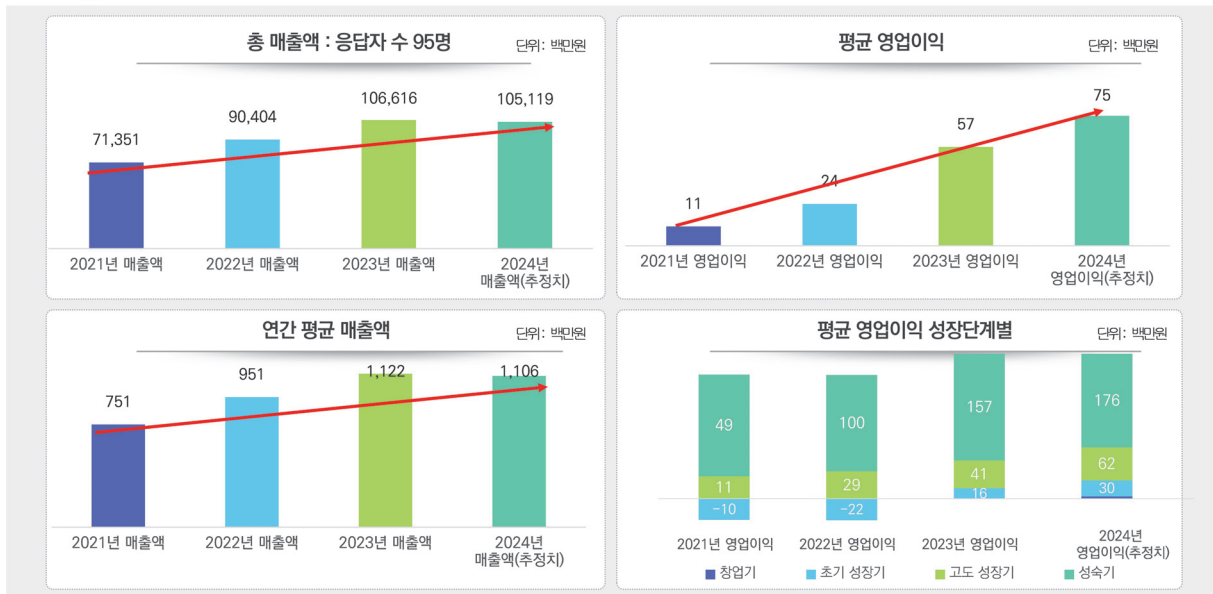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9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직접적 성과

3 사회적경제기금 이용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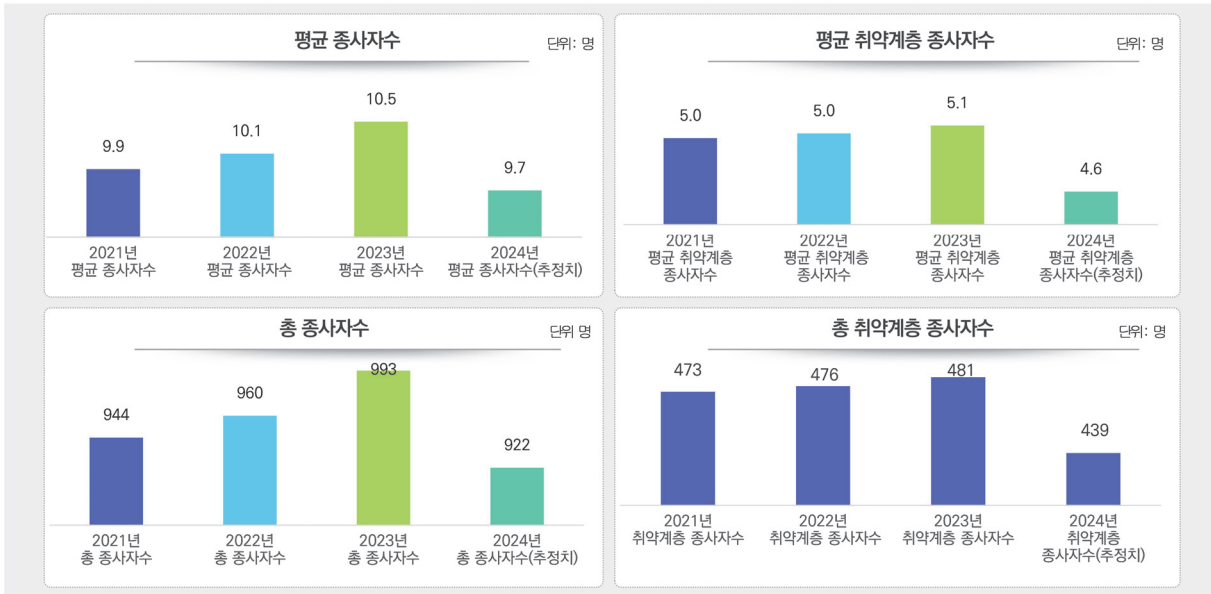
10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 직접적 성과

4

사회적경제기금 이용기업의 고용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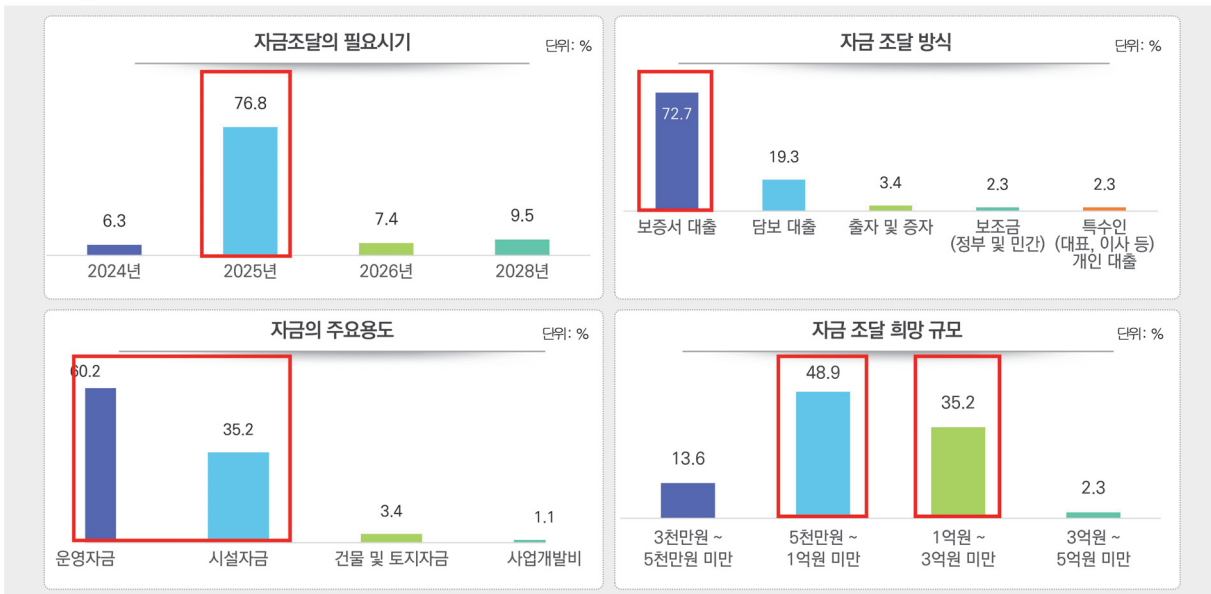
11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 정책 수요

5

자금조달 정책수요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2

0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정책 수요

6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운영 프로그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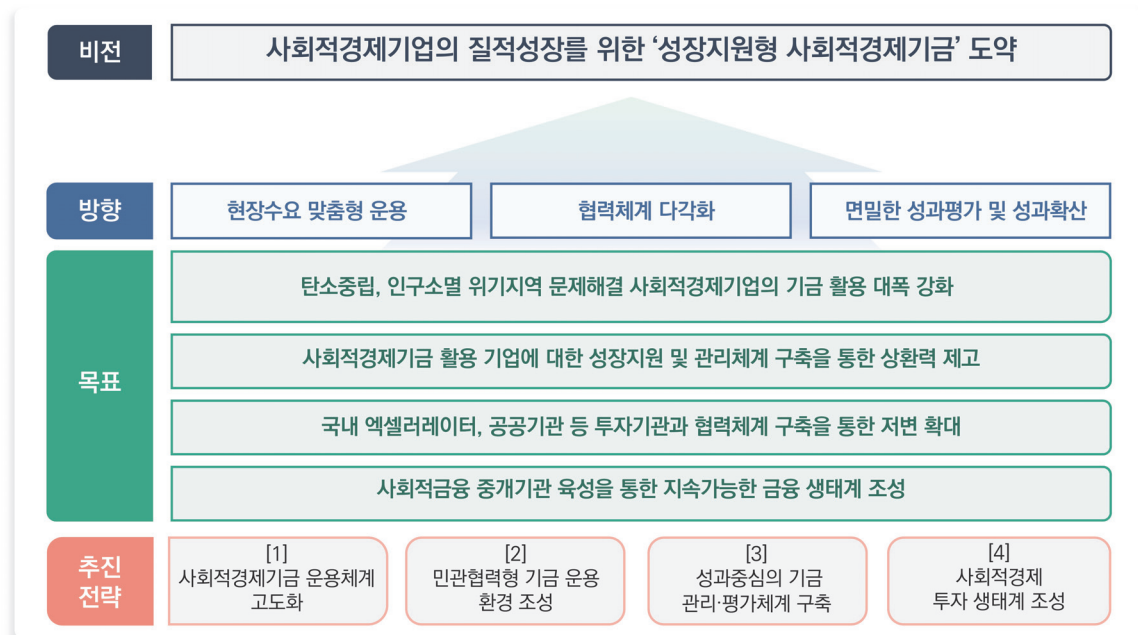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3

04

비전 및 추진전략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4

04

비전 및 추진전략

0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03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평가체계 구축



04 사회적경제 투자 생태계 조성



세부 추진전략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지속운용 및 운용체계 개선

① 성과기반의 차등적 이차보존 지원 확대

- 이차보전기준** 대출이 실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담보 구분없이 3%~4% 차등 지원
- 이차보전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4개월 간 지원
- 이차보전의 중단 등** 대출기업이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의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상환함
- 우수기업의 선정** SVI 평가를 기초로 해당 기업의 사회적 높은 파급효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도정 핵심정책
- 탄소중립, 인구소멸위기 대응 등** 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이차보전금의 정산**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도에 청구

구분 (사회적가치 등급)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실질 부담금리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신용	담보
S1~S8	4.5%	4.0%	3.0%	3.0%	1.5%	1.0%
우수기업	4.5%	4.0%	4.0%	3.5%	0.5%	0.5%

세부 추진전략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존 확대 및 손실분담율 개선

2 신용융자 손실액 분담율 조정 : 현재 도에서 70%를 분담하는 구조에서 50:50으로 개선

손실분담 비율 신용대출로 실행한 대출 중 대손처리를 완료한 대출 건에 대해 대손처리한 금액의 50%를 취급 운용사에서 보전 (기존 30%에서 50%로 개선) 분기별 손실처리 내역을 취합하여 손실분담금 정산

손실분담 대상 신용대출로 실행한 대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출금
 - 신탁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탁이 대손처리를 완료한 대출금
 - 대출기업이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위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미회수 대출금

손실분담 후 대출금의 회수 손실분담금을 정산한 이후 잔여 대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도가 손실한 금액에 안분하여 변제에 충당

- 이차보전액의 경우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규모를 160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규모를 40억원으로 가정하였으며, 각각 이차보전을 3%, 4%로 설정
-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3%)의 경우 총 12억원의 예산이 소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4%)의 경우 4억원의 예산이 소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 200억원의 20%인 4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중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필요

구분 (단위 : 억원)	자금규모	합계	2025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자금규모	예산액	자금규모	예산액	자금규모	예산액	자금규모	예산액	자금규모	예산액
계		22.3		4.7		6.0		7.0		3.2		1.3
손실추징액	100	6.3	50	3.1	30	1.9	20	1.3		0.0		0.0
이차보전액	200	16.0	100	1.6	60	4.2	40	5.8	0.0	3.2	0.0	1.3
일반대출(3%)	160	12.0	80	1.2	48	3.1	32	4.3	-	2.4	-	1.0
우수기업대출(4%)	40	4.0	20	0.4	12	1.0	8	1.4	-	0.8	-	0.3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7

세부 추진전략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2 기금 운용사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1 기금 운용기관 확대 운용

- 배경**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필요
- 선정** 공모를 통한 도 자체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역할** 도내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및 상환관리와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자격** 신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단, 각 시군 융자실행기관(단위조합/금고) 참여)
 도내에서 사회적 목적활동을 위한 대부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NPO 등의 조직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금융기관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융자·사회적가치 지표 운영 계획 등
- 지원절차** 도에서는 이차보전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운용사에서 대출을 실행

2 충남도 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대상 협력체계 강화

- 운용사 확대 방안** | 도내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파트너십 관계 강화 추진
-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충청남도 금고는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부분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기금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 충청남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16,300백만원(제1금고 : NH농협은행(6,200백만원), 제2금고 : 하나은행 (10,100백만원))
 - 도정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문제 해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이것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등 협력 도모 필요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18

세부 추진전략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3 민간재원 사회적금융 참여 유인체계 구축

①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역제안)

- 비영리법인 · 제3섹터에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있어 제약사항은 사회투자 방식으로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과 기본재산의 사회투자 사용여부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서는 주주관청의 재량 허용이 가능하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행이 어려운 상황
- 특히 사회투자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지출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사회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의 조성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김은경 외(2023)는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공익법인이 수익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용자, 지분투자, 보증 등의 방법으로 사회투자를 시행하려 할 때, 이를 ‘공익목적투자’로 간주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② 사회적금융의 자금공급 수단별 법적근거 마련 제안(역제안)

법제도 개선의 필요

사업예산 할당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부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	서민금융을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협의회를 통한 관계기관 협력 채널 구축
------------------------------------	------------------------	-----------------------------------	--------------------------

세부 추진전략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03 민간재원 사회적금융 참여 유인체계 구축

구분	관련부처	내용
사업예산 할당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중기부	• 「중소기업진흥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 예: 중소기업진흥법 제9절(소기업에 대한 지원) 참고
정부보증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금융위	•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예: 중소기업진흥법 제6절(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 5 참고
서민금융 연계, 사각지대 대응	금융위	•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협의회 통해 관계기관 협력/조율	금융위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 금융위, 중기부 참여구조 마련 또는 「사회적기업법」 내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참여 대상으로 명기

자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3)

세부 추진전략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Q1 사회적경제기금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

① 도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전문성 제고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금융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개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사회적경제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한 요구와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기존 도내 중개기관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사회적금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개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기존 금융기관 대상 사회적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기존 금융기관 대상 사회적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금융 트렌드와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 강화가 필요

구분	사회적금융기관
펀딩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오마이컴퍼니 (2016) •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 비플러스 (2021), 루트에너지 (2018)
자산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모펀드운용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2017) • (기관전용 사모펀드운용사) 크레비스파트너스 (2018), HG이니셔티브(2019),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9)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D3주빌리파트너스 (2018), HG이니셔티브 (2018), 인비저널 파트너스 (2021) • (액셀러레이터) 엠와이소셜컴퍼니 (2018),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9), 임팩트스퀘어 (2020), 소풍벤처스 (2020), (재)한국사회투자 (2020), 재단법인 밴드 (2020)

자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3)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21

세부 추진전략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Q1 사회적경제기금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

② 지자체-중개기관 협력형 금융 상품 개발 지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 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 추진
- 사회적기업이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상품’이나,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상품 등 개발 추진

③ 도-중개기관-중간지원조직-당사자조직 등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조달, 운영 비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중개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
-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민간금융기관, 당사자조직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조달에서부터 운영 및 성과 확산까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강화

④ 충남형 사회적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 도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충남형 사회적금융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정기적 네트워크 행사 개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분석 및 2단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22

세부 추진전략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02 시군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①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기금 설계 및 조성 지원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환경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기금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금 및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기금 설계 과정에 지역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등을 참여하여, 기금의 목표와 운영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필요

②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원 확보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개발 부담금이나 지역 내 일부 공공 서비스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등을 지원 필요
-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기금 활성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 및 분석 지원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기금
참여 확대 및 인식 제고

세부 추진전략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02 시군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③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기금 활성화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금 운영을 공동으로 관리 추진
-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금 조성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금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모색 필요

④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 및 분석 지원

-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
- 기금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

⑤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기금 참여 확대 및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기금의 중요성과 기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기금을 통해 지원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기금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금에 대한 신뢰성 강화 필요

세부 추진전략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03 자조기금 협력체계 구축

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조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넛지' 프로젝트 추진

- 자조기금 조성 시 중간지원조직 및 공공기관 매칭 지원 : 광역 중간지원조직,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조기금에 출연금을 제공하거나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자조기금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관련 법률,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② 민관 자조기금 협의회 설치·운영

- 지역별, 업종별로 조성되는 자조기금의 정보 공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민관 자조기금 협의회 설치 필요
- 자조기금 연대 프로젝트 추진
- 자조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젝트,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프로젝트 기획·추진
- 자조기금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자조기금과 공공기관이 서로의 목표와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③ 자조기금 조성 및 활용 주체에 대한 공공 조달과의 연계 방안 검토

- 도 및 시군은 자조기금 조성 및 활용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조기금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 필요

세부 추진전략 3: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평가체계 구축

01 중간지원조직의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① 사회적경제 기금 활용기업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기업 대상 경영상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 자금 사용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예: 고용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금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필요

② 경영위기 기업 대상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관리

-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경영위기 기업 대상 정기 평가 보고서 작성

③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추진

- 기금 수혜기업들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재무 관리, 리스크 관리, 사회적 가치 측정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재난 해설 및 중재 역할 강화 : 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은 중재 역할을 강화 필요

세부 추진전략 3 :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평가체계 구축

02 기금활용 기업 대상 성장지원사업 연계 강화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지원 제도 연계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밀착형 정보제공을 통한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활용성 강화 필요

② 비즈니스모델 등 역량강화 및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지원

- 비즈니스모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리더와 직원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지원 : 성장지원과 투자연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 지원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SVI 등 사회적가치 측정 지원

- SVI 성과측정뿐만 아니라, ESG 성과측정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 SVI, ESG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체적인 사회적성과 측정 및 표현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전략 3 :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평가체계 구축

03 사회적경제기금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① 사회적경제기금 성과 환류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지원금액의 목적 외 사용’,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 만큼,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에도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사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 필요. 기금 활용기업의 성과 창출이 있을 경우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향후 기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실패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

② 사회적경제기금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 합목적성, 건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조기금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 경기연구원(2019)은 기금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① 재원 조성의 안정성, ② 합목적성, ③ 운영 효율성을 선정
 - 인천연구원(2020)은 재정운용 계획(편성) - 재정운용 관리(집행) - 재정운용성과(결산) 관점에서 평가항목으로 ① 합법성, ② 합목적성, ③ 건정성, ④ 타당성, ⑤ 효율성, ⑥ 효과성을 선정
 - 서울연구원(2022)은 평가항목으로 ① 기금설치 목적의 타당성, ②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③재원 조성의 적정성, ④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선정

③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국제 기구나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세부 추진전략 4 : 사회적경제 투자생태계 조성

☑ 충남 사회적경제 임팩트 펀드 조성 방안

기본방향

-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셜벤처에 대한 초기 투자
- 도내 금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이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펀드)의 형태로 추진
-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펀드 운용사로 선정

펀드조성

- 펀드명 : 충남 로컬 임팩트투자 펀드(가칭)
- 결성예정 금액 : 최소 20억 원 이상(LP 출자 규모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며, 필수 10억 이상 필요)
- 펀드 존속 기간 : 8년(투자기간 4년 이내)
※ 존속기간 연장 가능



- UN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임팩트를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중인 스타트업
- 주목적(60% 이상) : 충남에 본점을 두거나, 신규로 충남에 본점 이전 또는 지점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등
- 비주목적: 충남이 직면한 미래이전(인구소멸, 기후 등)와 관련된 스타트업

구분	출자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GP)	운용사	2억	10%
일반조합원(LP)	충청남도/기금	10억	50%
일반조합원(LP)	충남 관내 공공기관	5억	25%
일반조합원(LP)	충남 지역기업, 기타 전략적 출자자	3억	15%
합계		20억	100%

세부 추진전략 4 : 사회적경제 투자생태계 조성

☑ 충남 사회적경제 임팩트 펀드 조성 방안

펀드 운용방식

- 운용사 : 지역 사회적경제관련 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임팩트 투자사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60~70% 이상 주목적 투자
- 투자대상 :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 투자방식 : 시드머니 투자(pre-seed/seed단계) 및 엑셀러레이팅 필수 제공
 - (시드머니 투자) 2천만원 ~ 1억원(보통주 지분 5~10% 취득방식)
 - (엑셀러레이팅) 사전(2주), 본(3개월), 사후(6개월)
- 투자목표 : 총 15~20개사 (연간 5개사 내외)
- 목표수익률 : 0% (GP와 협의 가능)
- 운용보수
 - 관리보수 : 결성 후 3년 간 : 결정액의 2.5%(연)
 - 성공보수 : 기준 수익률 0% (임팩트투자 정책펀드 기준 준용), 초과 수익의 20%
- GP 선정 : 상호 협약
- 납부 방식 : 3회 분납

구분	대상	비고
지역	충남 소재	본사 또는 사업소가 충남에 소재
연령	전연령	전연령을 대상으로 함 (만39세 미만) 청년이 대표주이거나 청년비중 50% 이상 기업의 경우 가점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제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③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주요 영역	도정 핵심과제	인구소멸, 고령화, 필수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이민, 환경문제, 기후위기 등 해결 기업
형태	창업기업 등	창업 준비중이거나 창업 3년 이내 법인(또는 법인준비 중)



I.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큰 폭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질적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621개 기업에서 2024년 1분기 1,738개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수요가 증대
 - 특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조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시장의 접근성은 어려운 상황
- 이에 충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도입·운용
 - 기금운용기관의 손실액 분담지원 및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심사기준 완화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음
 - 이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지난 5년간 총 21개 신탁 중 19개 신탁에서 75.3억 원(124건 승인)을 공급
- 지방기금법상 기금의 존속기한 내 1단계(5년, '20~'24) 운영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속 운용에 대한 필요성 도출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98.9%)이 대다수이며, 사회적경제 기금의 주된 활용동기는 시설 및 운전자금 필요(37.9%), 낮은 대출 금리(36.2%)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금을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 ‘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스케일업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및 고용 확대에 기여’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 사회적경제기금의 2단계 운영을 위해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중장기 비전 및 목표설정과 전략과제, 운용 사업개발, 지속 가능한 기금운용 모델 구축 등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5년간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2. 연구 목적

■ 지난 5년간의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한 고도화 방향 도출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성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 운용 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특히 기금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금 활용에 따른 직·간접적 성과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고도화 방안 마련

- 전국단위 유사기금, 금융, 임팩트 투자, 자조적 자금조달 등의 사례 비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해 충남에 적용 가능한 모델 도출
- 사회적경제기금의 융자지원 방식(이자보전, 손실분담금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나아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사회적경제조직, 성장단계, 업종 등)에 맞는 자금조달 지원 방식 및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금 모델 종합적 검토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모색

-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비롯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협력 모델 도출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2029년까지 단계별 추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내용적 범위 : 기금운용 성과 분석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 배경과 목적, 범위, 방법 수립
 -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성과 분석
 -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도출

2. 계획수립 방법

- 문헌조사 : 사회적경제기금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시
- 사례조사 : 국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충실화
- 설문조사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현황 및 운용에 따른 직간접적 성과 등
-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실시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문회의 실시
 - 기금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운용사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이해관계자 토론회, 워크숍
 - 시민, 시 관계자, 전문가, 협력조직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사업발굴

계획수립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실시

- 사회적경제기금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충실화

>> 사회적경제기금 설문조사 실시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현황 및 운용에 따른 직간접적 성과 등

>>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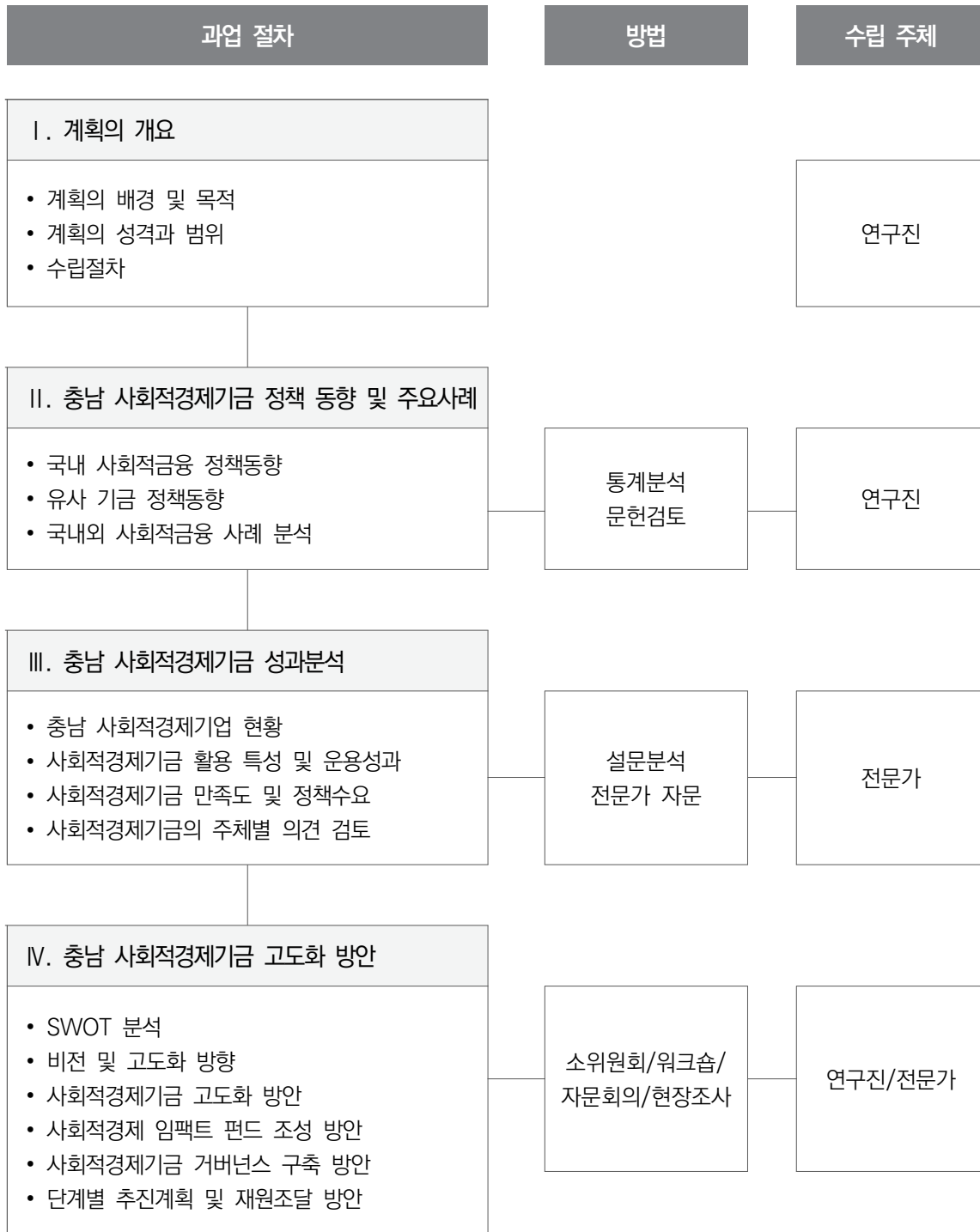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문회의 실시
- 기금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운용사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소위원회, 토론회, 워크숍 등 다각적 환류기제 활용

- 시민, 시 관계자, 전문가, 협력조직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사업발굴



제3절 연구 추진체계





II.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정책동향 및 주요사례

제1절 국내 사회적금융 정책동향

제2절 유사 기금 정책동향

제3절 선진지역의 사회적금융 사례 분석

제4절 국내 사회적금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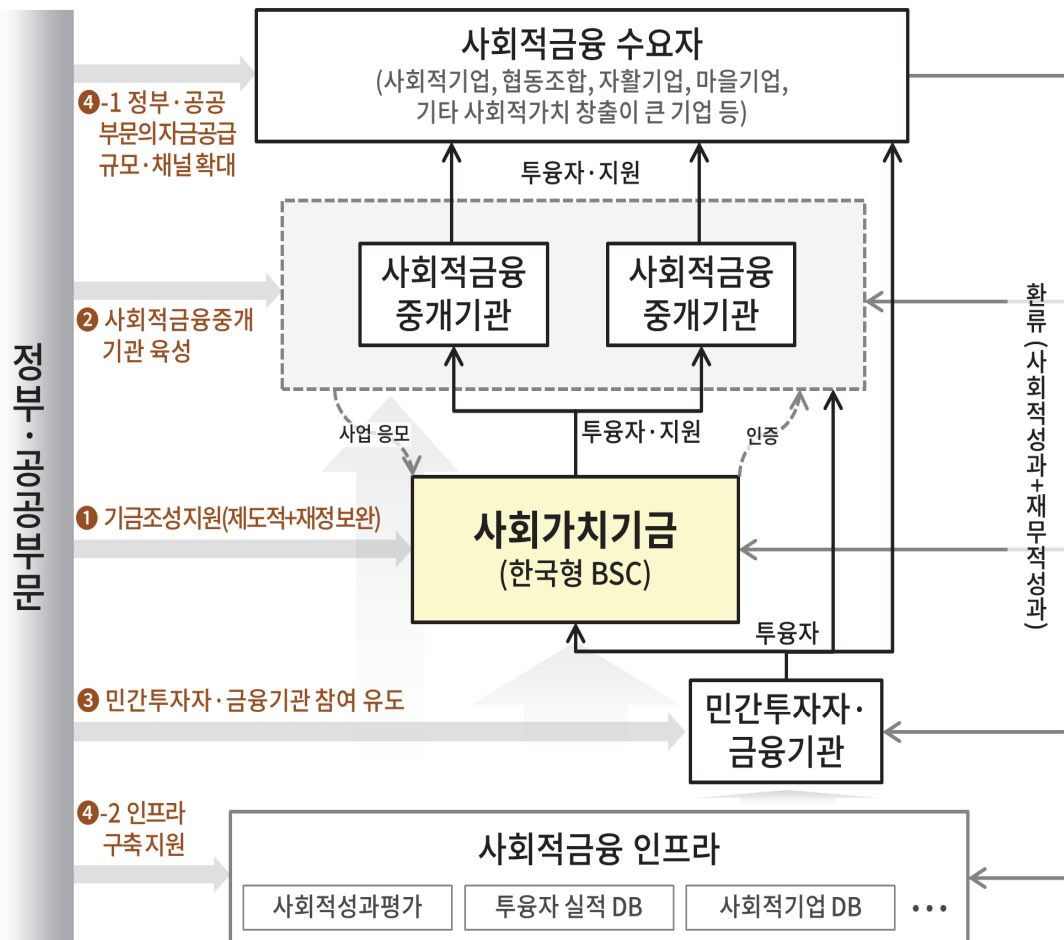
제1절

국내 사회적금융 정책동향

1. 개요

■ 중앙정부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추진계획을 발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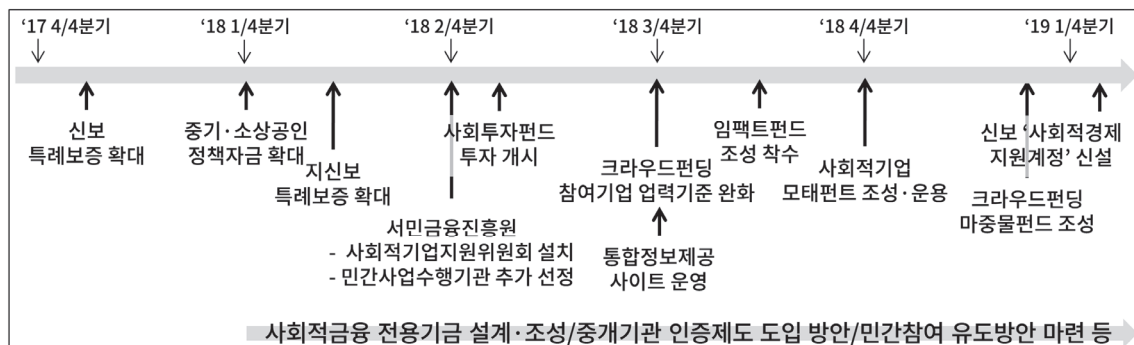
〈그림 2-1〉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핵심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i)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 ii)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iii)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지급 추진
- iv)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선제·선도적 역할 강화
- v)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



〈그림 2-2〉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유형별 구조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2018년 이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반을 마련

■ 자금공급 확대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약 1.8조 원 공급((2018) 1,937 → (2019) 4,625 → (2020) 5,700 → (2021.10) 5,586)

■ (인프라조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집중 및 활용, 사회적성과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민간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금융지원현황 등 정보 공유 추진
 - 1단계: 신용정보원내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2019.9.2.)
 - 2단계: DB를 신용거래내역이 없는 기업으로 확대(2020.8.5.)
-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배정, 성과평가 방법 교육 등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수행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회적금융기관 발굴 노력('21.3월)
- (사회적금융 정보) 사회적금융 취급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를 구축하여 기관 간 공동 활용
 -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로 개편('20.10월 오픈)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기관별로 사회적금융 심사·평가체계를 운영하고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개발하여 민간기관 등에 제공
 - ①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성과 창출역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심사기준 마련(서금원, 중진공, 성장금융, 신보, 기보 등 협의회 참여기관)
 - ②웹 기반 「표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19.11월) → 민간 중개기관 등에 공개('20.4.1.) → 시스템 활용확산 추진('21.10월까지 총 21회 설명회 실시 등)

■ (민간확대) 은행·국민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①사회적기업이 업력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4월)
 - ②크라우드넷 내 사회적기업 전용관 운영('18.1월),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13개사에 펀딩비용 등 6,300만 원 지원(예탁결제원)
 - 사회적기업이 45건(30개 사)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35.5억 원 조달(기업별 평균 성공 금액은 1.18억 원)
- (은행) 사회적금융 모범규준 제정 등 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①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은행의 자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용으로하는 모범규준 제정('18.12.)
 - ②은행권의 사회적금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발표 (보도자료 배포)
 - '21.9월 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1조 2,612억 원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시작된 '18년 말 (5,374억 원) 대비 약 2.3배 성장

■ (협력체계)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구성·운영('18.4. ~)

- ①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담당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
- ②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실적 점검, 인프라 구축 협의(총 12회 개최)

2. 사회적금융 공급 현황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 확대

- (공공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 2017년 676억 원에서 2021년 5,417억 원으로 약 700% 증가
- (공급형태별 규모) 보증 3,110억 원으로 전체의 약 57.4%를 차지하며 이어 융자(정책기관 융자, 지자체 기금 융자)가 1,497억 원으로 26.7%, 투자가 810억 원으로 15% 차지
- (전국 및 지역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할 경우 지역별 기금은 지자체 기금은 330억 원으로 6.1% 수준으로 적은 비중으로 집계

〈표 2-1〉 공공재원 연도별 공급 규모(2021년 10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연도별 공급 금액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단위	정책기관융자	235	459	787	918	1,167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기관 보증	328	2,006	2,713	2,808	3,11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투자	-	237	855	784	810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지역 단위	지자체 기금 융자	113	165	297	472	330	지역별 사회적 경제기금
소계		676	2,867	4,652	4,982	5,417	

자료 : 남원호 외, 2022,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 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2

■ 2021년 10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2,508개 소에 5,586억 원의 자금을 공급

- (대출) '21.10월까지 1,108개 기업에 1,666억 원(기업당 약 1.5억 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 원) 대비 98% 달성

- (보증) 1,314개 기업에 3,110억 원(기업당 약 2.4억 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 원) 대비 124% 달성
- (투자) 86개 기업에 810억 원(기업당 약 9.4억 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 원) 대비 84% 달성

〈표 2-2〉 20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 말)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억 원)	공급실적(억 원)	기업수(개)
대 출	소계	1,700	1,666	1,108
	서민금융진흥원	100	64	1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999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04	252
	신협	300	344	243
	새마을금고	150	155	65
보 증	소계	2,500	3,110	1,314
	신용보증기금	1,000	1,589	71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2	310
	기술보증기금	1,350	1,369	292
투 자	소계	962	810	86
	한국성장금융	300	332	23
	한국벤처투자*	662	478	63
총계	-	5,162	5,586	2,508

주)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9월말 기준임

자료 :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21. 12.16)

■ 2022년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목표는 2021년 목표(5,162억 원) 대비 약 10% (534억 원) 증가한 5,696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대출) '22년도에는 '21년 목표치(1,700억 원) 대비 약 6%(100억 원) 감소한 1,600억 원을 공급할 계획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2년 목표치를 200억 원 감액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 때문) / 신협새마을금고 각 50억 원 증액
- (보증) '22년도에는 '21년 목표(2,500억 원) 대비 약 14%(350억 원) 증가한 2,85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
 - 신보 200억 원, 기보 150억 원 증액
- (투자) '22년도에는 '21년 목표(962억 원) 대비 약 30%(284억 원) 증가한 1,246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
 - 한국성장금융 200억 원, 한국벤처투자 84억 원 증액

〈표 2-3〉 2022년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

(단위 : 억 원)

유형	공급기관	'21년 목표	'22년 목표	증감액
대출	소계	1,700	1,600	△100
	서민금융진흥원	100	1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50	△200
	신협	300	350	50
	새마을금고	150	200	50
보증	소계	2,500	2,850	350
	신용보증기금	1000	1,200	200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350	1,500	150
투자	소계	962	1,246	284
	한국성장금융	300	500	200
	한국벤처투자	662	746	84
총계	-	5,162	5,696	534

자료 :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21. 12.16)

- 은행권의 '21년 9월 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2,612억 원으로 '20년 말(1조 1,213억 원) 대비 1,399억 원(1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206억 원)한 데 기인
- 기업유형별 대출잔액은 사회적기업 10,016억 원(79.4%), 협동조합 2,250억 원(17.8%), 마을기업 295억 원(2.3%), 자활기업 51억 원(0.4%)

〈표 2-4〉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20년 12월말			2021년 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5,767	8,810	(78.6)	5,713	10,016	(79.4)	1,206	(13.7)
협동조합	1,460	2,138	(19.1)	1,347	2,250	(17.8)	112	(5.2)
마을기업	307	209	(1.9)	326	295	(2.3)	86	(41.1)
자활기업	140	57	(0.5)	118	51	(0.4)	▲6	(▲10.5)
소계	7,674	11,213	(100)	7,504	12,612	(100)	1,399	(12.5)

자료 :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21. 12.16)

- 은행별로는 기업(3,505억 원, 27.8%), 신한(2,560억 원, 20.3%), 농협(1,582억 원, 12.5%)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7,647억 원, 60.6%)을 차지하고, 지방은행은 대구(333억 원, 2.6%), 경남(300억 원, 2.4%), 부산(223억 원, 1.8%) 순
- 대출외 지원은 제품구매가 34.4억 원(46.0%), 기부·후원이 15.7억 원(2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 은행권의 대출외 지원 현황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20년 상반기 중			2020년 하반기 중			2021년 1~3분기 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지원 유형별	출자	-	-	-	2	9.0	(5.6)	1	20.0	(26.7)
	기부·후원	63	26.7	(58.1)	94	129.2	(80.6)	93	15.7	(20.9)
	제품구매	652	16.5	(35.9)	3,612	17.9	(11.2)	3,135	34.4	(46.0)
	기 타	138	2.7	(6.0)	199	4.3	(2.7)	151	4.7	(6.3)
	소 계	853	45.9	(100)	3,907	160.4	(100)	3,380	74.8	(100)

자료 :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21. 12.16)

- 은행권의 전체 실적을 정리하면, 산업(26.0억 원, 34.8%), 기업(20.6억 원, 27.5%), 우리(5.3억 원, 7.0%), 지방은행은 대구(5.0억 원, 6.6%), 부산(3.0억 원, 4.0%), 경남(0.5억 원, 0.7%) 순

〈표 2-6〉 은행권의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은행명	유형별 지원실적주 ¹⁾					
	대출주 ²⁾		대출 외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주 ³⁾
국 민	106,242	248.0	-	200.0	48.0	-
우 리	123,452	525.0	-	480.0	45.0	-
신 한	255,995	326.4	-	77.0	125.0	124.4
하 나	105,460	207.5	-	10.0	197.5	-
S C	4,435	217.0	-	-	19.0	198.0
씨 티	1,221	7.0	-	-	7.0	-
기 업	350,475	2,057.7	-	16.7	2,041.0	-
농 협	158,233	382.0	-	21.0	361.0	-
수 협	34,484	0.3	-	0.3	-	-
부 산	22,292	299.0	-	-	299.0	-
대 구	33,255	496.0	-	446.0	-	50.0
경 남	30,022	53.0	-	3.0	50.0	-
광 주	17,840	3.0	-	-	3.0	-
전 북	6,115	47.0	-	3.0	44.0	-
제 주	2,070	11.0	-	-	11.0	-
산 업	9,590	2,602.0	2,000.0	310.0	192.0	100.0
합 계	1,261,181	7,481.9	2,000.0	1,567.0	3,442.5	472.4

주1) 대출은 '21년 9월말 잔액 기준, 그 이외의 유형은 '21년 1~3분기 중 신규공급(취급) 기준

주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주3)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자료 :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21.12.16)

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

- 중앙정부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9년 1월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으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식 출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발표 이후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 및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사회적경제협의체,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금 설립 방안 협의
 - 2019년부터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투자협력 협약, 소셜임팩트 투자 개시를 통해 임팩트 투자 조합 및 펀드 투자,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공동대출 및 투·융자 개시, 사회적경제 자조 금융 모델 개발 시범사업 지원 수행
 - 2021년부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매칭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주요 기관
- (주요 사업)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공급 및 지원(80.9%), 사회목적 프로젝트(19.0%),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투·융자(0.1%)로 구성(2023년 기준)
 - 2023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및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37개 기금 투·융자 포트폴리오 구성
 - (투·융자 공급실적) 2023년 누적 투·융자 약정액은 약 179억이며 프로그램 약정건수는 37건으로 2022년 말 대비 12.1% 증가
 - (투·융자 지원실적) 2023년 기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융자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은 총 20개이며, 직접 또는 간접 투·융자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280개로 2022년 257개 대비 8.9% 증가

〈표 2-7〉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 투자 포트폴리오(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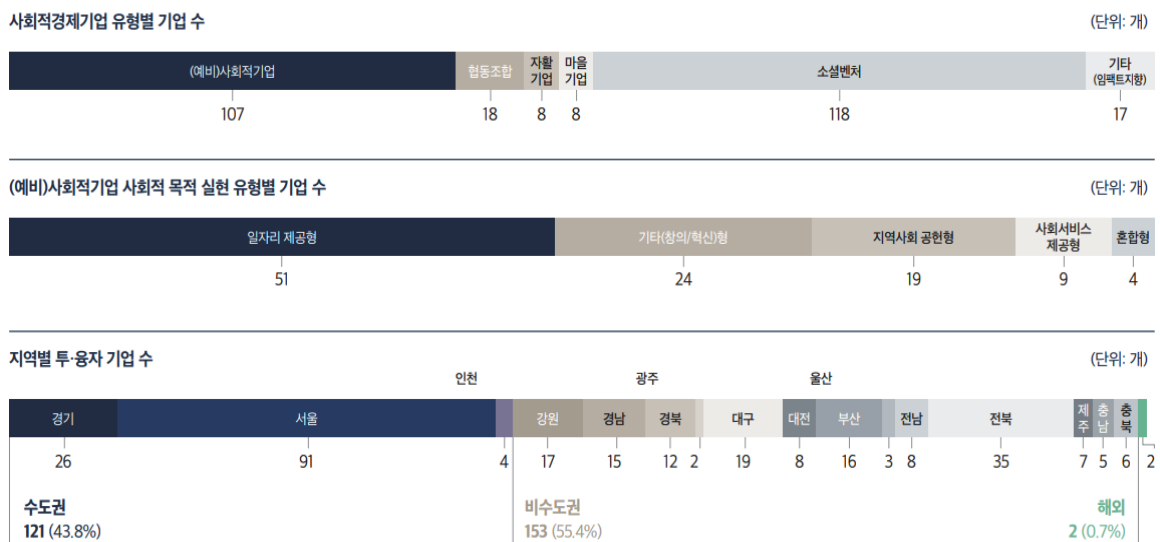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투·융자 약정액	SVS 임팩트 영역							
		사회 주택· 지역 자산화	교육· 보육	도시 재생· 문화 예술	건강· 고령화 케어· 장애인 복지	환경· 에너지· 농어업	사회 혁신 기술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금융접 근성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D3임팩트벤처투자조합 2호 출자	2,000		●	●	●	●	●		●
엑스트라마일 임팩트2호 투자조합 출자	378		●		●	●	●	●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6호 투자조합 출자	100		●		●	●	●	●	
소셜벤처피크닉 투자조합 1호 출자	191		●		●	●	●		
아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출자	2,500	●	●	●	●	●	●		
블루포인트 사회혁신기술 창업벤처전문PEF 1호 출자	2,440		●		●	●	●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펀드 출자	900	●	●	●	●	●		●	
티비티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	430				●	●	●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출자	200		●	●	●	●		●	
강원 피크닉투자조합 출자	100		●	●	●	●	●	●	
씨씨브이씨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출자	300	●		●				●	●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125			●	●	●		●	●
밴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500	●		●	●	●		●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200				●			●	●
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250			●	●	●		●	●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매칭대출(1차)	60			●	●	●		●	●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매칭대출(2차)	85			●	●	●		●	●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매칭대출(3차)	83			●	●	●		●	●
경북 청년애꿈 ESG벤처투자조합 출자	100			●		●		●	●
경기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자조기금 매칭대출	100							●	●
대구사회가치금융 자조기금 매칭대출	200							●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자조기금 매칭대출	150							●	●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매칭대출	100							●	●
사회목적프로젝트 투·융자									
서울시 청년실업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SIB)투자	1,100		●					●	
부여군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투자	100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자(지역자산화)	90	●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자(지역자산화)	44	●			●			●	
지역자산화 크라우드펀딩 매칭대출(2건)	127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봉제인공제회 대출	500							●	●
플랫폼운전자지부 대출	30							●	●
서울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사업 대출	100	●							●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기금 매칭대출	200	●							●
4.16재단 사회주택 건설자금 재대출	500	●			●				●
중소기업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투·융자	490					●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매칭대출	131					●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설립출자	10								●

자료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년 연차보고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p.28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2023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함께 직간접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276개 사회적경제기업(사회목적 프로젝트 관련 기업 제외)에 약 955.8억 원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은 소셜벤처 42.8%, (예비)사회적기업 38.8%, 협동조합 6.5%, 자활 및 마을 기업 5.8%로 구성
-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이 47.7%로 가장 높으며,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비중이 22.4% 차지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53개(55.4%), 수도권 121개(43.8%)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전북(35개), 대구(19개), 강원(17개), 부산(16개), 경남(15개) 순으로 높게 집계



〈그림 2-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2023년)

자료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3년 연차보고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p.37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금융 동향¹⁾

1) 지자체 사회적경제자금 조성 현황

- (기금설치 근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표 2-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자금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자금 조례 설치 현황) 지자체는 광역 6곳, 기초 10곳이 조례 설치

- (광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기초) 서울 성동·성북·은평·강동, 경기 화성·성남, 충남 논산, 전북 전주·완주·군산
 - 전북 군산시는 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이후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음(김효선 외, 2023)

〈표 2-9〉 사회적경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지역명	근거
광역(6개)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남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10개)	서울 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제27조(사회투자기금)
	서울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서울 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제23조(사회적투자기금)
	경기 성남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경기 화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 전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 내지 제 39조
	전북 논산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장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전북 완주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장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전북 군산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6장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자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17

1) 김효선 외, 2023; 장지연 외, 2023 등을 기반으로 작성

■ (기금조성현황)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제정(광역시 6곳, 기초 10곳)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이 실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8곳 운용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성동, 성북, 은평, 강동, 경기도 화성, 성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주
- 경기 성남시가 2010년 최초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어 2011년 전북 완주, 2012년 서울특별시가 기금을 조성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확산

〈표 2-10〉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	번호	지역	기금 명칭	설치년도	조성액 (지자체 전입금 누계액, 2023년 기준)	2023년 예산
광역	1	서울	사회투자기금	2012	90,700	5,470
	2	경기	사회적경제기금	2016	29,650	9,998
	3	세종	사회투자기금	2018	1,000	-
	4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2019	1,680	812
	5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2020	1,500	527
	6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2020	3,420	330
기초	7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2,075	63
	8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1,050	(자료부재)
	9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0,800	5,627
	10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1,750	600
	11	서울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958	491
	12	서울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3,650	900
	13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300	100
	14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2,000	300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0

■ (설치근거) 광역지자체 6곳 모두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 지자체 6곳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조성하고 서울 성동과 경기 화성은 별도 기금조례 제정

-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 대부분 지역의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일자리, 기업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

〈표 2-11〉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 및 소관부서

구분	번호	지역	설치목적	소관부서
광역	1	서울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마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	경기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활동, 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
	3	세종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4	충남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5	전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지원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6	경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발전 및 경영안정 지원	경제기업국 사회적경제과
기초	7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 육성 발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8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경제산업국 경제식품과
	9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기획조정실 사회적경제과
	10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11	서울 성북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도모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
	12	서울 은평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13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14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지원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1

■ (기금 규모)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전입금 누적 금액은 2023년 기준 전체 2,015억 원으로 집계

-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입금 누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시로 약 900억 원이며 이어 경기 화성이 약 608억 원으로 집계
- 대부분의 2023년 기준 지자체 전입금 누계액은 약 15억 원에서 약 36억 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적은 누계액은 서울강동의 약 3억 원 규모로 조성

〈표 2-12〉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규모 : 전입금누계액(2015년~2023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번호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광역	1	서울	50,000	2,600	2,600	2,600	15,600	8,800	8,500	-	-	90,700
	2	경기			2,000	8,000	4,000	11,000	4,650	-	-	
	3	세종					1,000	-	-	-	-	
	4	충남						444	560	580	-	1,680
	5	전북							500	500	500	1,500
	6	경남							3,000	420	-	3,420
기초	7	경기 성남	2,000	75	-	-	-	-	-	-	-	2,075
	8	전북 완주	1,050	-	-	-	-	-	-	-	-	1,050
	9	경기 화성	60,800	-	-	-	-	-	-	-	-	60,800
	10	서울 성동	-	-	200	-	250	300	300	300	400	1,750
	11	서울 성북	285	197	201	275	200	200	200	200	200	1,958
	12	서울 은평		3,000	325	325	-	-	-	-	-	3,650
	13	서울 강동			200	-	100	-	-	-	-	300
	14	전북 전주					400	400	400	400	400	2,000
소계			114,135	5,872	5,526	11,200	21,550	21,144	18,110	2,400	1,500	201,533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2

■ (기금사용 현황) 사회적경제 기금의 지출금누계액(2023년)은 총 2,880억 원으로 집계

- 연도별 지출예산은 2019년 약 49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21년 약 363억, 2022년 283억, 2023년 약 252억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
- 2023년 기준 기금지출 규모는 경기도 약 99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화성 약 56억 원, 서울 약 54억 원 순으로 집계

〈표 2-13〉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사용현황 : 지출금누계액(2015년~2023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번호	지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광역	1	서울	66,205	21,754	9,984	13,340	17,670	26,710	19,280	13,040	5,470	193,453
	2	경기				776	9,710	14,750	4,650	4,950	9,998	44,834
	3	세종					760	170	-	-	-	930
	4	충남						4	83	521	812	1,420
	5	전북							495	505	527	1,527
	6	경남							2,410	420	330	3,160
기초	7	경기 성남	-	41	-	-	-	-	300	100	63	504
	8	전북 완주	5	-	18	-	10	25	50	20	(자료 없음)	128
	9	경기 화성	-	726	1,011	2,015	2,573	6,594	6,498	6,186	5,627	31,230
	10	서울 성동	-	-	100	100	200	350	300	306	600	1,956
	11	서울 성북	-	185	290	403	192	479	483	482	491	3,005
	12	서울 은평			108	103	183	300	900	900	900	3,394
	13	서울 강동			-	60	30	120	100	100	100	510
	14	전북 전주					-	-	800	800	300	1,900
소계			66,210	22,706	11,511	16,797	31,328	49,502	36,349	28,330	25,218	287,951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3

■ (기금사업 유형) 사회적경제기금의 사업은 기금 투·융자, 금융기관 이용지원, 역량 개발, 기타 등으로 구분 가능(장지연 외, 2023)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투자 및 융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므로, 주요 사업은 융자 중심이고 그 외의 사업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구성
- 지역별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경제의 현황에 따라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
 - (서울 성북 사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지원 과정의 전체 단계 주체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시행
 - (경기 화성 사례) 기금 규모가 큰 지역으로, 보유자금 운용으로 얻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표 2-14〉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사업 유형

사업구분	세부사업	내용	해당 지자체
기금 투·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일반)융자	·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저리 융자 · 5천~3억 원 한도, 이자 2~3%, 기간 3~6년 ※ 금융기관 협조융자는 담보대출 시행(최대 5억 원, 15년 이내)	대부분 지자체 시행
	우수기업 융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성장 지원 융자 · 일반 융자에 추가 한도 제공 · 3~5억 원 한도, 기간 5~10년	서울, 경기
	특화분야 융자	· 소셜하우징 융자(사회주택 건설자금) · 10억 한도, 이자 3% 이내, 기간 15년	서울
	지역 자산화 융자	· 사회적경제 지역 자산화 프로젝트 융자 · 6억~10억 한도, 이자 1.5~2.0%, 기간 10~15년	서울, 경기
	불안정고용 노동자 등 종사자 융자	· 불안정고용 노동자 생활자금 융자(5백~1천만 원, 3% 이내, 3년) · 사회적경제 종사자 대상 융자	서울, 경기 화성
	자조기금 운영기관 융자	· 민간 자조기금 운영기관 매칭 융자(3억 원 이내, 무이자, 기간 7년) · 대출금리 4% 이내	경기
	소셜벤처 투자	· 소셜임팩트펀드 투자(모태펀드 출자) · 약 1~2억 원 규모	서울
금융기관 이용 지원	이자지원	· 시중은행, 상호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저리 대출(금융기관 이차 보전) ·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부담 지원(기업별 이차 지원)	서울, 경기, 세종, 충남, 전북
	보증제공	·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협약 통해 보증부저리 대출(보증료 지원, 이차보전)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상호금융기관 협약(보증부 저리 대출)	경기, 세종, 경기 성남
역량 개발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가치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청년 소셜벤처 사업개발비 지원	경기 화성, 서울 성북
	교육·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교육	경남
기타	인프라운영	· 소셜벤처허브 운영 ·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서울, 경기 화성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p.15~16

- (사업별 지출규모) 전체 지출 예산 중 금융성 사업에는 약 2,600억 원, 비금융성 사업에는 약 279억 원이 편성되어 전체에서 금융성 사업이 약 90.3%를 차지
 - (금융성 사업)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세종과 서울 강동 100.0%, 서울 은평 99.2%, 전북 전주 97.9%, 서울 93.4% 순으로 집계
 - (비금융성 사업)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충남, 경기 성남, 전북 완주 100.0%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금융성 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표 2-15〉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지출 사업 구성

(단위 : 백만 원)

구분	번호	지역	지출예산 전체	금융성 사업	비금융성 사업	비금융성 예산비율(%)	전입액 누계
광역	1	서울	193,453	180,663	12,790	6.6	90,700
	2	경기	44,834	36,933	7,901	17.6	29,650
	3	세종	930	930	-	0.0	1,000
	4	충남	1,420	-	1,420	100.0	1,680
	5	전북	1,527	1,328	199	13.0	1,500
	6	경남	3,160	2,250	910	28.8	3,420
기초	7	경기 성남	504	-	504	100.0	2,075
	8	전북 완주	128	-	128	100.0	1,050
	9	경기 화성	31,229	27,860	3,370	10.8	60,800
	10	서울 성동	1,956	1,750	206	10.5	1,750
	11	서울 성북	3,005	2,584	421	14.0	1,958
	12	서울 은평	3,394	3,366	28	0.8	3,650
	13	서울 강동	510	510	-	0.0	300
	14	전북 전주	1,900	1,860	40	2.1	2,000
소계			287,950	260,034	27,917	9.7	201,533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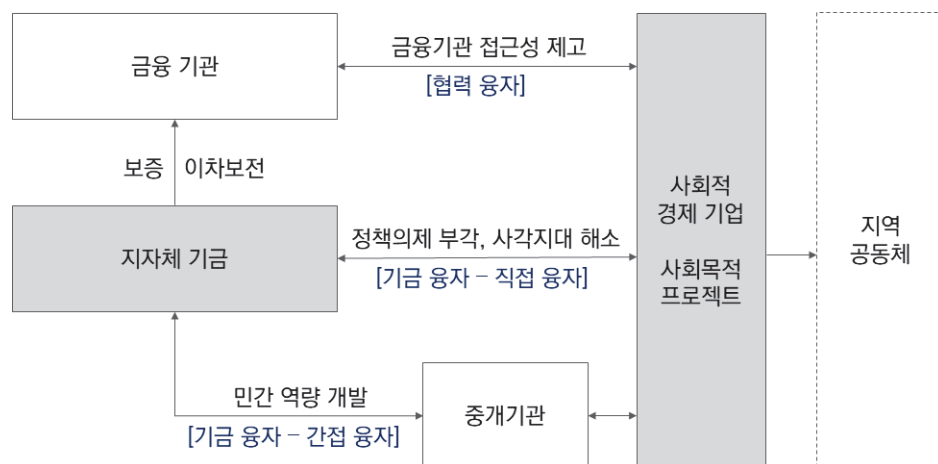
■ (융자사업 운영구조) 지자체 기금의 융자사업 운영 구조에 따라 지자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융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융자를 지원하는 ‘협력 융자’로 구분(장지연 외, 2023)

- ‘기금융자’는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와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의제를 부각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발생
- ‘협력융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 가능
- 지역별로 사회적경제기금의 채택 사업 유형이 모두 상이하며, 융자사업 운영 유형에 따라 예산 항목을 다양하게 구성

〈표 2-16〉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운영 유형

구분	내용	목적 및 사례
기금융자	· 지자체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융자	-
직접융자	·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대출 시행 · 민간 지원기관에 심사·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 아웃 소싱	· (목적) 자금공급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제 부각 · (사례) 서울 성북, 서울 은평, 서울 강동, 경기 화성
간접융자	· 지자체가 민간 중개기관을 통해 융자 시행 · 사회적경제 지원 및 자금관리 역량을 갖춘 조직에 재용자 방식으로 자금 공급	· (목적) 사회적 경제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 · (사례) 서울, 전북, 경남, 경기, 서울 성동, 전북 전주, 경기 화성
협력융자	· 재원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 유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 촉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지원 및 융자사업 이차 보전 등으로 금융기관 참여 동인 제공	· (목적)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 (사례) 경기, 충남, 세종, 경기 성남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8



〈그림 2-4〉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유형별 구조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7

■ (지자체별 기금사업 채택 사업 유형) 지자체별로 자금공급, 접근성 제고, 역량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의 사업 유형을 다양하게 운영 중

- 각 용자사업 유형에 따라 예산의 비용 구성요소는 용자재원, 운용수수료, 손실부담 등의 지출 발생
- 기금 운용에 있어서 용자실행 비용과 손실 부담액이 이자수입에서 확보되어야 하나, 낮은 이자율로 용자가 지원되는 구조적 한계와 작은 기금 규모로 인하여 해당 비용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장지연 외, 2023)

〈표 2-17〉 용자사업 운영 유형별 예산사용 방식

구분	기금용자-직접	기금용자-간접	협력용자
용자재원	• 기업용자	• 중개기관 용자	-
운용 수수료	• 심의위원회 운영비 • 평가 대행 수수료 • 상환관리 용역비	• 중개기관 운영비 지원(서울, 전북)	• 금융기관 이차 보전(경기, 충남 등)
손실부담	• 대손상각	• 중개기관 손실 공동 부담(전북)	• 보증재원 출연(성남) • 금융기관 손실 공동 부담(충남)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20

- (자금공급 : 간접용자)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서울), 자조기금 운영기관 용자 및 타 기관 통한 기금 운용 허용(경기), 중개기관 운영비 지원(전북), 용자기업 이자지원(경남), 수행기관 이차보전(서울 성동)
- (접근성 제고 :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 협력(경기), 신용보증기 및 하나은행 협력(세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지역 내 상호금융기관 협약(경기 성남)
- (역량개발 : 재정지원) 사회가치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및 사회적경제 공모사업(경기 화성), 청년 소셜벤처 사업개발비 지원(서울 성북)
- (역량개발 : 교육컨설팅) 사회적금융 교육(경남)
- (기타) 소셜벤처허브 운영(서울),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전북 완주), 사회적경제 홍보관운영(경기 화성)

〈표 2-18〉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채택 사업 유형

구분	번호	지역	자금공급			접근성 제고		역량 개발		기타
			직접용자	간접용자	간접투자	이차지원	보증지원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광역	1	서울	-	◎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	○	-	-	-	○ (소셜 벤처허브 운영)
	2	경기	-	○ (자조기금 운영 기관 용자, 타 기관 통한 기금운용 허용)	-	○	○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협력)	-	-	-
	3	세종	-	-	-	○	○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협력)	-	-	-
	4	충남	-	-	-	○	-	-	-	-
	5	전북	-	◎ (중개기관 운영비 지원)	-	○	-	-	-	-
	6	경남	-	◎ (용자기업 이차지원)	-	-	-	-	○ (사회적금융 교육)	-
기초	7	경기 성남	-	-	-	○	-	-	-	-
	8	전북 완주	-	-	-	-	-	-	-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9	경기 화성	-	○	-	○	-	○ (사회가치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	○ (사회적 경제 홍보관 운영)
	10	서울 성동	-	◎ (수행기관 이차보전)	-	-	-	-	-	-
	11	서울 성북	-	-	-	-	-	○ (청년 소셜벤처 사업개발비 지원)	-	-
	12	서울 은평	-	-	-	-	-	-	-	-
	13	서울 강동	-	-	-	-	-	-	-	-
	14	전북 전주	-	○	-	-	-	-	-	-

* 주 : ◎가 표시된 지역은 이차 지원, 운영비 지원 등 용자 자원 공급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19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2) 서울특별시

■ (기금 설치 목적)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조례 제1조)

-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계획」(2016)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장기비전을 “단순 자금지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관계금융, 인내자본 역할 수행”으로 제시
- (관계금융) 금융기관과 기업이 장기 신뢰 관계를 통하여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 (인내자본) 초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성과가 나기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하는 투자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사회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규정(조례 제4조)

- ①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②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③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④장애인기업, 여성기업, ⑤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출, ⑥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⑦수행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⑧「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 ⑨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에는 사회투자기금 용도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용자로 구체화하여 제시

〈표 2-19〉 서울시 기금운용계획 상 기금사업의 목표 및 개요

연도	기금목표	기금사업 개요
2013	•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 경쟁 기반이 취약한 서민기업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 우선 지원
2014	• 사회투자사업 확대 및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	• 민간기금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중간지원 기관 협력사업 및 사회적 프로젝트사업 적극 추진
2015~2017	• 서울의 사회적가치 확산 및 사회적기업 지원	• 경쟁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투자 사업에 지원
2018	• 시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달 및 사회적 투자사업 등 지원
2019~2021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사회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용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용자 지원 및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연계 지원
2022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고용취약노동자 등에 대한 투·용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용자 지원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0

- (기금의 조성 및 집행)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2013년 말 기준 약 379억 원이며, 점차 규모가 2018년 약 88억 원까지 축소하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1년 약 272억 원 조성

〈표 2-20〉 서울특별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3년~2021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 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3	20	37,954	50,336	12,381	37,974
2014	37,974	△5,216	3,543	8,760	32,757
2015	32,757	△9,901	5,701	15,602	22,856
2016	22,856	△12,930	8,823	21,754	9,925
2017	9,925	2,595	12,691	10,096	12,520
2018	12,520	△3,639	9,725	13,364	8,881
2019	8,881	4,335	22,006	17,670	13,216
2020	13,216	2,525	26,393	23,868	15,741
2021	15,741	11,464	29,028	17,564	27,206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1

- 사회투자기금 집행은 대부분 용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일부에 한하여 투자로 사용하며 출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약 10억 원 규모로 집계

〈표 2-2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집행액(2013년~2021년)

(단위 : 천원)

연도	용자금	출자금	기금관리비	예치금	총계
2013	10,900,000	0	1,173,972	37,974,464	50,356,054
2014	7,487,500	0	1,252,717	32,757,752	41,517,769
2015	14,612,000	0	860,000	22,856,741	38,459,679
2016	20,664,000	0	876,735	9,925,979	31,680,314
2017	9,883,750	0	112,852	10,031,075	20,127,815
2018	13,066,250	150,000	24,333	7,526,254	20,890,838
2019	16,350,000	1,050,000	35,273	11,978,289	29,648,975
2020	22,020,000	1,000,000	98,081	15,741,958	39,610,635
2021	16,000,000	600,000	7,070	27,206,019	44,770,218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3

■ (기금사업) 융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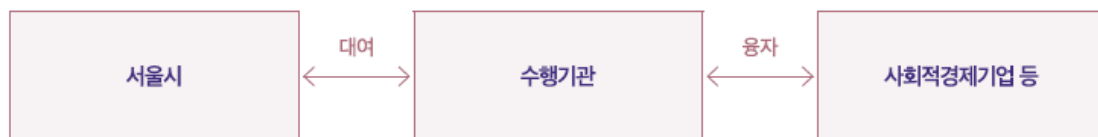
- (융자사업)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에 대한 융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사업 추진

〈표 2-2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주요 융자사업(2018년~2021년)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융자	○	○	○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	○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지원 융자			○	○
코로나19 특별융자			○	
코로나19 기존융자기업 특별만기연장				
코로나19 기존융자기업 대환융자			○	
코로나19 일반융자시 이차보전 지원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5

-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서울시는 기금설치 시작부터 2016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어 민간위탁이 금지되면서 2017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직영으로 운용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업무만 직접 운영하고 융자사업 운영 및 관리업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수행기관이 수행
 - 수행기관은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 자부담금을 매칭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융자 및 상환관리 후 서울시로 사회투자기금을 상환하는 역할 수행



〈그림 2-5〉 서울특별시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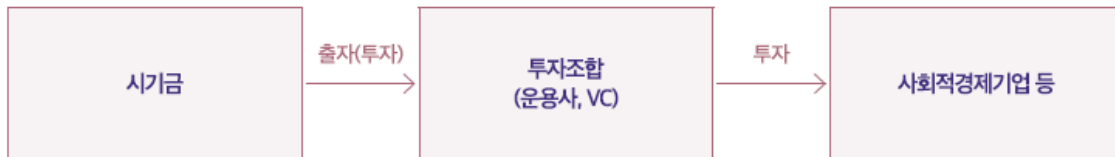
- (출자사업) 출자사업은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
 - 서울시는 다담인베스트먼트를 제1호 투자조합, 비하이인베스트먼트를 제2호와 제3호 투자조합의 각 운용사로 선정

〈표 2-23〉 서울특별시 임팩트 펀드 조성 현황

항목	1호 임팩트 투자조합	2호 임팩트 투자조합	3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11월
존속기간	8년	8년	8년
조성금액	145억 원 ·서울시 10억 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00억 원 ·대전시 10억 원 등	150억 원 ·서울시 10억 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05억 원 ·우리은행 20억 원 등	300억 원 ·서울시 10억 원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20억 원 ·군인공제회 100억 원 등
시출자액 (조성금액 중 시 출자액 비율)	10억 원(6.9%)	10억 원(6.7%)	10억 원(3.3%)
출자자수	7개	5개	6개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8

- 서울시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그 외 기관이 공동출자하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자금을 운용하며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집행



〈그림 2-6〉 서울특별시 출자사업 집행 절차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8

- (지원실적) 2021년 기준 99개 기업, 144명에 지원된 금액은 약 169억 원 수준이며, 80% 이상은 시 기금, 나머지는 수행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
- 2022년에는 기존 수행기관들이 재정부담을 사유로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용자 실적 부재

〈표 2-24〉 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금 사용현황 : 지출금누계액(2015년~2023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합계	135,619	9,348	15,954	21,331	16,865	13,942	17,519	23,713	16,947
	시기금	111,248	7,488	14,612	20,664	12,350	9,916	12,369	19,761	14,088
	민간기금	24,371	1,860	1,342	667	4,515	4,026	5,150	3,952	2,859
건수	기업(건)	992	44	81	65	168	168	111	256	99
	개인(명)	482	-	-	-	-	-	-	338	144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9

■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서울특별시장 소속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소관부서는 공정경제담당관

- 2022년 8월 이전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소관부서였으나, 2022년 8월 이후에는 사회적경제담당관과 공정경제담당관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소관부서 결정

3) 경기도

■ (기금 설치 목적)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조례 제1조)

-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금설치를 통해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함을 언급(김효선 외, 2023)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조례 제4조 제2항)

- ①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②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 설립 또는 운영지원, ③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④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표 2-25〉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상 기금사업의 목표 및 개요

연도	기금목표	기금사업 개요
2017	•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및 자립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2018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육성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매입비용자 지원사업
2019		• 부동산 자산화 융자지원사업 •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영
2020		• 부동산 자산화(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사업 •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영
2021		•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민간자조기금 육성 • 사회가치벤처펀드 협조융자 등 이차보전
2022		•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융자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0

- (기금의 조성 및 집행)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2017년 기준 약 2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약 92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2020년 약 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약 52억 원으로 집계

〈표 2-26〉 경기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7년~2021년)

(단위 :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 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7	-	2,005,778,080	2,005,778,080	-	2,005,778,080
2018	2,005,778,080	7,268,484,804	8,044,484,804	776,000,000	9,274,262,884
2019	9,274,262,884	△5,524,065,892	4,185,578,948	9,709,644,840	3,750,196,992
2020	3,750,196,992	△3,009,459,987	11,670,196,553	14,679,656,540	740,737,005
2021	740,737,005	4,504,283,587	4,830,516,437	326,232,850	5,245,020,592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22

- 사회투자기금 집행(지출)액에서 융자성 사업비는 2018년 약 7억 원을 지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 약 145억 원까지 확대되었고, 비용자성 사업비는 이차보전금으로 2020년 약 1억 2천만 원, 2021년 약 3억 2천만 원 집행

〈표 2-27〉 경기도 기금운용명세(2017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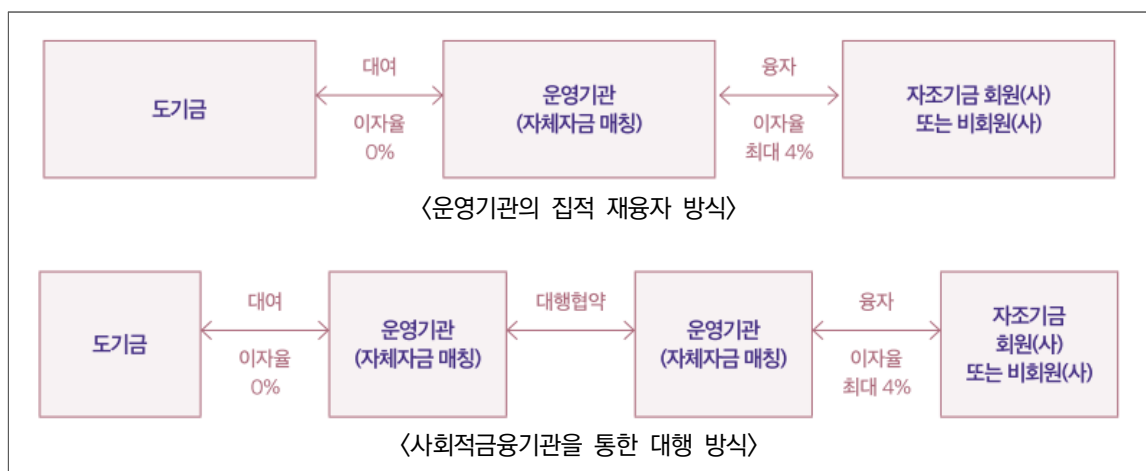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계	2,005,778,080	10,050,262,884	13,459,841,832	15,420,393,545	5,571,253,442
	전입금	2,000,000	8,000,000	4,000,000,000	11,000,000,000	4,6650,000,000
	융자금 회수	-	1,363,424	15,289,068	653,044,513	173,737,257
	예치금 회수	-	2,005,778,080	9,274,262,884	3,750,196,992	740,737,005
	이자수입	5,778,080	43,121,380	170,289,880	17,152,040	6,779,180
지출	계	2,005,778,080	10,050,262,884	13,459,841,832	15,420,393,545	5,571,253,442
	비용자성 사업비	-	-	2,644,840	129,656,540	326,232,850
	융자성 사업비	-	776,000,000	9,707,000,000	14,550,000,000	-
	예치금	2,005,778,080	9,274,262,894	3,750,196,883	740,737,005	5,245,020,592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42

■ (기금사업) 융자사업에 있어서 융자 자원, 수행기관, 지원내용이 다양하며,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 사업 운영·관리하며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이차보전 지원

- (융자사업) 2018년 부동산자산화 사업을 운영(2020년 중단)하였으며,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사업 시행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에 따르면, 2019년 “특별융자”사업은 융자규모 약 40억 원, 융자 한도 기업당 최대 2억 원, 신용대출 연 3% 이내 금리, 담보대출 연 2.5% 이내, 융자기간 3년에서 최장 10년이며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른 이차보전 제공 조건
 -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 특별융자사업은 사업예산 총 15억이며, 운영기관의 자체기금과 도 기금을 매칭하여 개소당 3억 원 이내에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7년 조건으로, 운영기관은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대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사회적 경제조직 형태의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융자
 - 2022년 11월, 경기도는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으로 사단법인 경기자활기업협회, 재단법인 느티나무재단 선정
-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경기도는 도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융자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 특별융자 중 기금융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동일하게 수행기관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는 구조이며, 특별융자사업 운영 수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선정
 - 융자사업을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경기도가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 이하 융자하는 방식으로 실행



〈그림 2-7〉 경기도 직접 재융자(상) 및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대행 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45

- 현재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지역신탁 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는 ‘협조융자’사업과 신한은행 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융자사업’을 시행
-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한 이차보전) 특별융자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적으로 지원

- 사회적가치평가표는 사명의 구체성(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의 구체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주된 사업 활동에서 지향하는 가치), 평가 체계(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윤의 배분(이윤의 처분 방법), 집합적 소유구조(자본금의 구성), 경제적 가치(재무 현황 수준) 등의 3개 항목 35점 만점으로 평가

■ (지원실적)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용자사업에 따른 총 지원건수는 365건, 총 용자금액은 약 330억 원 규모로 집계

- 경기도 전체 365건, 용자금액은 약 330억 원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294건, 약 280억 원, 경기 북부 71건 약 57억 원의 용자금액 지원

〈표 2-28〉 경기도 시·군별 용자현황(2021.12.31. 기준)

(단위 : 천 원)

구분	남부		북부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사회가치 벤처펀드	252	18,540,700	64	4,215,000	316	22,755,700
금융기관 협업용자	32	3,535,000	6	1,150,000	38	4,685,000
부동산 자산화용자	10	6,072,000	1	411,000	11	6,483,000
합계	294	28,147,700	71	5,776,000	365	33,923,700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29

■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 수행

- 경제부지사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가 조례 및 기금 운영의 소관부서로 주관

4) 전라북도

■ (기금 설치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조례 제1조)

- (필요성)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사보고서에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 요구됨을 명시(김효선 외, 2023)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설립 또는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 보전 등의 용도 지원(조례 제5조제1항)

- ①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설립 또는 운영지원, ②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융자 손실

액 보전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③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④사회적 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⑤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자금용자의 이차차액 보전, ⑥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2021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에서는 비용자성 사업비 5,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4,50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을 명시

■ (기금의 조성 및 집행) 2021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여 총 50억 원을 조성 계획으로 설정 하였으나, 실제 조성액은 계획 대비 50% 수준인 약 5억 원 수준으로 집계

〈표 2-29〉 전라북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21	-	5,181,580	500,181,580	495,000,000	5,181,580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31

- 기금 결산서에 따라 2021년 융자사업에 융자금 4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비용자성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5천만 원 집행

〈표 2-30〉 전라북도 기금운용명세(2021년)

(단위 : 원)

항목		2021
수입	계	500,181,580
	전입금	500,000,000
	융자금 회수	-
	예치금 회수	-
	이자수입	181,580
지출	계	500,181,500
	비용자성 사업비	50,000,000
	융자성 사업비	445,000,000
	예치금	5,181,580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42

■ (기금사업)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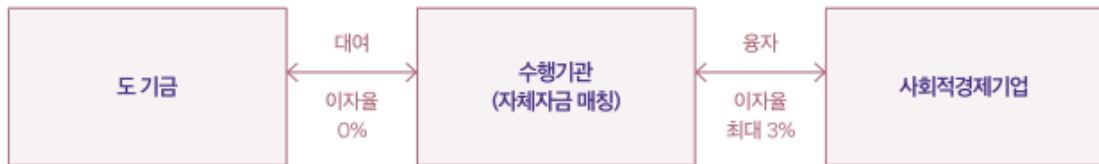
- (융자사업)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융자사업 추진, 2022년 융자 사업과 이차보전지원사업 함께 시행하나 융자사업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표 2-3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의 주요 내용(2022년)

사업명	조건	세부내용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	융자 한도	• 경영자금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융자 기간	• 최대 60개월
	상환 방식	•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 최대 3% 이내, 연체이자 5%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대상	• 현재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 대출을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내용	• 은행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최대 2% 지원기간 1년 이내 • 이차보전 금액 총 1천만 원(기업당 대출금액 최대 2억 원 이자 지원)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54

-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전북은 수행기관을 통해 융자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며, 2022년의 수행기관으로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및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법인 컨소시엄 선정
 - 수행기관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이차보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관리, 융자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 성장지원, 자조기금 조성 등 사회적금융 기반 강화 업무 수행
 - 수행기관은 도 기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자체 재원 매칭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융자 사업 관리



〈그림 2-8〉 전북특별자치도 융자사업 시행 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55

-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한 이차보전) 도 기금을 대여계약에 의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나, 전북은 융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수행기관에 전가하지 않고 공동부담을 위해 손실부담금을 별도로 적립
 - 전라북도는 신용대출로 인한 손실발생액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의 일정비율을 손실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손실부담비율은 전북과 수행기관이 5:5로 부담
-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한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차보전 사업 및 융자지원사업 모두 지원대상기업 선정단계에서 기업의 비전과 조직안정성 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평가 수행하기로 결정(SVI)
 - 2022년부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SVI(사회적가치지표) 우수(탁월) 등급의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대상 심사 선정 시, 이차보전 최대 2%, 지원기간 12개월 이내에서 차등화

〈표 2-32〉 전라북도 사회적가치평가 중 기업의 사회적가치 고려요소

항목	고려 요소
기업의 비전	설립 배경 및 동기 / 미션&비전 / 사업모델 / 사업활동의 사회적 지향 : 제품생산 및 판매 과정과 결과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사업구조에서 실현되는 과정 및 성과 등 / 사업경쟁력 / 판매홍보활동 / 지역착근성 / 중·장기적 사업계획
조직의 안정성	기업연혁 / 조직 및 실무인력 현황 / 주요 의사결정기구 / 고용현황 / 외부네트워크 / 사회환원노력 / 대표이사 사업경력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56

■ (지원실적)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은 2022년 9월 기준 총 9개 기업, 약 5억 4,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

- 융자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대상기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부분 포함

〈표 2-33〉 조직유형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실행건수(2022년 9월 기준)

구분	합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계	9	5	2	2	1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29

■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 수행

- 정무부지사 일자리경제본부 내 사회적경제과가 소관부처로,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및 기타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관한 업무 수행

5) 경상남도

■ (기금 설치 목적)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조례 제1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가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필요성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안 이유에서 밝힘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조례 제4조)

- ①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 용자, 보증지원, ②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 사업, ③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④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경상남도의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비용자성 사업비 약 3억 원, 용자성 사고추업비 약 21억 원을 지출 계획으로 수립

■ (기금의 조성 및 집행) 2021년 전입금 약 3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용자사업에 21억 원, 비용자사업인 이차보전금에 약 1억 원 집행

〈표 2-34〉 경상남도 기금운용명세(2021년)

(단위 : 원)

연도		2021
수입	계	3,003,123,690
	전입금	3,000,000,000
	용자금 회수	-
	이자수입	3,123,690
지출	계	3,003,123,690
	비용자성 사업비	108,567,570
	용자성 사업비	2,100,000,000
	예치금	794,556,120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59

■ (기금사업) 경상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금리 용자지원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용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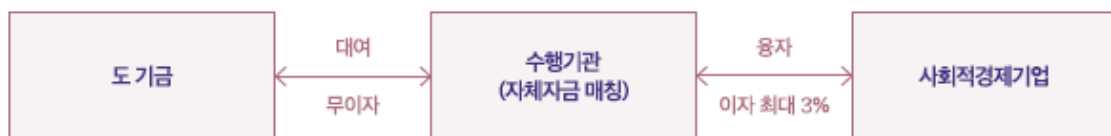
- (용자사업)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의미하며 기업 당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최대 5년, 3.0% 고정금리 등으로 용자조건 설정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표 2-35〉 경상남도 융자조건(2022년)

구분	융자조건
융자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신용대출 8천만 원 이내, 담보대출 3억 원 이내)
기간	• 최대 5년
상환방식	• 일시상환/분할상환/부분분할상환
이자	• 신용대출 : 3.0% 고정금리 • 부동산(건물, 토지 등) 담보대출 : 2.6% 고정금리 • 부동산 외(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담보대출 : 3.0% 고정금리
이자보전	• 대출금리 중 2.5%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지원 (기업 실부담 금리 : 신용 0.5%, 담보 0.1~0.5%)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59

- (수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운영·관리) 경상남도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며 수행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 운영·관리
 -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재원으로 수행기관에 자금을 무이자 대여(융자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수행기관은 자체자금을 매칭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사업 구조로 수행
 - 융자사업은 융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2021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신탁 6개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그림 2-9〉 경상남도 융자사업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0

- (이자보전)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 수행기관이 경상남도에 이차보전 신청, 이후 도의 이차보전지원을 받아 융자 실행



〈그림 2-10〉 경상남도 이차보전사업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1

■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관리사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소관부서는 경제기업국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 담당 주무관이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6) 세종특별자치시

■ (기금 설치 목적)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 설치(조례 제1조)

-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 2018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및 기금 관리·운용 경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조례 제4조)

- ①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지원, ②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기금의 조성 및 집행) 세종시는 2019년부터 3년간 총 30억 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10억 원 이후 2020년 이후에는 기금 조성 미비

〈표 2-36〉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2019년~2021년)

(단위 :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 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9	-	92,420,670	1,002,420,670	910,000,000	92,420,670
2020	92,420,670	△8,650,330	81,349,670	90,000,000	83,770,340
2021	83,770,340	182,170	182,170	-	83,952,510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2

- 2019년 기금의 약 9억 원이 융자사업으로 지출되었으며, 2020년 융자사업 집행액이 약 9억 원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며 2021년에는 예치금만 지출

〈표 2-37〉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명세(2019년~2021년)

(단위 : 원)

연도		2019	2020	2021
수입	계	1,002,420,000	173,770	83,952
	전입금	1,000,000	-	-
	용자금 회수	-	80,000	-
	예치금회수	-	92,420	83,770
	이자수입	2,420	1,349	182
지출	계	1,002,420	173,770	83,952
	비용자성 사업비	-	-	-
	용자성 사업비	910,000	90,000	-
	예치금	92,420	83,770	83,952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2

■ (기금사업) 주요 기금 사업은 용자사업이며 시 직영 용자사업 운영·관리, 수행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관리를 통해 사업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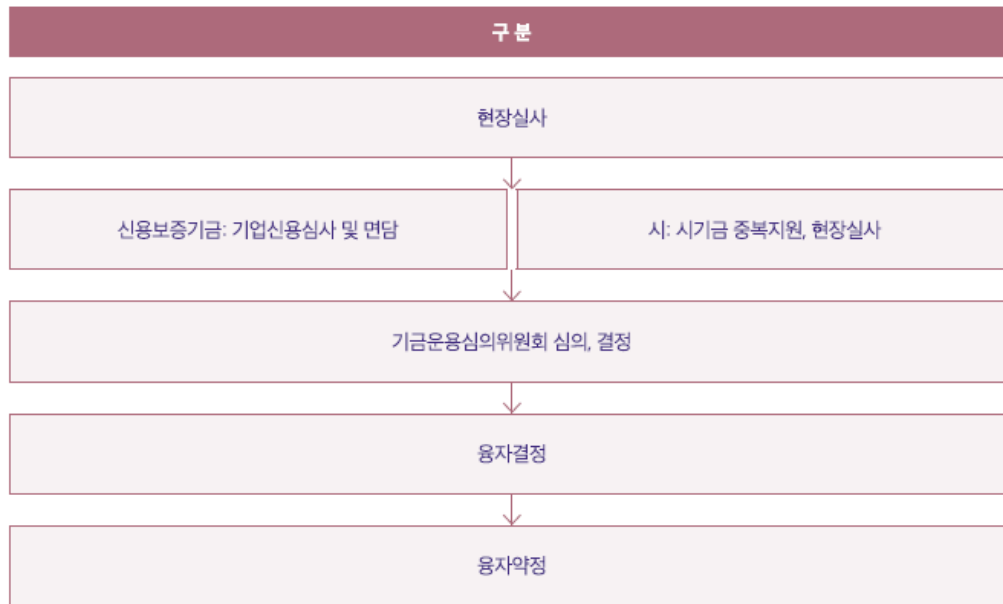
- (용자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안정과 자립·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용자사업을 추진하며, 용자 규모는 2019년 10억 원, 2020년 1억 7천만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2021년부터 용자사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금융(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이차보전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마다 3억 원 이내로 보증을 제공, 하나은행이 용자를 제공하며 연 금리 2.8%에서 하나은행이 0.8% 우대금리 제공 및 세종시 연 2.0% 이차보전

〈표 2-38〉 세종특별자치시 이차보전 조건(2021년)

구분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기간	• 3년 거치(단,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일시상환
지원범위	• 운영 및 시설자금(대환용도 사용금지)
대출금리	• 사회적경제 조직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에서 2.8% 차감
보증비율, 보증료	• 100% 보증, 보증료 0.5% 적용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3

- (시 직영 용자사업 운영·관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기금과 용자사업을 모두 직접 운용하는 것이 특징
 - 세종시는 용자대상 심의, 결정을 총괄 담당하며 기업신용심사 및 면담은 신용보증기금이 일부 수행하는 구조



〈그림 2-11〉 세종특별자치시 용자사업 수행절차 구조

자료 : 김효선 외, 2023,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법무법인 더함, p.64

- (수행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관리) 이차보전사업의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용자는 하나은행이 수행
 - 이차보전사업의 용자재원은 하나은행의 자금이며 신용보증기금이 용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종시 사회투자기금은 용자에 따른 손실 부담 없이 이차비용만 지원

■ (지원실적)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용자사업은 총 16개 기업에 대해 10억 원 규모의 용자 실행

- 세종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액이 전무

〈표 2-39〉 경기도 시·군별 용자현황(2021.12.31. 기준)

(단위 : 천 원)

구분	남부		북부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사회가치 벤처펀드	252	18,540,700	64	4,215,000	316	22,755,700
금융기관 협업용자	32	3,535,000	6	1,150,000	38	4,685,000
부동산 자산화용자	10	6,072,000	1	411,000	11	6,483,000
합계	294	28,147,700	71	5,776,000	365	33,923,700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29

-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세종시 사회투자기금의 소관부서는 세종시 참여공동체과가 담당

3. 시사점

■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후 지속적인 기금 조성 및 재원확보 방안 필요

- 현재 소수의 지역만이 사회적경제기금조례 및 기금조성사업이 수행되는 구조로, 더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마련 필요
- 지자체의 기금조성액이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발굴 시급
- 그뿐만 아니라, 기금 조례 설치 이후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뿐 아니라 설치 이후 기금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 필요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조례 설치 후 기금이 실질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지역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필요
-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자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재원조달 경로 다각화 방안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지원 이외에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금사업 내용과 방식 다양화 필요

- 지자체의 기금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융자지원 이외에도 지역 수요기반의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투자 및 지원 확장을 통해 기금 효율성 제고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영, 법률 컨설팅 등 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금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창출 극대화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제2절 유사 기금 정책 동향

1. 중소기업 대상 기금 정책 동향

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개요)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연수 및 창업지원 등의 사업영역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 구성)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융자사업, 경상사업, 자본지출사업로 구성

- (융자사업)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유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 (경상사업)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청년 구직자 취업 매칭과 재직자 연수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견인
- (자본지출사업) 중진기금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통한 벤처 캐피탈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 (융자사업)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지역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지원방식 및 신청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2024년 기준 융자사업은 4조 4,632억 원 규모이며, 이차보전은 약 4,943억 원 지원

〈표 2-4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현황(2024년)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2024년)
혁신창업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9,958억 원
신시장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174억 원
신성장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7,250억 원
재도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억 원
긴급경영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억 원
밸류체인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억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4-100호), p.2

- (지원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용도로 활용 가능

〈표 2-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현황(2024년)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자금	설비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4-100호),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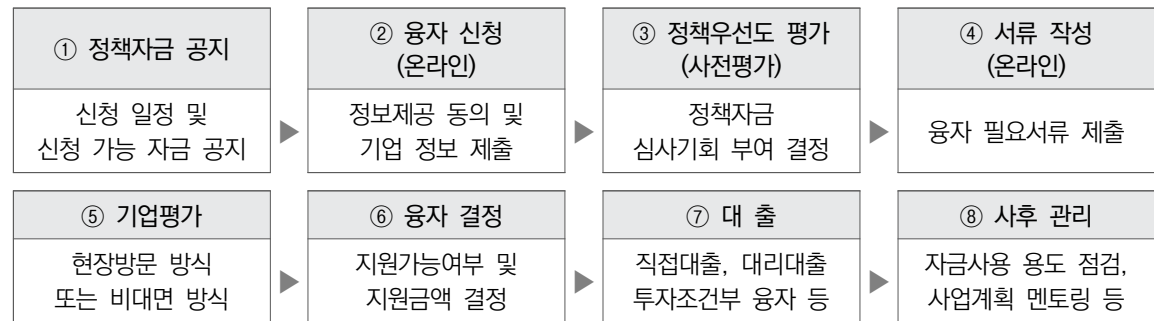
- (융자 한도) 중소벤처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 가능

〈표 2-4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별 융자계획 현황(2024년)

구분	업력	지원사업 (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 원)
시설 자금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 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 (수출10만 불 이상)	△0.3%p	10년(4)	30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	△0.3%p	10년(5)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운전 자금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융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이차보전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 스마트화	융자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최대 3%	3년(2)	5
		Net-Zero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2)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1사분기 중 별도 공고 예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 10만 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5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수출유망기업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수출 10만 불 이상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 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개선전용	일반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매출채권 팩토링		보유 매출채권 유통화 희망 기업	4% 내외	30일~90일	판매기업(10) 구매기업(30)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4-100호), pp.13~14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용자신청-평가-용자결정-대출-사후관리의 절차로 용자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조



〈그림 2-12〉 중소기업 용자사업 절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제2024-100호), p.4

2)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 (개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포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등에 대한 재정 지원(근로복지공단, 2024)

-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3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1월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조건 상이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 간 6억 원~20억 원 이내의 한도에서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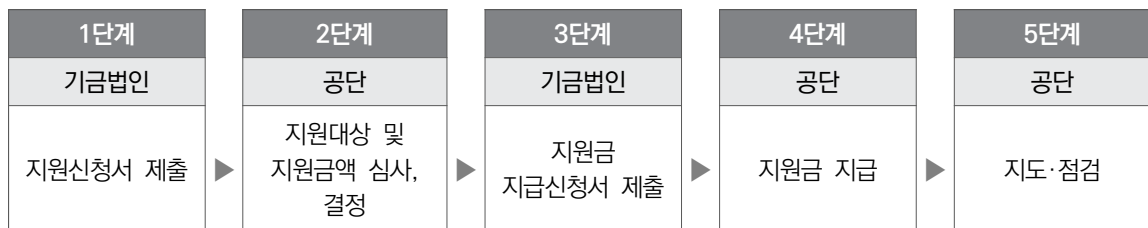
〈표 2-43〉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2024년)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 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 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 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공동기금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021년~) • (공동기금 매칭 지원을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을 차등화(2022년~) : ①지원배제 ②신청금액의 50% ③신청금액의 75% ④신청금액의 100% 이내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4, 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2024-03-14 보도자료

■ (사업절차) 총 5단계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금법인이 지원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수행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부서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서 담당



〈그림 2-13〉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절차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4, 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2024-03-14 보도자료

■ (지원실적)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2021년 196개의 근로복지기금에 약 272억 원을 지원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100개의 근로복지기금에 지원

- 2023년 전체 98개의 근로복지기금에 약 1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은 1,196개 사로 집계

〈표 2-44〉 근로복지기금 지원실적(2015년~2023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분	합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금 수	수혜 중소기업	지원금액	기금 수	수혜 중소기업	지원금액	기금 수	수혜 중소기업	지원금액
2015	16	147	210	16	147	210	-	-	-
2016	34	418	2,192	26	205	1,322	8	213	870
2017	44	561	2,888	33	408	1,963	11	153	925
2018	54	618	3,595	35	279	2,351	19	339	1,244
2019	71	660	3,832	40	416	2,399	31	244	1,433
2020	80	1,287	17,038	18	257	1,312	62	1,030	15,726
2021	196	1,296	27,228	19	181	1,053	177	1,115	26,175
2022	94	1,118	15,942	19	195	959	75	923	14,983
2023	98	1,196	19,067	12	115	795	86	1,081	18,272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4, 커지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2024-03-14 보도자료

3) 신용보증기금²⁾

■ (개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1974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며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수익성을 원칙으로 자금운용
-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공적 기관’이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기업들의 필요자금 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김정렬, 2014)
-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창업기업 지원, 기업경영지원, 신용정보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의 업무 수행

2) 김정렬, 2014 등을 기반으로 작성

〈표 2-45〉 신용보증기금 개요

구분	내용
설립연도	• 1976년 6월
설립법	• 1974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이 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
설립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 업무	• 신용보증, 부실·구상채권 관리업무, SOC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보험, 기업경영 지원 등
기금 조성(출연금)	• 정부, 금융기관(대출금의 0.25%)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보증료율	• 중소기업 : 0.7~3.0% • 대기업 : 3.0%
법정운용배수	• 20배
동일기업보증한도	• 30억 원(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합산 운영), 특별보증 100억 원
재보증	• 없음

자료 : 김정렬, 2014, 국내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

■ (지원사업)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성장-성숙-재도약-재도전) 맞춤형 사업 지원

- (창업단계)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청년 희망드림보증, 신중년행복드림보증,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 보증 지원
- (성장단계)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고용창출 특례보증, 지식재산 보증,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등 지원
- (성숙단계) 유동화회사보증, 혁신리딩기업, 고용의질우수기업 지원
- (재도약 및 재도전 단계) 중소기업 밸류업 보증,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표 2-46〉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대상기업	우대내용
창업단계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유망창업 기업	예비창업 보증	• 지원한도 10억(운전+시설)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7%p 차감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생기업 보증	• 지원한도 10억~20억(운전)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4%p 차감
		창업초기 보증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차감
		창업성장 보증	• 지원한도 30억(운전)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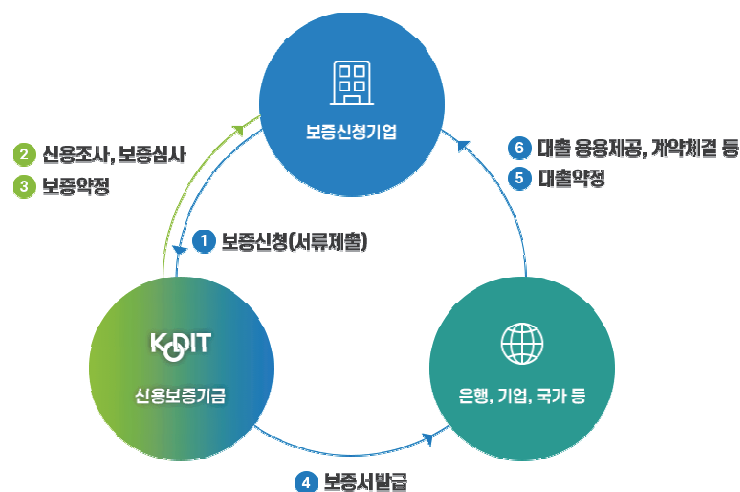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청년 창업 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0~100% • 고정보증료율 0.3%적용
	청년희망드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3%p 차감
	신중년행복드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49세 이상 •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 • 보증비율 95~100% • 보증료 0.3%p 차감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정책분야 대상 기업 및 성장 유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3년간 100% - 보증료 최대 0.2%p 차감 •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우대 - 보증료 최대 0.5%p 지원
성장단계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보증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1~0.5%p 차감
	신성장동력산업영위 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1%~0.2%p 차감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 수출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 0.2~0.3%p 차감 •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고용창출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지식재산(IP)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 0.2~0.5%p 차감
	SMART 융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설비 도입, 융합제품 생산기업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차감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 구축완료 기업, 수준확인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95% • 보증료 0.2~0.6%p 차감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100% • 보증료 0.2~0.5%p 차감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0.4%p 차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취소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차감
성숙단계 (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유동화회사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장 유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 편입한도 • 중소기업 200억 원 • 중소기업외 350억 원
	혁신리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미래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고정보증료 • 보증한도 우대 • 보증 분할해지 유예

구분	사업명	대상기업	우대내용
	고용의 질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 좋은일자리 기업(GWP) • 최고일자리 기업(B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GWP 0.4%p 차감 • 보증료 BWP 0.5%p 차감
재도약단계 (경영애로 기업의 재도약)	중소기업 밸류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 원) • 신용보증재조정(금리우대, 만기 연장, 보증료 차감) •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재도전단계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단독채무자와 면책 등 법적변제의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80-100%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 원) • 보증비율 40% • 고정보증료율 1.0%

자료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

■ (사업구조) 신업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 지원

- (보증 이용의 장점)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여 담보문제 해소, 비용절감, 대외 신용도 제고, 기업경영 부담완화의 이점 발생
 - (담보문제 해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비용절감)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가 저렴한 구조
 - (대외신용도 제고) 우수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기업경영 부담완화의 이점) 법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그림 2-14〉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조

자료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

■ (집행실적 및 계획)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IT 운영, 매출채권보험지원, 민자사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표 2-47〉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구분	2023년도 실적	2024년 계획
산업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조 2,873억 원, 구상권 관리 601억 원, 경영지도 160억 원, 보증연계투자 666억 원, 이차보전지원 568억 원, 팩토링금융 900억 원, 신용정보 23억 원, 기타 사업비 1,079억 원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 대위변제 3조 5,655억 원, 구상권관리 995억 원, 경영지도 187억 원, 보증연계투자 675억 원, 이차보전지원 449억 원, 팩토링 금융 1,500억 원, 신용정보 14억 원, 기타 사업비 1,526억 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 원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 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42억 원, 인건비 248억 원, 경상운영비 44억 원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대 및 고객 친화적 보험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755억 원, 인건비 256억 원, 경상운영비 61억 원을 집행 계획
민자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자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 원, 기금운영비 51억 원, 자금운용에 6,186억 원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46억 원, 기금운영비 97억 원, 자금운용에 7,890억 원 집행 계획

자료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

2. 소상공인 대상 자금 정책 동향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개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융자 및 경상사업 지원

- (융자사업)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사업전환의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2022년 기금사업 기준)
- (경상사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이에 따른 관리강화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계획)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 지원

- (융자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

〈표 2-48〉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2024년)

구분	지원목적
정책 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자료 : 중소기업부, 2024, 2024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4-7호), p.2

- (시설용도 별 세부사업내용)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사업별로 상이

〈표 2-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계획 현황(2024년)

사업명		사업목적	신청 대상	융자 범위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융자방식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7천만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지원	재해피해 소상공인	피해복구 비용	연 2.0%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1억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7천만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장애복지카드 소지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연 2.0%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1억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저신용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3천만 원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준비자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7천만 원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단계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기업당 7천만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대환대출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연 4.5%	10년 이내	기업당 5천만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성장기반조성 자금지원	소공인	운전자금, 시설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혁신성장 촉진자금		소상공인 디지털격차 해소 및 혁신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시설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 지원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시설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제2024-7호)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지원절차)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하여 용자 지급하며, 방식별로 세부 절차 상이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용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용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용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사후관리) 대출 후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청구 등 실태조사 실시



〈그림 2-1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용자절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4,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제2024-7호), p.3

2)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개요) 코로나 피해 등으로 누적된 잠재 부실을 고려한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기존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 국정과제 I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대상)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지원대상)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

-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해당하나, 2024년부터 코로나 피해 대상 조건 제외되면서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취약차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표 2-50〉 새출발기금 현황

대상	기준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p>*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p>

자료 : 금융위원회,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p.6

■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년~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 (채무조정절차) 차주상황 및 채무성격에 맞추어 차주의 편의와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법으로 채권 양수도 등 채무조정 절차 수행
 -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 시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 조정에 참여
 - (중개형) 부실 우려 차주 혹은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없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도입 하며 채권 매입없는 채무 조정 시, 매입재원이 사용되지 않아 채권 매입한도에 비해 더 많은 채무조정 지원 가능
- 정상영업 회복 과정에 있는 부실우려차주 등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 원을 제공하며 모든 신청 차주에 신용관리, 재기지원 컨설팅 등 연계 제공

〈표 2-51〉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금 융	성실상환자 긴급운영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 (대상) ①조정된 채무를 성실상환중인 자로서 ②채무조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차주 • (내용) 차주당 최대 1,000만 원, 금리상한 7% 	기은
	소액 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대상 자금 지원 • (대상) 약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자 (개인사업자) • (내용) 최대 1,500만 원 이내(학자금 1,000만 원) 	신복위
	임차보증금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대상 보증 지원 • (대상) 약정 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자 (개인사업자) • (내용) 최대 3,000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주금공
비 금 융	신용점수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대상 신용점수 지원 • (대상) 일정기간 이상 성실상환자 중 타 기관 연체 채무가 없는 자 등 • (내용) 성실상환 내역을 반영하여 신용점수 조정 	NICE
	성공두드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새출발기금 차주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차주 • (내용) 8주 집중 마케팅 교육, 상권분석, 비대면 화상 세미나 제공 	신한은행 등

자료 : 금융위원회,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p.14

3) 미소금융

■ (개요)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으로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대출사업을 의미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2008년 3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출범
- 2009년 9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존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이름으로 아름다운(美) 소(小)액대출의 의미를 지닌 ‘미소금융’으로 명명

■ (지원대상 및 지원상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3가지 중 1개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표 2-52〉 제도권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의 비교

구분	제도권 금융기관	미소금융
대상	• 신용등급,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
대출기준	• 신용등급, 소득, 재산 등의 개인신용평가 기준	•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신청인의 자활 의지, 성실성 등 중시(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실제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원 규모 산정 등)
대출금액	• 신용등급별 한도 부여	• 실소요금액 이내의 소액
금리	• 등급에 따라 차별화	• 시장금리 이하

자료 : KB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https://www.kbmiso.or.kr/>

-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표 2-53〉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유형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연 4.5%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 자금 지원	연 4.5%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설개설 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대출한도 2천만 원	연 4.5% 이내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긴급생계 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2천만 원	연 4.5% 이내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 (지원실적) 서민금융진흥원 및 미소금융사업수행기관의 미소금융지원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기준 2,926억 원, 25,776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서민금융진흥원, 2023)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10년 796억 원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2017년 3,925억 원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
- (지원건수) 지원 건수는 2010년 2,548건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 31,945건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소폭 감소

〈표 2-54〉 제도권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의 비교

구분	지원금액(억 원)	지원건수(건)
2010	796	2,548
2011	2,548	7,770
2012	2,159	16,489
2013	2,027	17,803
2014	2,500	18,758
2015	3,044	21,743
2016	3,478	27,391
2017	3,925	28,730
2018	3,549	31,111
2019	3,058	29,451
2020	3,344	31,945
2021	2,915	26,773
2022	2,926	25,776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202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지원현황(2022.12.31.)

3.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기금 정책 동향

1) 양성평등기금

- (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 (기금 용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기타 남녀평등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한 사업
- (2024년 기금운용 편성 방향) 아동·여성 등 폭력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환경 조성 및 자립 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주거, 건강관리 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 성장 지원 확대 등
- (주요 사업내용) 2024년 기준 약 7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하며 다른 기금 사업과는 달리 용자, 투자의 개념보다는 보호의 차원에서 보호기관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를 구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표 2-55〉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2024년)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형태	2024년 계획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소, 지원시설(쉼터),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을 통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도모 성매매방지 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지자체 보조 (5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14,261백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1,849백만 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 670백만 원 지원시설 기능보강 : 491백만 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239백만 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해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 법률 등 지원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폭력유형별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상담 치료,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 피난 보호 및 개별 주거공간 지원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국비 50~100%),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민간위탁 (국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 : 6,832백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 8,568백만 원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운영 : 3,683백만 원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 지원 : 613백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3,254백만 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 1,041백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 1,853백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3,195백만 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 2,458백만 원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형태	2024년 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상담, 일시 보호, 의료 법률 출국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권 보호 및 정착지원 	지자체 보조 (국고 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33개소) : 6,230백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9개소) : 1,379백만 원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352백만 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535,552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이하 재학 자녀 (266,836명), 월 21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만 5세 이하 아동(1,603명),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31,230명), 월 5~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1,488명,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45가구, 월 5만 원 금융정보조회 명의인 우편통보요금 13백만 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30백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2,852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한부모 자녀(약 1,800명) 대상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0~1세 자녀 : 아동양육비 월 4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등, 연 154만 원 이내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 451백만 원 청소년 한부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홍보 등 : 51백만 원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용역 400백만 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시설 입소자의 상담 및 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및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및 자립 기반 조성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을 통해 시설 내 인력난 완화 	지방자치 단체 (3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기능보강 지원(42개소) : 864백만 원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121개소) : 638백만 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38개소) : 1,369백만 원 시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29명) : 412백만 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누적306호) : 1,962백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하고,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 번역 및 정보제공, 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방문 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중장기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수립 시 반영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서울 30%, 지방 50~70%), 민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센터 운영 : 91,523백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1,813백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33,873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247백만 원 가족전문상담전화 : 5,644백만 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 703백만 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2,328백만 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24,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pp.75~93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2023년 총 약 6,28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7,582억 원 지원 계획

- (2023년 지원실적)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에 약 5,622억 원,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 지원에 약 661억 원 지원

〈표 2-56〉 양성평등기금 2023년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주요항목	세부사업내용	계획액	집행실적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445,293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5,00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4,457	4,42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07,953	107,479
	소계	613,515	562,201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156	18,114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16	1,31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9,199	38,458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760	7,751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500	469
	소계	66,931	66,108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2	2
	소계	2	2
총계		680,448	628,331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 (2024년 집행계획)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에 약 5,355억 원,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약 679억 원 지원 예정

〈표 2-57〉 양성평등기금 2024년 계획

(단위 : 백만 원)

주요항목	세부사업내용	계획액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24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6,131
	소계	690,274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961
	소계	67,968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1
	소계	1
총계		758,243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개요)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 조성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8조, 제72조

■ (기금규모) 2019년 약 9,454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약 1조 2,519억 원의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에는 1조 2,645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표 2-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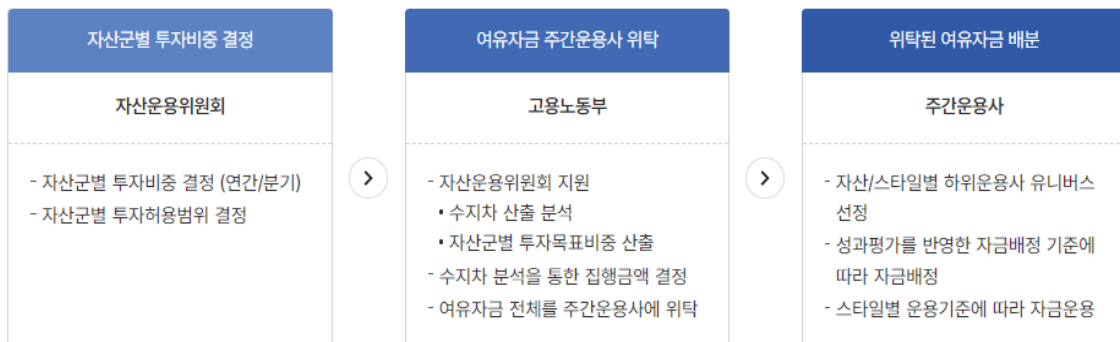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고용기금	9,454	10,600	12,519	11,121	12,645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자금운용구조) 자산운용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주간운용사를 통해 자금운용이 이루어지며, 기금 및 자산운용관련위원회를 두어 기금 관련 사항 결정

- (자산운용위원회) 자산군별 투자비중을 결정하며 투자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 수행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를 지원하며 수지차 분석을 통한 집행금액 결정 및 여유자금 전체를 주간운용사에 위탁
- (주간운용사) 자산/스타일별 하위 운용사 유니버스를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자금 배정과 운용 수행



〈그림 2-16〉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자금운용 프로세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기금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산 운용 전략 사항을 심의하여 전문적인 기금 관리 체계 구축(근거 :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운용 지침 제4장)

〈표 2-59〉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구분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성격	•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자산운용 전략 등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위 원 : 당연직 위원 8명(위원장 포함), 외부 위원 11명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위 원 : 내부 위원 2인(위원장 포함), 외부 위원 3인(기금운용 전문가) * 외부 위원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주요권한 및 책임	• 기금 결산 및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심의 • 기금관리·운용 관련 중요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과 심의	•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심의 • 운용사별 자금배분 심의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주요 사업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고용노동부, 2024)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관리비용,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 센터 등의 사업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고용의무이행지도, 장애인 취업알선지원, 직업능력평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장애인 인턴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등 사업 지원
- (기타)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

〈표 2-60〉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주요 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수혜자	시행방법	시행주체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 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도모 및 고용촉진 유도	• 고용사업주	• 직접수행(공단위탁) 및 출연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장애인신규 고용장려금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유도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고용관리 비용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고용관리를 위하여 일정자격 및 요건을 구비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월 14만 원, 최대 3년간 지원(작업지도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도)	•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출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통근용승합차 등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 장애인근로자에게 전문고충상담을 지원하여 직업생활유지 제고			
장애인 취업지원	고용의무 이행지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효과적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	• 구직장애인, 구인사업주, 장애학생	• 출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 알선지원	• 전문적 구직상담과 장애인 개별 특성 및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도모			
	직업능력 평가	•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고용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평가 실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과 직장 적응을 직무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현장에서 「先배치·훈련, 後고용」 지원			
	장애인 인턴제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경험을 통한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기회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 → 직업능력향상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구직 장애인 및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출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	•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출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고용노동부, 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p.735~812를 기준으로 저자 재구성

4. 소셜벤처 대상 자금 정책 동향

1) 소셜벤처기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소셜벤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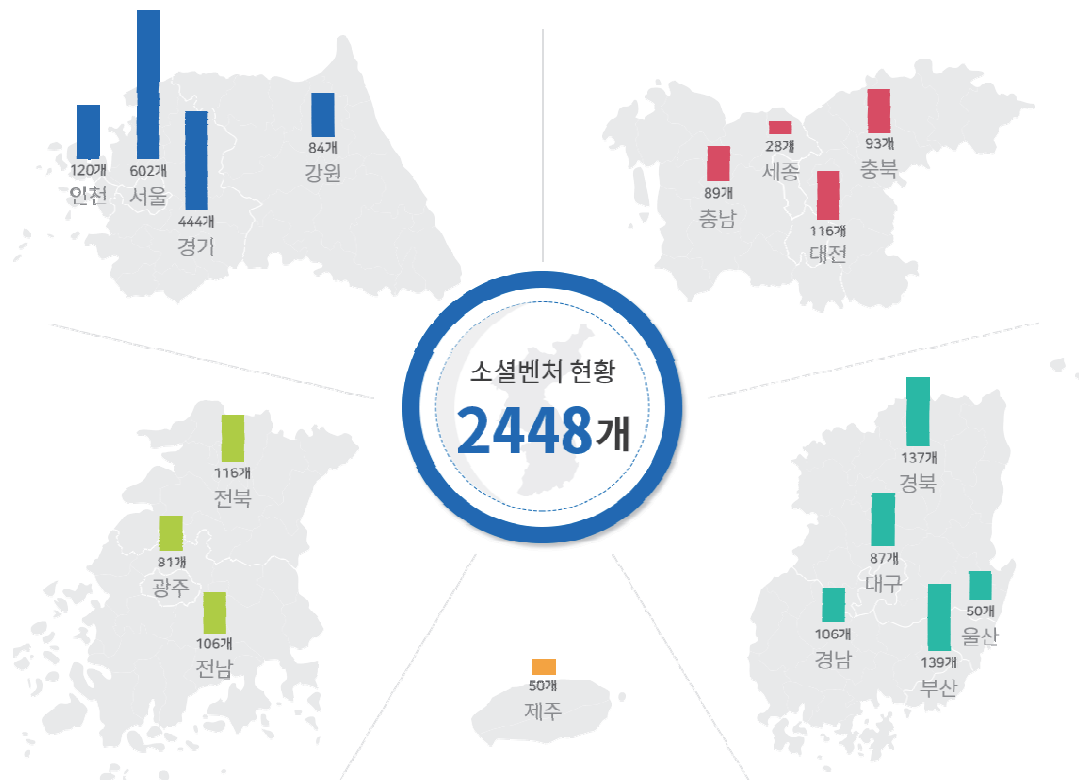
- 소셜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

〈표 2-61〉 소셜벤처의 기준

기업명	법적정의	추구가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회성 > 경제성
소셜벤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사회성과 경제성 동시 추구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사회성 < 경제성

자료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https://sv.kibo.or.kr/>

- (소셜벤처 주요 현황) 현재 전국 2,448개사의 소셜벤처(2022년 기준)가 있으며, 서울 602개, 경기 444개, 부산 139개, 경북 137개 순으로 입지



〈그림 2-17〉 소셜벤처 현황

자료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https://sv.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개요)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설립(「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공을 목적으로 1989년 기술보증기금 설립
-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구상권 관리 및 신용보증 제도의 조사·연구, 직접투자, 기술보호 등의 업무 수행
- 신용보증지원인 기술보증의 경우 기술창업보증, 기술혁신형보증, 기술 평가 보증 등 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



〈그림 2-18〉 기술보증기금 주요 사업

자료 : 기술보증기금, 2022, 기술보증 지원제도 소개자료

■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증대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1년 소셜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2018)」에 따라 소셜벤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개설하여 소셜벤처 발굴 및 금융지원, 컨설팅 등 토탈서비스 제공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소셜벤처 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지원,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지원, 기타 소셜벤처 관련 업무수행

〈표 2-62〉 소셜벤처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소셜벤처 성장촉진 사업	지원내용
소셜벤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 정밀실태조사 • 소셜벤처 판별 및 판별정보 제공관리 • 소셜벤처스퀘어(소셜벤처 자가진단 및 판별 신청 기능 등 제공) 구축 및 운영 • 소셜벤처 관련 대외 네트워크 구축
소셜벤처 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프로그램 및 대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셜벤처 경영진단
기타 소셜벤처 관련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 관련 정책에 따른 소셜벤처 개별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자료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https://sv.kibo.or.kr/>

-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p 감면하는 조건이며, 2023년 기준 신규 보증 144개의 소셜벤처에 약 200건, 1,081억 원의 보증 지원

〈표 2-63〉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구분	지원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보증	업체 수(개)	196	321	301	276	144
	건 수(건)	250	460	403	381	200
	금액(억 원)	841	1,239	1,476	2,061	1,081
보증잔액	업체 수(개)	280	567	789	957	953
	건 수(건)	363	782	1,096	1,337	1,334
	금액(억 원)	1,264	2,177	3,204	4,459	4,682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2024,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기업 임팩트보증 지원현황(2023.12.31.)

■ (지원대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지원

-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별표 2)에 따르면 ①사회성, ② 혁신 성장성을 기준으로 각 평가기준별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정
- 소셜벤처기업의 사업성 판별은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으로 구성된 총 4개 기준의 12개 지표로 항목으로 평가

〈표 2-64〉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점

* :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 :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 :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판별은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연구개발역량, 대표자 기술역량으로 구성된 총 4개 기준의 12개 지표로 평가

〈표 2-65〉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 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 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 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점	

*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 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 :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 :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제3절

선진지역의 사회적금융 사례

1. 사례 개요

■ 사회적금융의 활동 목적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3가지로 구분 가능(김시백 외, 2019)

- (사회적 배제 완화) 마이크로크레디트로 대표되는 주민 및 기업들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소액 지원 및 금융 배제자에 대한 금융 접근 지원
- (사회적 목적 구현) 사회문제 해결, 낙후된 지역의 발전, 환경보전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 (사회적 가치 추구) 노동조합, 기업 간 연대를 중심으로 노동가치 및 협동, 상호부조의 연대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활동 지원

〈표 2-66〉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 주요 특징

목적	기관	형태	주요 내용
사회적 배제 완화	그라민 프로젝트(방글라데시)  Grameen Bank	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초 방글라데시 극빈곤층 대상으로 우뉴스 교수가 사비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작 • 취약계층 빈곤 탈출을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
	빅소사이터티캐피털(영국)  BIG SOCIETY CAPITAL	정부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휴면예금 잔액과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금융 기관에 투자
사회적 목적 구현	트리오도스은행(네덜란드)  Triodos Bank	주식회사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 지원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영국) : 소셜파이낸스의 '원서비스' 프로젝트(영국)  SOCIAL FINANCE	사회혁신성과채권 (Social Impact Bond, S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피터버러시의 교도소 수감자 재범률을 낮추는 사회 프로젝트 수행 • 세계 최초 사회혁신성과채권 프로젝트의 성공사례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회적 가치 추구	레가 코프 연대기금(이탈리아)  legacoop	협동조합 연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합연맹 • 조합의 수익의 3%를 기금(Coopfond)으로 출연하여 협동조합 창업 및 육성 지원 • 협동조합의 노동 가치와 권리 수호

자료 : 김시백 외, 201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전북연구원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2. 방글라데시 그라민 프로젝트(Grameen Project)

1) 개요

- (조성배경)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의 대표 사례인 그라민(Grameen)* 은행은 1970년대 초 방글라데시 극빈곤층 여성들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제공하면서 시작

* 그라민(Grameen)은 방글라데시어로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

- 농촌 빈민층은 담보나 신용이 없어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대부분 고리대금업자의 착취 대상이 되면서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소액의 초기자금 부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발견
- 유누스 교수는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을 벗어나는 데에 약 856타카(약 27,000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사비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딧의 시초 모델로 정립

- (조성목적)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Chitagong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지원을 받아 금융서비스 지역 확대하여 1983년 10월 정식 은행으로 전환

- 마이크로크레딧은 무담보소액대출로 시작되었으며 빈곤층에 대한 대출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립수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며 세계적으로 활용
- 그라민은행의 설립초기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금업자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 절대 다수의 농촌 지역 실업자에게 자영업 기회 제공,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소득 및 저축증가 선순환 구축 등으로 설정

- (조직현황) 그라민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며 방글라데시 전역에 2022년 기준 40곳의 지점 보유(Grameenbank, 2022)

2) 주요 내용

- (자금지원체계) 그라민은행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절대 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대상고객 선정의 원칙을 두고 5명의 차입 예상자들을 선정하여 하나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자금 지원(이민규, 2006)

- 그라민은행의 소그룹 자금지원제도는 ①5명의 예상 차입대상자가 한 그룹을 형성 → ②그룹 내 두 명에게 일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룹 구성원 전체는 서로 제반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 ③6주 이상 1차 차입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2명 및 1명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자금 차입 가능

-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에는 담보요구가 없으며, 그룹 내 구성원의 상환책임은 각자에게 있어서 다른 구성원의 도산에 대한 연대책임의무 부재

- 그라민은행의 자금지원조건은 1년간 매주 분할상황조건의 대출, 차입자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은행직원 뿐 아니라 소그룹 상호감시, 빈곤청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저축을 통해 안전망 확보, 모든 은행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의 조건으로 빈민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대출조건) 2022년 3월 기준 대출한도는 1인당 150달러 내외의 소액으로 비교적 작으나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 가능하며 2023년 기준 기본 대출의 금리는 20%이며 대출상환율은 97.2%로 집계

- 그라민은행은 빈곤 탈출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을 수행하며, 주로 농촌지역의 실업자, 빈곤 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주요 고객 형성
- 대출 시 담보가 없으며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하여 그룹을 대상으로 대출하며 대부분 소액을 규모로 지원
- 연체 시에는 원금범위 내에서 이자가 부과되며 상환스케줄 재조정 등을 통해 차입자의 회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

〈표 2-67〉 그라민은행과 전통적인 은행과의 차이점

구분	그라민은행	기존 은행
목표	• 빈곤 탈출 지원	• 수익 극대화
주요 고객	• 실업자, 빈곤계층, 여성	• 기업, 직장인, 자산가 등
담보유무 등	• 담보 없음	• 담보 또는 신용양호
	•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 현재의 채무상환능력
	• 그룹대출 (대출자 외 연대책임 없으며 부채 상속될 수 없음)	• 통상 개인별 대출 (보증 등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며 부채가 상속될 수 있음)
서비스 범위	• 소액 지원 • 금융 외 통합서비스 • 이용자중심 서비스(은행직원의 방문) • 교육, 주거, 위생 등의 변화 모니터링	• 소액 이상 • 금융 관련 서비스 위주 • 은행 중심 서비스
주 영업지역	• 농촌지역	• 대도시지역
연체 시 적용조건	• 연체이자 원금범위내(연체기간 무관) • 차입자의 회생에 초점 • 상환스케줄 재조정 • 원금 축소조정 없음 • 재거래 가능(대출초기한도로 축소조정)	• 연체이자의 원금초과 가능 • 손실 최소화에 초점 • 대부분 재조정 불가, 원칙적으로 원금 조정 불가 • 실질적인 재거래 어려움

자료 : 이민규, 2006,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의 의미와 국내외현황, 한국은행 금융시스템리뷰 제14호, p.36

■ (주요 성과)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신용대출의 대표적인 모델로 정착

- 그라민은행과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2006년 공동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며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모델로 정립
- 아이티의 폰코즈(Fonkoze), 인도의 밴드한, 에큐타스와 같은 혁신적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출범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구축된 모범사례 발생

〈표 2-68〉 혁신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사례

국가	기관명	주요 내용
아이티	폰코즈 (Fonko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소득수준별로 고객을 구분하여 단계별 다른 상품 제공 - (1단계 : Chemen Lavi Miyò, CLM(더 나은 삶을 향해)) 장래계획 설계, 충격에 대비한 최소 자산 형성, 자녀 학교 보내기, 자금운용능력 배양, 소득창출 관련 능력 배양 등 구체적인 목표 10개를 미리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된 이후 다음 단계의 대출제도 이용 가능 - (2단계, Ti Kredi(소신용)) 단기 25달러 대출 및 75달러 한도의 대출 가능, 문자 교육 같은 비금융 서비스 지원 - (3단계, 연대그룹신용(Solidarity Group credit)) 5명이 하나의 연대그룹으로 대출 가능하며 3달 만기 75달러 대출부터 1,300달러의 1년 장기대출 가능, 문자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4단계, 사업개발그룹) 1,300달러를 1년 동안 장기 대출 가능하며 고객 스스로 직업을 창출하여 경제 일부로 편입되도록 지원
인도	밴드한 (Bandh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도에서 476만 여명의 고객을 보유한 인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국민자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 국민자 대상으로 소액자금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민자 대상 교육훈련 및 다양한 지원 제공 • 프로그램 참가자는 반드시 1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소액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그 기준은 둘 이상의 소득원 보유, 하루 두 끼 이상 섭취, 거주지 확보, 저축계좌 보유, 아동 취학 의무 등으로 구성 • 대출은 그룹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보건위생, 교육 등의 비금융 서비스 지원
	에큐타스 (Equi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체계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빈곤층이 집중된 농촌과 도시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및 고객자립 생태계 조성에 집중 • 10개 지점마다 사회적 책임 담당직원(Social Responsibility officer)을 배치하고 담당지역의 고객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 수행 • 50개의 직업훈련센터, 4개의 학교, 20개의 직영 식료품상점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자료 : 광성일 외, 2013,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59~61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재평가 및 보완 노력) 1990년대 마이크로크레딧 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지나친 상업화 경향을 보이며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업 진행

- 일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사례, 대출을無理하게 받은 저소득층이 상환 문제로 고통, 2010년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부채로 고통받던 주민 200명 이상이 목숨을 끊는 등의 부작용 사례 발생(문진수, 2012; AP, 2012)
- 유럽연합은 마이크로크레딧에 관한 유럽의 행동강령(European Code of Good Conduct for Microcredit Provision)을 설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5개의 부문의 세부 지침 제공
 - 고객과 투자자 간 관계(Customer and Investor Relations), 거버넌스(Governance), 리스크 경영(Risk Management), 리포트 기준(Reporting Standards),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로 구성된 부문의 세부 지침 제공(EU, 2022)

3) 시사점

■ 혁신, 엄격한 감시통제 구조, 적응 및 학습, 인센티브 시스템 등 복합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의 모델 정립

- 세계적 차원의 금융과 비금융 부문의 빈곤계층의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에 기여
- 빈곤 해결을 위하여 5명의 차입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서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동기 부여
- 저축을 통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차입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

■ 최근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의 상호감시 모델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 필요

- 성공요인으로 불리던 상호감시통제 구조가 최근에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어두운 면으로 부각되며 악용사례들을 보도한 기사들이 제기되면서 개별 지역 적용에 앞서 지역 구성원들의 문화와 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정립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3. 영국 빅소사이어티캐피털(Big Society Capital)³⁾

1) 개요

■ (조성배경) 은행의 장기휴면계좌 자산과 시중 4대 은행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세계 최초 사회적투자를 위한 투자은행인 빅소사이어티 캐피털(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설립

- 2005년 은행 장기휴면계좌 기반의 사회적금융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휴면자산위원회(Commission on Unclaimed Assets, 이하 'CUA') 설립
- CUA의 활동으로 영국 의회는 2008년 휴면 계좌 법령(Do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을 제정하여 시중은행 휴면계좌 잔액을 정부가 수거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010년 자유당과 연합한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운영으로 Big Society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정부보다는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공동체 강화 및 지방정부 권한 강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추진하며 BSC 설립 추진
 - Big Society는 견고하며 역동적인 시민사회로 신뢰, 사회자본, 비영리 조직의 적극적 역할, 민주적인 시민참여,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내면화된 공동체적 사회를 의미
- 2011년 영국 정부는 BSC를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 은행의 휴면계좌 자산과 함께 영국 주요 상업은행인 HSBC, Barclays, Royal Bank of Scotland(RBS), Lloyds Banking Group 등 4대 은행과 멀린프로젝트(Merlin Project) 추진
 - BSC 설립에 참여한 4대 은행을 멀린뱅크로 부름(Merlin Banks)
- BSC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 4월 영국 시중 주요은행의 휴면계좌에 남아있던 1억 파운드의 자금, 영국 상업은행 4곳에서 출현한 2억 파운드를 기반으로 기금 조성(김정원 외, 2016)

■ (조성목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예산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 캐머런 총리가 도입한 모델

- ①사회투자 금융 중개기관의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②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시장 인프라 구축, ③사회투자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 ④사회투자에 대한 인식과 신뢰 제고, ⑤투자 결정에 있어 소셜임팩트를 고려하고 평가하는 모범사례 확립

3) 김은경 외, 2023; 장지연 외, 2023을 기반으로 작성

2) 주요 내용

■ (조직체계) BSC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부, Big Society Trust, 멀린뱅크로 구성

- Big Society Trust는 BSC의 대주주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BSC에 반영하여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 수행
- 각 이해관계자별 목표로 멀린뱅크는 투자 수익 창출, 정부는 사회투자 시장 확대, Big Society Trust는 BSC의 사회적 목적 달성이 중요
- 영국정부는 BSC의 원활한 운영구조를 구축하고 사회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역할 분담을 위한 자매기관 설립 등의 노력 수행
 - 영국 정부는 BSC의 내부수익률을 5% 미만으로 설정하여 사회목적 달성에 집중하도록 하고 멀린뱅크(4대 은행)는 배당 청구권과 이사추천권을 가져 일정 수익률 이하가 예상되는 사업 계획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정부는 2014년 사회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30%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BSC는 자매기관으로 Access, the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소액투자자 대출을 담당하도록 하여 더 많은 투자자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로 제공
- BSC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 휴먼 계좌의 4억 2,500만 파운드를 포함한 8억 3,00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조성
- 다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26억 파운드로 약 2,000개 자선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투자 지원
- 2022년 기준 휴먼예금을 통해 4억 2천 5백만 파운드 기금 보조(장지연 외, 2023)

■ (운용구조) BSC는 기금을 운용하고 사회적금융 기관에 투자기금을 지급하여 각 기관이 직접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정부가 출연한 기금운용기관인 BSC가 영국의 사회적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영국 내 사회적금융 기관에 투자기금 지급(김정원 외, 2016)
- 개별 사회적기업은 BSC를 통해 직접 투자받지 않고 영국 전역의 사회적투자 전문 중개기관(Social Investment Finance Institute)을 통해 투자금을 제공받는 구조



〈그림 2-19〉 영국 BSC 사업구조

자료 : 장지연 외, 2023,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금 운영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경기연구원, p.51

■ (주요 프로그램) BSC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셜임팩트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점검, 영국 내 사회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9개 영역의 대상 조직과 소셜 임팩트, 대상자 기준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 예술, 문화유산, 스포츠 및 종교, 시민권과 공동체, 자연환경 보전, 고용,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9개 영역에 대한 세부 대상 조직과 소셜 임팩트를 정의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방향 점검 시 활용
-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구축) 펀드 매니저, 투자자, 기업 및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기존 시장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장 구축 전략 활용
- (촉발적 투자 지원) 시드투자, 투자확장,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자원을 구축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 구축 지원
 - 시드투자(Seed investments)(Fair by Design 기금), 투자 확장(Scaling investment)(전국 노숙자 재산 기금), 지속적인 투자(Sustain investment) (성장 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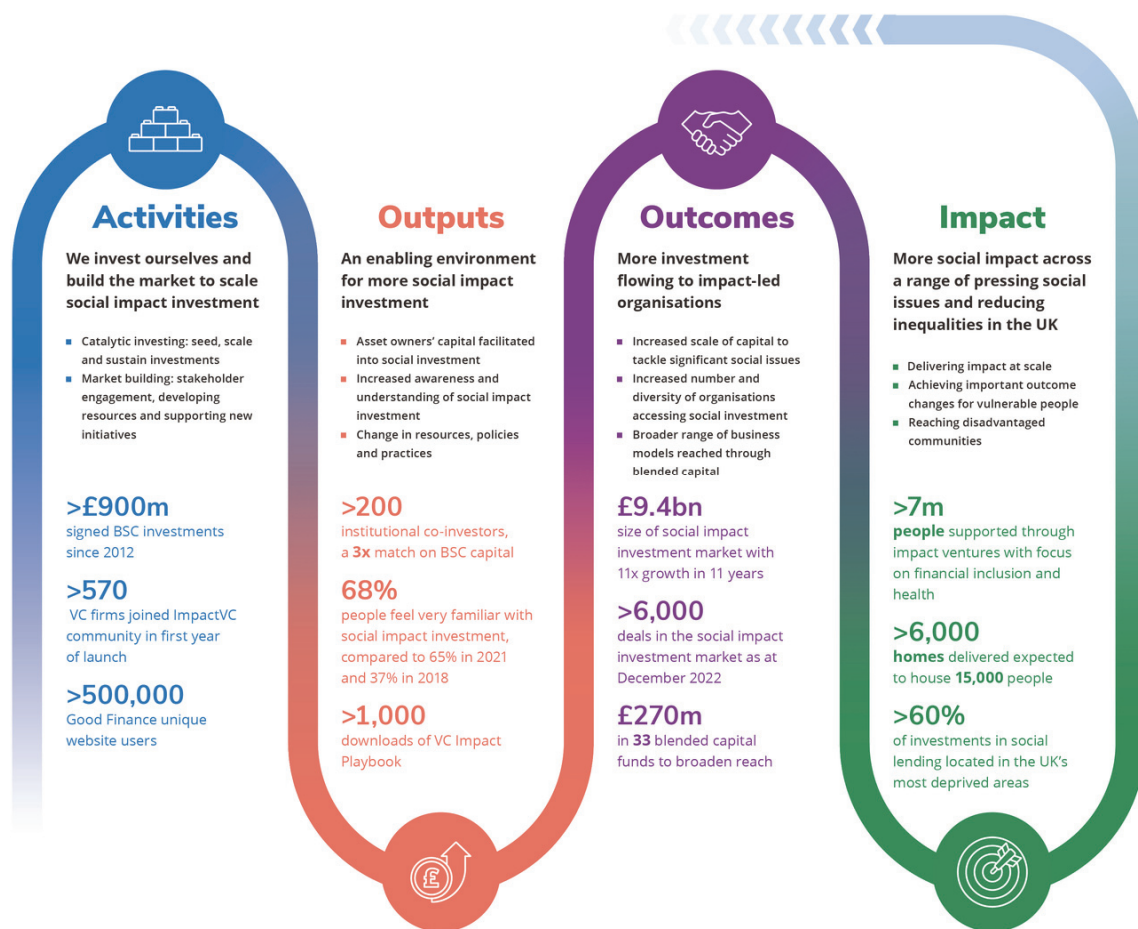
〈표 2-69〉 BSC 소셜임팩트 매트릭스

9개 영역	대상 조직	소셜임팩트	대상자 기준
예술, 문화유산, 스포츠 및 종교	적절한 품질의 스포츠 시설 운영, 포용적 예술 시설을 설립하여 공동체 프로그램 조직들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는 조직	서비스를 통한 삶의 만족감, 건강, 웰빙 증진	1.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거나 불이익 및 차별 : 1) 장기실업 인구 : 실업자, 장기 실업자, 불안정노동자, 비경제활동 인구 2) 노숙자 및 주거 불안자 3) 빈곤층 및 금융 배제자 : 신용불량자, 빈곤층, 근로빈곤층, 복지급여자, 낙후지역 거주자 4) 약물중독자 및 그 가족 5) 만성질환자 및 치명적 질병 보유자 6) 지체장애인 7) 정신 질환 보유자 8) 육체적 장애인 9) 자원봉사자 10) 한부모 11) 위험 상황에 놓인 아동 : 학대 경험 아동 등 12) 불안정 청년 : 청년 니트 등 13) 고령자 : 독거노인 등 14) 재소자 및 폭력전과자 15) 범죄 및 학대 피해자 : 가정 폭력 피해자, 범죄 피해자, 폭력 피해자 등 16) 난민, 불법 이민자
시민권과 공동체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직, 지역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조직	1) 공동체 건물 구매, 공동체 공간 창출, 에너지 생산과 같은 로컬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2) 공동체 내에서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도록 하며 그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공동체 모임 조직	
자연환경 보존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연계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조직	공동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고용, 교육 및 훈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람과 일자리 연결, 실업 위험이 높은 청년 지원,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청년들에게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하는 조직		
가족, 친구 및 사회관계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사회적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직		
주거 및 지역 시설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주거를 제공하고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과 주거를 찾도록 도와주는 조직		
소득 및 금융	윤리적 금융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용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	사람들이 자신의 금융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며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	2. 사회적 보호 필요 : 연령, 장애, 성적, 정체성, 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성, 성적 취향 등이 기준 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 소득, 직업, 복지급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집단
정신 건강 및 웰빙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라인과 공동체 기반 지원을 제공하며 정신 건강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	정신 건강과 웰빙의 증진을 도와주며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4. 특별한 지역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 :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행정상 기준과 이민자 비율,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 등
육체 건강	고령자에게 공동체 기반 고품질의 예방적 재가 및 시설 돌봄서비스 제공 조직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로 삶의 질 향상, 좋은 품질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접근성 보장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 조성	

자료 : 김은경 외, 202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pp.69~70

■ (주요 성과) 기존 시장에 없는 사회적 책임 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영국 사회투자시장 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 창출

- BSC는 지난 10년 동안 휴면계좌의 4억 2,500만 파운드를 이전받은 금액을 포함한 8억 3,00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다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26억 파운드로 약 2,000개의 자선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투자(김은경 외, 2023)
- 영국 BSC가 설립된 시기인 2012년 사회투자 시장 규모는 2012년 8억 파운드였으나, 2022년 64억 파운드로 확대(Big Society Capital, 2022)
- BSC는 2012년부터 지난 10년 간 200여 투자 기관과 함께 약 2,000여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26억 파운드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및 환경적 임팩트 창출
- BSC는 2025년까지 영국의 사회투자시장을 100억~150억 파운드 규모까지 확장시킬 것을 발표



〈그림 2-20〉 BSC의 주요 활동과 성과

자료 : Big Society Capital 홈페이지 <https://bettersocietycapital.com/>

3) 시사점

■ 국가주도로 설립한 BSC는 소매금융만을 전담하고 사회투자 중개기관에 자금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구조 확립

- BSC는 소셜벤처 투자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자본 확충 및 지분출자를 통해 기존 사회투자 중개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 사회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성을 높여 영국 사회투자시장 확대에 기여

- 사회투자시장의 소매금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자 유입과 시장 부실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매금융기관 간 협력과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
- 지급 보증을 통해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확보하고 투자 대상 조직의 사회적 성과보고서를 출간하여 사회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 수행

4.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⁴⁾

1) 개요

■ (조성배경 및 목적) 네덜란드 트리오도스(Triodos) 은행은 세계 최대규모의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와 기업에만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은행(박희원, 2017)

- 트리오도스(Triodos)란, 3개의 길이라는 의미로, 사람, 환경, 이윤이라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을 의미
 - 1968년 경제학자 등 4명의 네덜란드인이 모여 지속가능금융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 결성하였고 1971년 트리오도스 재단(Triodos Foundation)을 설립하여 대출과 보증을 통해 혁신 기업 및 프로젝트 지원
 - 1980년 네덜란드의 사회적금융기관인 트리오도스은행이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중부의 제이스트(Zeist)에 본부를 두고 벨기에·영국·스페인·독일 등에 지점 보유(박찬임 외, 2014)
 - 트리오도스는 사회와 환경을 위해 일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 은행은 주식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
 - 자본금 54만 유로(약 7억 원)으로 출발한 이 은행은 2017년 약 95억 유로(약 13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견은행이며 사회적 금융기관 중 세계 최대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은행

4) 박희원, 2017; 임팩트온, 2021 등을 기반으로 작성

〈표 2-70〉 트리오도스 은행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69~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 경제학자 등 4명의 네덜란드인이 모여 지속가능금융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 결성 - 1971년 트리오도스 재단(Triodos Foundation)을 설립하여 대출과 보증을 통해 혁신 기업 및 프로젝트 지원 * 서구 자본주의와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동시에 반대하며 시작된 1968년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트리오도스 재단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짐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트리오도스 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트리오도스 은행 설립 - 통상 사회적 금융기관이 조합이나 재단의 형태를 지니는 것에 반해, 보다 큰 사회적 변화를 추구했던 트리오도스 은행은 네덜란드 중앙은행과의 오랜 협의/심의 끝에 순수 은행(Full banking license)의 형태로 출범 • 설립 이후 사회, 환경 기업들을 지원하던 트리오도스 은행은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유럽 최초 그린 펀드(Green Fund)를 발행 - 당시는 풍력 에너지 기술의 발전 초기 단계로, 매우 고위험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시장에 진입한 트리오도스 은행은 이후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선도의 이익을 향유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트리오도스 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던 개발도상국 소액금융(Microfinance) 분야에 본격 진출, 초기에는 NGO 등과 협업하며 경험과 노하우 습득 - 트리오도스 은행은 단순 투자를 넘어 이사회 개입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서민금융기관들을 육성하고 이들 기관에 사회·환경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 수행 • 1990년대 초반 교회를 중심으로 공정 무역(Fair trade)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며 많은 교회인들이 트리오도스 은행의 투자자로 유입 - 트리오도스 은행은 저개발국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 이후 판매 이전 브릿지론을 지원하여 헐값에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정무역 운동에 앞장서 왔음 • 1993년 벨기에 지점 설립을 시작으로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여 1995년 영국에 진출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통해 트리오도스 은행은 라보뱅크(Rabobank)와 같은 거대 기관 투자기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당좌계정(current account) 오픈을 통해 완전한 리테일 은행으로 도약하며 더 넓은 고객군을 확보 • 2004년 스페인, 2009년 독일, 2013년 프랑스에 진출하면서 꾸준히 해외확장을 진행하며 자산 및 수익 규모 증식
200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트리오도스 은행은 하나의 새로운 은행모델로 부각되었고 2009년에는 전 세계 사회적 금융기관의 연합체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설립하여 위상 확대 -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내세워 금융위기 속에서도 견고한 수익을 달성하며 트리오도스 은행은 2009년 Financial Times에 의해 “Sustainable Bank of the Year”에 선정

자료 : 박희원, 2017, 해외 사회적은행 사례 분석 : 트리오도스 은행, 이슈브리프, KDB산업은행, p.24

2) 주요 내용

■ (조직체계) 트리오도스 은행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트리오도스 은행 주식관리재단(Stiching Administratiekantoor Aandelen Triodos Bank, 이하 ‘SAAT’)'를 설립하고 모든 주식을 SAAT에 위탁하여 주권을 보호(박희원, 2017)

- 은행의 근본 이념인 지속가능성을 주주 자본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AAT는 개별 주주가 10% 이상의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주주들이 연차 총회를 통해 SAAT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트리오도스 은행 경영이사회(Executive Board) 및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승인을 의무화
- 2016년 말 기준 38,138명의 주식예탁증서 보유자가 있으며 3% 이상 보유자는 Radobank(5%), Delta Lloyd(3.5%)로 구성

■ (운용구조) 트리오도스 은행은 고객의 저축 및 투자금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한하여 엄격하게 운용하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여 실물 중심의 자산운용 원칙을 고수(박희원, 2017)

- 대출가능영역은 ①자연 및 환경, ②문화 및 사회, ③사회적기업의 영역으로 분류가능하며 이 외에도 지방정부 대상의 단기 용자 및 개인 대출을 일부 수행하며 전체 재무 수익의 80% 이상은 예금 및 대출에서 창출(박찬임 외, 2014)
- 전체 대출액의 약 30%는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비영리 단체에 할당하며 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 후 지원하는 구조이며 대출 대상 사업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유기농 사업 등을 포함한 환경과 연관된 사업에 해당
- 지방정부에 대한 단기 용자와 개인 대출도 일부 수행하며, 은행 산하에 트리오도스 자산운용을 설립하여 유럽 및 신흥국가에 투자하며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친환경 및 문화 사업 등에 투자

〈표 2-71〉 트리오도스와 일반 영리은행의 대출 프로세스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최종단계
트리오도스 은행	자금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지속가능 발전 기여 분야인지 규명	재무목표 이상의 사회·문화·환경적 이익 창출 가능성 선별	대출고객의 대출용도에 따른 대출금 사용 여부 면밀히 검토	선별 프로젝트의 은행 지속가능성 기준 부합여부 검토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일반 영리은행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방안의 타당성 규명	소요자금의 성향 파악, 운전자금보다 시설자금에 상대적 가산점 부여	자금용도와 상환능력 고려, 여신기간 결정	차입자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무상환능력 분석→채권보전 강화 및 여신 감축활동 여부 설정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9, 사회적금융의 나아갈 -선진국 사회적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윤리 브리프스(2019.11.)

- 트리오도스 은행은 프로젝트 선별과정에 있어서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의 임팩트보고 및 투자 표준(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 이하 'IRIS')을 적용하여 임팩트 측정
 - (목표 설정) 사회적 활동에 대한 목적과 장단기 목표 수립을 통해 해당 사회문제의 중대성(materiality)과 크기(Scale)를 파악
 - (수혜자 영향 파악)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직·간접적 소셜 임팩트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관련 이해관계자(target stakeholder) 설정
 - (변화의 크기 측정) 기업 개입 전 사회문제 현황 데이터 수집과 기업 개입 후의 사회적 활동 결과를 정량적 데이터(인터뷰, 정성적 데이터 활용 가능)로 추출하여 두 자료를 비교하여 소셜임팩트 분석
 - (기여도 측정) 변화에 대한 사회적 활동의 기여도를 측정하며 이때 기업이 투입한 자원과 수혜자 수 대비 활동 결과로 산출 가능
 - (잠재적 리스크 파악) 소셜임팩트 창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소 식별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행동전략 구상

■ (주요 프로그램) 트리오도스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예금, 대출, 자산운용, PB업무를 수행하지만 주주가치보다는 저리 예금을 조달하고 사회와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자금 지원(박희원, 2017)

- (예금/대출) 지속가능성 극대화의 은행 이념에 따라 저리의 예금 조달 및 사회와 환경 친화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83% 차지
- (자산운용) 100% 자회사인 '트리오도스 자산운용(Triodos Investment Management BV)'을 통해 2016년 기준 펀드 기반의 임팩트 투자(8개 펀드, 약 17억 유로), 사회적 책임투자(4개 펀드, 약 13억 유로) 부문 운용
 -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는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을 창출하는 자본투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 자산 규모 증가 추세
 - (사회적 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윤리적 투자처는 배제하는 자본투자, 임팩트 투자에 비견하여 다소 소극적인 개념
- (PB업무)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사회에 유익한 상품을 편입하는 등 자산관리를 수행하며 이 또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전체 수익의 2.3% 차지(2016년 기준)

〈표 2-72〉 트리오도스 은행의 자금운용(대출)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대출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분야(sustainable sectors)인지 선별 • (2단계)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문화·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선별 • (3단계) 대출고객의 대출금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
대출가능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및 환경) 유기농 농장, 유기농 음식, 재생에너지, 생태 발전 등 • (문화 및 사회) 교육산업, 탁아, 문화와 예술, 종교,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 (사회적 기업) 비음식소매업, 제조/인쇄, 주택, 공정무역, 미소금융 등
대출제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산업, 도박, 환경위험적 물질 생산기업, 포르노, 담배, 무기산업 등 • 소비를 목적으로 동물을 집단으로 기르는 낙농업, 부패한 기업, 독재적인 기업, 유전자 조작 및 법률을 어긴 기업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가능 영역 심사를 위해 SKAL, Biogarantie, FLO 등의 인증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차주의 법적 형태 뿐 아니라 사업 내용 자체를 평가하고 지원 • 거래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주력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의 용도가 명확한 시설자금 위주로 대출을 운용

자료 : 박희원, 2017, 해외 사회적은행 사례 분석 : 트리오도스 은행, 이슈브리프, KDB산업은행, p.24

■ (주요 성과)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트리오도스 은행은 견고한 대출 증가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순수익을 실현하며 수익성과 리스크를 양호하게 유지(박희원, 2017)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순수익을 실현할 만큼 설립 이후 적자 없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전체 대출 중 부실자산의 비중이 0.1%에 불과
- 트리오도스 은행은 대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예수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까지 10개년 대출 연평균 성장률 20.9%, 예수금 규모 연평균 성장률 19.5%로 집계
- 재무적 수익 외 지속가능성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익 기준을 제한하여 적정 ROE를 3~5%로 설정하여 2016년 기준 3.5% 수준 유지

3) 시사점

■ 실물 자산운용 원칙과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투명한 자산관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금융 기관 위상 확립

- 실물중심의 자산운용 원칙에 입각하며 사명을 기준으로 실물자산에 근거하여 사회 전체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
 - 실물중심의 자산운용과 경영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구조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이윤은 크지 않지만 위험도 크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위기와 충격에 강한 사업 구조를 보유한 것이 특징
-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서 투융자금의 사용처를 대중에게 철저히 공개하여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및 참여 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중요
 - 네덜란드 정부는 상업적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기관이 정식 은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995년부터 녹색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여 약 10년간 5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유입되는 데 기여

5. 영국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Peterborough City Social Impact Bond Project)⁵⁾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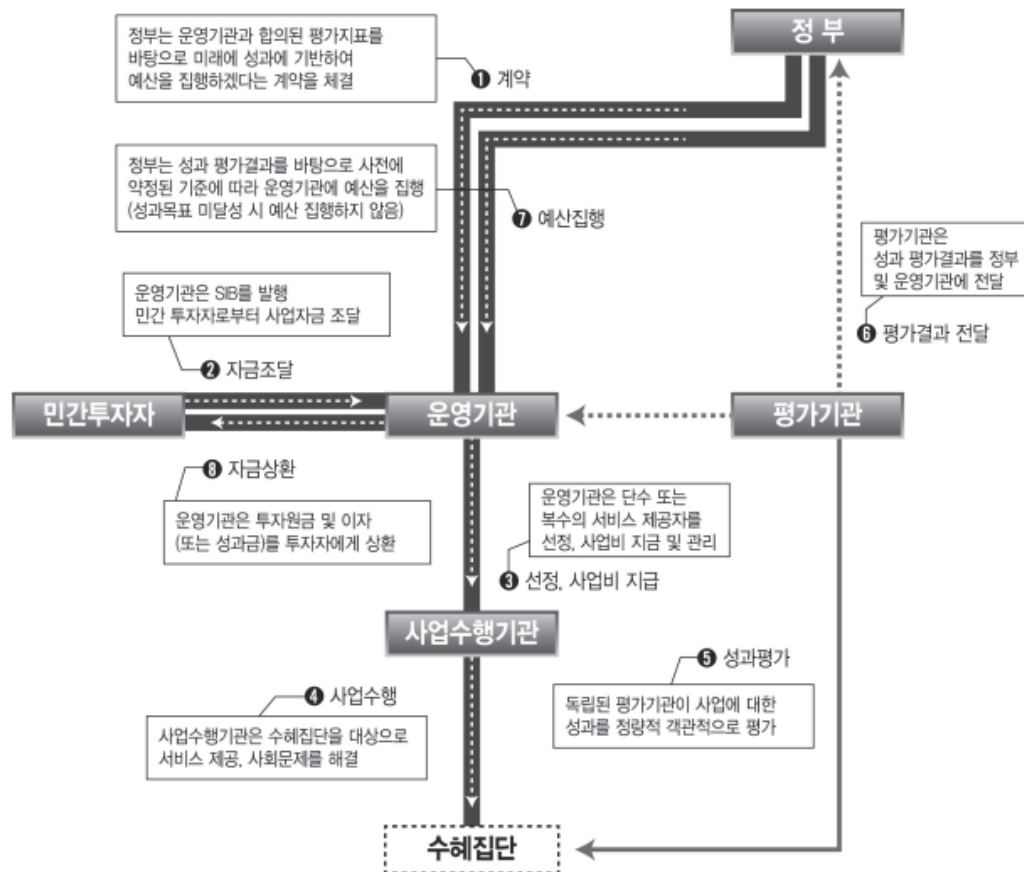
■ (조성배경 및 목적) 2010년 8월 영국 피터버러시(Peterborough City)에서 단기 수감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의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인 ‘the One*Service’ 시작

- 피터버러시는 인구 17만명의 농촌도시로 동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동유럽에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죄목이었기 때문에 피터버러시는 문화적 차이로 감옥에 가는 농민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혁신채권 도입 결정
-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남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죄를 짓고 단기형을 받은 복역자를 대상으로 갱생 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범률을 측정하여 다른 영국 전역 출감수들과 비교하여 평균 7.5%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총 6년 프로젝트 진행
- 성과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투자자는 원금 손실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

■ (사회혁신채권)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이란,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는 성과 기반의 보상 프로그램을 의미(문진수, 2012)

- 사회혁신채권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며(prevention focused), 성과 기반의 보상 프로그램(payment by outcome), 평가 기준과 지표가 필요(reasonable measurement), 다수 이해 당사자들의 협치(governance) 및 위험 분산 및 이전(diversification of risk)의 특성을 보유
 - 사회혁신채권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문제의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의 과정이며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과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사회혁신채권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이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
- SIB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을 의미(곽제훈, 2014)

5) 문진수, 2012; 곽제훈, 2014를 기반으로 작성



〈그림 2-21〉 사회혁신채권(SIB)의 운영구조

자료 : 객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p.57

■ (주요 주체 및 운영 프로세스) 실험프로젝트를 위해 록펠러재단 등 17개 민간재단에서 총 50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고 기준치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경우, 최대 연 13% 이자를 지급하기로 영국 법 무성과 계약 체결

- SIB의 참여자는 정부, 운영기관, 투자자, 사업수행기관, 평가기관의 역할이 상이하며 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장기적인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 창출에 기여

〈표 2-73〉 사회혁신채권(SBI)의 주요 참여자와 역할

구분	역할	이점
정부	•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성과목표 달성 시 사후적으로 약정된 예산을 집행	• 사업실패에 대한 재무적 위험부담 경감 • 성과에 기반을 둔 공공사업을 통해 실질적 사업 효과 증대 • 장기적으로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예방적 사업의 확장으로 사회비용 감소
운영기관	• 정부와의 계약을 근거로 투자자 모집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진행 관리	• 정부, 투자자, 사업수행기관 등과 계약을 맺는 주체로서 SIB 운영의 중심 역할 수행
투자자	• 운영기관과 SIB 계약 체결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에 자금 투입	• 투자를 통한 사회공헌으로 자금의 효율적 활용, 사회공헌 확대 가능 • 사업 성공 시 수익 창출 가능, 사업실패 시 투자금의 손비 또는 기부금 처리 가능 • 성과관리를 통해 사회공헌의 파급력 증대
사업수행기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 수행	• 사업비·운영비 수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직접 수행
평가기관	•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평가	• 성과측정을 통해 공공사업에 기여 • SIB사업비에 평가비용 포함

자료 : 곽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p.60

- 피터버러시 프로젝트의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총 5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하며 정부, 투자자, 지원조직, 수행기관, 프로젝트 참여당사자로 구성
 - (정부) 피터버러시와 영국 법무부 & 빅 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
 - (운영기관)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 (지원조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구성한 특수목적회사인 혁신채권발생기구(Social Impact Bond Issuing Organization, 이하 'SIBIO') 설립
 - (투자자) 총 17개의 민간재단(영국 15개, 미국 2개)
 - (프로젝트 참여 당사자) 피터버러시 감옥 수감자 중 참여희망자 3,000명

〈표 2-74〉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SBI)의 이해당사자

구분	주요 내용
국가/지역	• 영국 / Peterborough
정부(지급보증자)	• Ministry of Justice, Big Lottery Fund
계약체결시기	• 2010년 3월
발행규모	• 500만 파운드(약 87억 원)
운영기관	• Social Finance Ltd. UK
투자기관	• Barrow Cadbury Charitable Trust, Esmée Fairbairn Foundatio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등 17개 민간기관
사업수행기관	• One Service(St Giles Trust, Ormiston Trust, YMCA, SOVA)
평가기관	• University of Leicester, QinetiQ

자료 : 곽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p.63

2) 주요 내용

■ (운용구조) 사회혁신채권 운영 프로세스는 5가지 단계로 추진

- ①피터버러시와 중간지원조직인 SIBIO 간 서비스 이행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 성과에 기반한 지불약속(목표 미달 시 미지급)에 대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②중간지원조직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17개의 투자자(혹은 투자기관)에게 채권 발행, ③선정된 프로젝트 수행기관(4곳)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전자금 지급, ④수행기관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⑤사업수행 평가가 마무리되면 성과를 측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상
- 피터버러시는 6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2년간 결과를 추적평가하여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감소하면 최소 연 2.5%에서 최대 연 13.0% 수익률 보장
- 성과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투자자는 원금 손실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

■ (주요 프로그램) 주거지원, 건강 및 심리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 50년 동안 수감자들의 갱생 및 자활을 전문적으로 다뤘은 자일스(St Giles Trust), 수감자 가족 특히 자녀 문제에 주목해 온 올미스톤(Ormiston Children & Family Trust), 출감 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는 소바(SOVA)와 와이엠시에이(YMCA)가 전문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구성
- 4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은 4개로 구분된 프로세스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운영

〈표 2-75〉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수행기관별 특성

수행기관명	주요 내용
St Giles Tr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설립된 자선단체로, 수감자들의 자활을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 • 수감자들과의 개별접촉부터 재범방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조언 등 프로세스 전 과정에 적극 개입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된 아이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수감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가족의 이해, 출감 후 가정 내 복귀를 위한 준비와 정착 프로그램 개발, 수감자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SO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land 및 Wales 지역에서 범죄자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활동하는 자선단체로, 3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단체 • 출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 상담 및 도움 제공
YM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 • SOVA와 마찬가지로 수감자 대상 1:1 맞춤 상담 진행

자료 : 문진수, 2012,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서울연구원, p.36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프로젝트 결과) 2010년 9월 시작된 피터버러시의 프로젝트는 2017년 7월에 마무리되었고 시범 운영 결과 SIB의 수감자 재범률 감소비율을 법무부가 설정한 목표인 7.5%보다 높은 9.02%를 기록하며 성공(한영선, 2017)

- 영국 법무부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One Service를 운영한 Social Foundation에 약정한 원금과 3% 수익금 지급
- 범죄자에게 엄벌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형사정책이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SIB 모델을 통해 성공한 사례

■ (피터버러시의 프로젝트 성공요인) 6가지의 성공요인 도출(한영선, 2017)

-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관리 철저, 대상자의 수요 사전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자원 봉사자 적극 활용, 교도소 입소와 동시에 출소 후 지원 교육 수행, 적극적인 프로그램 조정 및 변화, 사업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표 2-76〉 피터버러시의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성공요인

성공요인	주요 내용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용 팸플렛,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 • 동료 재소자를 교육하여 Peer support adviser로 양성 • 참여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락이 끊긴 대상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편지, 전화, 대면접촉, 가정방문 등의 방법 사용
참여대상자의 수요 사전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시작 초기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을 설문하여 대상자들은 출소 후 직업훈련의 수요가 높음을 도출하여 John Laing Training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hn Laing Training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 관련 교육 실시 기관 • 출소 후 즉시, 또는 단기간에 수준 높은 접촉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질적, 금융적 지원 수행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va는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멘토링 자원으로 활용 • 대학생, 은퇴자, 전직 판사 및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멘토-멘티 연결
교도소 입소와 동시에 출소 후 지원 교육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교도소에 입소할 때부터 출소 후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 • 사업수행기관인 One*Service는 HMP 피터버러 교도소와 상호협력하여 교도소 사회정착팀(prison resettlement team)이 주관하는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재소자가 출소할 때 주거와 수당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
적극적인 프로그램 조정 및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ervice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Jobcenter Plus의 승인을 받아 참여대상자들이 일 자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조정 • 참여대상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ervice는 YMCA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수행기관들이 One*Service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일하며 허브 조성 • 대상자들은 예약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필요로 하는 직원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자료 : 한영선, 2017, 영국 피터버러 SIB의 성공과 시사점,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11(3), 31-66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 (주요 성과) SIB가 소개되면서 영국의 타 지역과 함께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

-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채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비용 절감 및 성과 창출

〈표 2-77〉 국가 및 지역별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 주제

국가	지역	사업 주제
영국	Peterborough	•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 감소
	Sussex	• 위기 청소년의 가정이탈 방지
	London	• 노숙인들의 탈노숙
	전국	• 영국 내 입양 필요 아동의 입양 및 입양 후 정착
	Manchester	• 보호시설 아동 가정 복귀
미국	New York	• 청소년 재소자들의 재수감률 감소
	Saltlake	• 저소득층 아동의 특수교육 감소
	Massachusetts	• 청년 재범률 감소 및 취업
호주	New South Wales	• 가정 외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New South Wales	• 가정 외 보호아동 발생 예방
아일랜드	Dublin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속가능한 거주지 제공
네덜란드	Rotterdam	• 근로 장려, 직업 교육 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개선
벨기에	Brussels	• 청년 이민자의 취업률 제고
이스라엘	유대교 공동체 지역	• 높은 실업문제를 겪는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의 취업률 제고

자료 : 객제훈, 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국제개발협력, p.60

3) 시사점

■ 정부지급보증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모델

- 사회혁신채권은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향후 사회적경제 분야의 시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 부여 및 혁신성, 자율성 증대

- 지역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이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설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중요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이 직면하고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사회성과혁신채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

6. 이탈리아 레가 코프 연대기금(Legacoop Coopfond)⁶⁾

1) 개요

■ (조성배경)

- 이탈리아의 통일 직후(19세기 말~20세기 초) 공화주의·사회주의·보수주의·가톨릭진영 모두 풀뿌리 서민조직으로서 협동조합운동 전개(박석두, 2014)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맹은 대표적으로 레가코프(LEGACOOP), 협동조합연합(CCI), 협동조합총연합(AGCI), 이탈리아협동조합연합(UNCI)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중 레가코프는 1886년에 창설된 협동조합연맹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
 - 레가코프(Legacoop)는 연결(lega)과 협동조합(coop)의 합성어로, 레가코프는 협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동조합을 지원·보호하는 단체를 의미
- 레가코프에 가입된 협동조합은 300여 개이며, 2만 5천명의 직원과 4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신기동 외, 2018)
- 레가는 회원 조직의 가치·이상 및 문화의 발전 촉진, 새로운 협동조합 건설과 발전 촉진, 정부와 다른 부문에 대한 회원조직의 이익 대표, 법에 근거한 회원조직의 관리·감독·관할부서 교섭 등 업무 전담,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 건설, 세계 협동조합 발전에 헌신할 것을 과제로 설정(박석두, 2014)
- 레가는 협동조합 서비스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전국 조직과 각 지역의 특색에 기초한 전국연합·주연합·지역조합 등으로 세분화

6) 박석두, 2014; 신기동 외, 2018; 이철선 외, 2017 등을 기반으로 작성

〈표 2-78〉 레가 코프의 소속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주요 업무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Cooperatives (ANCC/COOP) 전국생협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설립 • (주요 목표) 1. 조합원의 민주적 참가를 통해 조합원의 이익과 가치 보장 2. 소비자의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며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방위하고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 3.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가능한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 4.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익을 재투자, 산하에 사업조직인 Coop Italia(이탈리아생협연합회)를 두어 경제사업 추진
Legacoop Agroalimentare 전국농업/식품/농촌개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설립 • (주요 목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공통농업목표를 지키는 것과 경쟁력 증대 • (기업전략) 1.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들 사이에 파트너십과 합병을 추진 2. 유럽연합의 농협들과 파트너십 형성 3. 국제적인 전략 수립 4. 독자적이고 높은 품질의 생산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전략 5. 농업회사 및 농촌지역의 다양한 발전 특히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고품질 상품을 보증하기 위한 생산이력추적제도를 확립
Ancab 전국주택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설립되었으며 약 3천 개의 협동조합. 조합원은 40만 명.
Ancd 전국소매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설립되었으며 소매유통부문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영업체들이 상호협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조직은 코나드협동조합(Consorzio Nazionale Conad)이며 약 4천 개의 소매상이 포함됨
Ancpl 전국노동자/생산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제조, 엔지니어 및 디자인부문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망라 • 아주 작은 지역기업에서 해외수출이 많은 큰 사업체까지 다양하며 이들의 법률, 제도, 금융면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 • Ancpl은 유럽의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및 참가형기업의 연맹인 CECOP(본부는 브뤼셀)의 창립멤버
ANdCC 문화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협동조합은 연극제작, 시네마제작, 비디오제작, 인쇄출판 부문의 조직 • 주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필요에 부응하여 지자체수준에서 상호연결되어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 • 문화유산분야에서는 Consorzio Nazionale Servizi를 결성하여 이 협동조합이 Elemond라는 회사랑 함께 박물관 안내 및 운영 관리사업 추진(서점, 가이드안내, 인포메이션센터운영, 전자입장권취급 등), 로마의 콜로세움의 입장, 운영 관리 역시 여기에 속한 Pierreci 협동조합, Coplat 협동조합이 Elemond와 함께 운영
Ancst 전국 서비스 및 관광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설립되었으며 소매유통이 아닌 서비스를 담당하는 두 개의 협동조합이 합병하여 탄생하여 레가에서 단협 수나 고용자수, 사업실적에서 가장 주요한 조직 중 하나 • 교통, 화물운송, 물류, 건강과 고용서비스, 단체급식 및 개인 케터링, 위생관리 및 환경보수, 시설보수관리, 의사협동조합, 친환경관광, 공예품제작 등. 소매 유통이 아닌 서비스, 관광부문의 협동조합들을 망라
LEGAPES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수산업협동조합
MEDIACOOOP 저널리스트,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10월 설립되었으며 회원 수는 370명 • 전국범위의 출판사, 그래픽, 인쇄 및 발행, 라디오TV방송국, 재택 신문편집, 영화제작, 비디오 프로덕션을 포괄하며 이들은 모두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주장)을 지닌 비영리조직 • 연합회의 목표는 각 협동조합들의 독특함을 보장 및 자문, 비영리 저널리즘과 각 취재원들이 자치와 정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
LEGACOOOP SOCIALI 레가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레가에 소속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조직 • 회원조합은 1,550개 중 1,110개는 사회, 위생, 가사지원 및 교육 서비스분야(A형) 440개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야(B형) 60개는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
FIMIV 후생/공제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년에 설립된 연합조직으로 건강, 사회적, 문화적,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상호부조를 하는 조직으로 100여개의 사업체가 소속 • FIMIV 건강카드를 소지하면 병원요양, 치과, 건강검진 등에서 할인요금 적용

자료 : 박석두, 2014,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문화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4~15

■ (조성목적)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레가 코프는 협동조합 개발 기금인 코프펀드(Coopfond)를 조성

- 1992년 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이자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인 ‘출자조합원 제도’가 인정되면서 협동조합 연대기금인 코프펀드(Coopfond) 창설
- 레가 협동조합연맹에 가입한 협동조합이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자금은 코프 펀드로 이전되며 이 자금들은 새로운 협동조합 결성과 소규모의 협동조합 성장을 지원하는 데 투입
- 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레가 코프의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 기업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도 있으며 2012년 이탈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협동조합 회원사를 위해 레가 코프는 재정 지원 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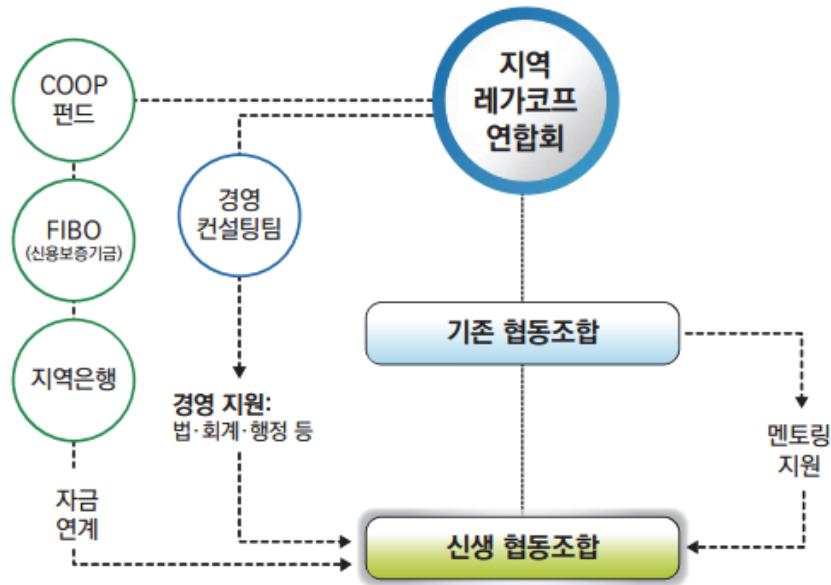
■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 운영

- 레가 코프는 협동조합·지역적·품목별 연계 등의 유연성 확보, 정치적 분야의 요구(양성평등, 고용평등, 사회참여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문제 해결, 협동조합의 전국 연합조직 건설, 의사소통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운용구조) 레가 코프에 가입된 협동조합은 매년 해당 협동조합의 수익 3%를 협동조합발전기금으로 적립

■ (주요 프로그램) 레가 코프는 협동조합 창업 육성을 직접 지원하며 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지역 연합회가 지역 내 창업 관련 계획과 지원을 총괄하는 프랜차이즈본부를 대행하는 창업지원 모델로, 코프 펀드를 활용하여 신생 협동조합 창업 시, 은행융자의 담보로 활용 가능(이철선 외, 2017)
- 볼로냐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창업 시 또는 신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자금을 Coopfond와 FIBO, 일반 은행 등을 통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 환경 구축
 - 볼로냐 개별 협동조합들의 이익 3%를 기반으로 조성도니 신용보증기금인 FIBO(신용보증기금) 등이 존재
- 협동조합 창업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레가-볼로냐 지역 연합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창업 지원을 담당하는 약 20여 명의 경영 컨설턴트 상주하며 신생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운영 과정 상 필요한 제반 여건을 경영 컨설팅 형태로 지원



〈그림 2-22〉 레가 코프의 협동조합 육성구조

자료 : 이철선 외, 2017,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9

- 레가 코프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는 다양한 조직을 통해 수행되는데, FINEC, Banec, Cfi 등의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표 2-79〉 레가 코프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계

조직명	설립연도	설립 목적
Fincooper (현 C.C.F.S)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및 대출과 협동조합의 신용과 채무의 청산 기능 담당 • 2001년에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CCFR과 합병하여 CCFS(Financial Cooperative consortium for development)로 전환
FINEC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가와 이탈리아 최대 국영 신용기관인 IMI가 공동설립 • 협동조합에 벤처캐피탈, 장기투자, 금융서비스 등 제공(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 상담 기능 포함)
Banec (cooperative economic bank)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협동조합이 매장을 개설하는 데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Cfi (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cora fund를 운영하는 곳으로 파산한 주식회사를 종업원소유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지원 담당
Coopfond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레가코프의 모든 회원조합들이 매년 당기순이익금의 3%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성한 기금 • 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지원과 협동조합의 혁신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자료 : 박찬임 외, 2014,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93

- 이 외에도 협동조합에 필요한 연구 및 컨설턴트 업무와 외부 프로젝트를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교육훈련기관인 Infocoop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 및 신탁회사인 Unipol 등을 보유

〈표 2-80〉 레가 코프의 전국 조직 및 주요 업무

조직명	주요 업무
Infoc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설립한 레가의 교육훈련기관 • 회원조직이 위탁하는 연구 및 컨설턴트 업무 뿐만 아니라 타 경제부문에서 위탁하는 프로젝트도 수행
Unip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설립한 보험, 신탁회사 • 자본의 65%를 1천 개 이상의 단협, 사업연합이 가지며 29%를 서독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복리후생조직인 폭스퓨어조르게가 지니고 남은 이탈리아의 직공, 영세농민, 소매상이 분담 • 이탈리아보험업계 120개 회사 중 6~7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자료 : 박석두, 2014,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문화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6

- 이 외에도 소비자, 생산, 농업, 건설, 운송, 수산업, 보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파악하여 정부와 정보 교류 및 관계 유지 지원
- 레가 코프는 지역 협동조합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공공부문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EU연합, 주정부, 시의회와 정기적인 모임 개최

3) 시사점

■ 협동조합의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에 있어서 선배 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연결

- 협동조합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그들의 결성 목적을 달성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 자금이 부족의 어려움이 공존하는 협동조합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기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적극적인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기금 조성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레가 펀드를 활용하여 도산된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고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여 해당 조합의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조합의 자금을 지속적 확보



제4절

국내 사회적금융 사례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례

1) 개요

- (설치 근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 목적)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운영을 적극 지원
- (기금 용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설치 연도) 2016년 (2017년 사업 개시)
- (사업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융자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등
- (전입금 누계) 23년 기준 296.5억 원

2) 주요 내용

- (기금 조성액)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액(보유액)은 2017년 약 20억 원, 2018년 약 92억 원 규모였으나 점차 축소하여 2020년 약 7억 원 규모로 가장 적었고,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약 52억 원인 상태
- (기금 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융자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융자사업 집행액이 점차 확대되다가 2021년부터는 이차보전 사업에만 집행함
 - 구체적으로 2018년도 약 7억 7천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투입하여, 2019년 민간융자금 약 9억 7천만 원, 이차보전금 260만 원, 2020년 민간융자금 145억 원, 이차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민간융자금의 집행 없이 이차보전금으로서 3억 2천여만 원이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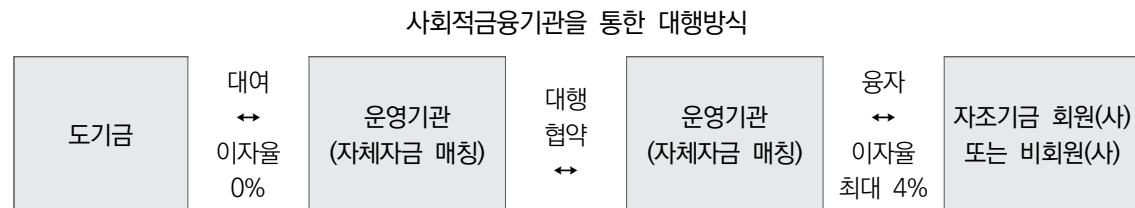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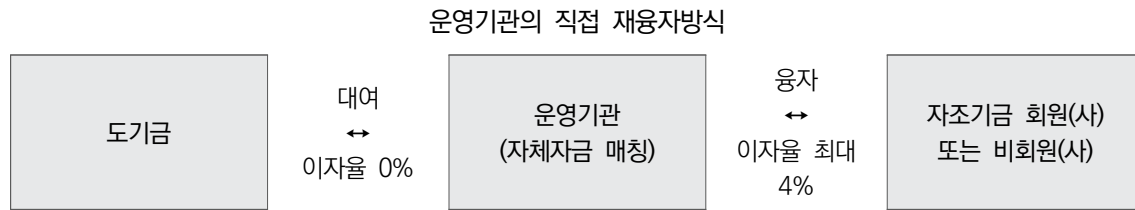
-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별용자” 사업(사회가치벤처펀드)의 운용방식이 기존 사회적경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구조에서 지역 신탁 등 수행기관의 재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용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기금 사업) 서울시와 달리 용자 재원, 수행기관, 지원 내용이 다양함

- 2018년 부동산자산화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0년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특별용자”사업(사회가치벤처펀드)을 시행함
- 2019년 “특별용자”사업은 용자규모 40억 원, 용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용자금리 신용대출 연 3%이내, 담보대출 연 2.5%이내, 용자기간 최소 3년, 최장 10년으로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에 따라 이차보전도 제공하였음. 이차보전율은 사회적가치 평가점수에 따라 신용대출의 경우 0~2%, 담보대출의 경우 0~1.5%임
- 2020년에도 수행기관을 통한 “특별용자”사업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보증용자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함
- 2021년에 “특별용자” 사업(사회가치벤처펀드)을 “기금융자”와 “협조용자”로 구분하여 시행함. “기금융자”와 “협조용자”는 용자 재원으로 구분하는데, “기금융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용자재원으로 하고, “협조용자”는 지역신탁 자금을 용자 재원으로 함. “기금융자”와 “협조용자”는 대출금리에서 차이가 있음
- 2022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융자” 사업은 중지되고, 지역신탁 자금을 용자재원으로 하는 “협조용자” 사업과 신한은행 자금을 용자재원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용자사업”이 시행함. 또한 경기도는 2022년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 특별용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
- 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 특별용자 사업은 위와 같이 운영기관의 성격을 사회적금융기관 등 투자, 용자 역량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성격의 법인”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음. 즉, 운영기관은 자조기금 최초 자금 조성 및 추가 자금조달 업무만을 수행하고, 채용자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도 가능함

■ (주요 성과) 수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 운영·관리

- 경기도는 최초 기금 설치 시부터 현재까지 도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용자사업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
- 2019~2020년 시행된 “특별용자” 중 “기금융자” 사업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을 통하여 용자사업을 운영·관리함. 경기도는 특별용자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선정함. 수행기관은 경기도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대여받은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 이하로 용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함



- 2020년 시행된 “보증·융자지원”과 2021년부터 시행된 “특별융자” 중 “협조융자”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을 운영·관리한다는 점은 위 “기금융자” 사업과 동일하나, 경기도가 수행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경기도 융자사업은 수행기관의 재원으로 융자가 이루어지는 협조융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융자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

■ (주요 성과)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한 이차보전

- 경기도는 “특별융자”를 운영함에 기금융자와 협조융자 방식을 불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차등적으로 지원

- (지원실적)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재원으로 한 융자사업에 따른 총 지원 건수는 365건, 총 융자금액은 약 330억 원에 달함. 특히, 사회적가치벤처펀드의 지원건수 및 규모가 타 사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음

2. 서울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례

■ 개요

- (설립배경)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거·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투·융자 지원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
 - 기금의 설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시장 방침, 12.4.13)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2.7.30 제정)」에 근거
- (기금조성) 서울시는 당초 총 3,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의회는 2012. 8.17. 사회경제적 여건과 민간이 기부금 모집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기금 규모를 2,000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이후 서울시의 재정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재차 기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축소함.

- 실제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은 2013년 말 약 379억 원 규모였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하여 2018년 약 88억 원 정도로 조성액이 가장 적었고,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1년 약 272억 원 정도임.

〈표 2-8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3	20	37,954	50,336	12,381	37,974
2014	37,974	△5,216	3,543	8,760	32,757
2015	32,757	△9,901	5,701	15,602	22,856
2016	22,856	△12,930	8,823	21,754	9,925
2017	9,925	2,595	12,691	10,096	12,520
2018	12,520	△3,639	9,725	13,364	8,881
2019	8,881	4,335	22,006	17,670	13,216
2020	13,216	2,525	26,393	23,868	15,741
2021	15,741	11,464	29,028	17,564	27,206

출처: 서울시 2013회계연도~2021회계연도 각 결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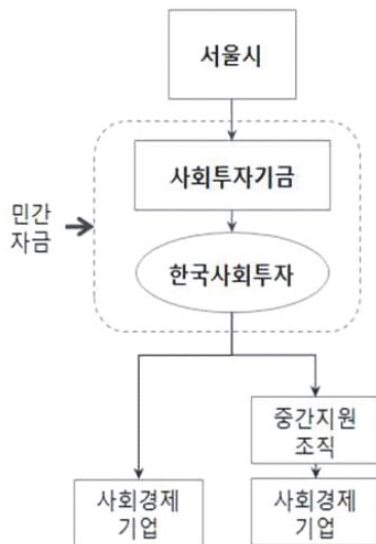
■ 운용구조 및 지원내용

- (운용구조)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재)한국사회투자(가) 민간위탁하여 운용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
 - 서울시는 융자사업 실행을 위하여 최초 기금 설치 시부터 2016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하여 기금을 운용하였음.
 -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업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고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기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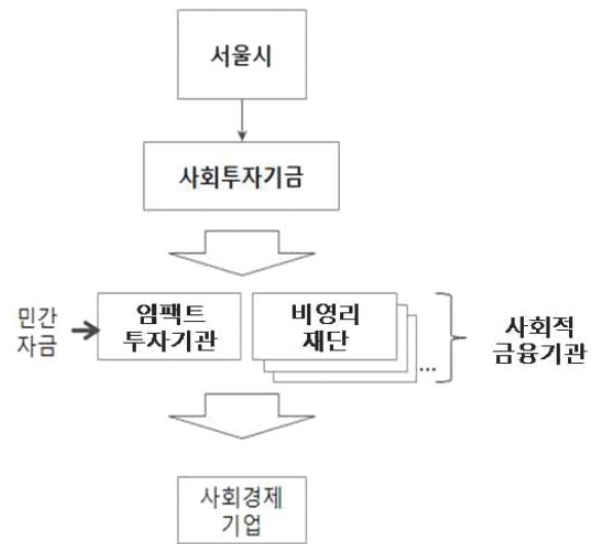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3. 2. 5.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주)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함

- 이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융자심사 및 실행, 회수 등 융자사업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
- 그러나 지방기금법 개정(2015. 7. 24. 법률 제13428호)에 의하여 지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2016. 11. 3.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2017. 4. 1. 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직영으로 운용
- 단, 서울시가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업무 전체를 직영한 것은 아니며,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업무만 직접 운용하고, 융자사업 운영 및 관리업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수행기관이 수행함.

【개편 전】



【개편 후】



자료: 서울시의회. 2016. 12. 06. 사회투자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지원 융자	사회주택지원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골신용협동조합 • 신목신용협동조합 • 동작신용협동조합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더임팩트(주)/ (주)비플러스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나눔과 미래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자료: 서울특별시(2019), 사회투자기금 2019년 융자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 (운영프로그램) 2021년 총 25,995백만 원
 - ①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23,500백만 원), ② 사회적금융기관 지원(470백만 원), ③ 이차보전금 (1,095백만 원), ④ 임팩트투자조합 출자(600백만 원), ⑤ 채권 및 기타 관리비(330백만 원)
 - 공모 대상 사업 : 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사업, ② 주거 취약계층 주택공급사업, ③

취약계층의 창업 및 자립 지원 사업, ④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사회적투자 사업, ⑤ 사회적경제주체 소유의 민간 자산 클러스터 조성 지원, ⑥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영리, 비영리 법인, (예비)사회적기업 등
- 서울시 관내에서 공모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을 공급, 지원하는 기관
- 개별 수행기관이 공모 대상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가능

• 사회투자기금의 지원방식

구분	(서울시) 수행기관 융자	(수행기관) 개별기업 재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기간 : 6년(2년거치 원금 분할상환) · 이자율 : 무이자 · 조건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시기금 융자, 채권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사경)최대3억 원, (사회적투자사업) 최대10억 원 · 융자기간 : 6년 (우수는 9년) · 이자율 :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사회적 주택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기간 : 9년(2년거치 원금 분할상환) · 이자율 : 무이자 · 조건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3배 이내에서 시기금 융자, 채권이행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기업당 25억 원(총사업비의 70~90%) · 융자기간 : 최대 9년 · 이자율 :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조건 : 토지(건물) 매입비, 건축비, 설계 감리비 및 부대비용 등
민간자산 클러스터 지원 융자 (3개 이상 사경 공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기간 : 10년(2년거치 원금 분할상환) · 이자율 : 무이자 · 조건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시기금 융자, 채권이행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 50억 원 · 융자기간 : 최대 10년 · 이자율 : 2%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조건 : 해당 취득 부동산 담보권 제공(담보설정권자 : 수행기관)

자료 :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결과(2022)

-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의 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 전반의 불합리·불공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21. 12. 27. ~ 2022. 1. 21.의 기간 동안 사회투자기금 최초 운영부터 현재까지의 관리 운용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음
- 서울시 감사에서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 수행기관 융자 수행 관련 제반 법령·협약,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 수행기관 융자업무에 대한 감독부서 점검 및 제재의 적정성
 - 만기도래·임박 채권 관리의 적정성(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등)
-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건의 회수조치(23,200천 원), 1건의 기관경고조치, 2건의 주의조치, 13건의 통보조치가 있었음

- 서울시 감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가 되었으나, 사회투자기금의 용자수행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용자업무의 진행절차에 따라 i) 지원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ii) 지원심사의 기준은 합리적인지, iii) 지원내용은 사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 수행기관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지적사항을 iv)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와 감사원 재정용자사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1) 지원대상 선정, (2) 심사 기준, (3) 사후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 지원 대상의 적정성 : 지원대상의 적정성 분야에서 감사지적유형은 ‘지원대상업체의 지원자격 미비(유형 1-A)’와 ‘중복용자 등으로 인한 지원한도 초과(유형 1-B)’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 심사기준 : 지원심사기준 분야에서 주요 감사지적유형은 ‘성도가 고려되지 않은 심사기준(유형 2-A)’, ‘수행기관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비밀관성(유형 2-B)’, ‘재용자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재평가방식(유형 2-C)’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3) 사후관리 : 지원내용의 사후관리 분야에서 문제되는 주요 감사지적유형은 ‘지원금액의 목적외 사용(유형 3-A)’,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유형 3-B)’,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유형 3-C)’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표 2-82〉 감사지적사항 유형분류

유형 번호	유형제목	주요지적사항	관련 감사사례
1-A	지원대상업체의 지원자격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등에서 정하는 업종이나 업태, 용자횟수 등의 지원 자격이 충족되고 있는가? • 이해관계업체 등으로서 적절한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업체 및 회원사 대상 재용자 부적정 건(서울시) • 지원한도 초과기업에 대한 용자금 지원 부적정 건(중소기업진흥공단) • 환경정책자금 용자심사 부적정 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
1-B	중복용자 등으로 인한 지원한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중복용자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원한도가 이미 초과되지는 않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기금 중복 용자 및 기업당 연간 용자한도 초과 건(서울시) • 보증기관 간 중복보증에 대한 관리 부적정 건(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용자사업 운용 불합리 건(중소기업진흥공단)
2-A	성도가 고려되지 않은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업체의 심사 시 용자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 이러한 평가항목이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한 용자금 차등 지원방안 도입 필요 건(산업통상자원부) • 성장성, 미래가치를 반영한 보증심사제도 구축운용 미흡 건(신용보증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 추천대상 선정 및 평가 부적정 건(한국에너지공단) • 중점정책부분에 대한 보증공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건(기술보증기금 등)
2-B	수행기관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비밀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기관에서 하나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등 용자사업 추진 부적정 건(해양수산부)

유형 번호	유형제목	주요지적사항	관련 감사사례
2-C	재용자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재평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간 연장이나 재대출시 연장 시점에서 새롭게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기 용자가 이루어진 금액이 심사시 고려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자금 용자 채권 관리 미흡의 건(서울시) • 관광산업용자금의 지원한도 산정기준 불합리 건(문화체육관광부) • 중점정책부분에 대한 보증공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건(기술보증기금 등)
3-A	지원금액의 목적 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된 금액이 당초의 용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 지원대상업체가 폐업이나 사업등록 취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목적대로 용자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자금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의 건(서울시) • 정보통신융합기술사업 용자금집행 부적정 건(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보증사후관리 부적정(기술보증기금등)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 용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중소기업진흥공단등) • 장애인고용시설 용자금 투자확인 업무 부적정 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건(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건(창원시)
3-B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가? • 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조치가 이행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자금 용자 채권 관리 미흡의 건(서울시) • 사고대출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부적정(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희망키움뱅크사업 채권관리 미흡 건(보건복지부)
3-C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자금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의 건(서울시) • 중소기업 용자사업 일자리창출 성과측정 및 대책미흡(중소기업진흥 공단등)

■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과제

- ① 지원자격에 대한 사전 점검 : 지원자격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은 일차적으로 사업공고상 지원자격에 대한 검토미비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수행기관에서 이를 사전 스크리닝하는 절차와 기준이 필요함
 - 감사사례에서는 용자금 지원횟수를 위반하거나, 지원대상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자가 실행되는 등 지원대상을 사전공고내용에 따라 적절히 선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지적되었으므로, 수행기관에서 이를 사전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명확한 사전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대부분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등으로 용자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자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용자금 지원횟수나 용자금액 한도 등의 제한을 두는 경우, 횟수나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사회주택,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민간자산클러스터, 고용취약노동자

등으로 부문을 나누어 사업이 운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병존하는 경우 과거 융자횟수나 한도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 ② 지원대상과의 특수관계에 대한 사전 점검 : 한편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융자수행기관과 지원대상업체 사이의 특수관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 특히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된 이유는, 통상적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적경제기금은 민간기관에 기금운용을 위탁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고,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이 관계금융, 지역금융이라는 바탕 하에 운영되었다는 특성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세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업 간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제에서 이해관계, 특수관계란 혈연관계, 고용관계, 지분관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서울시 감사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의 범위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실제로 서울시는 기금 수행기관 선정공고문에 이해관계업체 융자 환수조치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설정 없이 '밀접한 이해관계자'로만 명시하다가 2022.3.에 이르러서야 공고문상 이해관계자 범위를 일부 구체화하였음
 - 이처럼 이해관계업체에 대한 융자 환수조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나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결국 수행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수행기관으로서는 이해관계업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언제든지 융자금의 환수 조치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됨
 - 따라서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특수관계범위가 세밀하게 규정된 법제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행기관의 이해관계업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사전 스크리닝 필요
- ③ 중복지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유사한 융자사업을 통해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중복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원금액 한도가 초과된 문제가 타 사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
 - 일반적으로 우수한 사업실적을 가진 기업에 융자지원이 집중되기 쉽기 때문에 중복융자로 인한 융자편중문제는 타 지원사업에서도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감사원도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중복융자의 원천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
 - 같은 기금으로부터의 중복융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 사이에서 융자횟수나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관 간 중복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기업에 사회적경제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수행기관별로 정기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채널이 필요
- ④ 성과관리 체계 강화 : 기금이 목적으로 하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성과가 효율적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3.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BEF)

1) 개요

- (조성 배경)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9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음.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를 지원함
- (조성 목적) 부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함
- (참여 기관) 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임

2) 주요 내용

- (현황) 중개기관이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공급
 - 지원 대상은 부산 지역 내 창업 및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이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창업기 기업에 대해서는 무상 재정지원(Grant)을 통해 초기 자본을 지원하며, 성장기 기업 및 조직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됨
 - 자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조직에 경영컨설팅 지원 포함
- (운용구조) 설립 초기는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중개기관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4년 현재 (사)사회혁신연구원((사)사회적기업연구원의 법인 상호변경)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 (지원 규모) 2024년 현재 기준 75억 1천만 원
- (주요 프로그램) Launching/Start-up 금융투자, Scale-up 금융지원 부문
 - Launching 금융투자: ①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선정창업팀, ②소셜벤처경연대회 입상기업, ③소셜벤처판별 결과통지서 발급기업 대상 재정지원(무상) (신청금액의 10% 자부담)
 - Start-up 금융투자: 창업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시 3년 미만 및 연매출 3억 원 미만) 대상 재정지원(무상) (신청금액의 10% 자부담)
 - Scale-up 금융지원(대출):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시 3년 이상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상)

대상 대출지원(무이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상 기업: 경영컨설팅 (재무 및 비즈니스모델 의무컨설팅)

■ (주요 성과)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 72개사를 지원해 매출 119억 원, 신규고용 83명, 투자유치 54억 원, 역외기업 5개사 부산 이전 등 성과를 이룸

- 24년 기준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 발굴 및 청년 인구 유출, 1인 가구 확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SK E&S, 언더독스, 스타벅스 등 민간 협업을 강화해 부산형 사회서비스 개발 예정

3) 시사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무상 재정지원과 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 창업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보다는 투자 또는 무상 재정지원이 보다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자금공급 이외에도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측면을 보면 금융과 경영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역량 강화는 향후 상환을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4.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

1) 개요

- (구성 배경) 인천광역시에서 4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기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구성 목적) 인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참여 기관) 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임

2) 주요 내용

- (현황) 중개기관이 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대출, 투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
 -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 설립 2년 미만의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START-UP 분야로 보고 최대 1천만 원의 무상 재정지원,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SCALE-UP 분야로 보고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을 공급함
- (운용구조) 공동기금은 초기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이 중개 기관의 역할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 기금의 주요 조성자 및 관리자로서, 기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
 -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인천에 체계적인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기관(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 내 사회적금융기관((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을 기금운용 컨소시엄 협의체로 지정함
- (운용 현황) 23년 기준 16억 5,500만 원(운용기간: 2018년 11월 ~ 2022년 12월)이며 운용 단위는 1년
- (주요 프로그램) 사업전략 고도화 컨설팅, 분야별 전문 멘토링,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 제품 소개 페이지 제작, 크라우드펀딩 지원, 공공구매 지원, 등의 판로지원
 - 우수 펠로우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비로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무상 재정지원

■ (주요 성과)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 총 64곳 지원, 지원 규모는 총 13억 8,300만 원

- 매출 증가: 펠로우 평균 매출증가율 43.4%(KPI+29.4%p)
- 고용 증가: 총 신규 창출 일자리 117명(KPI+82명)

3) 시사점

■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과 유사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무상 재정지원과 융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 인천 기금은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보다 다양한 경영지원을 하고 있음. 컨설팅뿐만 아니라 판로지원, 클라우드펀딩 지원, 우수 펠로우 기업 지원 등은 기업의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추구 확산, 상환율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음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자조기금)

1) 개요

- (구성배경 및 목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회원인 전북·전주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함
- (투자 대상) 전북/전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2) 주요 내용

- (사업 구조) 중개기관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며, 중개기관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능하고, 차입의 방식으로 가능함
- (운용구조) 민간 자조기금은 지자체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매칭하여 전라북도 또는 전주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황) 2021년(9억 6,000만 원)사업 이후 2024년 전주시 9억 원과 중개 기관의 자체 자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000만 원 지원예정임
- (대출 금액) 경영자금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이내 / 연 8% 이상 고금리 대환대출 가능
 - 5천만 원 이하 대표자 연대보증 / 5천만 원 초과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제출
- (대출기간 및 이자, 상환 방법)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없음 / 기업 심사 및 협의 후 60개월 이하 가능), 최대 연 3% 이내 (심사 및 협의 후 차등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시사점

- 민간 자조기금이 지역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민·관 협력체계의 좋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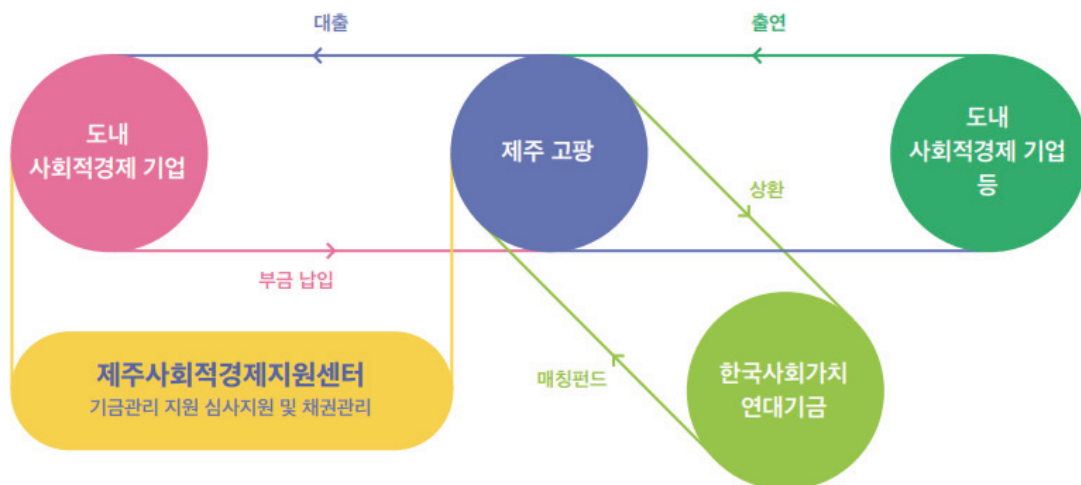
6. 제주사회적경제연대기금 ‘제주고팡’

1) 개요

- (조성배경 및 목적) 2022년 6월 제주사회연대기금을 출범함. 제주고팡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30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1.3억 원을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 향후 회원사와 지역 내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연대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 구조) 제주사경센터 운용기관인 제주사경넷은 2018년 시작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직원 역량강화,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질적 성장
- (자금 납입) 부금과 출연(기부)이며, 부금은 적립식과 일시납입. 적립식은 30 ~ 100만 원이며, 일시납은 10만 원 단위로 운영되며 기간은 만기 36, 48, 60개월 중 선택함. 출연(기부)는 5천만 원으로 가입 시 일시납입
- (용자 종류) 부금 대출(납입부금의 3배, 최대 5천만 원 한도)
 - 금리: 부금 내 대출 시 3%, 부금 외 대출 시 3.75%(고정금리)
 - 지원대상: 부금회원 가입 후 3회차 이상 납입한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 (운용 현황) 23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부터 ‘제주고팡’ 매칭자원을 확보하여 제주도 내 사회적금융 총 운용액 28억 원 (100% 민간주도)임





Ⅲ.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성과분석

- 제1절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성과 분석
-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의 주체별 의견 검토



제1절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목적 :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
- 설치 연도 : 2020년 7월 (조례제정 : 2019. 10. 30.)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추진 경과〉

- 사회적경제 민관 실무 논의 및 선진지 방문 (9회/ '18.11.~'19. 6)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토론회('19.4. 20/60명)
- 사회적경제 기금 포럼 (2회 / '19.7월, 12월/ 충남연구원)
- 사회적경제 기금 수요 조사 ('19.10.)
-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19.10.)
- 기금운용기관 공모 및 심사선정(신협중앙회 /'20.6.)
- 사회적경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민간 공청회 ('20.7.)
- 기금운용에 따른 운용기관 및 사용자 교육(3회), 컨설팅 추진(9월)

■ 기금운용 추진체계

- ① (기금운용위원회) 사회적기금의 거시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행사
- ② (충청남도) 기금 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결산·성과평가와 기금 운용기관 모집·관리 역할
- ③ (기금 운용기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투융자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 사후관리를 비롯해 금융교육, 컨설팅 등의 비 금융사업도 함께 수행

기금운용위원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사업계획 심의, 의결 - 기금 운영 및 집행 평가 - 투융자 규모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기금 운용의 결산 및 성과 분석 - 기금운용기관 선정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대상 투·융자 사업수행 - 기업관리 및 교육, 컨설팅 - 사회목적투자사업 지원

■ 기금조성

- 기금 운용의 재원은 신협 200억 원(신용융자 100억 원, 담보융자 100억 원)이며, 충당도는 20억 원 조성(현재 16.8억 원 조성) 추진
- (조성액) 20억 원(3년간), 손실 분담액 8.8억 원, 이차보전 11.2억 원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023년이후	
					'23년	'24년
계	20.0	5.5	5.5	5.8	3.2	
손실 분담액	8.8	4.4	2.6	1.8	-	-
이차 보전액	11.2	1.1	2.9	4.0	2.3	0.9
신용대출(2.5%)	6.2	0.6	1.6	2.2	1.3	0.5
담보대출(2.0%)	5.0	0.5	1.3	1.8	1.0	0.4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

■ 기금운용 방식

- (기금재원) 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 (사업내용)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등(단계적 추진)
 - (2020~2024) 기금융자, 이차보전 등

■ 융자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설비의 산증설 및 개보수, 유형자산 매입, 개보수,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운영경비, 경영안정자금 및 유동자금, 창업 준비자금

■ 이차보전 : 신용대출(2.5%), 담보대출(2.0%) * 사회가치평가결과 차등지원

- (기금용도) 융자 시 미회수 손실액 기관분담, 이차보전 등
 - 기금운용 손실액 분담지원 : 도 부담 70% 정도
 - 기금 운용 수행기관의 손실 전액 부담에 따른 보수적 운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한해 손실액 분담
 - 분담비율 : 도 부담 70%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5년간)
- 기금운용기관 선정 : 신협중앙회(도내 16개 신협, 19개 지점 운용)
-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 금융위원회 평가시스템 + 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보완

■ 용자조건

- 용자한도 : 기업별 최대 3억 원
 - 신용대출 : 최대 1억 5천만 원, 담보대출 : 최대 3억 원(LTV*한도 내)
- 용자기간 : 신용대출 5년 이내, 담보대출 10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영업개선을 통한 성실상환 유도, 미부과
- 용자금리 : 연 5.8%이하(신용 5.8%, 담보 5.4%(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이차보전 : 대출이 실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담보 구분없이 3.0% 지원
 - 대출금리 약정은 적용 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약정(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4개월 간 지원)

구분	신용	담보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최대 3억 원 (LTV*한도 내)
대출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대출금리	5.8% (1분기)	5.4%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1년)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 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용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등)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중단	

자료 : 2024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지원 계획 공고

■ 평가방법

- 3천만 원 초과 대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 원 이하 대출 : 신속 소액 대출 서류심사

① 지역문제 해결 지향지표

【평가지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측정 하기 위해 사업활동의 지역문제 해결 지향성을 파악하여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문제 해결 성과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평가항목】

-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유형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의 내용이 지역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조직경영, 고용 등 내부 운영에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 지향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③ 제품생산 및 판매, 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 활동이 활발하고 수혜 대상자의 가치실현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지 여부
- ④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수혜자, 구매자, 참여자 등)가 활용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 관련 성과측정 결과가 있는지 여부

【평가자료】

- 기업실태표(1-3-1), 정관, 기업 홈페이지, 관련 활동 보도자료, 사진 등 증빙 가능 자료
- ※ 지역문제 :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빈곤, 소외, 범죄, 환경 등 사회문제

【평가기준】 ※ 평가자료 및 현장 인터뷰 검토 (정성지표)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역문제해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	3	2	1

② 지역민과 함께 기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투자유치 노력

【평가지표】

-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역민의 투자 및 참여를 통해 조직의 역량과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평가항목】

- 지역사회의 투자유치 = (지역사회의 투자유치* / 자본금) * 100
- * 투자 : 지역 거주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 주식총액 또는 출자금 총액의 합
단,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제외

【평가자료】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자료 검토, 기업실태표(1-4-1), 투자금액 증빙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평가기준】 ※ 평가시스템 제출서류 검토 (정량지표)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지역사회의 투자노력	30% 이상	20%~30% 미만	10%~20% 미만	5%~10% 미만	5% 미만
점수	5	4	3	2	1

2.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운용 현황

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운용 현황

■ 지난 5년간 총 21개 신탁 중 19개 신탁에서 75.3억 원(127건 용자 실행)

- 2020년 39개, 2021년 43개로 많은 이용을 보이다가 2022년 이후 20~23건으로 감소세

〈표 3-1〉 연도별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용자 실행현황(2024. 1 기준)

(단위 : 원, 건)

기관명	2020.7~12월		2021.1~12월		2022.1~12월		2023.1~12월		2024.1월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화자산 신탁	160,000,000	4	110,000,000	3	60,000,000	2	-	-	-	-	330,000,000	9
부여 신탁	210,000,000	4	100,000,000	1	60,000,000	3	40,000,000	2	-	-	410,000,000	10
서천 신탁	80,000,000	2	200,000,000	3	-	-	-	-	-	-	280,000,000	5
아산 신탁	400,000,000	6	180,000,000	4	210,000,000	3	600,000,000	5	130,000,000	2	1,520,000,000	20
홍성 신탁	60,000,000	2	-	-	-	-	-	-	-	-	60,000,000	2
풀무 신탁	60,000,000	1	170,000,000	4	30,000,000	1	50,000,000	1	-	-	310,000,000	7
서산 신탁	122,000,000	2	100,000,000	2	20,000,000	1	-	-	-	-	242,000,000	5
대전 신탁	50,000,000	1	30,000,000	1	-	-	-	-	-	-	80,000,000	2
공주 중앙 신탁	150,000,000	2	330,000,000	4	80,000,000	1	180,000,000	3	-	-	740,000,000	10
예산 중부 신탁	70,000,000	2	160,000,000	5	-	-	-	-	-	-	230,000,000	7
내포 신탁	30,000,000	1	30,000,000	1	200,000,000	1	-	-	-	-	260,000,000	3
청양 신탁	110,000,000	3	280,000,000	5	50,000,000	2	210,000,000	3	-	-	650,000,000	13
천안 제일 신탁	480,000,000	5	180,000,000	2	-	-	300,000,000	2	-	-	960,000,000	9
천안 신탁	-	-	80,000,000	3	70,000,000	3	30,000,000	1	-	-	180,000,000	7
당진 신탁	500,000,000	4	240,000,000	4	60,000,000	2	400,000,000	5	-	-	1,200,000,000	15
천안 우리 신탁	-	-	-	-	-	-	50,000,000	1	-	-	50,000,000	1
반도 신탁	-	-	15,000,000	1	15,000,000	1	-	-	-	-	30,000,000	2
합계	2,482,000,000	39	2,205,000,000	43	855,000,000	20	1,860,000,000	23	130,000,000	2	7,532,000,000	127

- 지역별로는 아산시(20건), 천안시(17건), 당진시(15건), 청양군(13건)의 순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이 높은 것이 특징

〈표 3-2〉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실행현황(2024. 1 기준)

(단위 : 원, 건)

기관명	구분	대출 금액	건수	대출 잔액
화지산신탁	논산시	330,000,000	9	123,611,775
부여신탁	부여군	410,000,000	10	252,490,000
서천신탁	서천군	280,000,000	5	183,628,165
아산신탁	아산시	1,520,000,000	20	907,960,000
홍성신탁	홍성군	60,000,000	2	-
풀무신탁	홍성군	310,000,000	7	117,100,000
서산신탁	서산시	242,000,000	5	189,060,824
대천신탁	보령시	80,000,000	2	47,130,000
공주중앙신탁	공주시	740,000,000	10	659,880,000
금산신탁	금산군	-	-	-
예산중부신탁	예산군	230,000,000	7	57,752,451
내포신탁	예산군	260,000,000	3	230,965,396
예산신우신탁	예산군	-	-	-
청양신탁	청양군	650,000,000	13	459,285,543
천안제일신탁	천안시	960,000,000	9	543,460,899
천안신탁	천안시	180,000,000	7	89,789,208
당진신탁	당진시	1,200,000,000	15	627,840,000
당진우리신탁	당진시	-	-	-
서해중앙신탁	당진시	-	-	-
천안우리신탁	천안시	50,000,000	1	42,440,000
반도신탁	태안군	30,000,000	2	5,760,000
합계	21개 조합	7,532,000,000	127	4,538,154,261

■ 5년간 36건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중도상환(32건) 및 만기상환(4건)

- 중도상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 등으로 610백만 원(14건) 중도상환
기업 내부요인으로 835백만 원(16건) 융자 중도상환
기한의 이익 상실로 50백만 원(2건) 융자 상각
- 만기상환 : 만기 도래로 2.4억 원(4건) 만기상환

〈표 3-3〉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중도상환 및 만기상환 현황(2024. 1 기준)

(단위 : 원, 건)

기관명	기업명	대출 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상환일
예산중부	○○○○○○○협동조합	30,000,000	2021.04.26	2025.04.26	2021.12
당진	○○○○영농조합법인	150,000,000	2020.08.27	2025.08.27	2022.02
공주중앙	○○○○○○○협동조합	50,000,000	2020.08.11	2023.08.11	2022.03
아산	(주)○○○○○	50,000,000	2020.08.31	2025.08.31	2022.04
풀무	주식회사 ○○○○○	60,000,000	2020.10.08	2023.10.08	2022.04
부여	주식회사○○(○○)	30,000,000	2020.11.05	20251106	2022.06
예산중부	주식회사 ○○○○○	50,000,000	2020.08.24	2025.08.24	2022.07
천안	주식회사 ○○○○○○	20,000,000	2021.04.05	2024.04.05	2022.07
아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100,000,000	2021.06.14	2023.12.18	2022.09
화지산	주식회사 ○○○○○○○○	50,000,000	2020.09.08	2025.09.08	2022.11
아산	○○○○ 협동조합	30,000,000	2021.10.05	2024.10.08	2023.01
천안제일	주식회사 ○○○	100,000,000	2020.07.31	2025.07.31	2023.02
아산	○○○○○○○협동조합	20,000,000	2020.08.25	2025.08.25	2023.05
홍성	(주)○○○○○○○○○	30,000,000	2020.07.23	2023.07.23	2023.07
홍성	주식회사 ○○	30,000,000	2020.07.27	2023.07.27	2023.07
당진	○○○○○ 주식회사	150,000,000	2020.07.27	2023.07.27	2023.07
당진	주식회사 ○○○○	50,000,000	2020.08.24	2023.08.24	2023.07
서천	주식회사 ○○○○	10,000,000	2021.07.01	2024.07.02	2023.08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30,000,000	2020.08.11	2023.08.11	2023.08
천안제일	주식회사 ○○○○○○	100,000,000	2020.08.18	2025.08.18	2023.08
예산중부	주식회사 ○○	30,000,000	2021.04.14	2025.04.14	2023.09
예산중부	주식회사 ○○○○○○○○	20,000,000	2021.04.19	2024.04.19	2023.09
풀무	○○○○○생활협동조합	50,000,000	2021.05.25	2026.05.25	2023.09.
청양	○○○○○○영농조합법인	30,000,000	2020.10.12	2023.10.12	2023.10.
아산	(주)○○○○○○○	30,000,000	2021.01.12	2023.12.24	2023.10.
청양	○○○○○○○○○ 영농조합법인	30,000,000	2020.11.24	2023.11.24	2023.11.
풀무	주식회사 ○○○○○	30,000,000	2021.02.10	2026.02.10	2023.11.
화지산	농업회사법인 ○○○○○○(주)	30,000,000	2021.04.08	2026.04.08	2023.11.
아산	○○○○○○○협동조합	30,000,000	2022.02.03	2025.02.03	2023.11.
서천	주식회사 ○○○○	30,000,000	2020.12.24	2023.12.24	2023.12.
반도	○○○○○○○○○ 협동조합	15,000,000	2021.02.01	2024.02.01	2023.12.
풀무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30,000,000	2022.03.15	2027.03.15	2023.12.
아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150,000,000	2022.09.28	2026.09.28	2023.12.
서천	○○○○○영농조합법인	30,000,000	2021.04.16	2026.04.16	2023.12.
화지산	○○○○영농조합법인	30,000,000	2021.01.05	2024.01.12	2024.1.
당진	주식회사 ○○○○○○○○	30,000,000	2021.09.29	2026.09.29	2024.1.

■ 24년 1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용자) 접수 현황은 194개 기업(23년 29건), 7,662백만 원 규모

- 3천만 원 초과 대출 : 112개 기업, 5,892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 대출 : 82개 기업, 1,770백만 원

〈표 3-4〉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접수 현황(2024. 1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신청현황	
	기업 수	승인 액
계	194	7,662
사회적가치 평가 용자(3천만 원 초과)	112	5,892
소액·신속·간편 용자출(3천만 원 이하)	82	1,77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4)

2)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2023년)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은 21년 대비 22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 6월 기준 다소 하락함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고용인원은 21년 대비 23년 6월 기준 10.9% 상승

〈표 3-5〉 전체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1년말	22년말	23.6월말
매출액	327.7	779.3	576.4
고용인원	5.5	5.5	6.1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협동조합·비협동조합 매출액 및 고용인원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협동조합은 21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상승하였지만 23년 6월 기준 21년 대비 -12.9% 감소함. 고용인원은 21년 대비 23년 6월 기준 18.4% 증가함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비협동조합 역시 21년 대비 22년 매출액이 상승하였지만 23년 6월 기준 21년 대비 -8.1% 감소함. 고용인원은 21년 대비 23년 6월 기준 19.2% 증가함

〈표 3-6〉 협동조합 및 비협동조합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1년말	22년말	23.6월말
협동조합 ⁷⁾	매출액	243.6	275.3	212.2
	고용인원	4.9	5.4	5.8
비협동조합 ⁸⁾	매출액	798.3	964.0	733.8
	고용인원	5.2	5.6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용자 시기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기금 용자시기는 2021년(34.2%)로 가장 많이 실행
 - 협동조합은 2022년 7개 기업, 비협동조합은 2021년 21개 기업으로 가장 많이 실행함

〈표 3-7〉 사회적경제기금 용자시기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협동조합	5	5	7	3
비협동조합	14	21	6	15
총계	19	26	13	18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1) 동일 법인에 대한 대출 중복 취급으로 응답계 증가

2) 대출 중복 취급으로 명으로 표시

■ 용자 금액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기금 용자금액은 5천만 원 이하(68.4%), 5천만 원 초과(31.6%) 순

〈표 3-8〉 사회적경제기금 용자금액

(단위: 명)

구분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협동조합	16	4
비협동조합	36	20
총계	52	24

※ 1) 동일 법인에 대한 대출 중복 취급으로 응답계 증가

2) 대출 중복 취급으로 명으로 표시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7)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8)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

■ 활용동기

- 주요 동기로는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35.5%), 시설/운전자금 필요(27.4%) 등 순
 - 협동조합은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9개 기업), 시설/운전자금 필요(3개 기업) 순으로 응답함
 - 비협동조합은 시설/운전자금 필요(14개 기업),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13개 기업) 순으로 응답함

〈표 3-9〉 사회적경제기금 활용동기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가치 위주의 심사	타금융 기관 융자 어려움	소액/긴급 자금 필요	상대적 낮은 금리	시설/운전자금 필요	응답자수
협동조합	9	2	2	1	3	17
비협동조합	13	3	4	11	14	45
총계	35.5	8.1	9.7	19.4	27.4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유입경로

- 사회적경제기금 유입경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46.8%), 신협 및 신협중앙회(19.4%) 양 채널을 통해 절반 이상(66.1%) 유입되었음

〈표 3-10〉 사회적경제기금 유입경로

(단위: %, 명)

구분	도	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신협/중앙회	네트워크 조직	응답자수
협동조합	0	1	11	3	2	17
비협동조합	7	3	18	9	8	45
총계	11.3	6.5	46.8	19.4	16.1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만족도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61.3%), 만족(27.4%) 등 긍정적 응답(88.7%)이 대부분이나 부정적 응답(매우 불만족 1건, 신협의 대출거절) 존재

〈표 3-11〉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자수
협동조합	10	5	2	0	0	17
비협동조합	28	12	4	0	1	45
총계	61.3	27.4	9.7	0.0	1.6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기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기업에서 긍정적인 응답(91.9%)을 보였음. 특히 비협동조합(30개 기업)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12〉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수
협동조합	12	4	1	0	0	17
비협동조합	30	11	3	0	1	45
총계	67.7	24.2	6.5	0.0	1.6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애로사항

- 신청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신청준비서류 과다(24.2%), 신청 절차 복잡(17.7%) 등을 주로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없다(45.2%)로 응답
 - 협동조합은 신청절차 복잡(6개 기업), 비협동조합은 신청준비 서류 과다(11개 기업)가 가장 높음

〈표 3-13〉 신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신청서류 과다	신청절차 복잡	접수기관 직원의 이해부족	처리기간 지연	없음	응답자수
협동조합	4	6	1	0	6	17
비협동조합	11	5	1	3	22	45
총계	24.2	17.7	3.2	4.8	45.2	62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대출심사

- 운용기관(신협)이 대출심사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재무구조(39개), 사회적가치(30개) 등으로 응답 (복수응답)하였으며, 운용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를 중시하는 부분으로 이는 개선과제임

〈표 3-14〉 신협이 대출 심사시 가장 중시한 부분

(단위: %, 명)

구분	사회적가치	재무 구조	사업 계획	대표자 역량	담보력	기타	응답자수
협동조합	9	10	7	2	6	0	34
비협동조합	21	29	22	5	11	2	90
총계	30	39	29	7	17	2	124

자료 : 2023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만족도 설문조사

■ 대출수요

- 2023년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대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31.8% (121개 기업)로 나타남
- 기업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홍성군(66.7%), 논산시(52.6%), 부여군(51.7%) 순으로 대출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5〉 2023년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대출 계획

(단위 :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68.2	31.8
기업 소재지	천안시	86.5	13.5
	공주시	67.6	32.4
	보령시	66.7	33.3
	아산시	75.7	24.3
	서산시	88.9	11.1
	논산시	47.4	52.6
	계룡시	100.0	0.0
	당진시	57.8	42.2
	금산군	66.7	33.3
	부여군	48.3	51.7
	서천군	79.3	20.7
	청양군	77.1	22.9
	홍성군	33.3	66.7
	예산군	77.8	22.2
	태안군	75.0	25.0
법인 설립일	11년 이상	67.9	32.1
	7년 이상~10년 이하	61.4	38.6
	3년이상~6년 이하	72.7	27.3
	2년 이하	62.5	37.5
사회적경제 유형	사회적기업	58.3	41.7
	마을기업	75.3	24.7
	협동조합	73.1	26.9

자료 :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2023)

■ 대출 희망규모

-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규모는 1억 5천만 원 이상(28.0%)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억 ~ 1억 5천만 원 미만 23.1%,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 2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대출 규모는 1억 5천만 원 이상 규모와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이 높게 나타남
- 법인설립일별로 살펴보면, 11년 이상 기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대출 규모가 높게 나타남
-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39.4%)과 마을기업(26.9%)의 대출 규모는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6〉 2023년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대출 규모

(단위 : %)

구분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0,000만 원 미만	10,000만 원 이상 ~15,000만 원 미만	15,000만 원 이상~
전체		9.1	17.5	22.4	23.1	28.0
기업 소재지	천안시	18.2	27.3	9.1	18.2	27.3
	공주시	6.3	12.5	25.0	37.5	18.8
	보령시	0.0	0.0	100.0	0.0	0.0
	아산시	9.1	27.3	18.2	0.0	45.5
	서산시	0.0	0.0	0.0	0.0	100.0
	논산시	0.0	10.0	25.0	25.0	40.0
	계룡시	-	-	-	-	-
	당진시	3.7	7.4	33.3	29.6	25.9
	금산군	14.3	0.0	28.6	42.9	14.3
	부여군	18.8	6.3	18.8	25.0	31.3
	서천군	27.3	27.3	18.2	9.1	18.2
	청양군	11.1	11.1	22.2	11.1	44.4
	홍성군	0.0	50.0	50.0	0.0	0.0
	예산군	0.0	55.6	0.0	33.3	11.1
	태안군	0.0	100.0	0.0	0.0	0.0
법인 설립일	11년 이상	3.0	12.1	15.2	15.2	54.5
	7년이상~10년이하	15.0	15.0	25.0	27.5	17.5
	3년이상~6년이하	9.4	17.0	22.6	30.2	20.8
	2년 이하	5.9	35.3	29.4	5.9	23.5
사회적 경제 유형	사회적기업	8.5	14.1	21.1	16.9	39.4
	마을기업	19.2	15.4	23.1	15.4	26.9
	협동조합	4.3	23.9	23.9	37.0	10.9

자료 :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2023)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성과 분석

1. 일반 현황

■ 응답자의 특성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는 조직의 대표자 대부분이 남성이며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음. 주로 영농조합과 일반기업 출신이며, 법인 설립 기간은 5-10년 미만이 가장 많고, 평균 설립 기간은 7.8년으로 비교적 안정된 기간을 유지하고 있음
- 성장단계는 주로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에 속하며, 법인 유형으로는 주식회사, 사회적경제 유형으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음
 - 성별은 남성 63명(66.3%), 여성 32명(33.7%)임. 대표자 연령은 평균은 53.9세이며 40대 이하 32명(33.7%), 50대 38명(40.0%), 60세 이상 25명(26.3%)임
 - 대표자 경력으로는 영농조합 34명(35.8%), 일반기업 29명(30.5%),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명(12.6%)이며, 법인 설립 기간은 평균 7.8년이며, 5년 미만 24명(25.3%), 5-10년 미만 42명(44.2%), 10년 이상 29명(30.5%)임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명(1.1%), 초기 성장기 38명(40.0%), 고도 성장기 34명(35.8%), 성숙기 22명(23.2%)
 - 법인 유형별로는 사단법인 2명(2.1%), 영농조합 8명(8.4%), 주식회사 53명(55.8%), 일반협동조합 22명(23.2%), 사회적협동조합 10명(10.5%)임
 - 사회적경제 유형으로는 인증 사회적기업 45명(47.4%), 예비사회적기업 16명(16.8%), 마을기업 8명(8.4%), 협동조합 29명(30.5%)임

〈표 3-17〉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일반현황

		응답자수(명)	빈도 (%)	(평균)
	[전체]	95	100.0	
성별	남성	63	66.3	
	여성	32	33.7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2	33.7	
	50대	38	40.0	
	60세 이상	25	26.3	
대표자 연령 평균(세)				53.9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4	35.8	
	일반기업	29	30.5	
	사회적경제기업	17	17.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	12.6	
	기타	3	3.2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4	25.3	
	5-10년 미만	42	44.2	
	10년 이상	29	30.5	
법인 설립 기간 평균(년)				7.8
성장단계	창업기	1	1.1	
	초기 성장기	38	40.0	
	고도 성장기	34	35.8	
	성숙기	22	23.2	
법인 유형1)	사단법인	2	2.1	
	영어농조합	8	8.4	
	주식회사	53	55.8	
	일반 협동조합	22	23.2	
	사회적 협동조합	10	10.5	
사회적경제 유형2)	인증 사회적기업	45	47.4	
	예비사회적기업	16	16.8	
	마을기업	8	8.4	
	협동조합	29	30.5	
	모르겠다	3	3.2	

1)법인유형 & 2)사회적경제 유형은 복수응답

■ 자금조달현황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으로는 투자(66.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17.2%), 보조금(6.2%)순으로 나타남
- 성별, 대표자 연령,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단계별 모두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 역시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40대 이하(72.8%)가 높게 응답함.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은 여성대표 기업과 시민단체/비영리기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표 3-18〉 자금조달 현황

구분		후원 및 기부	보조금	제 1 금융권	제 2 금융권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투자	기타
전체		3.1	6.2	5.6	0.6	17.2	66.8	0.5
성별	남성	2.5	6.9	5.7	1.0	17.9	65.2	0.8
	여성	4.1	4.7	5.3	0.0	15.9	70.0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9	5.5	3.4	0.6	16.7	72.8	0.0
	50대	3.2	5.5	6.3	0.0	16.8	68.2	0.0
	60세 이상	5.6	8.0	7.2	1.6	18.4	57.2	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7	7.5	6.5	.3	16.3	63.2	1.5
	일반기업	.7	5.5	4.5	1.0	20.0	68.3	0.0
	사회적경제기업	4.1	4.7	4.7	1.2	15.9	69.4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2.5	5.0	7.5	0.0	16.7	68.3	0.0
	기타	3.3	10.0	3.3	0.0	10.0	73.3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3	5.8	2.9	.8	20.8	66.3	0.0
	5~10년 미만	3.1	6.5	5.2	.5	15.8	68.8	0.0
	10년 이상	2.8	5.9	8.3	.7	16.2	64.5	1.7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0.0	30.0	70.0	0.0
	초기 성장기	2.4	6.2	3.9	.5	19.1	67.9	0.0
	고도 성장기	2.4	7.1	5.9	.9	15.6	68.2	0.0
	성숙기	5.5	5.0	8.2	.5	15.9	62.7	2.3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타 금융기관 활용률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68.4%),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37.9%),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23.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65.1%),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42.9%),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23.8%)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여성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75.0%),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28.1%),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21.9%) 순으로 이용함
 - 대표자 연령별로는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이며, 40대 이하(78.1%), 60세 이상(72.0%) 순으로 높았음
 - 법인 설립기간별 역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이며, 5년 미만 법인(75.0%), 5-10년 미만 법인(71.4%)순임. 그러나 설립기간이 오래될수록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 비율은 감소하고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성장단계별 창업기에서는 사회적경제 금융기관대출(100%)이 가장 높고 초기성장기, 고도 성장기에는 사회적경제 소액자금 대출(각 81.6%, 64.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9〉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

(단위: %)

구분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사회적 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회적 기업공제 기금	시중은행 사회적 기업 대출	신협 및 새마을금고 대출	기타
전체		10.5	37.9	68.4	2.1	1.1	23.2	10.5	2.1
성별	남성	7.9	42.9	65.1	1.6	1.6	23.8	14.3	3.2
	여성	15.6	28.1	75.0	3.1	0.0	21.9	3.1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9.4	31.3	78.1	0.0	0.0	15.6	9.4	3.1
	50대	15.8	42.1	57.9	5.3	0.0	21.1	13.2	0.0
	60세 이상	4.0	40.0	72.0	0.0	4.0	36.0	8.0	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9	35.3	73.5	0.0	0.0	26.5	17.6	2.9
	일반기업	10.3	41.4	65.5	0.0	0.0	27.6	6.9	3.4
	사회적경제기업	5.9	47.1	52.9	11.8	0.0	23.5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6.7	33.3	75.0	0.0	8.3	8.3	8.3	0.0
	기타	66.7	0.0	100.0	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4.2	33.3	75.0	0.0	0.0	12.5	8.3	4.2
	5-10년 미만	14.3	33.3	71.4	2.4	2.4	19.0	9.5	0.0
	10년 이상	10.3	48.3	58.6	3.4	0.0	37.9	13.8	3.4
성장 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7.9	26.3	81.6	2.6	2.6	13.2	10.5	2.6
	고도 성장기	17.6	38.2	64.7	0.0	0.0	26.5	5.9	2.9
	성숙기	4.5	54.5	54.5	4.5	0.0	36.4	18.2	0.0

*중복응답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이 각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출금액은 5천 5백만 원이며, 대출이율은 2.1%임
- 여성과 40대 이하 대표자의 대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영농조합의 대출 금액 및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이율이 높지만, 대출 금액은 낮음. 또한 고도 성장기 기업의 대출 금액이 높고, 성숙기 기업의 대출 이율이 가장 낮음
 - 성별로는 남성의 대출 시기는 2019·2020년 각(40%) 2021·2020년은 대출경험이 없고 대출금액은 5천 만 원이며, 여성은 2018년(40%) 이후 매년 대출을 하고 있으며(2020년 제외) 대출금액은 6천만 원임
 - 대표자 연령별로 40대 이하가 대출이율이 3.0%로 가장 높고 50대는 1.7%로 60세 이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60세 이상 대출이율은 2.0%로 평균 수준이며, 대출금액이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액이 1억 원(대출이율 3.0)이며, 영농조합 8천 5백만 원(대출 이율 2.5%) 순이며 대부분 2018·2019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은 2021년(100%) 대출 금액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율은 3.0%임. 5-10년 미만은 2019년(50%) 대출 금액은 5천 8백만 원, 대출이율은 2.2%임. 10년 이상은 2018년 (66.7%) 대출 금액은 5천 6백만 원, 대출 이율은 1.7%임
 - 성장 단계별로는 초기 성장기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33.3%, 대출 금액은 3천 3백만 원, 대출 이율은 2.0%임. 고도 성장기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3.3%, 대출 금액은 6천 6백만 원, 대출 이율은 2.3%임. 성숙기는 2020년에 100% 대출 비율을 보였으며, 대출 금액은 5천만 원, 대출 이율은 1.0%로 가장 낮음

〈표 3-20〉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중소기업 정책자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0.0	30.0	20.0	10.0	10.0	55.0	2.1
성별	남성	20.0	40.0	40.0	0.0	0.0	50.0	2.0
	여성	40.0	20.0	0.0	20.0	20.0	60.0	2.2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33.3	33.3	33.3	0.0	53.3	3.0
	50대	33.3	33.3	16.7	0.0	16.7	53.3	1.7
	60세 이상	100.0	0.0	0.0	0.0	0.0	70.0	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0.0	50.0	0.0	0.0	0.0	85.0	2.5
	일반기업	66.7	0.0	33.3	0.0	0.0	46.7	1.7
	사회적경제기업	0.0	0.0	0.0	0.0	100.0	100.0	3.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50.0	0.0	50.0	0.0	40.0	2.0
	기타	0.0	50.0	50.0	0.0	0.0	30.0	2.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0.0	100.0	0.0	30.0	3.0
	5-10년 미만	16.7	50.0	16.7	0.0	16.7	58.3	2.2
	10년 이상	66.7	0.0	33.3	0.0	0.0	56.7	1.7
성장 단계	초기 성장기	33.3	33.3	33.3	0.0	0.0	33.3	2.0
	고도 성장기	33.3	33.3	0.0	16.7	16.7	66.7	2.3
	성숙기	0.0	0.0	100.0	0.0	0.0	50.0	1.0

*BASE :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시기는 전체에서 2020년과 2021년이 각 33.3%, 2022년(22.2%), 2019년 그리고 2023년이 각 5.6%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7천 3백만 원, 대출이율은 2.8%임
 - 성별로는 남성이 2021년(37.0%)에, 여성이 2020년(44.4%)에 대출시기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대출금액 7천 5백만 원, 대출이율 2.8%, 여성의 대출금액 6천 6백만 원, 대출이율 2.8%임.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출비율이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2021년과 2022년이 각 40.0%로 대출시기가 가장 높았고, 40대 이하가 대출금액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이 2020년, 2022년에 각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대출금액은 일반기업이 9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인 경우 2021년(37.5%)에, 5-10년 미만인 경우 2020년(42.9%)에, 10년 이상인 경우 2020년(35.7%)에 대출시기가 가장 높았음. 또한 대출금액은 5-10년 미만 기업이 9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가 2021년(40.0%, 30.8%)에 대출시기가 가장 높았고, 성숙기는 2020년과 2021년(33.3%)에 대출시기가 가장 높았음

〈표 3-21〉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5.6	33.3	33.3	22.2	5.6	73.0	2.8
성별	남성	3.7	29.6	37.0	22.2	7.4	75.0	2.8
	여성	11.1	44.4	22.2	22.2	0.0	66.0	2.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30.0	40.0	20.0	10.0	110.0	2.9
	50대	6.3	50.0	25.0	12.5	6.3	56.0	2.6
	60세 이상	10.0	10.0	40.0	40.0	0.0	64.0	2.9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8.3	8.3	41.7	33.3	8.3	63.0	2.9
	일반기업	8.3	50.0	33.3	0.0	8.3	98.0	2.7
	사회적경제기업	0.0	37.5	37.5	25.0	0.0	67.0	2.6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50.0	0.0	50.0	0.0	42.0	3.1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12.5	37.5	25.0	25.0	56.0	2.9
	5-10년 미만	0.0	42.9	35.7	21.4	0.0	97.0	2.8
	10년 이상	14.3	35.7	28.6	21.4	0.0	60.0	2.7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0.0	0.0	100.0	50.0	3.0
	초기 성장기	0.0	30.0	40.0	20.0	10.0	106.0	2.8
	고도 성장기	0.0	38.5	30.8	30.8	0.0	61.0	2.7
	성숙기	16.7	33.3	33.3	16.7	0.0	61.0	2.8

*BASE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기관 대출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사회적경제 소액자금 대출시기는 전체에서 2021년(38.5%), 2022년(36.9%), 2020년(23.1%), 2023년(1.5%)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2천 8백만 원, 대출이율은 2.7%임
- 성별로는 남성이 2022년(39.0%)에, 여성이 2021년(50.0%)에 가장 높았으며, 대출금액은 남성과 여성 모두 2천 8백만 원, 대출이율 2.7%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경우 2021년(40.0%)에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2022년(각각 63.6%, 55.6%)에 가장 높았음. 연령별 대출금액은 2천 8백만 원이며, 대출이율은 2.7%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2021년(44.4%)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일반기업이 3천 만 원으로 대출금액이 가장 높음. 대출이율은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이 대출이율 3.0%로 가장 높았음
- 성장단계별로는 초기성장기에는 2020년(25.8%)부터 2022년까지(41.9%) 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가 2023년(3.2%)로 크게 낮아짐. 대출금액은 성숙기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음

〈표 3-22〉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사회적경제 소액자금 대출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20	2021	2022	2023		
전체		23.1	38.5	36.9	1.5	28.0	2.7
성별	남성	26.8	31.7	39.0	2.4	28.0	2.7
	여성	16.7	50.0	33.3	0.0	28.0	2.7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6.0	40.0	20.0	4.0	28.0	2.6
	50대	13.6	22.7	63.6	0.0	28.0	2.8
	60세 이상	16.7	55.6	27.8	0.0	28.0	2.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8.0	36.0	36.0	0.0	28.0	2.7
	일반기업	26.3	36.8	31.6	5.3	30.0	2.8
	사회적경제기업	22.2	44.4	33.3	0.0	27.0	2.7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1.1	33.3	55.6	0.0	24.0	3.0
	기타	0.0	66.7	33.3	0.0	30.0	2.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7.8	16.7	50.0	5.6	30.0	2.6
	5-10년 미만	13.3	50.0	36.7	0.0	26.0	2.8
	10년 이상	35.3	41.2	23.5	0.0	30.0	2.7
성장단계	초기 성장기	25.8	29.0	41.9	3.2	29.0	2.8
	고도 성장기	13.6	54.5	31.8	0.0	26.0	2.7
	성숙기	33.3	33.3	33.3	0.0	30.0	2.6

*BASE :충청남도 소액자금 대출 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시기는 2018년 2021년이 각 50%로 나타났고, 평균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평균 대출이율은 2.5%임
- 여성과 법인 설립 기간이 10년 이상 기업, 성숙기 단계 기업의 대출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021년, 여성의 경우 2018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남성, 여성 모두 1억 원이며 대출이율은 남성 2.0%, 여성 3.0%임
 - 대표자 연령으로는 50대에서 2018년과 2021년이 각각 50% 대출을 받았음
 - 대표자 경력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2018년과 2021년이 각각 50% 대출을 받았음
 - 법인설립기간이 10년 이상인 성장대출경험_사회적경제 단계 성숙기의 대출이율이 3.0%로 가장 높음

〈표 3-23〉 타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18	2021		
전체		50.0	50.0	100.0	2.5
성별	남성	0.0	100.0	100.0	2.0
	여성	100.0	0.0	100.0	3.0
대표자 연령	50대	50.0	50.0	100.0	2.5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기업	50.0	50.0	100.0	2.5
법인 설립 기간	5-10년 미만	0.0	100.0	100.0	2.0
	10년 이상	100.0	0.0	100.0	3.0
성장단계	초기 성장기	0.0	100.0	100.0	2.0
	성숙기	100.0	0.0	100.0	3.0

*BASE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사회적기업 공제기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대출시기는 2020년이며, 대출 금액은 2천만 원, 대출 이율은 3.0%로 나타남. 대출이용자는 60세 이상의 남성대표이며,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관에서 업력을 쌓았으며 법인 설립 기간이 5-10년 미만인 초기 성장기에 있는 기업임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20		
전체		100.0	20.0	3.0
성별	남성	100.0	20.0	3.0
대표자 연령	60세 이상	100.0	20.0	3.0
대표자 경력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00.0	20.0	3.0
법인 설립 기간	5-10년 미만	100.0	20.0	3.0
성장단계	초기 성장기	100.0	20.0	3.0

*BASE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기업, 산업, 국민 등)

-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시기는 2018년(36.4%), 2020년(18.2%), 2017년(13.6%) 순으로 높으며 대출금액은 3천 9백만 원, 대출이율은 3.1%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018년(46.7%)이 대출시기 비중이 가장 크고 여성은 2017년과 2020년이 각 28.6%로 특정 연도에 집중된 현상을 보임. 또한 대출금액은 남성 4천 5백 만 원, 여성 2천 7백만 원이며, 대출이율은 남성 3.3%, 여성 2.6%로 남성의 대출금액과 대출이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출시기는 60세 이상이 2018년(55.6%), 40대 이하 2019년(40%)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60세 이상 4천 7백만 원로 대출금액이 가장 큼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과 일반기업의 대출이 비교적 많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100%)에 집중되어 있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 대출금액은 초기 성장기 4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평균 3천 8백만 원 수준임

〈표 3-24〉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4.5	13.6	36.4	9.1	18.2	9.1	9.1	39.0	3.1
성별	남성	6.7	6.7	46.7	13.3	13.3	6.7	6.7	45.0	3.3
	여성	0.0	28.6	14.3	0.0	28.6	14.3	14.3	27.0	2.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20.0	40.0	20.0	0.0	20.0	30.0	3.2
	50대	12.5	25.0	25.0	0.0	12.5	25.0	0.0	36.0	2.8
	60세 이상	0.0	11.1	55.6	0.0	22.2	0.0	11.1	47.0	3.3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11.1	11.1	44.4	11.1	22.2	0.0	0.0	36.0	2.9
	일반기업	0.0	25.0	0.0	12.5	25.0	25.0	12.5	43.0	3.0
	사회적경제기업	0.0	0.0	100.0	0.0	0.0	0.0	0.0	42.0	3.4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0.0	0.0	0.0	0.0	0.0	0.0	100.0	20.0	4.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0.0	0.0	33.3	0.0	66.7	46.0	4.0
	5-10년 미만	0.0	0.0	50.0	25.0	25.0	0.0	0.0	36.0	2.9
	10년 이상	9.1	27.3	36.4	0.0	9.1	18.2	0.0	40.0	3.0
성장 단계	초기 성장기	0.0	0.0	0.0	20.0	40.0	0.0	40.0	42.0	3.6
	고도 성장기	0.0	0.0	55.6	11.1	22.2	11.1	0.0	38.0	2.8
	성숙기	12.5	37.5	37.5	0.0	0.0	12.5	0.0	38.0	3.1

*BASE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 이용자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_신협 및 새마을금고 대출

- 타 금융기관 대출 경험 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대출시기 순서로는 2018년, 2020년, 2022년이 각 20%이며 그 뒤로 2010년, 2017년, 2019년, 2023년이 각10%, 대출금액은 3천 5백만 원, 대출이율은 3.3%임
- 성별로는 남성의 대출금액은 2천 7백만 원, 대출이율은 3.3%이며, 여성의 대출금액은 1억 원, 대출이율은 3.0%임. 여성의 대출금액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대출금액은 4천만 원, 대출이율은 3.5%이며, 40대 이하 대출금액은 2천 3백만 원 대출이율 3.0%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 대출 금액은 1억 원, 대출이율은 3.0%,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금액 5천만 원, 대출이율은 3.5%, 영농조합 대출 금액 2천 6백만 원, 대출이율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조합이 대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대출 금액 5천 2백만 원, 대출이율 3.0%, 5-10년 미만 대출 금액 2천 7백만 원, 대출이율 3.4%, 5년 미만 대출 금액 1천 5백만 원, 대출이율 3.8% 순으로 나타남. 대출이율은 5년 미만 기업이 가장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성숙기 대출 금액 5천 2백만 원, 대출 이율 3.0%, 고도 성장기 대출 금액 4천만 원, 대출이율 3.3%, 초기 성장기 대출 금액 1천 5백만 원, 이율 3.6% 순으로 나타남

〈표 3-25〉 타 금융기관 대출경험_신협 및 새마을금고 대출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출시기(년)							대출금액	대출이율
		2010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전체		10.0	10.0	20.0	10.0	20.0	20.0	10.0	35.0	3.3
성별	남성	11.1	0.0	22.2	11.1	22.2	22.2	11.1	27.0	3.3
	여성	0.0	100.0	0.0	0.0	0.0	0.0	0.0	100.0	3.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33.3	0.0	0.0	66.7	0.0	23.0	3.0
	50대	0.0	20.0	20.0	20.0	20.0	0.0	20.0	40.0	3.5
	60세 이상	50.0	0.0	0.0	0.0	50.0	0.0	0.0	40.0	3.3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16.7	0.0	33.3	0.0	16.7	16.7	16.7	26.0	3.3
	일반기업	0.0	0.0	0.0	50.0	0.0	50.0	0.0	20.0	3.5
	사회적경제기업	0.0	0.0	0.0	0.0	100.0	0.0	0.0	50.0	3.5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0.0	100.0	0.0	0.0	0.0	0.0	0.0	100.0	3.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0.0	0.0	0.0	50.0	50.0	15.0	3.8
	5-10년 미만	0.0	0.0	25.0	25.0	50.0	0.0	0.0	27.0	3.4
	10년 이상	25.0	25.0	25.0	0.0	0.0	25.0	0.0	52.0	3.0
성장 단계	초기 성장기	0.0	0.0	0.0	25.0	25.0	25.0	25.0	15.0	3.6
	고도 성장기	0.0	0.0	50.0	0.0	50.0	0.0	0.0	40.0	3.3
	성숙기	25.0	25.0	25.0	0.0	0.0	25.0	0.0	52.0	3.0

*BASE :신협 및 새마을금고 대출 이용자

■ 타 금융기관 자금 조달용도

- 타 금융기관 자금 조달용도는 운영자금(60.0%), 시설자금(35.8%), 사업개발비(4.2%)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과 성숙기 기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설자금의 비율은 법인설립기간과 성장단계별이 고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47.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창업기에는 사업개발비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음, 그 후 성숙기로 접어들수록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용도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은 운영자금(61.9%), 시설자금(36.5%), 사업개발비(1.6%)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또한 운영자금(56.3%), 시설자금(34.4%), 사업개발비(9.4%) 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개발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비중의 차이가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개발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시설자금(47.1%)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영자금의 비율은 줄고 시설자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임
 - 성장단계별은 창업기는 사업개발비(100.0%). 초기 성장기는 운영자금(68.4%), 고도 성장기는 운영자금(58.8%), 성숙기는 운영자금(50.0%), 시설자금(50.0%)임

〈표 3-26〉 타 금융기관 자금 조달용도

(단위: %)

구분		자금 조달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개발비	건물 및 토지자금	차입금 대한
전체		60.0	35.8	4.2	0.0	0.0
성별	남성	61.9	36.5	1.6	0.0	0.0
	여성	56.3	34.4	9.4	0.0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62.5	34.4	3.1	0.0	0.0
	50대	50.0	42.1	7.9	0.0	0.0
	60세 이상	72.0	28.0	0.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1.8	32.4	5.9	0.0	0.0
	일반기업	58.6	37.9	3.4	0.0	0.0
	사회적경제기업	52.9	47.1	0.0	0.0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33.3	8.3	0.0	0.0
	기타	10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2.5	29.2	8.3	0.0	0.0
	5-10년 미만	61.9	35.7	2.4	0.0	0.0
	10년 이상	55.2	41.4	3.4	0.0	0.0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100.0	0.0	0.0
	초기 성장기	68.4	28.9	2.6	0.0	0.0
	고도 성장기	58.8	35.3	5.9	0.0	0.0
	성숙기	50.0	50.0	0.0	0.0	0.0

■ 타 금융기관 대출 자금 상환 계획

- 타 금융기관 대출 자금 상환계획은 만기일시상환(82.1%), 거치식 상환(10.5%), 분할상환(7.4%)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와 시민단체/비영리기관에서는 100%를 계획함
- 분할상환의 비율은 만기일시상환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법인 설립 기간이 5년 미만일 때와 60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거치식 상환은 법인 설립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17.2%)와 성숙기에서(18.2%)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만기일시상환(82.5%), 거치식 상환(11.1%), 분할 상환(6.3%) 순이며, 여성의 경우 만기일시상환(81.3%), 분할상환(9.4%), 거치식 상환(9.4%) 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 상환계획으로는 만기일시상환, 분할 상환, 거치식 상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의 경우는 만기일시상환(90.6%), 거치식 상환(9.4%)으로 분할 상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만기일시상환(100.0%) 계획이며, 영농조합은 만기일시상환 (79.4%), 거치식 상환(14.7%), 분할상환 (5.9%)순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에서 만기일시상환(90.5%)이 가장 높았으며 5-10년 미만, 10년 이상의 기업은 분할상환의 비율보다 거치식 상환의 계획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만기일시상환(100.0%) 계획이며, 성숙기 기업의 경우 만기일시상환(68.2%)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냄. 이는 창업기에 비하여 성숙기 기업의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기일시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표 3-27〉 타 금융기관 대출 자금 상환 계획

(단위: %)

구분		상환 계획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거치식 상환
전체		82.1	7.4	10.5
성별	남성	82.5	6.3	11.1
	여성	81.3	9.4	9.4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90.6	0.0	9.4
	50대	84.2	7.9	7.9
	60세 이상	68.0	16.0	16.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79.4	5.9	14.7
	일반기업	79.3	10.3	10.3
	사회적경제기업	76.5	11.8	11.8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00.0	0.0	0.0
	기타	10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9.2	12.5	8.3
	5-10년 미만	90.5	2.4	7.1
	10년 이상	72.4	10.3	17.2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0.0	0.0
	초기 성장기	84.2	7.9	7.9
	고도 성장기	88.2	2.9	8.8
	성숙기	68.2	13.6	18.2

■ 타 금융기관 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 타 금융기관 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재무기준(92.6%), 담보부족(91.6%), 높은 경영성과기준(90.5%)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높은 재무기준과 높은 경영 성과 기준, 10년 이상 기업은 담보 부족과 높은 경영 성과 기준, 창업기는 모든 항목에서 100%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은 높은 재무기준(98.4%)이 여성은 담보부족(90.6%)와 높은 경영성과 기준(90.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높은 재무기준(96.0%), 50대 담보 부족(94.7%), 40대 이하 담보 부족(93.8%)으로 응답하여 60세 이상은 높은 재무기준을 큰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각 높은 재무기준과 담보부족(100.0%), 영농조합은 담보부족(97.1%), 일반기업은 높은 경영 성과 기준(96.6%), 사회적경제기업은 각 높은 경영 성과 기준, 높은 재무기준(88.2%)로 응답함
- 법인설립기간이 오래 될수록 높은 재무기준에서 담보부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성장단계별로는 대부분 높은 재무기준이나 성숙기는 담보부족(100%)으로 응답하였음

〈표 3-28〉 타 금융기관 자금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애로사항								
		높은 재무기준	담보 부족	높은 경영성과 기준	승인까지 오랜 소요시간	상환기간 및 방법이 맞지 않음	대출 가능액 작음	서류 작성 및 제출의 어려움	사회적 성과에 대한 미고려	대출금리 높음
전체		92.6	91.6	90.5	65.3	33.7	22.1	7.4	3.2	1.1
성별	남성	98.4	92.1	90.5	66.7	34.9	19.0	7.9	1.6	0.0
	여성	81.3	90.6	90.6	62.5	31.3	28.1	6.3	6.3	3.1
대표자 연령	40대이하	90.6	93.8	84.4	43.8	43.8	25.0	9.4	3.1	0.0
	50대	92.1	94.7	94.7	73.7	31.6	18.4	2.6	5.3	2.6
	60세이상	96.0	84.0	92.0	80.0	24.0	24.0	12.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94.1	97.1	85.3	52.9	47.1	20.6	5.9	2.9	0.0
	일반기업	89.7	86.2	96.6	72.4	27.6	13.8	13.8	3.4	3.4
	사회적경제기업	88.2	82.4	88.2	76.5	11.8	29.4	5.9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00.0	100.0	91.7	66.7	33.3	41.7	0.0	0.0	0.0
	기타	100.0	100.0	100.0	66.7	66.7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87.5	87.5	87.5	62.5	41.7	20.8	4.2	8.3	0.0
	5-10년 미만	95.2	90.5	88.1	59.5	33.3	26.2	7.1	0.0	0.0
	10년 이상	93.1	96.6	96.6	75.9	27.6	17.2	10.3	3.4	3.4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89.5	89.5	89.5	57.9	36.8	23.7	5.3	5.3	0.0
	고도 성장기	94.1	88.2	85.3	58.8	38.2	29.4	11.8	2.9	0.0
	성숙기	95.5	100.0	100.0	86.4	18.2	9.1	4.5	0.0	4.5

*중복응답

■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

-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방식은 정부 보조금(60.0%), 정책 금융 대출(29.5%),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9.5%) 그리고 후원금(1.1%) 순임
- 정책 금융 대출은 창업기 단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 보조금, 정책 금융 대출,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 후원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정부 보조금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연령별 역시 정부 보조금, 정책 금융 대출,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 후원금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은 정책 금융 대출(40.0%) 선호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23.5%)이 다른 경력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0.0%)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립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정책 금융 대출(100.0%)이며, 성장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

(단위: %)

구분		가장 선호 자금조달방식			
		정부 보조금 (사업비보조)	정책 금융 대출	충남사회적경제 기금 활용	후원금
전체		60.0	29.5	9.5	1.1
성별	남성	61.9	31.7	6.3	0.0
	여성	56.3	25.0	15.6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9.4	25.0	15.6	0.0
	50대	63.2	26.3	10.5	0.0
	60세 이상	56.0	40.0	0.0	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4.7	29.4	2.9	2.9
	일반기업	58.6	31.0	10.3	0.0
	사회적경제기업	58.8	17.6	23.5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66.7	33.3	0.0	0.0
	기타	0.0	66.7	33.3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0.8	20.8	8.3	0.0
	5-10년 미만	52.4	40.5	7.1	0.0
	10년 이상	62.1	20.7	13.8	3.4
성장 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초기 성장기	63.2	28.9	7.9	0.0
	고도 성장기	58.8	29.4	8.8	2.9
	성숙기	59.1	27.3	13.6	0.0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목적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에서는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44.2%),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40.0%), 건축물 조성 및 인테리어 등 비용(9.5%),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4.2%), 사업 확대를 위한 개발비 마련을 위해(2.1%) 순으로 나타남
-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은 40대 이하(46.9%)와 60세 이상(4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66.7%)에서 높게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은 신규 설비투자(47.6%), 인건비 충당(36.5%), 건축물 조성(11.1%), 원재료 구매(3.2%), 사업 확대(1.6%) 순이며, 인건비 충당(46.9%), 신규 설비투자(37.5%), 건축물 조성(6.3%), 원재료 구매(6.3%), 사업 확대(3.1%)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는 신규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인건비 충당(40.0%)을 높게 응답하였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대부분 신규 설비 투자와 인건비 충당으로 응답하였으나,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인건비 충당(50.0%)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법인설립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은 인건비 충당(42.9%)이 가장 높고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신규 설비투자를 높게 응답하였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사업 확대(100.0%)이며, 성장을 고도화할수록 신규 설비 투자의 보다는 건축물 조성이나, 원재료 구매도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표 3-30〉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목적

(단위: %)

구분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건축물 조성 및 인테리어 등 비용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를 위한 개발비 마련을 위해
전체		44.2	40.0	9.5	4.2	2.1
성별	남성	47.6	36.5	11.1	3.2	1.6
	여성	37.5	46.9	6.3	6.3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0.0	46.9	0.0	3.1	0.0
	50대	47.4	34.2	10.5	2.6	5.3
	60세 이상	32.0	40.0	20.0	8.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2.9	35.3	5.9	2.9	2.9
	일반기업	44.8	44.8	6.9	3.4	0.0
	사회적경제기업	41.2	29.4	23.5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25.0	50.0	8.3	8.3	8.3
	기타	33.3	66.7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54.2	37.5	4.2	0.0	4.2
	5-10년 미만	38.1	42.9	9.5	7.1	2.4
	10년 이상	44.8	37.9	13.8	3.4	0.0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0.0	0.0	100.0
	초기 성장기	52.6	42.1	2.6	2.6	0.0
	고도 성장기	41.2	41.2	11.8	2.9	2.9
	성숙기	36.4	36.4	18.2	9.1	0.0

■ 희망대출액보다 적게 받은 이유

- 희망대출액보다 적게 받은 이유 순으로 대출액 등 경영성과 미흡(71.4%), 부채 등 재무적 현황(21.4%) 그리고 대출기관의 요구(7.1%)순임
- 부채 등 재무적 현황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대표자 경력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66.7%)와 영농조합인 경우(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모두 대출액 등 경영성과 미흡 항목이 1순위로 나타남

〈표 3-31〉 희망대출액보다 적게 받은 이유

(단위: %)

구분		희망대출액 보다 적게 받은 이유		
		대출액 등 경영성과 미흡	부채 등 재무적 현황	대출기관의 요구
전체		71.4	21.4	7.1
성별	남성	75.0	25.0	0.0
	여성	66.7	16.7	16.7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0.0	25.0	25.0
	50대	75.0	25.0	0.0
	60세 이상	100.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0.0	50.0	0.0
	일반기업	100.0	0.0	0.0
	사회적경제기업	33.3	66.7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66.7	0.0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50.0	50.0	0.0
	5-10년 미만	50.0	25.0	25.0
	10년 이상	100.0	0.0	0.0
성장단계	초기 성장기	60.0	40.0	0.0
	고도 성장기	66.7	16.7	16.7
	성숙기	100.0	0.0	0.0

*BASE : 해당기업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동기

-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용 동기로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72.6%),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21.1%), 타 금융기관의 용자가 어려워서(6.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모두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 항목이 1순위를 차지함
- 특히 성장단계 창업기에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100%)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동기

(단위: %)

구분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동기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타 금융기관의 용자가 어려워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
전체		21.1	6.3	72.6
성별	남성	20.6	7.9	71.4
	여성	21.9	3.1	75.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1.9	12.5	65.6
	50대	23.7	2.6	73.7
	60세 이상	16.0	4.0	8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17.6	11.8	70.6
	일반기업	31.0	3.4	65.5
	사회적경제기업	0.0	5.9	94.1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3.3	0.0	66.7
	기타	33.3	0.0	6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5.0	8.3	66.7
	5-10년 미만	21.4	7.1	71.4
	10년 이상	17.2	3.4	79.3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100.0
	초기 성장기	21.1	10.5	68.4
	고도 성장기	23.5	5.9	70.6
	성숙기	18.2	0.0	81.8

■ 사회적경제기금의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 정도

- 사회적경제 기금 실질적 도움정도는 그렇다(86.3%)가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11.6%), 보통, 그렇지 않다 각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77.11점임
- 응답자 대부분은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성별,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 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그렇다(87.3%), 매우 그렇다(9.5%) 순이며 평균 점수는 76.19점임. 여성은 그렇다(84.4%), 매우 그렇다(15.6%) 순이며 평균 점수는 78.19점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부분 “그렇다”가 높게 나왔으며, 평균은 40대 이하 78.13점으로 가장 높음
 - 대표자 경력별 역시 대부분 “그렇다”가 높게 나왔으며, 평균은 일반기업 78.45점으로 가장 높음
 - 법인 설립기간별로는 5년 미만 기업이 그렇다(87.5%)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5-10년 미만 기업이 78.57점으로 높게 응답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기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100.0%) 응답 하였으나, 평균 점수는 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표 3-33〉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 여부

(단위: %, 점)

구분		기업 경영에 도움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11.6	86.3	1.1	1.1	0.0	77.11
성별	남성	9.5	87.3	1.6	1.6	0.0	76.19
	여성	15.6	84.4	0.0	0.0	0.0	78.9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2.5	87.5	0.0	0.0	0.0	78.13
	50대	10.5	84.2	2.6	2.6	0.0	75.66
	60세 이상	12.0	88.0	0.0	0.0	0.0	78.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8.8	88.2	0.0	2.9	0.0	75.74
	일반기업	13.8	86.2	0.0	0.0	0.0	78.45
	사회적경제기업	11.8	82.4	5.9	0.0	0.0	76.47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	91.7	0.0	0.0	0.0	77.08
	기타	33.3	66.7	0.0	0.0	0.0	8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8.3	87.5	4.2	0.0	0.0	76.04
	5-10년 미만	14.3	85.7	0.0	0.0	0.0	78.57
	10년 이상	10.3	86.2	0.0	3.4	0.0	75.86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75.00
	초기 성장기	15.8	81.6	2.6	0.0	0.0	78.29
	고도 성장기	5.9	94.1	0.0	0.0	0.0	76.47
	성숙기	13.6	81.8	0.0	4.5	0.0	76.14

■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의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장점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장점 중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68.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17.9%), 제출서류 간소(7.4%), 사회적성과 인정(5.3%) 그리고 경영위험시 긴급자금으로 신속하게 활용 가능(1.1%) 순임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모두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 항목이 1순위로 나타남
- 특히 대표자 경력 기타와 성장단계 창업기에서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1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4〉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장점

(단위: %)

구분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장점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제출서류 간소	사회적성과 인정	경영위험시 긴급자금으로 신속하게 활용 가능
전체		68.4	17.9	7.4	5.3	1.1
성별	남성	68.3	20.6	7.9	3.2	0.0
	여성	68.8	12.5	6.3	9.4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71.9	12.5	6.3	9.4	0.0
	50대	76.3	10.5	7.9	2.6	2.6
	60세 이상	52.0	36.0	8.0	4.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7.6	23.5	2.9	5.9	0.0
	일반기업	79.3	10.3	6.9	3.4	0.0
	사회적경제기업	58.8	23.5	11.8	0.0	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0.0	16.7	16.7	16.7	0.0
	기타	10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5.0	12.5	4.2	8.3	0.0
	5-10년 미만	66.7	21.4	4.8	7.1	0.0
	10년 이상	65.5	17.2	13.8	0.0	3.4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73.7	18.4	2.6	5.3	0.0
	고도 성장기	61.8	20.6	8.8	8.8	0.0
	성숙기	68.2	13.6	13.6	0.0	4.5

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에 따른 직접적 성과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매출액

- 매출액은 2021년 6억 9천 1백만 원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10억 4천 4백만 원으로 약 3억 5천 3백만 원 증가하였음
- 여성, 40대 이하와 50대,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의 매출액 증가 폭이 가장 크고, 법인 설립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고도화될수록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음
 - 성별 2021년 매출액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변화는 남성은 3억 2천 1백만 원, 여성은 4억 1천 8백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매출액이 꾸준히 높게 증가하고 있음
 - 대표자 연령별 2021년 매출액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변화는 40대 이하는 4억 원, 50대는 4억 1천 2백만 원, 60대 이상은 2억 1천 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40대 이하와 50대의 매출액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 2021년 매출액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변화는 영농조합은 3억 4천 6백만 원, 일반 기업은 5천 3백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은 6억 4천 2백만 원,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7억 5천 7백만 원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시민단체/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법인 기간별 2021년 매출액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변화는 10년 이상에서 4억 2천 8백만 원 증가하여, 법인 설립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높고 증가 폭도 큰 것으로 보임
 - 성장 단계별 2021년 매출액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변화는 창업기는 5천만 원, 초기 성장기는 2억 6백만 원, 고도 성장기는 4억 5천 7백만 원, 성숙기는 4억 9천 9백만 원 증가함. 성장단계가 고도화 될수록 매출액이 높고 증가 폭도 크게 나타남

〈표 3-35〉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매출액	2022년 매출액	2023년 매출액	2024년 매출액(추정치)
전체		691.0	867.0	987.0	1,044.0
성별	남성	543.0	760.0	806.0	864.0
	여성	982.0	1,077.0	1,345.0	1,40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601.0	774.0	957.0	1,006.0
	50대	919.0	1,104.0	1,252.0	1,321.0
	60세 이상	460.0	627.0	623.0	673.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17.0	846.0	906.0	963.0
	일반기업	446.0	432.0	451.0	499.0
	사회적경제기업	1,452.0	1,758.0	2,028.0	2,094.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21.0	851.0	1,194.0	1,278.0
	기타	255.0	326.0	363.0	36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31.0	325.0	491.0	526.0
	5-10년 미만	583.0	814.0	864.0	918.0
	10년 이상	1,228.0	1,393.0	1,577.0	1,656.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50.0
	초기 성장기	282.0	411.0	444.0	489.0
	고도 성장기	641.0	877.0	1,045.0	1,098.0
	성숙기	1,507.0	1,678.0	1,881.0	1,966.0

〈표 3-36〉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매출액

(단위: 백만 원)

			2021년 매출액	2022년 매출액	2023년 매출액	2024년 매출액(추정치)
		응답자수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명)				
	[전체]	(95)	6,567,590	8,241,377	9,383,103	9,926,050
성별	남성	(63)	3,423,015	4,792,338	5,078,507	5,444,000
	여성	(32)	3,144,575	3,449,039	4,304,596	4,482,05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2)	1,924,548	2,477,382	3,065,089	3,221,500
	50대	(38)	3,492,872	4,195,515	4,758,373	5,022,000
	60세 이상	(25)	1,150,170	1,568,480	1,559,641	1,682,55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4)	2,100,392	2,878,327	3,081,830	3,274,550
	일반기업	(29)	1,296,069	1,253,803	1,310,662	1,449,000
	사회적 경제기업	(17)	2,469,056	2,988,900	3,447,800	3,560,0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	625,573	1,022,347	1,433,811	1,534,500
	기타	(3)	76,500	98,000	109,000	108,0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4)	555,900	780,674	1,178,787	1,264,000
	5-10년 미만	(42)	2,450,408	3,420,829	3,629,246	3,857,500
	10년 이상	(29)	3,561,282	4,039,874	4,575,070	4,804,550
성장단계	창업기	(1)	0	0	0	5,000
	초기 성장기	(38)	1,071,749	1,564,727	1,690,513	1,860,000
	고도 성장기	(34)	2,179,746	2,984,116	3,554,161	3,734,050
	성숙기	(22)	3,316,095	3,692,534	4,138,429	4,327,000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2021년 5천 4백만 원에서 2024년 매출액(추정치) 9천 9백만 원까지 약 4천 5백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60세 이상,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0년 이상, 성숙기 기업 영업이익 증가폭이 큼
 - 성별 2021년 영업이익에서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 변화는 남성은 5천 6백만 원, 여성은 2천 3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 2021년 영업이익에서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변화는 40대 이하 3천 6백만 원, 50대 3천 6백만 원, 60세 이상 6천 9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이 영업이익이 가장 큼
 - 대표자 경력별 2021년 영업이익에서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변화는 영농조합 5천 9백만 원, 일반기업 1천 4백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5천 6백만 원, 시민단체/비영리기관 7천 8백만 원 증가하여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크며, 일반기업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 2021년 영업이익에서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변화는 5년 미만 2천 1백만 원, 5-10년 미만 3천 9백만 원, 10년 이상 7천 4백만 원 증가하여 10년 이상 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 2021년 영업이익에서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변화는 창업기 5백만 원, 초기 성장기 2천 4백만 원, 고도 성장기 4천 8백만 원, 성숙기 7천 8백만 원 증가하여 성숙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37〉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영업이익	2022년 영업이익	2023년 영업이익	2024년 영업이익(추정치)
전체		54.0	59.0	82.0	99.0
성별	남성	47.0	64.0	89.0	103.0
	여성	67.0	49.0	69.0	9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0	12.0	42.0	64.0
	50대	70.0	65.0	92.0	106.0
	60세 이상	62.0	110.0	120.0	131.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9.0	90.0	110.0	118.0
	일반기업	63.0	34.0	52.0	77.0
	사회적경제기업	58.0	71.0	110.0	114.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0	22.0	58.0	90.0
	기타	34.0	26.0	7.0	38.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1.0	11.0	14.0	32.0
	5-10년 미만	57.0	56.0	84.0	96.0
	10년 이상	83.0	103.0	137.0	157.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5.0
	초기 성장기	26.0	13.0	41.0	50.0
	고도 성장기	41.0	58.0	71.0	89.0
	성숙기	123.0	143.0	175.0	201.0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종사자수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총 종사자 수는 2021년 7.2명에서 2024년 종사자수(추정치) 7.5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대표자 경력이나 법인 설립 기간 등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음
- 시민단체/비영리기관과 성숙기 단계의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총 종사자수 변화로는 남성은 2021년 5.8명에서 2024년 6.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여성은 2021년 10.1명에서 2024년 10.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표자 연령에 따른 총 종사자수 변화로는 40대 이하는 2021년 4.7명에서 2024년 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50대는 2021년 8.8명에서 2024년 9.0명으로 소폭 증가함. 60세 이상 2021년에서 2024년 변화는 있으나 현재는 동일함
 - 대표자 경력에 따른 총 종사자수 변화로는 영농조합(2021년 4.8명, 2024년 5.4명)과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2021년 11.6명, 2024년 1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은 2021년 8.4명에서 2024년 7.9명으로 감소함. 사회적경제기업은 2021년 7.9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에 따른 총 종사자수 변화는 대부분 소폭 증가하였음
 - 성장 단계에 따른 총 종사자수 변화는 창업기는 2021년 0.0명에서 2024년 2.0명으로 증가. 초기 성장기는 2021년 4.3명에서 2024년 4.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고도 성장기는 2021년 5.6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소폭 증가. 성숙기는 2021년 15.1명에서 2024년 15.5명으로 소폭 증가

〈표 3-38〉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년 종사자수	2022년 종사자수	2023년 종사자수	2024년 종사자수(추정치)
전체		7.2	7.5	7.3	7.5
성별	남성	5.8	6.3	6.0	6.0
	여성	10.1	10.0	10.0	10.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7	4.9	4.9	5.1
	50대	8.8	9.1	8.7	9.0
	60세 이상	8.2	8.5	8.4	8.2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8	5.0	5.0	5.4
	일반기업	8.4	8.2	8.1	7.9
	사회적경제기업	7.9	8.8	8.0	8.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1.6	12.4	12.3	12.9
	기타	2.3	2.3	2.3	2.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9	4.0	4.0	4.0
	5-10년 미만	5.2	5.6	5.3	5.5
	10년 이상	13.0	13.2	13.1	13.2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2.0
	초기 성장기	4.3	4.8	4.4	4.4
	고도 성장기	5.6	5.7	5.6	5.9
	성숙기	15.1	15.5	15.3	15.5

〈표 3-39〉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총 종사자 수

(단위: 명)

		응답자수 (명)	2021년 총종사자수	2022년 총종사자수	2023년 총종사자수	2024년 총종사자수(추정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체]	(95)	688	715	698	709
성별	남성	(63)	365	394	378	381
	여성	(32)	323	321	320	32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2)	150	156	156	163
	50대	(38)	333	347	332	342
	60세 이상	(25)	205	212	210	204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4)	164	171	171	182
	일반기업	(29)	243	239	236	229
	사회적 경제기업	(17)	135	149	136	136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	139	149	148	155
	기타	(3)	7	7	7	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4)	94	96	96	96
	5-10년 미만	(42)	218	235	222	230
	10년 이상	(29)	376	384	380	383
성장단계	창업기	(1)	0	0	0	2
	초기 성장기	(38)	164	182	169	167
	고도 성장기	(34)	192	193	192	200
	성숙기	(22)	332	340	337	340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취약계층 종사자수

-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취약계층 총 종사자수는 2021년 3명에서 2024년(추정치) 3.1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 그러나 취약계층 성숙기 성장단계의 기업은 2021년 6.1명에서 2024년(추정치) 6.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2021년 2.9명에서 2024년(추정치) 2.9명으로 변화가 없으며 여성은 2021년 3.1명에서 2024년(추정치) 3.6명으로 증가하였음
 - 대표자 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 2024년(추정치) 기준 1.5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5.0명으로 대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취약계층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 2021년 4.2명에서 2024년(추정치) 5.6명으로 증가한 반면, 영농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법인의 취약계층 종사자가 2021년 5.4명에서 2024년(추정치) 5.8명으로 증가함
 - 성장 단계별로는 성숙기에서는 2021년 6.1명에서 2024년(추정치) 6.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_평균 취약계층 종사자수

(단위: 명)

구분		2021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2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3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4년 취약계층 종사자수(추정치)
전체		3.0	3.1	3.2	3.1
성별	남성	2.9	3.0	3.0	2.9
	여성	3.1	3.3	3.5	3.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5	1.6	1.5	1.5
	50대	2.9	3.1	3.2	3.3
	60세 이상	5.1	5.2	5.2	5.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6	2.7	2.7	2.7
	일반기업	3.3	3.3	3.3	3.1
	사회적경제기업	2.9	2.9	2.9	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4.2	4.8	5.3	5.6
	기타	0.7	0.7	0.7	0.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9	1.8	1.8	1.8
	5-10년 미만	2.0	2.0	2.0	2.0
	10년 이상	5.4	5.8	5.9	5.8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1.9	1.9	1.9	1.9
	고도 성장기	2.3	2.3	2.3	2.3
	성숙기	6.1	6.6	6.8	6.7

〈표 3-41〉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 경영성과 총 취약계층 종사자수

(단위: 명)

			2021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2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3년 취약계층 종사자수	2024년 취약계층 종사자수(추정치)
		응답자수	(명)	(명)	(명)	(명)
		(명)				
	[전체]	(95)	284	297	300	298
성별	남성	(63)	184	190	188	183
	여성	(32)	100	107	112	115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2)	48	50	49	49
	50대	(38)	109	117	122	125
	60세 이상	(25)	127	130	129	124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4)	87	92	91	91
	일반기업	(29)	96	96	95	89
	사회적 경제기업	(17)	49	49	49	4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2)	50	58	63	67
	기타	(3)	2	2	2	2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4)	45	44	43	43
	5-10년 미만	(42)	82	86	86	86
	10년 이상	(29)	157	167	171	169
성장단계	창업기	(1)	0	0	0	0
	초기 성장기	(38)	72	73	72	72
	고도 성장기	(34)	77	79	79	79
	성숙기	(22)	135	145	149	147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인식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에 대한 인식 순으로 비슷한 수준($\pm 1\%$ 이내) (34.7%), 증가: 1~9% 수준(26.3%), 증가: 10%~19% 수준(18.9%), 감소: 1~9% 수준(11.6%), 감소: 10% 이상과 증가: 20% 이상 각 4.2%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20% 이상 증가(6.3%)으로 여성보다 높았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에서 여성(43.8%), 남성(30.2%)임. 또한 감소 10% 이상 역시 남성(4.8%), 여성(3.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대표자들이 이끄는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20% 증가, 6.3%)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 50대는 감소 10% 이상(10.5%)으로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 20% 이상 증가(11.8%)로 나타났으며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감소 10%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 비슷한 수준($\pm 1\%$ 이내)을 100%로 응답함

〈표 3-4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

(단위: %)

구분		재무적성과					
		증가 : 20% 이상	증가 : 10%~19% 수준	증가 : 1~9% 수준	비슷한 수준 ($\pm 1\%$ 이내)	감소 : 1~9% 수준	감소 : 10% 이상
전체		4.2	18.9	26.3	34.7	11.6	4.2
성별	남성	6.3	17.5	28.6	30.2	12.7	4.8
	여성	0.0	21.9	21.9	43.8	9.4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6.3	12.5	18.8	40.6	21.9	0.0
	50대	2.6	23.7	28.9	28.9	5.3	10.5
	60세 이상	4.0	20.0	32.0	36.0	8.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9	20.6	20.6	35.3	17.6	2.9
	일반기업	0.0	10.3	37.9	37.9	6.9	6.9
	사회적경제기업	11.8	17.6	17.6	35.3	11.8	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	33.3	25.0	25.0	8.3	0.0
	기타	0.0	33.3	33.3	33.3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2.5	29.2	16.7	33.3	8.3	0.0
	5~10년 미만	2.4	16.7	31.0	28.6	16.7	4.8
	10년 이상	0.0	13.8	27.6	44.8	6.9	6.9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0.0
	초기 성장기	5.3	23.7	21.1	31.6	13.2	5.3
	고도 성장기	5.9	17.6	23.5	38.2	11.8	2.9
	성숙기	0.0	13.6	40.9	31.8	9.1	4.5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고용 성과에 대한 인식

-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 후 고용 성과에 대한 인식 순으로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84.2%),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함(13.7%),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림(2.1%) 순으로 응답함
- 그러나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경우 0%로 응답하여 사회적경제기금 활용과 직원의 복지 강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81.0%)과 여성(90.6%) 모두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을 높게 응답하였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40대 이하(90.6%)로 가장 높았고, 50대(78.9%), 60세 이상(84.0%) 순임.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린 경우는 60세 이상(4.0%), 50대(2.6%), 40대 이하(0%)로 나타남
 - 대표자의 경력에 따라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영농조합(91.2%), 사회적경제기업(88.2%), 시민단체/비영리기관(83.3%), 일반기업(75.9%) 순으로 응답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린 경우는 10년 이상(6.9%)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대다수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린 경우 창업기(0%), 초기 성장기(2.6%), 고도 성장기(0%), 성숙기(4.5%)로 성장 단계가 올라갈수록 취약계층 등 신규고용을 늘리는 응답 비중이 높음

〈표 3-43〉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고용 성과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고용성과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림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함	직원 복지를 강화함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전체		2.1	13.7	0.0	84.2
성별	남성	1.6	17.5	0.0	81.0
	여성	3.1	6.3	0.0	90.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9.4	0.0	90.6
	50대	2.6	18.4	0.0	78.9
	60세 이상	4.0	12.0	0.0	8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9	5.9	0.0	91.2
	일반기업	3.4	20.7	0.0	75.9
	사회적경제기업	0.0	11.8	0.0	88.2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16.7	0.0	83.3
	기타	0.0	33.3	0.0	6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4.2	0.0	95.8
	5-10년 미만	0.0	11.9	0.0	88.1
	10년 이상	6.9	24.1	0.0	69.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초기 성장기	2.6	13.2	0.0	84.2
	고도 성장기	0.0	11.8	0.0	88.2
	성숙기	4.5	18.2	0.0	77.3

■ 사회적경제기금이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 사회적경제기금이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중 가장 큰 수치는 인건비 등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50.5%), 그 뒤로 시설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40.0%), 사업장 확장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도움, 이를 토대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8.4%) 그리고 신규 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도움, 이를 통해 사업 영역 확대(1.1%) 순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이 늘수록 인건비 등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 항목의 수치는 58.3%에서 44.8%로 감소하였고 시설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 항목은 33.3%에서 44.8%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건비 등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 항목의 수치는 59.4%에서 48%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설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 항목은 37.5%에서 44%로 증가하고 있음

〈표 3-44〉 사회적경제기금이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단위: %)

구분		도움부분			
		인건비 등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	시설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	사업장 확장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도움, 이를 토대로 기업경쟁력을 확보	신규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도움, 이를 통해 사업영역 확대
전체		50.5	40.0	8.4	1.1
성별	남성	47.6	46.0	6.3	0.0
	여성	56.3	28.1	12.5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9.4	37.5	3.1	0.0
	50대	44.7	39.5	13.2	2.6
	60세 이상	48.0	44.0	8.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4.1	50.0	5.9	0.0
	일반기업	62.1	27.6	6.9	3.4
	사회적경제기업	35.3	52.9	11.8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0.0	33.3	16.7	0.0
	기타	10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58.3	33.3	8.3	0.0
	5~10년 미만	50.0	40.5	9.5	0.0
	10년 이상	44.8	44.8	6.9	3.4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100.0	0.0
	초기 성장기	63.2	34.2	2.6	0.0
	고도 성장기	44.1	44.1	8.8	2.9
	성숙기	40.9	45.5	13.6	0.0

3. 사회적경제기금 활용에 따른 간접적 성과

■ (사회적 미션) 해결 희망 사회적 문제

- 해결을 희망하는 사회적 문제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82.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57.9%),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49.5%),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42.1%) 등이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여성은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결하고자 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60세 이상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서 높게 응답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비영리기관 대표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서 높게 응답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기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에서 100% 응답함

〈표 3-45〉 (사회적 미션) 해결 희망 사회적 문제

*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해결희망 사회문제								
		건강 하고 행복한 삶 보장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강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증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교육기회 증진	기타
전체		82.1	57.9	49.5	42.1	15.8	13.7	9.5	9.5	33.7
성별	남성	87.3	57.1	52.4	44.4	15.9	9.5	11.1	9.5	34.9
	여성	71.9	59.4	43.8	37.5	15.6	21.9	6.3	9.4	31.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84.4	65.6	56.3	40.6	9.4	25.0	12.5	6.3	21.9
	50대	78.9	57.9	47.4	39.5	13.2	7.9	10.5	15.8	31.6
	60세 이상	84.0	48.0	44.0	48.0	28.0	8.0	4.0	4.0	5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82.4	61.8	41.2	70.6	8.8	14.7	5.9	11.8	32.4
	일반기업	69.0	55.2	51.7	24.1	24.1	10.3	10.3	6.9	48.3
	사회적경제기업	94.1	47.1	52.9	23.5	11.8	11.8	17.6	5.9	23.5
	시민단체/비영리기관	91.7	66.7	66.7	33.3	16.7	16.7	8.3	16.7	16.7
	기타	100.0	66.7	33.3	33.3	33.3	33.3	0.0	0.0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83.3	54.2	62.5	25.0	16.7	16.7	12.5	8.3	45.8
	5-10년 미만	85.7	59.5	54.8	52.4	7.1	16.7	9.5	9.5	19.0
	10년 이상	75.9	58.6	31.0	41.4	27.6	6.9	6.7	10.3	44.8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81.6	60.5	60.5	39.5	15.8	15.8	10.5	5.3	36.8
	고도성장기	82.4	58.8	50.0	50.0	11.8	14.7	8.8	17.6	29.4
	성숙기	81.8	50.0	27.3	36.4	22.7	9.1	9.1	4.5	36.4

■ 충청남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충청남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중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51.6%)가 과반수로 중요한 해결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22.1%), 부족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개선(11.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거의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 항목이 1순위이지만, 대표자 연령 중 60세 이상은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40%)로 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 활동이 중요한 반면,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개선 활동 비중이 증가함
 - 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에서 성숙기로 성장할수록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의 활동은 줄고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활동이 늘어가는 추세임

〈표 3-46〉 충청남도 지역문제 해결 위한 활동

(단위: %)

구분		활동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부족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개선	로컬푸드 소비 확산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확대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	기타
전체		51.6	22.1	11.6	6.3	6.3	1.1	1.1
성별	남성	47.6	25.4	7.9	6.3	9.5	1.6	1.6
	여성	59.4	15.6	18.8	6.3	0.0	0.0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6.3	15.6	18.8	6.3	3.1	0.0	0.0
	50대	60.5	15.8	10.5	5.3	7.9	0.0	0.0
	60세 이상	32.0	40.0	4.0	8.0	8.0	4.0	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0.0	29.4	0.0	14.7	5.9	0.0	0.0
	일반기업	51.7	20.7	17.2	0.0	6.9	3.4	0.0
	사회적경제기업	41.2	11.8	29.4	0.0	11.8	0.0	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25.0	8.3	8.3	0.0	0.0	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2.5	16.7	8.3	4.2	4.2	4.2	0.0
	5-10년 미만	42.9	23.8	11.9	9.5	9.5	0.0	2.4
	10년 이상	55.2	24.1	13.8	3.4	3.4	0.0	0.0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63.2	18.4	5.3	5.3	5.3	2.6	0.0
	고도 성장기	41.2	20.6	20.6	5.9	8.8	0.0	2.9
	성숙기	45.5	31.8	9.1	9.1	4.5	0.0	0.0

■ 기업에서 창출하는 가치의 핵심 수혜대상

-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기업에서 창출하는 가치의 핵심 수혜대상으로는 지역민(73.7%), 일반대중(11.6%), 저소득층(6.3%), 아동(3.2%) 순임.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성별과 대표자 연령,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 단계에 따라 수혜대상의 비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민이 가장 큰 수혜대상임
 - 성장 단계별로는 대부분 지역민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창업기는 일반대중(100.0%)이 유일한 수혜대상임

〈표 3-47〉 수혜대상

(단위: %)

구분		수혜대상						
		지역민	일반대중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전체		73.7	11.6	6.3	3.2	2.1	2.1	1.1
성별	남성	76.2	7.9	7.9	3.2	1.6	3.2	0.0
	여성	68.8	18.8	3.1	3.1	3.1	0.0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81.3	6.3	3.1	6.3	0.0	0.0	3.1
	50대	68.4	18.4	5.3	2.6	2.6	2.6	0.0
	60세 이상	72.0	8.0	12.0	0.0	4.0	4.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88.2	5.9	0.0	0.0	0.0	2.9	2.9
	일반기업	65.5	17.2	13.8	3.4	0.0	0.0	0.0
	사회적경제기업	52.9	17.6	11.8	5.9	5.9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3	0.0	0.0	8.3	8.3	0.0	0.0
	기타	66.7	33.3	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0.8	16.7	4.2	4.2	0.0	0.0	4.2
	5~10년 미만	95.7	4.8	2.4	0.0	4.8	2.4	0.0
	10년 이상	58.6	17.2	13.8	6.9	0.0	3.4	0.0
성장 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81.6	10.5	2.6	2.6	0.0	0.0	2.6
	고도 성장기	73.5	8.8	5.9	5.9	2.9	2.9	0.0
	성숙기	63.6	13.6	13.6	0.0	4.5	4.5	0.0

■ (의사결정)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 주체

-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 주체는 주주와 대표만 참여(94.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사와 함께 근로자대표도 참여(3.2%) 그리고 근로자 다수가 참여(2.1%)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 주체는 주주와 대표만으로 보임
- 여성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다수가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 대표자보다 높으며, 대표자 연령이 낮고 법인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근로자 다수가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표자의 경력이 시민단체/비영리기관 출신인 경우, 근로자 다수가 참여하는 비율(8.3%)이 가장 높으며,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 주주와 대표만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100%)
 - 성별로는 남성은 주주와 대표만 참여(98.4%), 대표, 이사와 함께 근로자 대표도 참여(1.6%) 순이며, 여성은 주주와 대표만 참여(87.5%), 대표, 이사와 함께 근로자 대표도 참여(6.3%), 근로자 다수가 참여(6.3%)순으로 여성 대표는 의사결정 주체로 남성과 달리 근로자도 함께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부분 주주와 대표만 참여 비중이 높으나 60세 이상 근로자 다수가 참여(0.0%), 40대 이하의 근로자 다수가 참여(3.1%)로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성장 단계별로도 대부분 주주와 대표만 참여 비중이 높으나 근로자 다수가 참여하는 비중이 창업기(0.0%), 초기 성장기(2.6%), 성숙기(4.5%) 순으로 응답하여, 성장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주주와 대표 참여에서 근로자 다수가 참여하는 비중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3-48〉 의사결정 참여 주체

(단위: %)

구분		심의 의결 과정 참여 주체		
		주주와 대표만 참여	대표, 이사와 함께 근로자 대표도 참여	근로자 다수가 참여
전체		94.7	3.2	2.1
성별	남성	98.4	1.6	0.0
	여성	87.5	6.3	6.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96.9	0.0	3.1
	50대	92.1	5.3	2.6
	60세 이상	96.0	4.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97.1	2.9	0.0
	일반기업	96.6	0.0	3.4
	사회적경제기업	94.1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91.7	0.0	8.3
	기타	66.7	33.3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91.7	4.2	4.2
	5-10년 미만	95.2	4.8	0.0
	10년 이상	96.6	0.0	3.4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초기 성장기	92.1	5.3	2.6
	고도 성장기	97.1	2.9	0.0
	성숙기	95.5	0.0	4.5

■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과정에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등의 실제 참여 비율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등 실제 참여 비율이 61-100%(87.4%), 41-60%(12.6%)임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실제 참여 비율이 61-100% 구간에 있음
 - 실제 참여 비율 중 41-60%에 대표자 연령 60세 이상(2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20.0%), 성숙기 단계(18.2%) 다소 적은 비중이지만 응답률이 높은 편임

〈표 3-49〉 의사결정과정에 실제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실제 참여 비율	
		61-100%	41-60%
전체		87.4	12.6
성별	남성	88.9	11.1
	여성	84.4	15.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93.8	6.3
	50대	86.8	13.2
	60세 이상	80.0	2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91.2	8.8
	일반기업	82.8	17.2
	사회적경제기업	88.2	11.8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3	16.7
	기타	10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9.2	20.8
	5-10년 미만	88.1	11.9
	10년 이상	93.1	6.9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초기 성장기	84.2	15.8
	고도 성장기	94.1	5.9
	성숙기	81.8	18.2

■ 근로자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

- 근로자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로는 1-2회(49.5%), 수시로(40.0%), 별도 기회 없음(10.5%) 순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창업기의 경우 의견 표출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수시로(44.4%)로 여성(31.3%)보다 높으며, 1-2회는 남성(47.6%), 여성은(53.1%)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별도 기회가 없는 경우는 남성(7.9%)에 비해 여성(15.6%)이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수시로 의견을 표출의 경우 60세 이상(68.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1-2회는 40대 이하(65.6%)에서 높게 응답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수시로 표출에 일반기업(44.8%), 영농조합(41.2%), 시민단체/비영리기관(33.3%) 순으로 응답함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의 경우 별도 기회 없음(100%)로 의견 표출 기회가 전혀 없음

〈표 3-50〉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단위: %)

구분		표출할 수 있는 빈도		
		수시로	1 -2회	별도 기회 없음
전체		40.0	49.5	10.5
성별	남성	44.4	47.6	7.9
	여성	31.3	53.1	15.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1	65.6	6.3
	50대	31.6	55.3	13.2
	60세 이상	68.0	20.0	1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1.2	44.1	14.7
	일반기업	44.8	37.9	17.2
	사회적경제기업	29.4	70.6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3.3	66.7	0.0
	기타	66.7	33.3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5.0	66.7	8.3
	5-10년 미만	33.3	54.8	11.9
	10년 이상	62.1	27.6	10.3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100.0
	초기 성장기	26.3	55.3	18.4
	고도 성장기	41.2	55.9	2.9
	성숙기	63.6	31.8	4.5

■ (구성원 처우 노력) 근로자의 평균 근무 기간

- 근로자의 평균 근무 기간 순으로 3년 이상(65.3%)으로 가장 많고, 2년-3년 미만(23.2%), 1년-2년 미만(5.3%), 6개월-1년 미만(4.2%) 그리고 3-6개월 미만(2.1%)임
- 성장단계 성숙기는 평균 근무기간이 3년 이상 비율이 95.5%로 가장 높음
 - 성별에 따른 평균 근무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3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1년 미만은 없고, 남성은 3-6개월 미만(3.2%)임
 - 대표자 연령에 따른 평균 근무 기간 3년 이상은 60세 이상(84.0%), 40대 이하(59.4%), 50대 (57.9%)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 대표의 기업에서 평균 근무 기간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대부분 3년 이상이며 3-6개월 미만은 사회적경제기업(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임
 - 법인설립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기업에서 평균 3년 이상(82.8%) 근무자가 가장 많음
 - 성숙기 단계에서는 3년 이상(95.5%)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1〉 근로자의 평균 근무 시간

(단위: %)

구분		평균 근무 기간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2.1	4.2	5.3	23.2	65.3
성별	남성	3.2	6.3	6.3	19.0	65.1
	여성	0.0	0.0	3.1	31.3	65.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6.3	34.4	59.4
	50대	5.3	10.5	5.3	21.1	57.9
	60세 이상	0.0	0.0	4.0	12.0	8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5.9	2.9	17.6	73.5
	일반기업	0.0	3.4	6.9	24.1	65.5
	사회적경제기업	5.9	0.0	5.9	23.5	64.7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8.3	0.0	8.3	33.3	50.0
	기타	0.0	33.3	0.0	33.3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4.2	4.2	12.5	29.2	50.0
	5-10년 미만	0.0	4.8	2.4	31.0	61.9
	10년 이상	3.4	3.4	3.4	6.9	82.8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초기 성장기	2.6	5.3	7.9	26.3	57.9
	고도 성장기	2.9	2.9	2.9	35.3	55.9
	성숙기	0.0	0.0	4.5	0.0	95.5

■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공유제(89.5%)임. 한시적 근무제와 유연출퇴근제(각 6.3%), 없음(2.1%), 재택근무제(1.1%)순임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 모두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중 일자리 공유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88.9%)과 여성(90.6%) 모두 일자리 공유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유연 출퇴근제(7.9%)가, 여성은 한시적 근무제(9.4%)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100%), 영농조합(97.1%)로 일자리 공유제가 가장 높음
 - 법인설립기간별로는 일자리 공유제 비중이 가장 높고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한시적 근무제와 유연 출퇴근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없음'이 100%를 차지

〈표 3-52〉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단위: %)

구분		근무 유형				
		일자리 공유제	한시적 근무제	유연 출퇴근제	없음	재택 근무제
전체		89.5	6.3	6.3	2.1	1.1
성별	남성	88.9	4.8	7.9	1.6	1.6
	여성	90.6	9.4	3.1	3.1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87.5	9.4	9.4	0.0	3.1
	50대	86.8	2.6	5.3	5.3	0.0
	60세 이상	96.0	8.0	4.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97.1	5.9	0.0	2.9	0.0
	일반기업	82.8	3.4	17.2	0.0	0.0
	사회적경제기업	82.4	11.8	0.0	5.9	0.0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100.0	8.3	0.0	0.0	0.0
	기타	66.7	0.0	33.3	0.0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79.2	12.5	8.3	4.2	0.0
	5-10년 미만	95.2	2.4	4.8	0.0	2.4
	10년 이상	89.7	6.9	6.9	3.4	0.0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초기 성장기	84.2	10.5	10.5	0.0	2.6
	고도 성장기	97.1	2.9	2.9	0.0	0.0
	성숙기	90.9	4.5	4.5	4.5	0.0

■ 근로자들의 매년 받을 수 있는 공식적 교육기회

- 공식적 교육기회 빈도 순으로 1~3회(43.2%), 별도 기회 없음(38.9%), 수시 교육 참여(17.9%)순으로 나타남
- 수시 교육 참여는 고도 성장기(26.5%)와 법인 설립 기간이 5-10년 미만(26.2%)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별도의 기회가 없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표자 연령 중 60세 이상(56%)과 사회적경제기업(56.0%)임
 - 성별로는 남성은 1~3회(44.4%), 별도 기회 없음(36.5%), 수시 교육 참여(19.0%) 순이며, 여성은 1~3회(40.6%), 별도 기회 없음(43.8%), 수시 교육 참여(15.6%) 순임. 여성 대표기업이 별도의 기회가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1~3회(53.1%), 별도 기회 없음(31.3%), 수시 교육 참여(15.6%) 순이며, 50대는 1~3회(47.4%), 별도 기회 없음(34.2%), 수시 교육 참여(18.4%)순임. 60세 이상은 1~3회(24.0%), 별도 기회 없음(56.0%), 수시 교육 참여(20.0%)순으로 나타났고 별도의 기회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대부분 1~3회이나, 별도 기회 없음을 응답한 기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5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50.0%)로 교육 기회가 없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기업이 1~3회(100.0%)로 가장 높음

〈표 3-53〉 공식적 교육기회

(단위: %)

구분		공식적 교육기회 빈도		
		수시 교육 참여	1~3회	별도 기회 없음
전체		17.9	43.2	38.9
성별	남성	19.0	44.4	36.5
	여성	15.6	40.6	43.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5.6	53.1	31.3
	50대	18.4	47.4	34.2
	60세 이상	20.0	24.0	56.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0.6	41.2	38.2
	일반기업	24.1	48.3	27.6
	사회적경제기업	11.8	35.3	5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	41.7	50.0
	기타	0.0	66.7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4.2	62.5	33.3
	5-10년 미만	26.2	33.3	40.5
	10년 이상	17.2	41.4	41.4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초기 성장기	7.9	50.0	42.1
	고도 성장기	26.5	38.2	35.3
	성숙기	22.7	36.4	40.9

■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교육

-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교육으로는 생산·품질 관리(47.4%),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22.8.4%), 사회문제교육(25.3%) 순이며, 법인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은 법인 설립 초기와 창업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중이 증가함
 - 성별에 따른 교육으로는 남성은 생산·품질 관리(50.8%),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28.6%), 사회문제 교육(22.2%)순이며, 여성은 생산·품질 관리(40.6%), 사회문제교육(31.3%),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 (28.1%)순임.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문제교육의 비중이 높음
 - 대표자 연령별과 경력 역시 생산·품질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 사회문제교육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36.0%), 시민단체/비영리기관(41.7%)에서 사회문제교육의 비중이 높음
 - 법인설립기간과 성장 단계별 역시 생산·품질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 사회문제교육 순이며, 10년 이상(37.9%), 성숙기(50.0%)에서 사회문제교육의 비중이 높음

〈표 3-54〉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교육

(단위: %)

구분		교육 종류							
		생산· 품질 관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교육	사회 문제 교육	기술 연수	마케팅 ·홍보	리더십	인사· 조직 관리	기타
전체		47.4	28.4	25.3	7.4	7.4	2.1	1.1	11.6
성별	남성	50.8	28.6	22.2	7.9	9.5	0.0	1.6	9.5
	여성	40.6	28.1	31.3	6.3	3.1	6.3	0.0	15.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0.6	28.1	25.0	6.3	15.6	0.0	0.0	9.4
	50대	50.0	28.9	18.4	7.9	5.3	5.3	2.6	15.8
	60세 이상	52.0	28.0	36.0	8.0	0.0	0.0	0.0	8.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73.5	23.5	26.5	2.9	0.0	0.0	0.0	2.9
	일반기업	24.1	31.0	31.0	17.2	13.8	3.4	0.0	13.8
	사회적경제기업	47.1	35.3	5.9	0.0	0.0	5.9	0.0	23.5
	시민단체/비영리기관	41.7	25.0	41.7	8.3	8.3	0.0	8.3	16.7
	기타	0.0	33.3	0.0	0.0	66.7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3.3	20.8	12.5	8.3	12.5	4.2	0.0	16.7
	5~10년 미만	50.0	26.2	23.8	11.9	7.1	0.0	2.4	7.1
	10년 이상	55.2	37.9	37.9	0.0	3.4	3.4	0.0	13.8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34.2	23.7	21.1	13.2	13.2	2.6	0.0	13.2
	고도 성장기	55.9	26.5	14.7	5.9	2.9	0.0	0.0	8.8
	성숙기	59.1	36.4	50.0	0.0	4.5	4.5	4.5	13.6

■ (협력 및 연대) 공식적 협력활동 매년 참여 빈도

- 공식적 협력활동 참여 빈도는 1-5회 미만(95.8%)으로 대부분이며 참여하지 않음(4.2%)로 나타나고 있어 1-5회 미만의 협력활동 참여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설립 기간, 성장단계 모두 협력활동 참여 빈도가 1-5회 미만임
 - 60세 이상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5〉 공식적인 협력 활동에 매년 참여 빈도

(단위: %)

구분		참여빈도				
		참여하지 않음	1-5회 미만	5-10회 미만	10-20회 미만	20회 이상
전체		4.2	95.8	0.0	0.0	0.0
성별	남성	6.3	93.7	0.0	0.0	0.0
	여성	0.0	100.0	0.0	0.0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1	96.9	0.0	0.0	0.0
	50대	0.0	100.0	0.0	0.0	0.0
	60세 이상	12.0	88.0	0.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9	94.1	0.0	0.0	0.0
	일반기업	0.0	100.0	0.0	0.0	0.0
	사회적경제기업	11.8	88.2	0.0	0.0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100.0	0.0	0.0	0.0
	기타	0.0	10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4.2	95.8	0.0	0.0	0.0
	5-10년 미만	4.8	95.2	0.0	0.0	0.0
	10년 이상	3.4	96.6	0.0	0.0	0.0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초기 성장기	5.3	94.7	0.0	0.0	0.0
	고도 성장기	5.9	94.1	0.0	0.0	0.0
	성숙기	0.0	100.0	0.0	0.0	0.0

■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시·도군)

- 네트워크 교류 수준으로는 활발(65.3%), 보통(33.7%), 매우 활발(1.1%) 순이며 평균은 3.67점임
- 성장단계에서는 창업기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이며 법인 설립 기간이 길수록 평균이 높아지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의 교류수준은 활발(65.1%), 평균 3.68점이고 여성은 활발(65.6%), 평균 3.66점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활발(76.0%),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고 40대 이하 활발(65.6%) 평균 3.66점, 50대 활발(57.9%), 평균 3.58점 순으로 응답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 활발(75.0%), 평균 3.75점으로 가장 높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활발(75.9%),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활발(100%),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음

〈표 3-56〉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도·시군)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평균]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전체		0.0	0.0	33.7	65.3	1.1	3.67
성별	남성	0.0	0.0	33.3	65.1	1.6	3.68
	여성	0.0	0.0	34.4	65.6	0.0	3.66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34.4	65.6	0.0	3.66
	50대	0.0	0.0	42.1	57.9	0.0	3.58
	60세 이상	0.0	0.0	20.0	76.0	4.0	3.84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26.5	73.5	0.0	3.74
	일반기업	0.0	0.0	37.9	62.1	0.0	3.62
	사회적경제기업	0.0	0.0	47.1	47.1	5.9	3.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25.0	75.0	0.0	3.75
	기타	0.0	0.0	33.3	66.7	0.0	3.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37.5	62.5	0.0	3.63
	5-10년 미만	0.0	0.0	38.1	59.5	2.4	3.64
	10년 이상	0.0	0.0	24.1	75.9	0.0	3.76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0.0	47.4	52.6	0.0	3.53
	고도 성장기	0.0	0.0	29.4	67.6	2.9	3.74
	성숙기	0.0	0.0	18.2	81.8	0.0	3.82

■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교류 수준으로는 보통(60%), 활발(32.6%), 교류 부족(5.3%), 매우 활발(2.1%)순이며 평균은 3.32점임
 - 성별로는 남성은 보통(60.3%), 활발(31.7%) 순으로 응답하였고 평균은 3.29점임. 여성은 보통(59.4%), 활발(34.4%)이며, 매우 활발(3.1%)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균은 3.38점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보통(56.0%), 활발(36.0%), 매우 활발(4.0%) 순이며, 평균 3.40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교하여 매우 활발한 교류수준인 것으로 보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이 보통(50.0%), 활발(33.3%), 매우 활발(8.3%) 순이며, 평균 3.42점으로 다른 경력과 비교하여 평균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보통(44.8%), 활발(44.8%), 매우 활발(6.9%) 순이며, 평균 3.55점으로 법인 설립 기간이 오래될수록 네트워크 교류 수준이 활발해지고 있음
 - 성장 단계별로는 보통(45.5%), 활발(45.5%), 매우 활발(4.5%) 순이며, 평균 3.50점으로 성장단계가 고도화 될수록 네트워크 교류 수준이 활발해지고 있음

〈표 3-57〉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평균]
전체		0.0	5.3	60.0	32.6	2.1	3.32
성별	남성	0.0	6.3	60.3	31.7	1.6	3.29
	여성	0.0	3.1	59.4	34.4	3.1	3.3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3.1	71.9	25.0	0.0	3.22
	50대	0.0	7.9	52.6	36.8	2.6	3.34
	60세 이상	0.0	4.0	56.0	36.0	4.0	3.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2.9	61.8	32.4	2.9	3.35
	일반기업	0.0	10.3	58.6	31.0	0.0	3.21
	사회적경제기업	0.0	0.0	58.8	41.2	0.0	3.41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8.3	50.0	33.3	8.3	3.42
	기타	0.0	0.0	100.0	0.0	0.0	3.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8.3	66.7	25.0	0.0	3.17
	5~10년 미만	0.0	4.8	66.7	28.6	0.0	3.24
	10년 이상	0.0	3.4	44.8	44.8	6.9	3.55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10.5	65.8	21.1	2.6	3.16
	고도 성장기	0.0	0.0	64.7	35.3	0.0	3.35
	성숙기	0.0	4.5	45.5	45.5	4.5	3.50

■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협의회/업종 네트워크

- 사회적경제협의회 및 업종 네트워크 교류 수준 순으로 활발(63.2%), 보통(24.2%), 매우 활발(11.6%), 교류 부족(1.1%)순이며, 평균 3.85점임
-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교류 수준이 매우 활발하며, 성장단계 창업기가 평균 5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기 성장기가 3.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평균 점수는 남성 3.86점, 여성 3.84점으로 큰 차이는 없음
 - 대표자 연령별 역시 네트워크 교류 수준은 비슷하며 60세 이상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하가 평균 3.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표자의 경력별로는 영농조합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각각 평균 3.76점으로 낮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평균 3.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평균 5.00점, 성숙기가 평균 4.0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초기성장기는 3.6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3-58〉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협의회/업종 네트워크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평균]
전체		0.0	1.1	24.2	63.2	11.6	3.85
성별	남성	0.0	0.0	25.4	63.5	11.1	3.86
	여성	0.0	3.1	21.9	62.5	12.5	3.84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34.4	59.4	6.3	3.72
	50대	0.0	2.6	21.1	63.2	13.2	3.87
	60세 이상	0.0	0.0	16.0	68.0	16.0	4.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17.6	64.7	17.6	4.00
	일반기업	0.0	3.4	24.1	65.5	6.9	3.76
	사회적경제기업	0.0	0.0	29.4	64.7	5.9	3.76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41.7	41.7	16.7	3.75
	기타	0.0	0.0	0.0	10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33.3	58.3	8.3	3.75
	5-10년 미만	0.0	0.0	26.2	66.7	7.1	3.81
	10년 이상	0.0	3.4	13.8	62.1	20.7	4.0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0.0	100.0	5.00
	초기 성장기	0.0	0.0	34.2	65.8	0.0	3.66
	고도 성장기	0.0	2.9	17.6	64.7	14.7	3.91
	성숙기	0.0	0.0	18.2	59.1	22.7	4.05

■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네트워크 교류 수준은 활발(61.1%), 보통(32.6%), 매우 활발(6.3%) 순이며 평균 3.74점임
- 네트워크 수준은 대체로 활발하며 40대 이하의 대표자, 영농조합, 5-10년 미만, 창업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옴
 - 대표자 연령별 교류수준은 비슷하며 평균은 40대 이하 3.84점, 60세 이상 3.76점, 50대 3.63점 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 네트워크 수준 평균은 영농조합 3.85점,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67점, 일반기업 3.66점, 사회적경제기업 3.65점 순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 네트워크 수준 평균은 5-10년 미만 3.83점, 5년 미만 3.67점, 10년 이상 3.66점 순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 네트워크 수준 평균은 창업기 4.00점, 고도 성장기 3.82점, 초기 성장기와 성숙기 각 3.68점으로 나타남

〈표 3-59〉 네트워크 수준_사회적경제기업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평균]
전체		0.0	0.0	32.6	61.1	6.3	3.74
성별	남성	0.0	0.0	33.3	60.3	6.3	3.73
	여성	0.0	0.0	31.3	62.5	6.3	3.75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21.9	71.9	6.3	3.84
	50대	0.0	0.0	42.1	52.6	5.3	3.63
	60세 이상	0.0	0.0	32.0	60.0	8.0	3.76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23.5	67.6	8.8	3.85
	일반기업	0.0	0.0	41.4	51.7	6.9	3.66
	사회적경제기업	0.0	0.0	41.2	52.9	5.9	3.65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33.3	66.7	0.0	3.67
	기타	0.0	0.0	0.0	10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37.5	58.3	4.2	3.67
	5-10년 미만	0.0	0.0	26.2	64.3	9.5	3.83
	10년 이상	0.0	0.0	37.9	58.6	3.4	3.66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0.0	36.8	57.9	5.3	3.68
	고도 성장기	0.0	0.0	29.4	58.8	11.8	3.82
	성숙기	0.0	0.0	31.8	68.2	0.0	3.68

■ 네트워크 수준_시민단체·비영리조직

- 시민단체와 비영리조직의 네트워크 교류 수준 순으로 활발(58.9%), 보통(38.9%), 매우 활발(2.1%)이며, 평균 3.63점임
-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교류 수준은 '활발'과 '보통'이며, 60세 이상, 영농조합, 10년 이상, 창업기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3.63점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평균 3.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이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경제기업 평균 3.59점으로 낮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가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기 성장기가 평균 3.47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60〉 네트워크 수준_시민단체·비영리조직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평균]
전체		0.0	0.0	38.9	58.9	2.1	3.63
성별	남성	0.0	0.0	39.7	57.1	3.2	3.63
	여성	0.0	0.0	37.5	62.5	0.0	3.6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37.5	59.4	3.1	3.66
	50대	0.0	0.0	44.7	52.6	2.6	3.58
	60세 이상	0.0	0.0	32.0	68.0	0.0	3.6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32.4	67.6	0.0	3.68
	일반기업	0.0	0.0	41.4	55.2	3.4	3.62
	사회적경제기업	0.0	0.0	41.2	58.8	0.0	3.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41.7	50.0	8.3	3.67
	기타	0.0	0.0	66.7	33.3	0.0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45.8	54.2	0.0	3.54
	5-10년 미만	0.0	0.0	42.9	52.4	4.8	3.62
	10년 이상	0.0	0.0	27.6	72.4	0.0	3.72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0.0	55.3	42.1	2.6	3.47
	고도 성장기	0.0	0.0	26.5	73.5	0.0	3.74
	성숙기	0.0	0.0	31.8	63.6	4.5	3.73

■ 네트워크 수준_민간기업

- 민간기업 네트워크 교류 수준 순으로 활발(65.3%), 보통(34.7%)이며 평균 3.65점임
-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교류 수준은 '활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60세 이상, 일반기업, 10년 이상, 창업기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비교적 교류수준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교류수준이 남성 평균 3.62점, 여성 평균 3.72점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교류 수준이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대표자가 평균 3.5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일반기업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이 평균 3.5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된 조직이 평균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 조직이 평균 3.46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가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기 성장기가 평균 3.42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61〉 네트워크 수준_민간기업

(단위: %, 점)

구분		교류수준					
		전혀 없음	교류 부족	보통	활발	매우 활발	[평균]
전체		0.0	0.0	34.7	65.3	0.0	3.65
성별	남성	0.0	0.0	38.1	61.9	0.0	3.62
	여성	0.0	0.0	28.1	71.9	0.0	3.72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34.4	65.6	0.0	3.66
	50대	0.0	0.0	42.1	57.9	0.0	3.58
	60세 이상	0.0	0.0	24.0	76.0	0.0	3.76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32.4	67.6	0.0	3.68
	일반기업	0.0	0.0	27.6	72.4	0.0	3.72
	사회적경제기업	0.0	0.0	41.2	58.8	0.0	3.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50.0	50.0	0.0	3.50
	기타	0.0	0.0	33.3	66.7	0.0	3.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54.2	45.8	0.0	3.46
	5-10년 미만	0.0	0.0	35.7	64.3	0.0	3.64
	10년 이상	0.0	0.0	17.2	82.8	0.0	3.83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0.0	57.9	42.1	0.0	3.42
	고도 성장기	0.0	0.0	23.5	76.5	0.0	3.76
	성숙기	0.0	0.0	13.6	86.4	0.0	3.86

■ 네트워크 활동 목적

- 네트워크 활동 목적으로는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41.1%), 교류 및 친목 활동(32.6%),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18.9%),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6.3%), 공동 R&D 등 협업 프로젝트 추진(1.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교류 및 친목 활동(36.5%)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43.8%)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56.0%)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는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15.8%)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일반기업과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각 24.1%, 25%)보다 교류 및 친목 활동(각 41.4%, 41.7%)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수록 교류 및 친목 활동(100% → 22.7%)보다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0% → 45.5%)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62〉 네트워크 활동

(단위: %)

구분		네트워크 활동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	교류 및 친목 활동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	공동 R&D 등 협업 프로젝트 추진
전체		41.1	32.6	18.9	6.3	1.1
성별	남성	39.7	36.5	19.0	3.2	1.6
	여성	43.8	25.0	18.8	12.5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6.9	37.5	15.6	0.0	0.0
	50대	26.3	39.5	15.8	15.8	2.6
	60세 이상	56.0	16.0	28.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2.9	29.4	11.8	5.9	0.0
	일반기업	24.1	41.4	27.6	6.9	0.0
	사회적경제기업	47.1	23.5	17.6	5.9	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25.0	41.7	25.0	8.3	0.0
	기타	10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7.5	41.7	8.3	8.3	4.2
	5-10년 미만	42.9	33.3	19.0	4.8	0.0
	10년 이상	41.4	24.1	27.6	6.9	0.0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초기 성장기	39.5	39.5	7.9	10.5	2.6
	고도 성장기	41.2	29.4	29.4	0.0	0.0
	성숙기	45.5	22.7	22.7	9.1	0.0

■ (사회적 환원 노력) 사회공헌 지출 비용

- 사회공헌 지출 비용으로는 2021년 8백 3십만 원에서 2024년(추정치) 1천만 원으로 약 1백 7십만 원 증가하였음
- 여성, 50대와 60세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10년 이상, 고도 성장기와 성숙기 단계 기업에서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음
 - 성별 2021년 사회공헌 지출에서 2024년 사회공헌 지출(추정치) 변화는 남성은 1백6십만 원, 여성은 1백70만 원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좀 더 큼
 - 대표자 연령별 2021년 사회공헌 지출에서 2024년 사회공헌 지출(추정치) 변화는 40대 이하 1백2십만 원, 50대 1백7십만 원, 60세 이상 2백2십만 원 증가, 60세 이상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함
 - 대표자 경력별 2021년 사회공헌 지출에서 2024년 사회공헌 지출(추정치) 변화는 영농조합 2백 2십만 원, 일반기업 8십7만 원, 사회적경제 기업 2백6십만 원,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백2십만 원 증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가장 큼
 - 법인 설립 기간별 2021년 사회공헌 지출에서 2024년 사회공헌 지출(추정치) 변화는 5년 미만 1백4십만 원, 5-10년 미만 1백9십만 원, 10년 이상 1백5십만 원으로 증가함
 - 성장 단계별 2021년 사회공헌 지출에서 2024년 사회공헌 지출(추정치) 변화는 초기 성장기 약 1백만 원, 고도 성장기 2백7십만 원, 성숙기 1백1십만 원으로 증가함

〈표 3-63〉 (사회적 환원 노력) 사회공헌 지출 비용

(단위: 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추정치)
전체		83.2	86.3	94.7	100.0
성별	남성	74.6	77.0	84.1	91.3
	여성	100.0	104.7	115.6	117.2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67.2	67.2	78.1	79.7
	50대	93.4	98.7	107.9	110.5
	60세 이상	88.0	92.0	96.0	11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6.2	69.1	86.8	88.2
	일반기업	87.9	89.7	93.1	96.6
	사회적경제기업	129.4	135.3	141.2	15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62.5	62.5	70.8
	기타	66.7	66.7	66.7	6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6.7	70.8	81.3	81.3
	5-10년 미만	44.0	46.4	52.4	63.1
	10년 이상	153.4	156.9	167.2	169.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55.3	57.9	63.2	65.8
	고도 성장기	80.9	85.3	97.1	108.8
	성숙기	138.6	140.9	150.0	150.0

■ 수익금을 가장 많이 재투자하는 분야

- 수익금을 가장 많이 재투자하는 분야로는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49.5%), 지역사회(사회취약계층)에 직접 환원(31.6%), 유보 이윤으로 적립(10.5%),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원(7.4%), 직원 성과급 등 사내 복지에 사용(1.1%)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지역사회에 직접 환원보다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비율이 더 높지만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기업과 법인 설립 기간 10년 이상인 곳은 지역사회(사회취약계층)에 직접 환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원하는 곳 중 비율이 가장 큰 높은 곳은 대표자 경력 중 일반기업으로 20.7%임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에 비중이 높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원(12.5%)하는 비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64.%)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와 50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높음(각 34.4%, 31.6%)
 - 대표자 경력별로는 일반기업과 영농조합은 기업 경영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높지만 (각각 51.7%, 55.9%),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환원(47.1%)하는 비율 더 높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은 지역사회에 환원(44.8%)이 가장 높음

〈표 3-64〉 수익금을 가장 많이 재투자하는 분야

(단위: %)

구분		재투자 분야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지역사회 (사회취약계층)에 직접 환원	유보 이윤으로 적립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원	직원 성과급 등 사내 복지에 사용
전체		49.5	31.6	10.5	7.4	1.1
성별	남성	54.0	31.7	9.5	4.8	0.0
	여성	40.6	31.3	12.5	12.5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0.6	34.4	15.6	9.4	0.0
	50대	47.4	31.6	13.2	7.9	0.0
	60세 이상	64.0	28.0	0.0	4.0	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5.9	26.5	14.7	2.9	0.0
	일반기업	51.7	27.6	0.0	20.7	0.0
	사회적경제기업	41.2	47.1	5.9	0.0	5.9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33.3	33.3	33.3	0.0	0.0
	기타	66.7	33.3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45.8	25.0	16.7	12.5	0.0
	5-10년 미만	59.5	26.2	7.1	4.8	2.4
	10년 이상	37.9	44.8	10.3	6.9	0.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100.0	0.0	0.0
	초기 성장기	52.6	28.9	7.9	10.5	0.0
	고도 성장기	50.0	35.3	8.8	2.9	2.9
	성숙기	45.5	31.8	13.6	9.1	0.0

4. 사회적경제기금 정책수요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만족(82.1%), 매우 만족(16.8%), 보통(1.1%)으로 나타나 충남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4.16점임
- 특히 50대와 시민단체/비영리기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하지만 비교적 여성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만족도 90.6%, 매우 만족 9.4%, 평균은 4.09점이며, 50대는 만족 71.1%, 매우 만족 26.3%, 평균은 4.24점으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만족 88.0%, 매우 만족 12.0%, 평균은 4.12점임
 - 대표자의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은 만족 85.3%, 매우 만족 11.8%, 평균은 4.09점이며, 일반기업은 만족 75.9%, 매우 만족 24.1%, 평균은 4.24점임. 사회적경제기업은 만족 88.2%, 매우 만족 11.8%, 평균 점수는 4.12점이며,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만족 75.0%, 매우 만족 25.0%, 평균은 4.25점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만족 100.0%, 평균은 4.00점이며, 초기 성장기는 만족 73.7%, 매우 만족 23.7%, 평균 4.21점임. 고도 성장기는 만족 91.2%, 매우 만족 8.8%, 평균 4.09점이며, 성숙기는 만족 81.8%, 매우 만족 18.2%, 평균은 4.18점으로 나타남

〈표 3-65〉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반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0.0	0.0	1.1	82.1	16.8	4.16
성별	남성	0.0	0.0	1.6	79.4	19.0	4.17
	여성	0.0	0.0	0.0	87.5	12.5	4.1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0.0	0.0	90.6	9.4	4.09
	50대	0.0	0.0	2.6	71.1	26.3	4.24
	60세 이상	0.0	0.0	0.0	88.0	12.0	4.12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0.0	2.9	85.3	11.8	4.09
	일반기업	0.0	0.0	0.0	75.9	24.1	4.24
	사회적경제기업	0.0	0.0	0.0	88.2	11.8	4.12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0.0	75.0	25.0	4.25
	기타	0.0	0.0	0.0	10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4.2	70.8	25.0	4.21
	5-10년 미만	0.0	0.0	0.0	85.7	14.3	4.14
	10년 이상	0.0	0.0	0.0	86.2	13.8	4.14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0.0	4.00
	초기 성장기	0.0	0.0	2.6	73.7	23.7	4.21
	고도 성장기	0.0	0.0	0.0	91.2	8.8	4.09
	성숙기	0.0	0.0	0.0	81.8	18.2	4.18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인지경로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인지경로 중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60% 비율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고 뒤이어 도(20%), 신협(11.6%), 시군(7.4%)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광역 및 시군)(1.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71.9%)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도(20.6%)와 신협(14.3%)을 통해 인지한 비율이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63.2%)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은 도(24.0%)를 통한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67.6%)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도를 통해 인지한 사회적경제기업(29.4%), 일반기업(24.1%)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이 길수록 도와 신협을 통한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성장단계별에서 창업기에서는 100%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인지하고 있으며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도와 신협을 통한 인지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표 3-66〉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인지경로

(단위: %)

구분		인지 경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	신협	시군	네트워크 조직 (광역 및 시군)
전체		60.0	20.0	11.6	7.4	1.1
성별	남성	54.0	20.6	14.3	9.5	1.6
	여성	71.9	18.8	6.3	3.1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9.4	18.8	12.5	9.4	0.0
	50대	63.2	18.4	13.2	2.6	2.6
	60세 이상	56.0	24.0	8.0	12.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7.6	14.7	8.8	5.9	2.9
	일반기업	48.3	24.1	17.2	10.3	0.0
	사회적경제기업	58.8	29.4	5.9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16.7	16.7	8.3	0.0
	기타	100.0	0.0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2.5	8.3	16.7	8.3	4.2
	5-10년 미만	61.9	23.8	7.1	7.1	0.0
	10년 이상	55.2	24.1	13.8	6.9	0.0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63.2	13.2	18.4	2.6	2.6
	고도 성장기	58.8	23.5	5.9	11.8	0.0
	성숙기	54.5	27.3	9.1	9.1	0.0

■ 이차보전금 지원(3%) 관련한 인식

- 현재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만족함(46.3%), 이차보전금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44.2%), 상황실적 우수기업에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필요(8.4%), 기타(1.1%) 순임
- 법인 설립 기간이 오래될수록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차보전금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상황 실적 우수기업에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기업(17.2%), 5년 미만(12.5%), 10년 이상(10.3%)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현재 상황에 만족함(50.8%), 여성은 이차보전금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53.1%)로 남성과 여성의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인식이 다름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50.0%), 50대는 현재 상황에 만족함(50.0%), 60세 이상은 현재 상황에 만족함(48.0%)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은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52.9%), 일반기업은 현재 상황에 만족함(44.8%),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상황에 만족함(5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현재 상황에 만족함(58.3%)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 별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함이 5년 미만(37.5%), 5-10년 미만(47.6%), 10년 이상(51.7%)로 법인 설립 기간이 오래될수록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상대적으로 법인 설립 기간이 짧은 곳은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에 5년 미만(50.0%), 5-10년 미만(47.6%)로 비중이 높은 편임

〈표 3-67〉 이차보전금 지원(3%) 관련한 인식

(단위: %)

구분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한 인식			
		현재 상황에 만족함	이차보전금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	상황실적 우수기업에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필요	기타
전체		46.3	44.2	8.4	1.1
성별	남성	50.8	39.7	7.9	1.6
	여성	37.5	53.1	9.4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0.6	50.0	9.4	0.0
	50대	50.0	42.1	7.9	0.0
	60세 이상	48.0	40.0	8.0	4.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1.2	52.9	2.9	2.9
	일반기업	44.8	37.9	17.2	0.0
	사회적경제기업	52.9	41.2	5.9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33.3	8.3	0.0
	기타	33.3	66.7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7.5	50.0	12.5	0.0
	5-10년 미만	47.6	47.6	4.8	0.0
	10년 이상	51.7	34.5	10.3	3.4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초기 성장기	47.4	44.7	7.9	0.0
	고도 성장기	35.3	55.9	8.8	0.0
	성숙기	59.1	27.3	9.1	4.5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한 기업들에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필요도

-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필요도에 대하여 필요(71.6%), 매우 필요(27.4%)로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며 평균 점수는 4.25점임. 특히 창업기에서 높은 필요도 나타내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성은 평균 4.24점, 여성은 평균 4.28점으로 남성보다 필요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평균 4.36점, 50대 4.62점, 40대 이하 4.16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 평균 4.50점, 사회적경제기업과 일반기업 각 4.24점, 영농조합 4.21점 순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평균 4.32점, 5-10년 미만 4.29점, 5년 미만 4.25점 순으로 나타남. 기간이 짧은 기업일수록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평균 5.00점으로 필요도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

〈표 3-68〉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한 기업들에게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필요도

(단위: %)

구분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필요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전체		0.0	1.1	0.0	71.6	27.4	4.25
성별	남성	0.0	1.6	0.0	71.4	27.0	4.24
	여성	0.0	0.0	0.0	71.9	28.1	4.2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0.0	3.1	0.0	75.0	21.9	4.16
	50대	0.0	0.0	0.0	73.7	26.3	4.26
	60세 이상	0.0	0.0	0.0	64.0	36.0	4.36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0.0	2.9	0.0	70.6	26.5	4.21
	일반기업	0.0	0.0	0.0	75.9	24.1	4.24
	사회적경제기업	0.0	0.0	0.0	76.5	23.5	4.24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0.0	50.0	50.0	4.50
	기타	0.0	0.0	0.0	10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4.2	0.0	62.5	33.3	4.25
	5-10년 미만	0.0	0.0	0.0	71.4	28.6	4.29
	10년 이상	0.0	0.0	0.0	79.3	20.7	4.21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0.0	0.0	100.0	5.00
	초기 성장기	0.0	2.6	0.0	68.4	28.9	4.24
	고도 성장기	0.0	0.0	0.0	79.4	20.6	4.21
	성숙기	0.0	0.0	0.0	68.2	31.8	4.32

■ 자금조달이 필요시기

- 자금이 필요한 시기로는 2025년이 76.8%로 가장 높고 2028년(9.5%), 2026년(7.4%), 2024년(6.3%) 임
- 60세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기에서는 다른 시기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로는 2025년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74.6%), 여성(81.3%) 응답하였음. 또한 2028년 남성(12.7%)이 여성(3.1%)보다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 역시 202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60세 이상은 2026년과 2028년에 대한 비중도 높았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79.4%)이 2025년 가장 높게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2026년(17.6%)로 높게 응답하였음
 - 법인 설립 기간 별로는 10년 이상의 법인은 2025년(75.9%)을 필요시기로 선택했으나, 2028년(13.8%)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2024년(100.0%)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성숙기의 경우 2025년(77.3%)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나, 2026년(13.6%)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9〉 자금조달 필요시기

(단위: %)

구분		필요시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8년
전체		6.3	76.8	7.4	9.5
성별	남성	4.8	74.6	7.9	12.7
	여성	9.4	81.3	6.3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1	81.3	3.1	12.5
	50대	2.6	84.2	7.9	5.3
	60세 이상	16.0	60.0	12.0	1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9	79.4	0.0	14.7
	일반기업	6.9	75.9	6.9	10.3
	사회적경제기업	5.9	70.6	17.6	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	75.0	16.7	0.0
	기타	0.0	10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2.5	70.8	4.2	12.5
	5-10년 미만	7.1	81.0	7.1	4.8
	10년 이상	0.0	75.9	10.3	13.8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초기 성장기	7.9	76.3	2.6	13.2
	고도 성장기	2.9	79.4	8.8	8.8
	성숙기	4.5	77.3	13.6	4.5

■ 자금의 주요용도

- 자금 주요 용도 순으로는 운영자금(60.2%), 시설자금(35.2%), 건물 및 토지자금(3.4%) 그리고 사업개발비(1.1%)임
 - 성별로는 남성은 운영자금(52.6%), 시설자금(43.9%), 건물 및 토지자금(3.5%)순이며, 여성은 운영자금(74.2%), 시설자금(19.4%), 건물 및 토지자금(3.2%), 사업개발비(3.2%)순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운영자금(65.5%), 시설자금(34.5%), 50대는 운영자금(63.9%), 시설자금(27.8%), 건물 및 토지자금(5.6%), 사업개발비(2.8%), 60세 이상은 운영자금(47.8%), 시설자금(47.8%), 건물 및 토지자금(4.3%) 순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은 운영자금(83.3%),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설자금(50.0%)을 높게 응답하였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건물 및 토지자금(100.0%)이며, 성장이 고도화될수록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임

〈표 3-70〉 자금의 주요 용도

(단위: %)

구분		자금의 주요 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건물 및 토지자금	사업개발비
전체		60.2	35.2	3.4	1.1
성별	남성	52.6	43.9	3.5	0.0
	여성	74.2	19.4	3.2	3.2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65.5	34.5	0.0	0.0
	50대	63.9	27.8	5.6	2.8
	60세 이상	47.8	47.8	4.3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53.3	43.3	3.3	0.0
	일반기업	66.7	33.3	0.0	0.0
	사회적경제기업	43.8	50.0	6.3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83.3	0.0	8.3	8.3
	기타	66.7	33.3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8.2	27.3	4.5	0.0
	5-10년 미만	55.0	37.5	5.0	2.5
	10년 이상	61.5	38.5	0.0	0.0
성장 단계	창업기	0.0	0.0	100.0	0.0
	초기 성장기	70.6	29.4	0.0	0.0
	고도 성장기	54.8	38.7	3.2	3.2
	성숙기	54.5	40.9	4.5	0.0

*BASE:필요 기업

■ 자금 조달 방식

- 자금 조달 방식은 보증서 대출이 72.7%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담보대출(19.3%), 출자 및 증자(3.4%) 그리고 보조금(정부 및 민간)과 특수인 개인대출(각 2.3%)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대표자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단계에서 모두 보증서 대출의 방식을 사용하며, 특히 창업기(100%)는 전적으로 보증서 대출을 하고 있음
- 보조금(정부 및 민간) 방식의 비율이 가장 큰 곳은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6.3%임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보증서 대출과 담보 대출이 주로 사용되며, 남성은 경우는 특수인 개인 대출(3.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표자 연령별 역시 모두 보증서 대출과 담보 대출이 주로 사용되며, 40대 이하에서는 보조금과 특수인 개인 대출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출자 및 증자(4.3%)와 특수인 개인 대출(4.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은 보증서 대출(83.3%)만 사용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보증서 대출(68.8%)과 담보 대출(6.3%) 외에 출자 및 증자(12.5%)와 보조금(6.3%), 특수인 개인 대출(6.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71〉 자금 조달 방식

(단위: %)

구분		자금 조달 방식				
		보증서 대출	담보 대출	출자 및 증자	보조금 (정부 및 민간)	특수인 (대표, 이사 등) 개인 대출
전체		72.7	19.3	3.4	2.3	2.3
성별	남성	71.9	21.1	1.8	1.8	3.5
	여성	74.2	16.1	6.5	3.2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72.4	24.1	3.4	0.0	0.0
	50대	72.2	16.7	2.8	5.6	2.8
	60세 이상	73.9	17.4	4.3	0.0	4.3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83.3	16.7	0.0	0.0	0.0
	일반기업	70.4	22.2	0.0	3.7	3.7
	사회적경제기업	68.8	6.3	12.5	6.3	6.3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33.3	8.3	0.0	0.0
	기타	66.7	33.3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8.2	13.6	4.5	4.5	9.1
	5-10년 미만	70.0	22.5	5.0	2.5	0.0
	10년 이상	80.8	19.2	0.0	0.0	0.0
성장 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64.7	20.6	2.9	5.9	5.9
	고도 성장기	74.2	22.6	3.2	0.0	0.0
	성숙기	81.8	13.6	4.5	0.0	0.0

*BASE:필요 기업

■ 자금 조달희망 규모

-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48.9%), 1억 원~3억 원 미만(35.2%),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13.6%), 3억 원~5억 원 미만(2.3%)순임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단계 모두에서 5천만 원~1억 원 미만의 비율이 높았음
-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우 1억 원~ 3억 원 미만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창업기 기업의 경우 3억 원~5억 원 미만(100%)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43.9%)과 여성(58.1%)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 역시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며, 60세 이상에서는 3억 원~5억 원 미만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에서만 3억 원~5억 원 미만(6.7%)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에서만 3억 원~5억 원 미만의 수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는 3억 원~5억 원 미만이 100.0%로 나타나,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한 규모로 보이나, 자금 사용계획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72〉 자금 조달희망 규모

(단위: %)

구분		조달 희망 자금 규모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3억 원 미만	3억 원 ~ 5억 원 미만
전체		13.6	48.9	35.2	2.3
성별	남성	12.3	43.9	40.4	3.5
	여성	16.1	58.1	25.8	0.0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0.3	58.6	27.6	3.4
	50대	19.4	55.6	22.2	2.8
	60세 이상	8.7	26.1	65.2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13.3	43.3	36.7	6.7
	일반기업	11.1	55.6	33.3	0.0
	사회적경제기업	18.8	43.8	37.5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6.7	50.0	33.3	0.0
	기타	0.0	66.7	33.3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8.2	45.5	31.8	4.5
	5-10년 미만	12.5	50.0	35.0	2.5
	10년 이상	11.5	50.0	38.5	0.0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100.0
	초기 성장기	20.6	38.2	41.2	0.0
	고도 성장기	6.5	64.5	25.8	3.2
	성숙기	13.6	45.5	40.9	0.0

*BASE:필요 기업

■ 선호 상환 방식

- 선호 상환 방식으로 분할상환(68.4%), 거치식 상환(21.1%), 만기일시 상환(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의 경우, 100%가 분할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분할상환 69.8%, 거치식 상환 22.2%, 만기일시 상환 7.9% 순이며, 여성은 분할상환 65.6%, 거치식 상환 18.8%, 만기일시 상환 15.6% 순임.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만기일시 상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부분 분할 상환을 선호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거치식 상환과 만기일시 상환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분할 상환이 일반기업(82.8%), 사회적경제기업(70.6%) 순으로 높고, 시민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 만기일시 상환(33.3%)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분할상환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분할상환 100.0%로 창업기의 경우 자금 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상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표 3-73〉 선호 상환 방식

(단위: %)

구분		선호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분할상환	거치식 상환
전체		10.5	68.4	21.1
성별	남성	7.9	69.8	22.2
	여성	15.6	65.6	18.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8.8	68.8	12.5
	50대	5.3	71.1	23.7
	60세 이상	8.0	64.0	28.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11.8	64.7	23.5
	일반기업	3.4	82.8	13.8
	사회적경제기업	0.0	70.6	29.4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3.3	50.0	16.7
	기타	33.3	33.3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16.7	58.3	25.0
	5-10년 미만	14.3	71.4	14.3
	10년 이상	0.0	72.4	27.6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초기 성장기	15.8	68.4	15.8
	고도 성장기	8.8	67.6	23.5
	성숙기	4.5	68.2	27.3

■ 1년 중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 1년 중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는 1분기(44.2%), 2분기(28.4%), 3분기(21.1%), 4분기(6.3%) 순으로 나타나 분기가 지날수록 자금의 필요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46.0%)과 여성(40.6%) 모두 1분기에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남성의 경우 1분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대표자 연령별 역시 1분기 수요가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2분기에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일반기업(51.7%)의 경우 1분기에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업(35.3%)은 3분기의 비율이 다른 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1분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며,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3분기와 4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100%)의 경우 3분기에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초기 성장기(47.4%)와 고도 성장기(47.1%)는 1분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4〉 1년 중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단위: %)

구분		필요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44.2	28.4	21.1	6.3
성별	남성	46.0	27.0	20.6	6.3
	여성	40.6	31.3	21.9	6.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0.0	28.1	15.6	6.3
	50대	47.4	23.7	23.7	5.3
	60세 이상	32.0	36.0	24.0	8.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8.2	35.3	23.5	2.9
	일반기업	51.7	27.6	10.3	10.3
	사회적경제기업	47.1	17.6	35.3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41.7	33.3	16.7	8.3
	기타	33.3	0.0	33.3	3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54.2	29.2	16.7	0.0
	5-10년 미만	42.9	26.2	19.0	11.9
	10년 이상	37.9	31.0	27.6	3.4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100.0	0.0
	초기 성장기	47.4	31.6	10.5	10.5
	고도 성장기	47.1	20.6	26.5	5.9
	성숙기	36.4	36.4	27.3	0.0

■ 신용대출 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수준

- 신용대출 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수준으로는 1.5% 이상(61.1%), 2% 이상(33.7%), 3% 이상(3.2%) 그리고 5% 이상과 4% 이상(각 1.1%)순임
- 금리 수준 5%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과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로 3.1%이며, 반면 일반기업, 창업기, 법인 설립 5년 미만은 1.5% 이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1.5% 이상의 금리를 선호하며 남성(63.5%), 여성(56.3%)로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부분 1.5% 이상의 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4% 이상(4%) 선호하며, 40대 이하의 5% 이상(3.1%)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경력별로는 일반기업(75.9%)에서 1.5% 이상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1.5% 이상(47.1%)로 낮지만 3%(11.8%) 이상의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립기간이 짧은 5년 미만(75.0%)과 창업기(100.0%)는 1.5% 이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5〉 신용대출 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수준

(단위: %)

구분		금리수준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5% 이상
전체		1.1	1.1	3.2	33.7	61.1
성별	남성	0.0	1.6	1.6	33.3	63.5
	여성	3.1	0.0	6.3	34.4	56.3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3.1	0.0	0.0	31.3	65.6
	50대	0.0	0.0	2.6	31.6	65.8
	60세 이상	0.0	4.0	8.0	40.0	48.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9	2.9	2.9	38.2	52.9
	일반기업	0.0	0.0	0.0	24.1	75.9
	사회적경제기업	0.0	0.0	11.8	41.2	47.1
	시민단체/비영리기관	0.0	0.0	0.0	33.3	66.7
	기타	0.0	0.0	0.0	33.3	6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0.0	0.0	0.0	25.0	75.0
	5-10년 미만	2.4	2.4	2.4	40.5	52.4
	10년 이상	0.0	0.0	6.9	31.0	62.1
성장단계	창업기	0.0	0.0	0.0	0.0	100.0
	초기 성장기	2.6	0.0	0.0	23.7	73.7
	고도 성장기	0.0	2.9	5.9	38.2	52.9
	성숙기	0.0	0.0	4.5	45.5	50.0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장기 대출(51.6%), 낮은 금리 제공(28.4%), 신용대출 확대(13.7%), 신속한 대출 실행(4.2%) 순임
- 장기 대출의 경우 성별, 연령대, 경력, 법인 설립 기간 및 성장 단계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낮은 금리 제공도 높게 나타나 이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장기 대출과 낮은 금리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장기 대출 제공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44.4%), 여성(65.6%)으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장기 대출 제공과 낮은 금리 제공이며, 특히 장기 대출은 50대(55.3%), 낮은 금리 제공은 40대 이하(31.3%)로 높게 나타남
 - 사회적경제기업(76.5%)과 5년 미만 기업이 장기 대출 제공(66.7%)을 가장 높게 고려해야한다고 보고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장기 대출 제공(100.0%)으로 나타남. 고도 성장기의 경우 신용대출 확대(23.5%)도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76〉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단위: %)

구분		고려 사항					
		장기 대출 제공	낮은 금리 제공	신용대출 확대	신속한 대출 실행	사회적경제 종합컨설팅 능력	재원(예금, 후원금, 혹은 기금 유치) 확대
전체		51.6	28.4	13.7	4.2	1.1	1.1
성별	남성	44.4	30.2	19.0	4.8	1.6	0.0
	여성	65.6	25.0	3.1	3.1	0.0	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50.0	31.3	15.6	0.0	3.1	0.0
	50대	55.3	26.3	10.5	5.3	0.0	2.6
	60세 이상	48.0	28.0	16.0	8.0	0.0	0.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8.2	41.2	17.6	2.9	0.0	0.0
	일반기업	62.1	24.1	0.0	6.9	3.4	3.4
	사회적경제기업	76.5	11.8	11.8	0.0	0.0	0.0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3.3	25.0	33.3	8.3	0.0	0.0
	기타	33.3	33.3	33.3	0.0	0.0	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66.7	25.0	8.3	0.0	0.0	0.0
	5-10년 미만	50.0	26.2	19.0	2.4	2.4	0.0
	10년 이상	41.4	34.5	10.3	10.3	0.0	3.4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0.0
	초기 성장기	57.9	28.9	13.2	0.0	0.0	0.0
	고도 성장기	52.9	17.6	23.5	2.9	2.9	0.0
	성숙기	36.4	45.5	0.0	13.6	0.0	4.5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장기 대출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중 장기대출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약간 필요(67.4%), 매우 필요(32.6%) 순이며 평균 점수는 4.33점으로 전반적으로 장기 대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4.35점, 여성은 평균 4.28점으로 남성이 비교적 더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매우 필요 비중과 평균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과 일반기업 평균 각 4.38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경제기업 평균 4.29점, 시민단체/비영리기관 평균 4.17점임
 - 법인 설립 기간별 역시 설립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매우 필요 비중과 평균점수가 높아지고 있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 매우 필요(100%),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음

〈표 3-77〉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장기 대출

(단위: %, 점)

구분		장기대출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32.6	67.4	0.0	0.0	0.0	4.33
성별	남성	34.9	65.1	0.0	0.0	0.0	4.35
	여성	28.1	71.9	0.0	0.0	0.0	4.2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1	71.9	0.0	0.0	0.0	4.28
	50대	34.2	65.8	0.0	0.0	0.0	4.34
	60세 이상	36.0	64.0	0.0	0.0	0.0	4.36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8.2	61.8	0.0	0.0	0.0	4.38
	일반기업	37.9	62.1	0.0	0.0	0.0	4.38
	사회적경제기업	29.4	70.6	0.0	0.0	0.0	4.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6.7	83.3	0.0	0.0	0.0	4.17
	기타	0.0	100.0	0.0	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5.0	75.0	0.0	0.0	0.0	4.25
	5-10년 미만	33.3	66.7	0.0	0.0	0.0	4.33
	10년 이상	37.9	62.1	0.0	0.0	0.0	4.38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5.00
	초기 성장기	28.9	71.1	0.0	0.0	0.0	4.29
	고도 성장기	32.4	67.6	0.0	0.0	0.0	4.32
	성숙기	36.4	63.6	0.0	0.0	0.0	4.36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단기 긴급자금 대출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중 단기 긴급자금 대출 의견으로는 매우 필요(69.5%), 약간 필요(25.3%), 보통(5.3%) 순이며 평균 점수는 4.64점임
- 성별, 대표자 연령, 대표자 경력, 법인 설립 기간, 성장단계 모두 단기 긴급자금 대출의 의견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5년 미만,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서 더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매우 필요에 대해 남성(63.5%), 여성(81.3%)로 여성이 더 높으며 평균 점수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매우 필요에 40대 이하(71.9%), 50대(65.8%), 60대 이상(72.0%)로 60대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매우 필요에 일반기업(79.3%)로 가장 높으며, 사회적경제기업(58.8%)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일반기업이 4.76점으로 가장 높고, 영농조합이 4.56점으로 가장 낮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의 기업이 매우 필요(83.3%)로 가장 높음
 - 성장 단계별로는 고도 성장기의 매우 필요(76.5%)로 가장 높음

〈표 3-78〉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단기 긴급자금 대출

(단위: %, 점)

구분		긴급자금대출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69.5	25.3	5.3	0.0	0.0	4.64
성별	남성	63.5	30.2	6.3	0.0	0.0	4.57
	여성	81.3	15.6	3.1	0.0	0.0	4.7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71.9	18.8	9.4	0.0	0.0	4.63
	50대	65.8	31.6	2.6	0.0	0.0	4.63
	60세 이상	72.0	24.0	4.0	0.0	0.0	4.6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64.7	26.5	8.8	0.0	0.0	4.56
	일반기업	79.3	17.2	3.4	0.0	0.0	4.76
	사회적경제기업	58.8	41.2	0.0	0.0	0.0	4.5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75.0	16.7	8.3	0.0	0.0	4.67
	기타	66.7	33.3	0.0	0.0	0.0	4.67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83.3	12.5	4.2	0.0	0.0	4.79
	5-10년 미만	59.5	35.7	4.8	0.0	0.0	4.55
	10년 이상	72.4	20.7	6.9	0.0	0.0	4.66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4.00
	초기 성장기	65.8	31.6	2.6	0.0	0.0	4.63
	고도 성장기	76.5	17.6	5.9	0.0	0.0	4.71
	성숙기	68.2	22.7	9.1	0.0	0.0	4.59

■ 충남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대출

- 사업개발비 대출 의견 비율로는 약간 필요(49.5%), 매우 필요(43.2%) 그리고 보통(7.4%) 순이며 평균 점수는 4.36점으로 전반적으로 충남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대출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시민단체/비영리기관, 창업기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음
 - 성별로는 남성 평균 4.35점, 여성 평균 4.38점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 평균 4.42점, 40대 이하 4.34점, 60세 이상 4.28점 순으로 응답하여, 50대에서 대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 평균 점수 4.58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경제기업은 평균 점수 4.24점으로 가장 낮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평균 점수 4.45점으로 필요성이 가장 높음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는 매우 필요(100%), 평균 점수 5.00점으로 가장 높음

〈표 3-79〉 충남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대출

(단위: %, 점)

구분		사업개발비 대출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43.2	49.5	7.4	0.0	0.0	4.36
성별	남성	41.3	52.4	6.3	0.0	0.0	4.35
	여성	46.9	43.8	9.4	0.0	0.0	4.3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43.8	46.9	9.4	0.0	0.0	4.34
	50대	50.0	42.1	7.9	0.0	0.0	4.42
	60세 이상	32.0	64.0	4.0	0.0	0.0	4.2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41.2	47.1	11.8	0.0	0.0	4.29
	일반기업	44.8	51.7	3.4	0.0	0.0	4.41
	사회적경제기업	35.3	52.9	11.8	0.0	0.0	4.24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8.3	41.7	0.0	0.0	0.0	4.58
	기타	33.3	66.7	0.0	0.0	0.0	4.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7.5	58.3	4.2	0.0	0.0	4.33
	5-10년 미만	50.0	45.2	4.8	0.0	0.0	4.45
	10년 이상	37.9	48.3	13.8	0.0	0.0	4.24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5.00
	초기 성장기	47.4	47.4	5.3	0.0	0.0	4.42
	고도 성장기	47.1	44.1	8.8	0.0	0.0	4.38
	성숙기	27.3	63.6	9.1	0.0	0.0	4.18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대출

- 시설자금 대출의 필요성으로는 약간 필요(57.4%), 매우 필요(36.8%), 보통(8.4%) 순이며 평균 점수는 4.28점임
 -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4.25점, 여성은 4.34점으로, 여성 대표자들이 남성 대표자들보다 시설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더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매우 필요(50.0%), 약간 필요(44.7%), 보통(5.3%), 평균 4.45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필요성이 가장 높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시민단체/비영리기관에서 매우 필요(50.0%), 약간 필요(33.3%), 보통(16.7%), 평균 4.33점으로 다른 경력에 비해 필요성이 가장 높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년 미만에서 매우 필요(54.2%), 약간 필요(33.3%), 보통(12.5%), 평균 4.42점으로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필요성이 높아짐
 -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에서 매우 필요(100.0%), 평균 5.00점으로 시설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

〈표 3-80〉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대출

(단위: %, 점)

구분		시설자금 대출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36.8	54.7	8.4	0.0	0.0	4.28
성별	남성	33.3	58.7	7.9	0.0	0.0	4.25
	여성	43.8	46.9	9.4	0.0	0.0	4.34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1	59.4	12.5	0.0	0.0	4.16
	50대	50.0	44.7	5.3	0.0	0.0	4.45
	60세 이상	28.0	64.0	8.0	0.0	0.0	4.20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9.4	67.6	2.9	0.0	0.0	4.26
	일반기업	37.9	62.1	0.0	0.0	0.0	4.38
	사회적경제기업	41.2	35.3	23.5	0.0	0.0	4.18
	시민단체/비영리기관	50.0	33.3	16.7	0.0	0.0	4.33
	기타	33.3	33.3	33.3	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54.2	33.3	12.5	0.0	0.0	4.42
	5-10년 미만	33.3	57.1	9.5	0.0	0.0	4.24
	10년 이상	27.6	69.0	3.4	0.0	0.0	4.24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5.00
	초기 성장기	47.4	42.1	10.5	0.0	0.0	4.37
	고도 성장기	23.5	64.7	11.8	0.0	0.0	4.12
	성숙기	36.4	63.6	0.0	0.0	0.0	4.36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부동산(건물) 구입 대출

- 공동 부동산(건물)구입 대출 필요성으로는 약간 필요(41.1%), 보통(32.6%), 매우 필요(26.3%) 순이며 평균 점수는 3.94점임
- 남성, 50대, 사회적경제기업 경력, 법인 설립 10년 이상, 그리고 창업기와 성숙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은 매우 필요와 약간 필요가 여성보다 높으며, 평균 역시 남성 3.97점, 여성 3.88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이 높음
 -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 대표자들이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고, 40대 이하 대표자들은 평균 3.78점으로 가장 낮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경력 대표자들이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고 영농조합과 일반기업 경력의 대표자들은 평균이 각 3.85점과 3.86점으로 낮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 평균 4.07점으로 가장 높음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기업이 평균 5.00으로 가장 높고 초기 성장기 기업은 평균 점수 3.76으로 가장 낮음

〈표 3-81〉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부동산(건물) 구입 대출

(단위: %, 점)

구분		부동산 구입대출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26.3	41.1	32.6	0.0	0.0	3.94
성별	남성	27.0	42.9	30.2	0.0	0.0	3.97
	여성	25.0	37.5	37.5	0.0	0.0	3.8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18.8	40.6	40.6	0.0	0.0	3.78
	50대	34.2	39.5	26.3	0.0	0.0	4.08
	60세 이상	24.0	44.0	32.0	0.0	0.0	3.92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3.5	38.2	38.2	0.0	0.0	3.85
	일반기업	24.1	37.9	37.9	0.0	0.0	3.86
	사회적경제기업	29.4	52.9	17.6	0.0	0.0	4.12
	시민단체/비영리기관	33.3	41.7	25.0	0.0	0.0	4.08
	기타	33.3	33.3	33.3	0.0	0.0	4.00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9.2	33.3	37.5	0.0	0.0	3.92
	5-10년 미만	19.0	47.6	33.3	0.0	0.0	3.86
	10년 이상	34.5	37.9	27.6	0.0	0.0	4.07
성장단계	창업기	100.0	0.0	0.0	0.0	0.0	5.00
	초기 성장기	21.1	34.2	44.7	0.0	0.0	3.76
	고도 성장기	20.6	52.9	26.5	0.0	0.0	3.94
	성숙기	40.9	36.4	22.7	0.0	0.0	4.18

■ 충남도 문제해결을 위한 소셜 창업 투자

- 신규사업 중 소셜 창업 투자의 필요성으로는 약간 필요(66.3%), 매우 필요(29.5%), 보통(4.2%) 순이며, 평균 4.25점으로 필요성이 매우 높음(매우 필요+약간 필요, 95.8%)
 -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4.24점, 여성은 평균 4.28점으로 여성의 필요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평균 4.22점, 50대 평균 4.26점, 60세 이상 평균 4.28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셜 창업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대표자 경력별로는 영농조합 평균 4.24점, 일반기업 평균 4.21점, 사회적경제기업 평균 4.35점, 시민단체/비영리기관 평균 4.25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셜 창업 투자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법인 설립 기간별로는 5년 미만: 평균 4.33점, 5-10년 미만: 평균 4.21점, 10년 이상: 평균 4.24점으로 법인 설립 기간이 짧을수록 소셜 창업 투자 필요성이 높음
 -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평균 4.00점, 초기 성장기 평균 4.34점, 고도 성장기 평균 4.21점, 성숙기 평균 4.18점으로 초기 성장기에서 소셜 창업 투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기는 다른 신규 사업에 비해 소셜창업 투자의 필요성은 다소 낮음

〈표 3-82〉 충남도 문제해결을 위한 소셜 창업 투자

(단위: %, 점)

구분		소셜 창업 투자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29.5	66.3	4.2	0.0	0.0	4.25
성별	남성	27.0	69.8	3.2	0.0	0.0	4.24
	여성	34.4	59.4	6.3	0.0	0.0	4.28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1	65.6	6.3	0.0	0.0	4.22
	50대	28.9	68.4	2.6	0.0	0.0	4.26
	60세 이상	32.0	64.0	4.0	0.0	0.0	4.28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32.4	58.8	8.8	0.0	0.0	4.24
	일반기업	24.1	72.4	3.4	0.0	0.0	4.21
	사회적경제기업	35.3	64.7	0.0	0.0	0.0	4.35
	시민단체/비영리기관	25.0	75.0	0.0	0.0	0.0	4.25
	기타	33.3	66.7	0.0	0.0	0.0	4.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33.3	66.7	0.0	0.0	0.0	4.33
	5-10년 미만	23.8	73.8	2.4	0.0	0.0	4.21
	10년 이상	34.5	55.2	10.3	0.0	0.0	4.24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4.00
	초기 성장기	34.2	65.8	0.0	0.0	0.0	4.34
	고도 성장기	29.4	61.8	8.8	0.0	0.0	4.21
	성숙기	22.7	72.7	4.5	0.0	0.0	4.18

■ 충남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프로젝트 투자

- 충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의 필요성으로는 약간 필요(71.6%), 매우 필요(24.2%), 보통(4.2%) 순이며 평균 점수는 4.20점이며, 여성과 60세 이상에서 필요성을 높게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4.14점, 여성은 4.31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대표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평균 4.22점, 50대 4.08점, 60세 이상 4.36점으로 60세 이상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음
 - 대표자 경력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평균 4.29점으로 가장 높고, 시민단체/ 비영리기관은 4.08점으로 가장 낮음
 - 법인 설립 기간별로 5-10년 미만과 10년 이상에서 평균 각 4.21점이며, 5년 미만은 4.17점임
 - 성장 단계별로는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에서 평균 각 4.24점으로 가장 높고, 창업기는 4.00점으로 나타남. 창업기 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중 투자 보다는 대출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83〉 충남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

(단위: %, 점)

구분		공공 프로젝트 투자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평균]
전체		24.2	71.6	4.2	0.0	0.0	4.20
성별	남성	19.0	76.2	4.8	0.0	0.0	4.14
	여성	34.4	62.5	3.1	0.0	0.0	4.31
대표자 연령	40대 이하	28.1	65.6	6.3	0.0	0.0	4.22
	50대	13.2	81.6	5.3	0.0	0.0	4.08
	60세 이상	36.0	64.0	0.0	0.0	0.0	4.36
대표자 경력	영농조합	29.4	67.6	2.9	0.0	0.0	4.26
	일반기업	17.2	75.9	6.9	0.0	0.0	4.10
	사회적경제기업	29.4	70.6	0.0	0.0	0.0	4.29
	시민단체/비영리기관	16.7	75.0	8.3	0.0	0.0	4.08
	기타	33.3	66.7	0.0	0.0	0.0	4.33
법인 설립 기간	5년 미만	20.8	75.0	4.2	0.0	0.0	4.17
	5-10년 미만	26.2	69.0	4.8	0.0	0.0	4.21
	10년 이상	24.1	72.4	3.4	0.0	0.0	4.21
성장단계	창업기	0.0	100.0	0.0	0.0	0.0	4.00
	초기 성장기	28.9	65.8	5.3	0.0	0.0	4.24
	고도 성장기	26.5	70.6	2.9	0.0	0.0	4.24
	성숙기	13.6	81.8	4.5	0.0	0.0	4.09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의 주체별 의견 검토

1. 기금 관련 주체별 종합 의견

☑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전문가

Q1 기금 활용 실태 및 성과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식 도입 필요
기업의 규모와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 필요

Q2 지자체 직접 운영 vs 금융기관 협력

지자체 직접 운영 시 지역 특성 반영 용이, 대손 부담 있음
금융기관 협력 시 실험 평가모형에 제한적일 수 있음

Q3 기금 운영 개선 방안

기금 규모, 이차보전, 대손 관리 등 다각도 검토 필요
보증, 투자 등 기금 활용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기업 대상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필요
보증, 투자 등 기금 활용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Q4 기금 성과 분석

기금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비교 분석 필요
정량적, 정성적 분석 병행 필요
충남도 실적, 목표달성도 등 전반적 성과 분석 필요
지속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Q5 기금의 역할 전환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 모색 필요(지역화폐, 연대기금 등)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정량/정성 지표 개발 필요
금융기관 협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개선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활용대상자

Q1 기금 활용 실태 및 성과

기금은 투자나 기업 확대 시 필요한 목돈을 제공하며, 실험의 기금 지원 절차가 간단함
기금을 시설투자를 통한 HACCP 인증, 운전자금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회사 신축에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자부심 제고 등의 성과를 얻음

Q2 사회적경제 기금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안

기금 사용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환 관리, 지역 네트워크 활용 필요
기업의 재무관리 및 자금 조달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지원 기금 규모 및 한도 확대 필요
실험중양회 차원에서 지역별 기금 할당 비율 조정 필요
기금 활용과 기업 실태조사/진단의 연계 필요
공동체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민간 자조 기금과 협업모델 구축 필요
당사자 주체의 참여와 합의, 지역 단위로 확대 필요

2. 기금 관련 전문가 의견 검토

회의일시	2024년 4월 23일(화)
참석자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 (주)나눔커뮤니티 최영준 대표 국토연구원 임상연 연구위원 신탁중앙회 이승묵 주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종훈 본부장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전선희 팀장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박미란 차관 충남연구원 이홍택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홍은일 연구원
	내용
회의내용	<p>○ A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금이 20년도 조성하면서 신탁하고 하고 있는데 200억 규모로 하고 있음. 출자는 신탁에서 하고 이차보전으로 16억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큰 금액을 대출하는 기업도 있고, 소액 대출을 하는 기업이 많음. 신속한 대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음. 고도화 단계에서 기존의 이차보전 외에 집중적이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 펀드 부분이 필요해서 과제를 요청함 - 기금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시설 투자, 긴급 자금)가 있었음. 아쉬운 점으로 스케일업하는 기업에는 소액이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고도화된 의견을 요구하고 있음. 기업이 규모, 가치 인정에 대한 모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p>○ B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관에서 기금 관련 선행연구를 좀 했었고, 자료를 공유하였음. 목차에 나온 부분은 충남 뿐 아니라 경기, 전북, 경남에서 관심을 보였음. 특징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사회적경제 기금 용자유형을 몇 가지로 나눔. 기금 용자와 협력 용자로 나눔 - 기금 용자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협력 용자는 재원의 소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최초에 기금 용자에서 협력 용자로 터닝함. 협력 용자는 충남은 대손 부담, 이차보전이고 경기도는 이차보전임 - 기금 용자는 경남, 전북임. 그쪽은 비공식적이지만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기금 용자를 하면 유연한 특성이 있음.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 자체적으로 신탁 평가 모형을 벗어나기 어려움. 사회 가치, 상생협력을 반영하더라도 신탁 모형을 벗어날 수 없음 - 지자체는 지역 착근, 관계성, 일반 대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경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음. 금융 기준으로는 맞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다 아는 내용임. 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목적 지향성을 투자함. 기업이 지역에서 중요한 성장 베이스인 기업들이 있음. 협력 용자는 이런 것이 어려움

- 기금에 대한 다양한 장단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력 용자와 기금 용자의 차이임. 충남, 경기형은 협력 용자로 승수효과로 다수의 기업이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다소 미흡하거나 괴리가 있을 수 있음. 기금 용자는 규모가 있고, 대손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음.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에 심사시키고 위원회 등 다양한 운영 방법이 있음. 지자체에서 기금 운용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임
- 시계에 대해 생각해야 함. 이차보전은 강력함. 상생협력도 이차보전임. 경기도는 별도의 이차보전에 상생협력 한다고 함. 비율은 현재 3% 중반대로 알고 있음
- 충남 기금의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기금이 큰 경우, 화성시는 기금이 9백억 정도이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도 은행이 있음. 출연받는 부분, 전입금 형태로 들어옴. 대손 손실을 보전해 나가면서 기금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적인 것이 성북, 성동으로 2억 정도가 일정하게 들어옴
- 화성시 금고를 하는 은행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형태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원금을 손실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음. 충남은 규모가 좀 작은 편임. 경남 30억, 전북 20억이고 올해, 내년까지 하면 50억 정도일 것임. 그 정도 규모에서 원금으로 쓰거나 이차보전으로 쓸 수 있음. 기금에 존속시켜야 할 부분임. 대손 손실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규모는 줄어들. 선택의 여지임
- 다만 추세를 보면 경기도나 전북도 그렇고 기금을 하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이차보전이나 보증 출연, 대전은 10억에서 100억으로 사회적경제로 하는 형태 등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음
- 실태 조사는 가장 중요함. 중개기관에서 했던 저희 20개 파트너 기관이 있음. 기업들 투융자 받은 것을 연차 보고서로 임팩트 보고서로 하고 있음. 데이터가 엉망이 많은 곳도 많음. 대출 받은 기업에 응답이 떨어지거나 엉터리인 것을 각오해야 함
-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기금 평가모델이 있을 것임. 그 데이터가 신용보증기금 데이터나 신탁에서 사용했으면 신탁 평가모델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표들은 대출 신청할 때 사회성과지표임
- 저희는 통상 매출 증가율, 단기 수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취약계층 종사자 증가율을 봄. 20년 9월 코로나 시작이라서 매출이 줄어든 사례가 많음. 대출이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봄
- 국가통계포털 등을 참고하면 제조업 평균, 인건비 비중, 몇 가지 지표 있음. 매출, 원가 비중 등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비중이 높음. 매출이 인건비 형태로 부림. 그런 지표는 공개해 놓은 것이 있음. 홈페이지 참조하면 좋을 것임. 현상의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함. 대출 나갈 때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속성 분류, 운전자금 등 속성을 미리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출기금이 나갈 때 코딩화해서 임팩트 성과로 함. 충남에서 127개 기업에 나갔는데 어떤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SDG가 지향하는 코드를 사전에 심어놓으면 됨. 일자리, 환경 등 임팩트 섹터를 미리 세팅할 수 있음. 대출 당시 점검할 때 성과 보고에 도움이 됨

○ C위원

- 과업 용역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음. 표현이 안 돼 있음. 기금이 5년 정도 되었고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로 생각함. 기금 증액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기금의 사이즈를 늘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실태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물어보는 것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 문항을 만드는 것임
- 근거가 없으면 실태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것임. 사회적경제 기금 증액을 하자거나 이런 것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면 의미가 있으나 만족도 조사 비슷하게 나오는데 기존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뭔지, 고도화는 규모가 아닌 새로운 모델? 융자, 투자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투자 하고 싶다는 것이 결과나 목적인지? 그런 것이 있을까 고민스러움

- 얼핏 들었을 때 충남의 기업들이 융자를 실험에서 받기 어려운 기업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기금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127건의 융자를 받았고, 예전 운영위원회 때 실험에서 거절된 기업이 적어서 놀랐음. 신청하면 거의 해주나? 하는 생각함
- 완전 상황이나 어려워져서 만기가 연장되거나, 기금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기업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도움을 받으려고 할까? 기업들은 이자가 높다고 할 것 같음. 시중은행은 못 갈 수 있는 기업이 많을 것임. 냉정하게 기금이 최선일 수도 있을 것임. 정말 불만이 있어서 바뀌어야 하는 명분들이 있을까? 막연한 생각을 함
- 고도화에 투자 부분을 일부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음. 충남에 투자하고 연결될 만한 창조경제 센터가 있어서 그런 곳과 연결되면 좋겠음.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대한 고민과 스케일업에 대한 1~2개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업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는 생각함. 외부 투자자가 있으면 좋음. 강원도 소풍 투자 사례, 이런 것을 사전에 염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 포인트는 현장을 모르지 않음. 기금의 규모가 작기도 하고 이런 것을 쪼개서 하기가 어려울 것임. 기금을 다각화로 쓰임새를 많이 했다고 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기업으로서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함
- 저는 충남 기금이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함. 200억으로 쓸 수 있게 10배를 만들었음. 20억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200억을 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서울도 실험이 아닌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등에 하는데 실험이 생각보다 고객의 접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함. 돈이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고 손실금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대출도 잘 이루어져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하고 있음
- 다른 지자체나 연구용역에서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음. 중개기관을 만들거나 당사자 조직에서 공제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면 매칭하면서 실험처럼 레버리지를 높이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에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것임
-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고도화의 방향이 기금을 늘리겠다는 명분이 실태 조사로 나와서 조달하는 것, 재원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불만족한 것을 실태 조사에서 찾아서 지금 대출의 방식 등에 대한 고민, 펀드를 만들거나 중개기관을 민간에서 만드는 것 등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는 실태 조사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이 실태 조사보다는 벤치마킹에서 나오는 것임. 몇 가지 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연구 세팅 당시 고민임. 사회적경제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확장은 어렵고, 추상적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음. 현재의 규모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것도 어려움
- 이 연구의 핵심은 활용한 기업이 기금의 가치를 밝히고 포장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수요, 다른 실태 조사에서 수요가 밝혀지면 수요를 넓히자고 제안을 해보려고 함. 확대라는 기조 속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함. 실천과 연구가 괴리될 수도 있는 상황임

○ A위원

- 전주 기금이 규모가 작지 않음. 1~2차 기금 융자, 지자체에서 민간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기류가 변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 형태로 해서 투자 쪽

을 담겠다는 생각이 있음. 규모는 5억 내외에서 하는 것임. 그 금액을 가지고 전북, 전주 쪽 엑셀레이팅을 겸하는 기업하고 스타트업을 뽑고 있음. 그쪽에서 사회적투자 연계, 5억이라는 레버리지를 쓰는 것,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후속 투자를 하면 바로 성과로 하는 것, 투자를 받는 것도 홍보가 되고 수용성이 되는 부분이 있음

- 지표 부분이 있는데 성과관리 부분 고용, 매출, 조합원 참여가 있는데 그것 외 사회적경제 기금이 있어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효과,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합 등 일반기업하고 대출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인데 협동조합은 못 받음.
- 자조 기금, 지역사회 가치 창출, 사회서비스, 지역 의제를 개발해서 지표를 사회적 금융을 넓히는데 지자체의 역할, SIV 지표 기업들 등급 있어서 분포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음. 3가지 측면에서 하면 풍부해질 듯함

○ C위원

- 화성은 기금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공약이 있었고 일종의 클러스터를 몇 개를 만들고 거기에 기금을 쓰겠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공약을 실현되게 쓰는 것임. 도의 큰 그림과 같이 방향을 맞추는 것도 찾을 수 있음. ESG라고 표현했지만, 전북 자치도가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을 키우고 경기도는 인구소멸 등 테마를 정해서 키움. 사회적경제 기금 중 ESG 관련된 기업, 그런 기업과 지표를 만들거나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거기에 맞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유용하게 지표를 정해서 하면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올 것임

○ D위원

- 연구의 방향성에 말씀드리면 분석하는 부분을 보면 정량, 정성적 평가에서 기금의 성과라기보다는 기업의 성과로 보임. 기금의 성과인지를 보려면 기금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봄
- 현재 도시재생 성과관리 분석을 하는데 분석 방법론에서 사업의 결이 다르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5개년 기본계획에 지표도 있을 것임. 실태분석에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음. 정책의 성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금의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에 기업 자체의 실적이 아닌 충남도의 실적, 기금 투입의 목표액 대비 달성액 등 연구용역이 앞뒤로 살이 붙었으면 좋겠음
- 2단계 고도화인데, 1단계는 기반 구축하고 2단계 고도화인가라는 의문이 있음
- 연구 시간적 범위를 제도 시작 부분부터 들어가면 좋을 듯. 분석 부분을 보면, 다른 지자체 기금 성과분석을 한 것을 보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성과분석을 못한 듯 보임
- 충남에서는 매년 모니터링하겠다, 5년 단위로 하겠다면 지금 세팅이 중요할 것임. 지표를 선택하는 것, 단년도로 할 것인지? 설문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정책에도 포함되지만, 지표설정에 해당할 것임
- 매출액을 설문조사를 할 경우, 내년에 하면 단년도, 변화율 등을 물어볼 수 있을 것임. 지표가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로 보기는 어려운데 연구에서 디펜스하는 것?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임. 정성적 지표가 있으니, 사례에 빚대어 해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심층 사례는 연구 수행 계획이 어떤 식으로 조사할 예정인지? 궁금함

○ A위원

- 데이터를 좋은 측면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보고서는 쉽고 응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 저희는 고용 인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음.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비율을 구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비율의 변동치도 보고 숫자가 높게 나오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비율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 것임

○ E위원

- 금융의 역할, 기업이 잘 되면 대출을 안 할 것 같음. 금융의 역할이 무엇일까?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거나 새로운 시도할 때 자금 상황이 안될 때임
- 중소기업 제조업 등 비교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 조사 방법에 외부 조사 등 방문 조사하여야 함. 시군 사경센터 만들었으니까 시군 사경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실태 조사는 사용 전, 사용 후 다른 대출이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 중 사용 전 대출이 있는지, 사용 후 추가로 받았는지? 기금을 받을 때 상담 절차가 있는지 중요함. 저는 상담 없이 3천만 원 대출받음
- 기업 상황이 은행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남 신보도 충남사회적경제 7천만 원까지 이차보전 해줌. 기금 받기 전에 사회적경제 특별보전을 받은 케이스임. 신용보증재단도 문턱이 낮음. 신탁에서 상담해 주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함
- 또한 신청 당시의 신청 금액의 증감 여부임. 저희는 7천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3천으로 줄었음. 소액 대출을 왜 신청했는지? 설계가 가능하다면 소액 대출 비중이 높는데 원래는 더 많이 받고 싶었는데 소액으로 유도된 것인지? 서술식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임. 추가 자본 필요성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함.
- 대표자의 창업경력, 사업경력이 나왔으면 좋겠음. 저는 자금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달해서 받아서 안정적 자금을 만들려는 목표로 하는데 대표자의 경영 여부 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수익 구조(B2G, B2B)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음

○ F위원

- 연구용역에 실익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음. 비용만큼 이상의 결과치가 나올 것인가? 현재 하는 것 계속하자는 것 나올 것 같음. 투자 말씀 나오는데 출연, 펀드 조성을 하려면 대략 2-300억을 조성해야 함. 충남 기금도 16억이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하는데 지방 경기도 안 좋은데, 기금 규모를 늘린다고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것? 지속 운영하면서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고도화할 것인지 고민임
- 지역 신탁의 의견을 들으면 대출을 재무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무평가는 안 좋고 사회적 가치를 보는 것은 용자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함. 재무평가 좋은 기업은 대출 안 받을 것임. 2금융권에 오는 이유가 있을 것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재무가 안 좋음. 대출이 나오는 기업의 37%는 3천만 원 이하 대출, 이것이 기업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것인지? 기업 규모 자체도 소액임
- 법인 대출 원칙은 담보대출임.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을 위해서 신용 보증을 한 것임. 소액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 고도화 취지는 좋지만 좋은 결과치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이 있음. 실태조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자체가 응답에 적극적이지 않음. 서술형으로 해도 단답형을 나와서 결괏값이 유의미할 그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음

-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가치평가에 대해 계량화하는 것으로 아는 데 사회적 가치 계량화가 어려움. 저희가 경기도는 탄소 중립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계량되지만, 사회적 가치는 계량화가 어려움

○ E위원

- 신탁에서 말씀하실 때 임팩트 펀드, MYSC나 소풍에 신청했는데 매출액 성장에 강함. 천안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천안시가 노인 일자리 100억 규모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있는데, 금융은 성장의 관점에서 봄. 대출받는 기업은 없을 것임. 기본의 방향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평가하면 안 될 것임. 사회적경제가 재정적 성장은 아님
- 대출과 투자가 다름. 융자는 지속가능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는데 투자는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 함. 후속에 투자하는 부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래소임. 가능성 있는 곳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임. 투자는 소수의 클 수 있는 기업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함

○ A위원

- 신탁의 입장, 금융의 역할, 예금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제도권 금융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신탁 모델 당기순익 등 그 부분이 맞음. 신탁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깝지 않으면 알 수 없음. 협력 융자 부분의 차이임. 완벽하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안 넘어옴. 기간이나 조건의 문제임
- 연초에 문화예술품을 수주했는데 인건비 부족할 때 재무평가를 가져가면 신탁에서 해주지 않음. 비영리중개기관이나 사경센터 등은 내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음. 관계하는 것이 있기에 사회적 금융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함. 통계 부분은 어려움. SVI 등급, 표를 그리는 방법도 있음. 화폐 단위 등 상하좌우 60퍼센트 정도 쓰면 가능하다고 생각함

○ G위원

- 현실은 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담대한 계획을 펼쳐볼 때가 아닌가? 고향사랑기부제 등 사회적경제랑 연계하는 것은 어려움. 돌아올 것에 명확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돌아올 것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에 망설이는 것. 열개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같이 붙여서 하는 것, 큰 단위에 돈을 활용해서 연결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업이 붙어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기금을 연결해서 투자 등으로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음. 노동기금을 일본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노동금고, 신탁에 맡긴 것임. 신탁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플러스가 있음
- 신탁은 금융권 입장에서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님. 고민했던 은행 중에 네덜란드 은행인데, 기후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곳이 있었음. 사회적 가치에 투자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신탁에서 자체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큰 그림의 사회적경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함
- 기금을 민간에서 공공영역까지 다 합쳐서 손실 볼 것은 민간에서 하고 손실되지 않은 것은 공공기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 대출액이 줄고 있는 것이 기금을 받았을 때 기대와 다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줄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여력이 없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졌을 수도 있음. 기금이 흥이 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 충남형 가상화폐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환경에 대한 화폐, 지역화폐 이야기를 많이 하였음.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이야기가 쏙 들어감. 사회적경제 지역화폐를 통해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 기존의 기금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주임님 이야기처럼 할 것이 없음.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지만 공공에서 관심이 없는 상황,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것, 담대한 계획, 지역사회가 통장을 개설해서 이자를 투자하겠다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B위원

- 사회적 기금을 운용하고 이용한 기업은 사회적기업, 상환하고 이자를 냈음. 기업들에, 신탁에서 시너지 효과를 줄 인센티브가 없었음. 신탁에 출자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신탁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없음.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가치평가 없이 3천 이하로 유도하는 것임
- 연구용역에서는 기금을 만든 목적 하고 운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 함
- 도에서 노력함. 16억을 했지만 깎이기 싫음. 기금이 이자 발생한 것은 신탁에 이차 보전하는 것임. 다행히 손실이 현재는 적지만 기업들이 재정사업 끊기면 손실된 부분이 내년에 분명하게 나올 것임.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기금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역으로 함
- 중부발전에서 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저희 기금에 넣고 싶음. 충남 안에 탄소세를 내는 기업, 지역에 본인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연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기금에 담아서 손실이 나는 기업을 도와주고 투자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하고자 함. 신탁에 융자, 저희 기금 외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음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음. 신탁에서 3천 대출해 주면 직원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실천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끌어와서 하는 것이 필요함
- 연대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하는 것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좋겠음. 협동조합이 협소함. 마을기업은 계속 사라지고 있음. 충남은 마을기업이 필요한데 지원할 방안이 없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음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사회적기업만 있음. 최소단위 3천만 원을 받고 싶고 받는 것임
- 행안부 자체에서도 마을기업이 줄고 있음을 이슈화하지 않음
- 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 신탁하고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있지만 기금을 세팅할 수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음

○ A위원

- 마을기업은 신탁 보증기금에 따로 두레 보증기금이 있음. 마을기업만 대상으로 별도로 할 수 있음. 마을기업은 평가는 주식 형태임. 협동조합은 출자금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주식회사 아니라 부담스러움. 내규는 지켜야 함
- 지금 담아내는 모델, 지역에서 마을기업은 중요함. 지자체가 직접 사경센터, 마을기업을 잘 알고 있음. 의미 있는 마을기업이 있음. 오래된 마을기업이 있음. 그런 기업은 지자체에서 중요함. 그런 기업은 농협밖에 없음. 금융에서 30% 손실은 별반 다를 바 없음
- 정책적으로 세팅하려면 기관 중에서 전체적으로 반기마다 점검하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퍼센트를 정해서 가는 것이 필요함

- 전북 모델은 도에서 15억, 민간에서 50% 투자하고, 중개기관은 전북사회적연대이며 모자란 것을 매칭하는 형태임. 지자체가 할 때 80% 민간은 20%하고 대손은 지자체 50%, 민간 50% 부담하게 함. 별도로 대손 총당 기금을 모으게 함. 4개 기업을 커버함. 철저히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임. 공정하게 가는 것임

○ D위원

- 사회적경제 기금고도화 방안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략적 운영모델을 천안 돌봄센터 400명에 매출이 80억, 앵커기업을 키워야 함. 천안이 반도체 기업, 중견기업이 꼭 차 있음. 전략적으로 신탁이든 운영기관하고 천안 돌봄 같은 곳, 인구소멸 지역에 바우처 지사를 내도 됨
- 투자 의지가 있는 곳, 전략적 의지가 있는 곳으로 해야 함. 탄소 중립, 인구소멸 등 도의 주요 이슈, 탄탄한 구조, 돌봄 같은 곳, 시골 지역에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개별 신탁은 안될 것임
- 기금 운용 차원에서 투자와 용자를 다르게 봐야 함. 투자는 서부발전, 동부 발전, 천안 창조경제 센터 등 20억씩 투자함. 우리도 아이템 중에 임팩트펀드적 아이템은 투자받을 수 있음. 서천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모태펀드로 해서 하는 것 등
- 충남형 p2p, 천안 비플러스 연계해서 투자, 용자 등 전략적 운용모델 연구했으면 좋겠음

○ A위원

- 경남은 상환하게 하고 금리를 저리로 하고 신탁은 대손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모든 메뉴가 다 있음. 금융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쁜 것 같음. 사회적경제 금융을 용자, 투자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됨. 지원과 컨설팅이 맞물려야 함. 경북 기금도 문제가 있었음. 30개 기업이 받으면 기업을 묶어서 함. 지역에서 매장당한다는 정신 교육해야 함. 상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막아줘야 함
- 사경센터가 접근해야 함. 설계할 때 같이 묶는 것을 해야 함. 제주사경센터가 잘함. 서민금융진흥원을 가지고 하는데 상환 가능성이 흔들리면 선배나 센터가 감. 제주도 여러 지원사업을 연결해서 끝까지 갚게 하는 것, 부실률이 없는 것, 금융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컨설팅이 필요함
- 서부발전에서 하는 쇼미더머니는 날리기 아까움. 지역의 자금을 모으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담아주면 됨. 지자체와 중부, 서부발전 CSR 담당자와 만나야 함. 저희는 국민연금이 들어왔음. 이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음
- 지역 자조 기금이 있으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도 붙을 수 있음



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의견 검토

회의일시	2024년 4월 16일(화)
참석자	(주)나눔커뮤니티 최영준 대표 (주)즐거운밥상 박찬무 대표 (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나눔영농조합법인 박영숙 대표 (주)해안 김도경 대표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전선희 팀장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박미란 차관 충남연구원 이흥택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홍은일 연구원
회의내용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 1. 기금활용 배경 및 실태와 성과</p> <p>○ A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발비, 인건비 지원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금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원비 1천만 원을 받는 것은 내 돈 100만 원 쓰는 거랑 효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함. 기금은 지원금하고 다름.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최소한으로 빌리려고 함 - 한편으로는 투자, 기업의 확대나 투자가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임. 신탁 기금 행정절차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 다른 은행에 비해서 신탁은 까다롭지 않음.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미끼 상품이나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어 불편했으나 신탁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음. - 다만, 기업들이 상환기간이 다가오면 압박이 있는데 기업 중 상환을 잘하는 기업 등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우리는 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투자에 사용하였음. 우리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어서 HACCP 인증을 받았음. 식품제조업 특성상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초기 세팅 비용만큼 임대종료 후에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큼. 따라서 보통은 자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음. 즐거운밥상은 대출을 통해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에 투자하여 HACCP 인증을 받았고, 천안시 내 도시락 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우리밖에 없어서 경쟁력이 있음. 경쟁력이 있음. 이것이 사회적경제 기금의 성과임 - 기금을 통해 생산량을 늘렸는가? 생산량이 증가보다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화되었음. 이를 통해 매출 증대가 일어났음. 일반 도시락 업체와는 경쟁 자체가 안됨. 저희는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 등 관리가 잘되어 있음 <p>○ B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는 3천만 원을 대출받았음. 다른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받았음. 우리 기업은 일자리 지원금이 끊기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통 매출 쪽으로 투자하였고 관련하여 3억 정도 지원을 받았음. 이를 통해 천안 SNS 지역 플랫폼에 투자하였는데 보통은 3~6월 기간에 용역이 없음. 이때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을 기업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였음. 기금에 대한 정보는 충사협 활동이나 연대 등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음. 예비들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획득이 어려운 것임

- 행정절차는 천안신협에서 했는데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1억, 중소기업진흥공단 2억을 받은 것이 있어서였는지 대출 절차는 까다롭지 않았음. 단순히 평가 없이 바로 대출해 줌. 기금 활용은 초기에 인건비가 부족(3~6월 용역 없음) 해서 잘 사용함. 1년 거치 2년 상황, 이자도 저리이기 때문에 잘 씀.
- 신협에서는 다른 상품 가입 이런 요구가 없어서 좋았음. 기업이 단기적으로 경영상 어려울 때 잘 사용함. 이자가 저렴하므로 메리트가 있음. 경제성과를 산출하기는 적은 금액임.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 정도로 가야 함. 사회적 가치는 재택근무 하는 여성분들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일자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결국 고용유지임

○ C위원

- 저희는 구조가 복잡함.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건물을 증축하려고 모든 정책자금을 다 받음. 서민 금융진흥, 자활 쪽 경제기금 등 다양한 자금을 다 끌어서 건축 준비를 함. 사회적경제 기금은 풀로 1억 5천을 받음.
- 받다 보니 다른 곳과 비교됨. 사업을 크게 하려다 보니 1억 5천은 적은 금액임. 사업경력이 큰 곳은 대출받는 것은 큰 고민이 필요함. 이자와 상환 때문에. 장기간과 저리가 다른 금융권 보다 장점임. 그걸 나눠서 했으면. 금액을 크게 빌리면 이차보전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음
- 사회서비스영역은 투자받을 수 없음. 장기간 저리가 된다고 하면 더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사회서비스는 인력이 많이 필요함. 금방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안을 해봄. 사회적경제 기금을 받을 때 사회적기업이어서 다른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여 다른 곳하고 비교함. 그러나 거의 제출하는 서류는 비슷함
- 사회 가치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음. 신협에서 특별한 피드백을 하면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사회적 금융을 받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기금을 건축에 활용했는데 성과는? 저희는 기존 사업장 자체가 위치가 안 좋았는데 현재는 쾌적한 공간에서 노인, 장애인 등 당사자가 느끼는 평화로움과 자부심이 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큰 효과가 있음. 매출이 느는 것도 당연하고 종사자도 4백여 명임. 그분들이 자부심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 정책자금이 중요하게 필요한 업종임. 저희는 사회서비스업임. 건축물이 30억이 들었음. 자산화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임

○ D위원

- 우리기업은 행사대행업과 광고업을 함. 2020년 전에는 행사 중심이어서 코로나로 위기를 겪음. 외부요인으로 사업이 축소될 때 기금을 요긴하게 사용함. 신속 대출로 3천만 원을 사용함.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중심에서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방송중계 장비, 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에 기금을 활용함. 매출에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는 어려웠지만 기금을 통해 피벗으로 사용함
- 현재는 매출이 늘어서 광고대행업도 하는 상황임. 저희는 요긴하게 사용하고 22년에 근로자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장을 매입함. 기금을 구매 자금으로 쓰지는 않고 그 안에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구축하는데, 일부 사용하기도 함. 큰 규모로 대출받은 것은 아니라서 대규모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투자와 근로자들도 확대 혹은 유지까지 할 수 있었음. 금액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신속 대출로 함. 기금에 대해서는 사경 센터 뉴스 알람을 통해서 활용하였음

○ E위원

- 저희도 3천만 원 신속 대출을 받음. 22년에 받음. 기금을 활용하려고 한 것은 2019년 신청한 사업에 농림부 농촌융복합사업 20년에 선정됨. 사업을 할 때 1억을 받으려면 자부담 30퍼센트가 필요해서 자부담으로 3천 필요하였음. 농협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통과하는 것이 먼저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중간지원기관에서 정보를 줌. 소식지와 정보를 자세히 보고 나서 신청하였고 3천만 원을 받음. 기존에, 농협에서 받은 대출을 갚고 신탁에서 받음
- 사용은 전체 1억 사업 중 3천이지만 저희 사업이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었음. 전통주와 로컬푸드 체험장을 만드는데 3천만 원 잘 활용함. 기금 대출받는 절차가 농협하고 할 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함. 신탁에서 방문해서 편하게 대출받았음
- 기금을 통해서 체험장 기반 완성하였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2년부터 사회적 농장 지정을 받아서 지역의 취약계층에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경제적 성과 창출은 오히려 저희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농장 하면서 사업을 줄였음. 기존 꾸러미 사업을 줄였음. 사회적 농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서 하려고 함. 기금이 있으므로 편하게 농협 대출을 갚아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함

○ A위원

- 기금을 활용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님. 일반기업도 생존율이 희박한데, 현실적으로 지표를 잡으면 어렵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 성과임. 사회적 자산화를 기금으로 마중물이 된 것이 성과물임. 총사협, 사경센터는 안내를 활발하게 함. 다만 시기 문제임. 기업들이 꼭 필요할 때 정보를 받으면 효과적임

주제 2. 기금 활용 과정 애로사항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D위원

- 신탁도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그쪽도 잘 모르니까 3천만 원 이하는 빠르게 진행됨. 신탁에서 신청 금액을 검토하고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금액을 필요에 맞게 증액을 유도하면 기업으로서 발전적일 것임.
- 기금을 저희는 투자와 고용유지에 활용했는데 저희도 9년 차 되다 보니 3천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님. 신보, 중소벤처기업 등 규모 정도로 확대되면 좋을 듯함. 연차가 된 기업, 규모화된 기업이 금액 상한선도 올라가고 대출 규모도 커졌으면 좋겠음. 상한선은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지역 신탁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담도 있는 것 같음
- 신탁도 지점마다 운용할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금에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가 지역별 차이가 있음. 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역 신탁별로 기금 관련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C위원

- 신청 당시 신청한 지점에 돈이 없어서 그다음 해에 신청하게 됨. 지점마다 신탁 이자율은 다른가? 저희가 신탁에 내는 이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보다 높음. 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탁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신탁마다 규모가 다름)
- 사회적경제 기금하고 다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기금하고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음. 다른 분들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은 신속하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1억 5천이라서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서류를 제출하였음. 또한 신탁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한 것은 체감하기 어려웠음.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임

○ B위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신청 계획하고 자금 사용 명세를 작성해서 내야 함. 저희는 따로 없었는데 다른 기관은 자금 사용 명세를 제출하는 추세임.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활용 촉진에 필요한 상황은 기업진단이나 실태 조사를 하니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 안내가 되면 잘 활용할 수 있음
- 기금 활용이 기업진단이나 실태 조사하고 같이해야 함. 금액이 큰 대출도 중요하지만, 소액 대출도 중요함. 컨설팅하러 다니다 보면 소액으로 시설 투자만 해도 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것들이 눈에 보임. 예를 들어 농가 포장재 기계 등 천만 원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남. 이런 것이 실태 조사나 기업진단하고 같이 감.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와 맞물리면 활용 촉진이 될 듯.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안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이 고도화된 돌봄서비스 영역이나, 온라인플랫폼은 돈 많이 듬. 식품 기업 등도 시설 투자는 임팩트 펀드랑 연계해서 지금 20억 정도가 16.8억인데 일부 5억을 해서 모태펀드 2억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함
- 일부라도 투자성 펀드가 필요함. 우리에게 앵커기업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앵커기업이 있으면 좋음. p2p 금융이 어렵다면 비 플러스, 민간이 투자하는 것,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였으면 좋겠음. 중기부가 우리 동네 금융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함. 사회적 금융을 손 놓긴 했는데 p2p로 연계해서 우리 기금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음

○ C위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이한 것이 처음 빌렸을 때 인원수와 2년 차 고용인원을 확인해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도 받음. 재미있는 것은 손실 보전도 해주지만 고용 확대 등 있으면 이자를 낮추는 것임. 문정선 대표님(열린문) 사례도 있음

○ A위원

- 앞에 사례들, 기업이 상환을 잘하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던가, 대출금액을 늘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함

○ B위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 되어 새로 대출받았는데 요즘은 AI 진단으로 함. 저희 서류를 실태 조사 같은 것처럼 경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알려줌.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기업자료인데, 우리는 실태 조사를 해서 활용하면 됨. 중소기업 사이트에 가입해서 서류 올리면 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시설 실사 나올 때 전문위원이 같이 나와서 자문역할을 함. 기업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해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듯.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실험 직원도 잘 모를 것임. 연계되면 자원센터에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음.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좋을 듯함

○ A위원

-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것임. 기금은 깊은 고민에 사용됨.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은 의미가 없음. 다만 장치가 돼서 오히려 기업에서 어려울 것임. 충남형 사회적 가치가 첨부되는 것이 정성적 평가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추천서가 들어가면 긍정적 요인이 더 의미가 있을듯함. 사경센터가 오면 시어머니가 더 생기는 것임. 기업들은 단순히 이자율에 따라 갈아탐

- 우리는 기금이 구멍이 나지 않게 상황을 잘할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 주변 평가, 옆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음. 사회적기업 협의회나 네트워크 등 추천서, 지역에 네트워크, 공동체에 기반한 기금임.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잘하고 지지받는 곳은 더 넓은 곳에서 활용해야 함
-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연대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C위원

- 천안에 회원사들이 회비를 모아서 천사기금을 만들.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함. 직원이 무이자로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상환율이 높음. 내가 3백을 못 갚으면 이 지역에서 활동 못 한다는 암묵적인 것이 있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000 대표님처럼 영향력이 필요함

○ F위원

- 사경센터에 요청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준비하라고 요청함. 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인증을 하려고 함. 사경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 지표에 맞는 것을 준비하고 있음. 지표가 높은 기업에는 이자율을 낮춘다던가 장치를 준비하고 있음. 기금에 넣어줘야 함. 이차보전을 해주기는 하나, 지표를 했을 때 사회적 가치 지표가 높으면 이자율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것, 이를 통해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마을기업 재지정할 때 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함. 저희 도에서 마을기업을 인정하는 것을 써드림. 사회적기업은 예비 아니면 인증이기 때문에 추천서 개념이 없는 것 같음. 마을기업은 재도약으로 추천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 우수기업이 되면 기금액을 올리는 것이 필요함
- 기금을 활용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임. 오히려 사회적경제 기금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대출이 수월해졌다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음
- 현재 사회적경제 기금은 큰 메리트는 신속 대출인 것 같음. 서류가 간소한 부분

○ B위원

- 기업들이 신탁의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시는 곳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보지 못하였던 곳임.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 절차가 쉽고 간편함. 기업의 역량도 필요함

○ D위원

-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음.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도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잘 모름.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교육 등이 있을 때 수시로 기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고, 공식 행사 자리 등에서 기금에 대해 공지를 해준다면 기업들이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음

○ C위원

- 저희는 기금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였지만, 사실 영세하거나 시작하는 기업에서는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사회적경제 기금을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도움이 되었던 곳들을 많이 발굴하고 확산하면 기업들의 활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함

○ B위원

- 요즘 추세로 세무회계 가장 지원은 많이 나오고 있음. 더 나아가서 재무관리까지 해주고 있음. 기업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 이자율과 거치기간 등을 생각하고 월간 매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음. 경영관리플랫폼 씨앗 등. 기업에는 재무 파트와 세무 회계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세무회계 지원에서 재무관리까지 자금을 조달해서 영업 흐름을 진단하는 이런 서비스 등이 있으면 좋겠음
- 기술보증기금 등은 재무 흐름 등 기본적으로 할 것을 매달 입력하게 함. 이 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서 진단을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줌. 신탁에는 따로 시스템이 없으므로 실태 조사 때 기업들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면 좋을 것임

○ A위원

- 기업에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업의 실태를 모르고 대출을 받지 않을 것임. 최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 자료임. 사경 기금과 재무관리를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으로 필요함

○ C위원

- 처음에 SVI 입력할 때 어렵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실습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다 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도움이 됨. 중간지원조직이 재무 쪽이 전문영역이 아님. 이걸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 손실을 신탁에서 검사해야 함. 우리 안에서 하려면 어려움. 기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것만 하므로 가능한 것임

○ F위원

- 재무 진단도 들어가야 하지만 사경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신청한 것을 보면 높지 않음. 기업 수요에 맞는 것이 없음. 기업과 연결해서 필요한 것이 노무, 세무, 회계 등이 필요한지 이런 구분이 필요함. 초기, 중기, 장기 기업을 나눠서 컨설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함

○ A위원

- 사경센터에서 얇고 넓은 지원, 세무, 회계, 노동 등 다양함. 기업들이 이걸 하려면 돈을 들여야 함. 중간지원조직은 얇고 넓을 것, 허브 역할만 하면 됨
- 참여 기업마다 차이가 다름. 그러나 제공자 시각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문제임. 사경센터에 백 명 풀이 있어서 기업에 필요한 상담료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더 필요함. 기업이 큰 곳은 상시로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 D위원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보다는 파트너십의 문제임. 15년도 육성 사업을 하면서 총사넛이 엄마 기관임. 막히는 것은 무조건 연락함. 이런 식 연대감과 신뢰감. 막히면 물어봐야겠다. 기업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사경센터는 전문성, 체계화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됨. 기업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신뢰나 연대할 수 있는 전문가보다는 퍼실리테이터 기능이 더 필요할 것임

○ F위원

- 이차보전금에서 손실이 나오기 시작하니 집행부에서는 손실이 덜 나오게 할 방법을 모색하게 함. 사경센터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출받은 기업 모니터링임. 현재 대출 상환을 잘하는 기업도 있음. 상환 관련하여서는 은행에서만 관리함. 손실 나면 신탁에서 공문만 받음
- 사전에 3개월 정도 상환 못 하고 연체되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함. 기업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음. 사경센터에 요청한 곳은 상황에 어려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제안하려고 함
- 도에서는 16억 정도임. 이차보전 정도임. 손실이 나면 30퍼센트 해야 함. 기금이 점점 줄 것 같음


○ A위원

- 사회적 경제기금임. 사회적경제다워야 함. 공생과 자조에 관한 것임. 서로 돕는 것임. 사경 조직이 서로 도와야 함. 이차보전에 대한 것, 모 자본이 커지면 자본이 커짐. 내 돈이 들어가면 관리나 유지에 관심을 가질 것임. 민간 자조 기금과 협업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경 조직에 대한 기금에 대한 설명, 당사자 주체가 기금에 참여함. 우리 공동체 자산이라고 생각함. 도에서 만든 것보다 민간이 함께하는 것, 민간에서 합의가 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 중앙회 밴드인 것이 있음. 십 년째 내고 있음. 지역에 사경 기금에 넣는다고 하면 저는 낼 수 있음. 규모를 키울 수도 있음.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 민간 자조 기금과 협업모델, 천사연에 회원들이 5천만 원이 모임. 대출, 상환이 일어나고 있음. 상호신뢰에 대한 것이 커짐. 광역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임. 중앙에 있는 것을 광역으로, 지역으로 내리는 것이 필요함

○ C위원

- 신탁에 모니터링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청 당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함. 사전과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Ⅳ.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제1절 SWOT 분석

제2절 비전 및 고도화 방향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제4절 사회적경제 임팩트펀드 조성 방안

제5절 사회적경제기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6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절 SWOT 분석

1. SWOT

■ 강점 (Strengths, S)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높은 수요 존재 :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가 존재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이는 기금 운용 시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강점으로 작용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체계 구축 : 충남 내에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 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 충청남도 차원에서 육성위원회와 실무협 의회가 설치되어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치를 촉진하 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약점 (Weaknesses, W)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대한 어려움 존재 :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에 있어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자금 관리와 효율적인 배분, 성과 측정 등에 있어서 약점으 로 작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 존재 : 충남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기금의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자금 운용에 대한 압박을 가중
- 전자결제 시스템 및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현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있어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기금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기회 (Opportunities, O)

- 중앙정부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기금 등 자금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앙정부와 충남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금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확대
- 충남도의 핵심 정책의 성과 강화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 기대 : 충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공공,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자금의 효과적 운용 가능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이 가능
- 사회적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경험 확대 : 사회적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

■ 위협 (Threats, T)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 가능성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변화함에 따라 지원 예산의 감소로 인한 위축 우려
- 사회적경제기업/기관에 지원하는 외부조직의 부족 : 충남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 조직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존재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저하 위협 :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안정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이는 기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SWOT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 SO 전략 (활성화 전략)

- 지역 및 타지역과의 협력 강화 : 충청남도과 유사한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는 타지역과 협력하여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선진 사례 벤치마킹 강화 : 유사 지역의 성공적인 기금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에 적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필요

■ ST 전략 (자립화 전략)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 자립성을 높

이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ESG 요소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강화

■ WO 전략 (보완 전략)

- 전문성 향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WT 전략 (극복 전략)

- 정책적 지원 축소 대응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축소에 대비하고, 민간 투자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 조달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마련
- 외부자원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외부조직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기반 마련 필요



〈그림 4-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SW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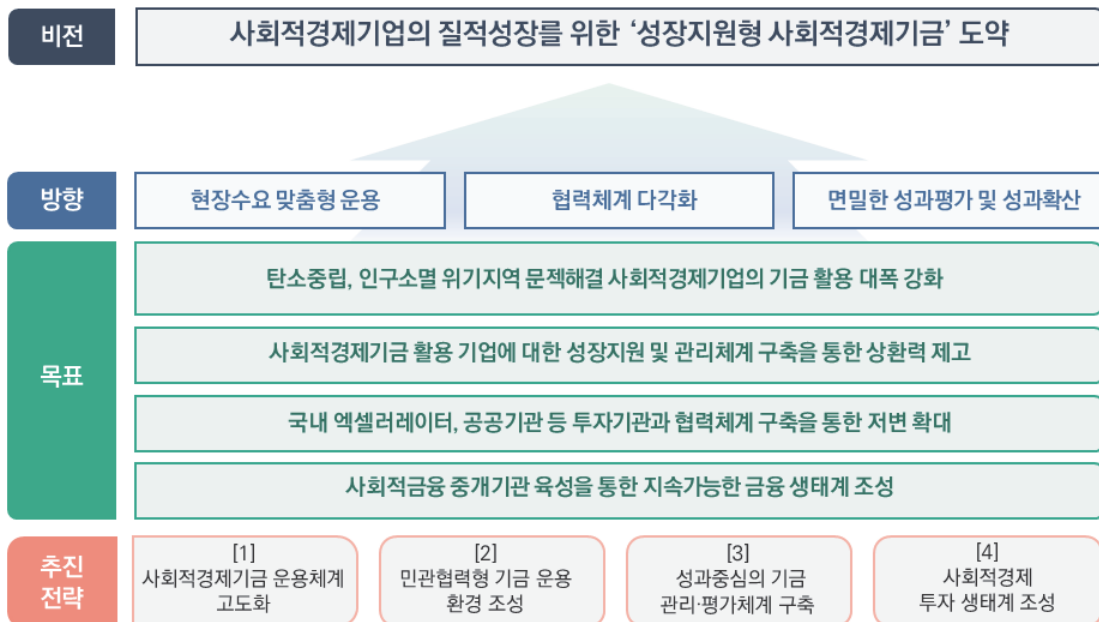
제2절 비전 및 고도화 방향

■ 비전

-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장지원형 사회적경제기금 도약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자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금 고도화 추진

■ 기본방향

- 현장수요 맞춤형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
- 협력체계 다각화
 - 사회적경제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핵심
- 면밀한 성과평가 및 성과확산
 - 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는 확산하여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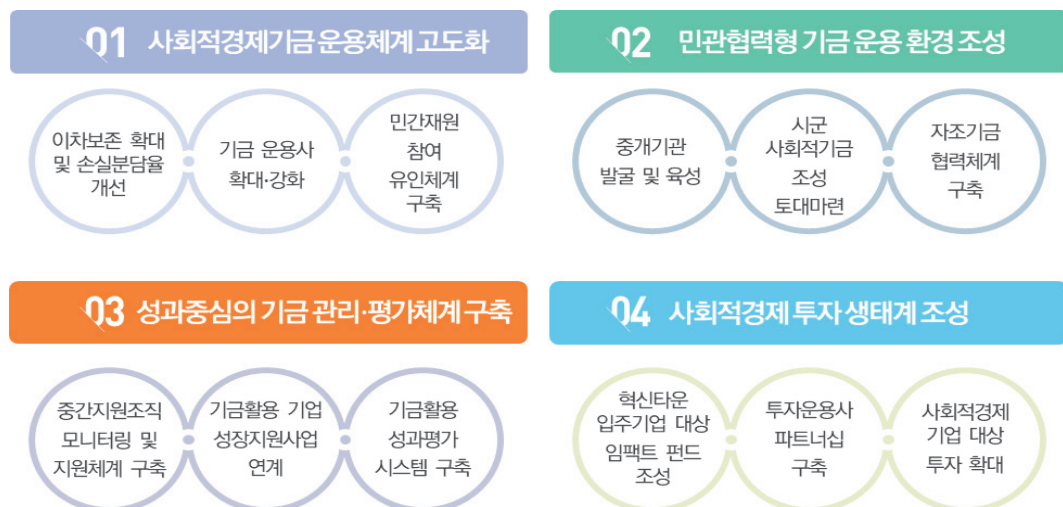
〈그림 4-2〉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고도화 방향

■ 정책목표

-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지역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활용 강화
 -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탄소중립 및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원 조달 접근성 대폭 강화
- 사회적경제자금 활용 기업의 성장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기금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구조 확립
- 국내 엑셀러레이터, 공공기관 등 투자자 간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엑셀러레이터와 공공기관, 기타 투자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자본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원 조달 채널을 다각화하며,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

■ 추진 전략

- 사회적경제자금 운용체계 고도화 : 자금의 운용체계를 고도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도모
- 민관협력형 자금 운용 환경 조성
 -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 운용의 범위와 영향을 확대하며,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 성과 중심의 자금 관리·운영체계 구축 : 성과 중심의 자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성과 극대화
- 사회적경제 투자 생태계 조성 : 다양한 투자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제3절

사회적경제기금 고도화 방안

1.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지속운용 및 운용체계 개선

■ ①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지속 운용

- (근 거) 道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2조, 19조
- (운용규모) 200억 원(신용대출 100, 담보대출 100)
- (기금 조성규모 및 방법) 17억 ~ 20억 원 (3년 간)
 - (조 성 액) 17~20억 원 ('27년 까지/ 3년 간)
 - * 손실 추정액 6.3~8.8억 원, 이차보전 11억 원 (손실 부담률 50% 연동)
 - (조성방법) 도 일반회계 전출금

구분	합계	2025	2026	2027	비고
합계	200	100	60	40	
신용대출	100	50	30	20	
담보대출	100	50	30	20	

- (지원 내용) : 융자, 이차보전
 - 융자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자금 지원
 - 이차보전 : 사회적 성과에 따라 2.5~3.5% 차등 지원, 실질적으로 1.5% 이내 금리로 지원

구분	내용
대출 과목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대출 금리	• 신용대출 : 기준금리 + 1.3%p 이하(변동금리) • 담보대출 : 기준금리 + 1.0%p 이하(변동금리) • 만기 2년 이내의 경우 고정금리 선택
대출 기간	• 신용대출 5년 이내, 담보대출 10년 이내
상환 방식	• 신용대출 :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2년)
대출 한도	• 신용대출 : 1.5억 원 이내 • 담보대출 : 3억 원 이내 (특수목적의 경우 5억 원 이내)
대출 용도	• 시설자금/운전자금
기타 사항	• 중도상환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체계〉

- (운용규모) 200억 원
- (운용방식) 기금 운용기관 공모선정, 기금용자 실행
- (추진방향) 단계별 사업확대 추진(용자 → 투자 등)
 - 1단계(2025~) : 기금용자, 이차보전 등
 - 2단계(2026~) : 임팩트 펀드조성
- (추진사업) 기금 용자 및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사업대상) 사회적경제 조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용자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설비 신·증설 및 개보수, 유형자산 매입, 개보수,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운영경비, 경영안정자금 및 유동자금, 창업준비자금
 - 이차보전 : 신용대출(2.5%), 담보대출(2.0%) * 사회가치평가결과 차등지원
- (용자조건)
 - 용자한도 : 신용대출 : 최대 1억 5천만 원, 담보대출 : 최대 3억 원(특수목적에 따라 최대 5억 원)
 - * 탄소중립, 지역자산화 및 사업장 확대 등 특수목적의 경우 대출한도 상향 검토
 - 용자기간 : 신용대출 3년 이내, 담보대출 5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영업개선을 통한 성실상환 유도, 미부과
 - 용자금리 : 실 부담 금리 1.5% 이내 유지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른 이차보전을 차등적용
 - * SVI 평가 및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출 프로그램) 소액·간편 대출 프로그램(5천만 원 이하 소액), 사회적가치 평가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대출 운용(사회적경제기업 부합성 70%, 금융지원 타당성 3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기 능)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17명 이내 (위원장 포함)
 - 행정부지사(위원장), 해당업무 실국장, 도의원, 사회적경제 전문가, 기금운용 민간전문가, 당사자 기업 대표 등

■ ② 성과기반의 차등적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이차보전 기준) 대출이 실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담보 구분없이 3%~4% 차등 지원
 - 대출금리 약정은 적용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약정
 - SVI 평가 및 사회적 파급효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업의 경우 최대 4% 차등 지원

- (이자보전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
- (이자보전의 중단 등) 다음의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상환함
 - 대출기업이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연체 중인 대출. 단, 추후 연체가 해소될 경우 중단기간 동안의 이차보전금을 소급하여 지원
 - 휴·폐업 및 대출기업이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 또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
- (이자보전 차등지원) 사회적 성과에 따라 3~4% 차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창출 등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추가적 이차보전 확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SVI 평가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후 우수 기업 선정

〈표 4-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존 차등지원(안)

구분 (사회적가치 등급)	대출금리		이자보전율		실질 부담금리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신용	담보
S1~S8	4.5%	4.0%	3.0%	3.0%	1.5%	1.0%
우수기업	4.5%	4.0%	4.0%	4.0%	0.5%	0.5%

- (우수기업의 선정) SVI 평가를 기초로 해당 기업의 사회적 높은 파급효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도정 핵심정책(탄소중립, 인구소멸위기 대응 등)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이자보전금의 정산)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도에 청구
 - 월별 정산 금액 :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이자보전율) × (해당월 일수/365일)

■ ③ 기금 손실분담율 개선

- (손실분담 비율) 신용대출로 실행한 대출 중 대손처리를 완료한 대출 건에 대해 대손처리한 금액의 50%를 취급 운용사에서 보전 (기존 30%에서 50%로 개선)
 - 분기별 손실처리 내역을 취합하여 손실분담금 정산
- (손실보전 대상) 신용대출로 실행한 대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출금
 - 신탁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탁이 대손처리를 완료한 대출금
 - 대출기업이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위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미회수 대출금
- (손실분담 후 대출금의 회수) 손실분담금을 정산한 이후 잔여 대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도가 손실한 금액에 안분하여 변제에 충당

■ ④ 소요 예산

- 손실분담율 개선 및 이차보전 확대 운용에 따라 총 22.3억 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
- 이차보전액의 경우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규모를 160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규모를 40억 원으로 가정하였으며, 각각 이차보전을 3%, 4%로 설정
 -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3%)의 경우 총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4%)의 경우 4억 원의 예산이 소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 200억 원의 20%인 4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중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필요

(단위 : 억 원)

구분	자금 규모	합계	2025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계		22.3		4.7		6.0		7.0		3.2		1.3
손실추정액	100	6.3	50	3.1	30	1.9	20	1.3		0.0		0.0
이차 보전액	계	200	16.0	1.6	60	4.2	40	5.8	0.0	3.2	0.0	1.3
	일반대출 (3%)	160	12.0	1.2	48	3.1	32	4.3	-	2.4	-	1.0
	우수기업대출 (4%)	40	4.0	0.4	12	1.0	8	1.4	-	0.8	-	0.3

〈산출근거 예시〉 손실분담 50% 산정시

[조성액 : 22.3억 원]

■ 손실 분담액 : 6.3억 원

= 신용대출액 100억 원 × 부실 발생률 12.5%* × 손실 분담율 50%

* 신용보증기금의 최저 보증배수 8배수를 부실률 환산(100/800=12.5%)

■ 이차 보전액 : 16억 원 200억 기준

▶ 기본대출(3.0%, 160억 원) = (80억×50%×3.0%) + [1차년도 100% 보전액+(48억×50%×3.0%)]
+ [1차·2차년도 100% 보전액+(32억×50%×3.0%)] + [2차·3차년도
100% 보전액]+ [3차년도 100% 보전액]

▶ 우수기업대출(4.0%, 40억 원) = (20억×50%×4.0%) + [1차년도 100% 보전액+(12억×50%×4.0%)]
+ [1차·2차년도 100% 보전액+(8억×50%×4.0%)] + [2차·3차년도
100% 보전액] + [3차년도 100% 보전액]

2) 기금 운용사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 기금 운용기관 확대 운용

- (배 경)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확대운용을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필요
- (선 정) 공모를 통한 도 자체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역 할) 도내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에 대한 용자 및 상환관리와 용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 (자 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단, 각 시군 용자실행기관(단위 조합/금고) 참여)
 - 도내에서 사회적 목적활동을 위한 대부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NPO 등의 조직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금융기관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용자사회적가치 지표 운영 계획 등
- (지원절차) 도에서는 이차보전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운용사에서 대출을 실행

■ 충청남도 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대상 협력체계 강화

- (운용사 확대 방안) 도내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파트너십 관계 강화 추진
 -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충청남도 금고는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부분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기금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 충청남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16,300백만 원(제1금고 : NH농협은행(6,200백만 원), 제2금고 : 하나은행(10,100백만 원))
- 도정의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문제 해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이것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등 협력 도모 필요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2조제2항 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② 제2조제2항 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민간재원 사회적금융 참여 유인체계 구축

■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 비영리법인·제3섹터에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에 있어 제약사항은 사회투자 방식으로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과 기본재산의 사회투자 사용여부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서는 주무관청의 재량 허용이 가능하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행이 어려운 상황
- 특히 사회투자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지출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사회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의 조성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미국의 경우 민간 재단의 투자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투자는 별도로 규율하면서 예외적 허용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김은경 외(2023)는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공익법인이 수익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융자, 지분투자, 보증 등의 방법으로 사회투자를 시행하려 할 때, 이를 ‘공익목적투자’로 간주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공익목적투자의 경우 의무지출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며, 대신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시행해야 하며 공익목적 투자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경영공시를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회계 도입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의 자금공급 수단별 법적근거 마련 제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공급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금융시장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반 금융시스템을 변화시켜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사회적금융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충청남도과 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018~2021년 시행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였던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이를 위해 사업예산 할당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정부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강화, 서민금융을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협의회를 통한 관계기관 협력 채널 구축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표 4-2〉 자금공급 수단별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구분	관련부처	내용
사업예산 할당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진흥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 예: 중소기업진흥법 제9절(소기업에 대한 지원) 참고
정부보증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신용보증기금법」개정으로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예: 중소기업진흥법 제6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 5 참고
서민금융 연계, 사각지대 대응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협의회 통해 관계기관 협력/조율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 금융위, 중기부 참여구조 마련 또는 「사회적기업법」 내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참여 대상으로 명기

자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3)

■ 충남사회적금융협의회 구성·운영

- 사회적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역 단위 사회적금융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중개기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 필요
- 협의체의 효과적 운영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원 조성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 합의,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과 각 기관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민간 금융기관 대상 사회적금융 교육 및 인식 확산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민간 투자자와 사회적기업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 사회적 금융, 임팩트 측정, 사회적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교육과 성과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간 부문이 사회적경제 금융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2.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1)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

■ 도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전문성 제고

- 2000년대 초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2010년 전후 소셜벤처 전문기관, 2015년 전후로 공제, SIB,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개기관 등장
- 이전에는 컨설팅, 인큐베이팅, 정부사업 위탁 등 비금융 사업 위주로 활동하다가 2018년 활성화 정책 시행 후 사회적 금융 관련 활동 본격화

〈표 4-3〉 주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 분야
1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2000	마이크로크레딧, 사경 지원기관
2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2002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가 육성
3	(재)함께일하는재단	2003	공익목적 기금운용, 사회적기업가 육성
4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舊 아크투자자문)	2003	소셜벤처 경진대회, 임팩트펀드 운용사
5	(주)크레비스파트너스	2004	소셜벤처 투자, 임팩트펀드 운용사
6	(사)나눔과미래	2006	주거복지, 사회주택기금 운용
7	(재)열매나눔재단	2007	국제개발, 사회적기업가 육성
8	(주)소풍벤처스(舊 sopoong)	2008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터
9	(주)임팩트스퀘어	2010	임팩트비즈니스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10	전국주민협동연합회	2010	자활공제사업, 자활기업 대출
11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2011	임팩트비즈니스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12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2011	창업투자회사, 임팩트 투자사
13	(재)한국사회투자	2012	공익목적 기금운용, 액셀러레이터
14	(주)오마이컴퍼니	201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5	(주)루트임팩트	2012	에너지 분야 컨설팅, 기후금융 P2P
16	(주)HG이니셔티브	2013	소셜벤처 육성, 임팩트펀드 운용사
17	(사)피피엘	2014	비영리 대출, 사회적기업가 육성
18	재단법인 밴드 (舊 한기협 공제사업단)	2014	사경기업 공제사업, 액셀러레이터
19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2015	SIB 운영기관
20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5	사경기업 공제사업, 액셀러레이터
21	(주)한국사회혁신금융	2016	SIB 운영기관
22	(주)비플러스	2016	P2P 금융, 임팩트 투자 플랫폼
23	(주)인비저닝파트너스 (舊 옐로우독)	2016	임팩트 투자사
24	(주)IFK임팩트금융	2017	임팩트 투자
25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	도매기금 운영, 중개기관 육성
26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2019	대부업, 저리 대출
27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	비영리 대출
28	(재)대구사회가치금융	2022	비영리 대출

- 2018년 이후 벤처투자 전문기관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창업투자회사(VC), 엑셀러레이터 등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활동하는 경우 증가
 - 현재는 운용 초기단계로 금융도구(vehicle) 개선 요구를 내기 어려운 상황
 - ESG평가,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도입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표 4-4〉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라이선스 취득 현황

구분	사회적금융기관
펀딩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오마이컴퍼니 (2016) •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 비플러스 (2021), 루트에너지 (2018)
자산운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사모펀드운용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2017) • (기관전용 시모펀드운용사) 크레비스파트너스 (2018), HG이니셔티브(2019),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9)
창업투자회사, 엑셀러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D3주빌리파트너스 (2018), HG이니셔티브 (2018), 인비저닝 파트너스 (2021) • (엑셀러레이터) 엠와이소셜컴퍼니 (2018),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9), 임팩트스퀘어 (2020), 소풍벤처스 (2020), (재)한국사회투자 (2020), 재단법인 밴드 (2020)

자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3)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금융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개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사회적경제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한 요구와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기존 도내 중개기관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기존 금융기관 대상 사회적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금융 트렌드와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 강화가 필요하며,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 제고 필요
- 사회적금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개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모색

■ 지자체-중개기관 협력형 금융 상품 개발 지원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 채권이나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금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중개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리스크 예측 및 수익 모델을 고려한 상품 개발 및 운영이 필요

- 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 추진
 - 사회적기업이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상품'이나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상품 등 개발 추진
 - 이러한 상품들은 리스크 관리와 투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 필요

■ 도-중개기관-중간지원조직-당사자조직 등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조달, 운영 비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중개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
-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민간금융기관, 당사자조직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원 조달에서부터 운영 및 성과 확산까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강화 필요
 - 공공기관은 보조금 또는 초기 운영 자금을 통해 중개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개기관이 더 큰 자금 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조직들은 현장의 수요발굴과 자조기금 등을 통합 협력 가능
- 중개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 개발 필요
 - 도 및 시군은 중개기관의 설립과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중개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이 가능함
 - 또한, 사회적경제금융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 충남형 사회적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은 여러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다른 중개기관들과의 협력이나 정보 교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도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충남형 사회적금융 온라인 플랫폼 개발 필요
 - 중개기관 간의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 플랫폼에서는 성공 사례, 투자 기회, 법적 지원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중개기관 간의 협력 프로젝트도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정기적인 네트워크 행사 추진 : 정기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여 중개기관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사회적경제금융의 인식 제고

- 현재 사회적경제금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중개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금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홍보 캠페인, 성공 사례 공유,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확산 필요
 - 사회적경제금융의 중요성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특히 미디어를 통해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사회적금융 정책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강화
 - 정책 결정자, 금융 전문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포럼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금융에 대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사회적경제금융의 발전 방향 모색 필요

2) 시군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기금 설계 및 조성 지원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환경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기금 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금 및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기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관광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서는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이 가능
- 기금 설계 과정에 지역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등을 참여하여, 기금의 목표와 운영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필요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금의 우선순위와 사용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기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원 확보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개발 부담금이나 지역 내 일부 공공 서비스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등을 지원 필요
-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들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기금 활성화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금 운영을 공동으로 관리 추진
 - 이를 통해 기금이 실제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기금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강화 필요
-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금 조성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금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모색 필요

■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 및 분석 지원

-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
 - 기금의 예산 배분, 사용 내역,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금 운영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지속적 검토
- 기금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
 - 이를 통해 기금이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기금 참여 확대 및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기금의 중요성과 기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 시군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기금을 통해 지원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기금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금에 대한 신뢰성 강화 필요
- 또한,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기금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3) 자조기금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조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넛지’ 프로젝트 추진

- 자조기금 조성 시 중간지원조직 및 공공기관 매칭 지원
 - 광역 중간지원조직,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조기금에 출연금을 제공하거나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예를 들어, 자조기금이 1억 원을 모금하면, 공공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해 기금의 총규모를 2억 원으로 확대 가능
 - 이는 자조기금의 자금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자조기금이 자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조기금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관련 법률,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민관 자조기금 협의회 설치·운영

- 지역별, 업종별로 조성되는 자조기금의 정보 공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민관 자조기금 협의회 설치 필요
- 자조기금 연대 프로젝트 추진
 - 자조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젝트,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프로젝트 기획·추진
 - 자조기금은 자금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정책적 지원과 운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조기금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자조기금과 공공기관이 서로의 목표와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논의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 자조기금과 공공기관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 자조기금 조성 및 활용 주체에 대한 공공 조달과의 연계 방안 검토

- 도 및 시군은 자조기금 조성 및 활용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조기금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 필요
- 또한 공공기관은 자조기금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3.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 · 평가체계 구축

1) 중간지원조직의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기업 대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기업 대상 경영 상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사용 내역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금 수혜자들이 자금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자금 사용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예: 고용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금이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필요

■ 경영위기 기업 대상 정기적인 현장 방문 및 관리

-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기금 수혜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금 사용의 적정성, 프로젝트 진행 상황,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
- 경영위기 기업 대상 정기 평가 보고서 작성
 - 현장 방문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 운영 주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추진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추진

- 기금 수혜기업들의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기금 수혜자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재무 관리, 리스크 관리, 사회적 가치 측정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애로 해결 및 중재 역할 강화
 - 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은 중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금 수혜자 간의 갈등이나 기금 사용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중재자로 나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필요

2) 기금활용 기업 대상 성장지원사업 연계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지원 제도 연계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밀착형 정보제공을 통한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이 수익성에 우선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자금 조달 경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상황
-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활용성 강화 필요

■ 비즈니스모델 등 역량강화 및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지원

- 비즈니스모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금 활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케일업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직원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 지원
 - 성장지원과 투자연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 지원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공공조달 기회 확대 :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성장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스케일업 기회 제공 및 우수 성공사례 창출 필요
-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SVI 등 사회적가치 측정 지원

- SVI 등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측정 지원
 - SVI 성과측정뿐만 아니라, ESG 성과측정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SVI, ESG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체적인 사회적성과 측정 및 표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경제기금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금 성과 환류체계 구축

- 서울 사회투자기금의 감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경제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지원금액의 목적 외 사용’,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 만큼,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경우에도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 사례 (2022년)

- 지원내용의 사후관리 분야에서 문제되는 주요 감사지적유형은 ‘지원금액의 목적외 사용(유형 3-A)’,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유형 3-B)’,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유형 3-C)’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 ‘지원금액의 목적 외 사용(유형 3-A)’에서는 수행기관 등에서 실무진의 부족,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업체에서 용자된 금액이 당초의 용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었음. 또한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수조치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청되고 있음. 나아가 지원대상업체가 폐업이나 사업등록의 취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목적대로 용자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된 내용도 3-A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부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유형 3-B)’와 관련하여 채권의 대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행되고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 감사의 경우 상황이 유예된 지원대상업체에 대하여 추가 용자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되었고, 그 외 장기연체 채권을 관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이행되는지가 지적된 사례도 3-B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미비(유형 3-C)’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성과평가의 기준이 적절한지,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는지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3-C 유형의 경우 지원심사기준 분야의 2-A 유형과 연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금이 목적으로 하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성과가 효율적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기금 사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 필요. 기금 활용기업의 성과 창출이 있을 경우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향후 기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실패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 경기연구원(2019)은 기금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① 재원 조성의 안정성, ② 합목적성, ③ 운영 효율성을 선정
 - 재원조성의 안정성: 기금의 자체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재원조성 방법의 다양성, 일반회계 의존율 등

- 합목적성: 기금 사업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등
- 운영 효율성: 기금 사업이 유사·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유사·중복성, 집행률 등
- 인천연구원(2020)은 재정운용 계획(편성) - 재정운용 관리(집행) - 재정운용성과(결산) 관점에서 평가항목으로 ① 합법성, ② 합목적성, ③ 건전성, ④ 타당성, ⑤ 효율성, ⑥ 효과성을 선정
 - 재정운용 계획(편성) 평가 항목 : (합법성) 기금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합목적성) 기금의 설치목적이 구체적이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재정운용 관리(집행) 평가 항목 : (건전성) 자체수입 비중, 타 회계 의존율 등 기금이 대외 재원의 의존 없이 안정적인 자체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타당성)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중과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성 등 기금 사업이 설치목적과 부합하는지, 타 회계와 유사·중복성은 없는지.
 - 재정운용의 성과(결산) 평가 항목 : (효율성) 기금 집행 실적, 계획적 운용 비율 등 기금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효과성) 기금 사업의 효과가 탁월한지
- 서울연구원(2022)은 평가항목으로 ① 기금설치 목적의 타당성, ②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③재원 조성의 적정성, ④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선정
 - 기금설치 목적의 타당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기금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 사업을 대외재원의 의존 없이 자체 수입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
 - 개별 사업의 적정성: 기금의 세부 사업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된 효과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항목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목적성, 건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적인 사회적 성과를 기록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공유 확산
- 이러한 성과 확산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제4절

사회적경제 임팩트펀드 조성 방안

1. 투자펀드 사례 검토

1)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하모펀드’

■ 개요

- (조성배경) 경남 청년들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회귀 창업 유도하고자 함
- (조성목적) 사회적 가치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셜벤처에 대한 초기 투자를 위해 도내 금융 기관·공기업·지자체 등이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펀드) 설립
 -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여 투자지원과 함께 성장 지원 컨설팅 병행
- (투자 기관)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통영시(통영관광개발공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센트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투자대상) 경남 소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셜벤처(주목적투자 70%), (비목적투자 30%) 경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남향(向)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환경, 교육, 건강,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 (추진근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4항(청년창업 지원대책)

■ 주요 내용

- (펀드 조성 및 운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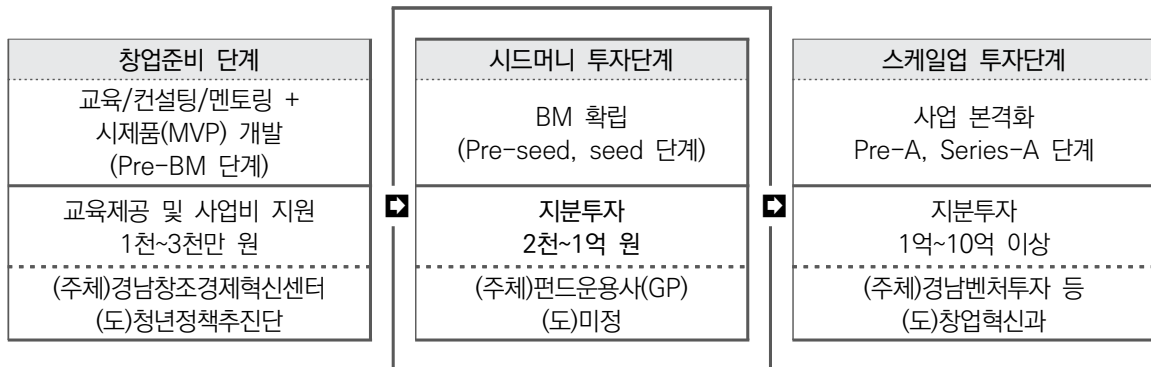


- (조성 형태 및 재원규모)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총 22억 원, 7년 존속(투자기간 3년 이내, 회수 4년)
 - 출자 : 경남은행(4억), 농협(3억), 사회가치연대기금(2억), 거제시(3억), 통영시(2억), 센트랄(1억)
 - 출연 : LH(2억), 남동발전(1억), KAI(1억)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
- (운용구조)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운용

〈운용사 개요〉

- (운 용 사) MYSC
- (회사개요) 2011년 설립된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임팩트투자기관(서울 본사)
- (재무상황) 자본금 22.5억, 매출 33.1억, 영업이익 12.6억('19.12월 기준)
- (기업투자) 아트임팩트, 위허들링, 해녀의 부엌 등 42개 사
- (펀드운용) 엑스트라마일 임팩트1호 개인투자조합('19.6월 10억 원), 엑스트라마일 임팩트2호 개인투자조합('20.2월 20억 원), '20. 하반기 20억 원 규모 성동구청 소셜임팩트펀드 조성 계획
- (특기사항) 액셀러레이터 최초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19년 12억 원, 지방계정), 전문인력 규모가 가장 큼(34명)

- (주요 프로그램) 시드머니 투자(pre-seed/seed단계) 및 액셀러레이팅 필수 제공
 - (시드머니 투자) 2천만 원 ~ 1억 원(보통주 지분 5~10% 취득방식)
 - (액셀러레이팅) 사전(2주), 본(3개월), 사후(6개월)
- (청년창업 단계별 접근) 창업준비단계(발굴) - 시드머니 투자단계(투자펀드) - 스케일업 투자단계
별로 접근할 필요(각 단계 간 긴밀한 협조 필수)



■ 추진경과

-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계획 수립 및 보고 : '20. 3. 12.
- 펀드 운용사(GP) 선정 : '20. 5. 26.
- 투자예정기관 대상 펀드 설명회 개최 : '20. 6. 15.
- 투자기관 확정(투자확약서/의향서 접수) : '20.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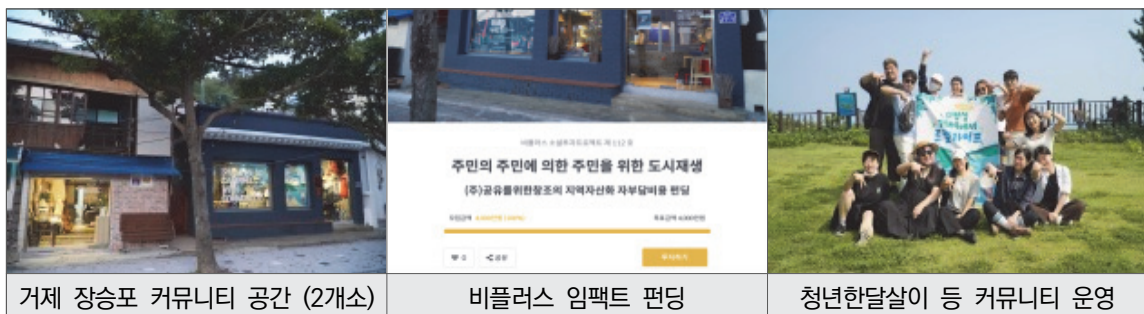
- 하모펀드 결성 업무협약식 개최 : '20. 8. 12.
- 하모펀드 결성총회 : '20. 12. 9.
- 하모펀드 1차 투자(3개 사 / 3억 원) : '20. 12월
- 하모펀드 2차 투자(3개 사 3.3억 원) : '21. 3월
- 제1차 경남임팩트투자포럼 ※ 연속토론회 연계 : '21. 4. 28.
- 하모펀드 3차 투자(1개 사 2억 원) : '21. 6월

■ (투자기업 사례 1) 주식회사 커먼프로젝트(구 공유를위한창조, 거제)

- (회사개요) 취약지역 주거개선을 위해 2014년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

회사 설립일	2014년 7월 25일
대표자	박은진 (2017년 1월 취임)
임직원 수	3명 (대표이사 포함 이사 2인, 감사1인)
해당 SDGs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국토균형발전, 공동체회복) Goal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민관협력)
20년도 매출(예상)	약 2억 4천만 원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의 유휴공간(빈집, 빈점포)을 활용한 커뮤니티와 공유공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 거제 장승포에서 유입 청년 및 지역공동체와 함께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세컨드 빌리지」 운영
- (수상 내역)
 - 2019.8.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스케일업 단계 지원대상
 - 2019.9.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제2019-35호) 지정
 - 2020.9. SC청년제일 프로젝트 지원대상(청년 소셜벤처 사업지원)
 - 2020.1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선정
- (투자금액) 1.0억 원



■ (투자기업 사례 2) 주식회사 웰피쉬 (통영)

• (회사개요)

회사 설립일	2020년 7월 8일
대표자	정 여 울
임직원 수	3명
해당 SDGs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20년도 매출(예상)	약 5,000만 원

• (주요 사업 내용)

- 웰피쉬는 산지의 재고 수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푸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개발하고 제품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

• (수상 내역)

-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우수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 청년식품창업 Lab 2기 선정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 2020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기업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020 청청콘 6개 비대면 분야 본선 진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금액) 1.0억 원



■ (투자기업 사례 3) 주식회사 웨어앤서비스 (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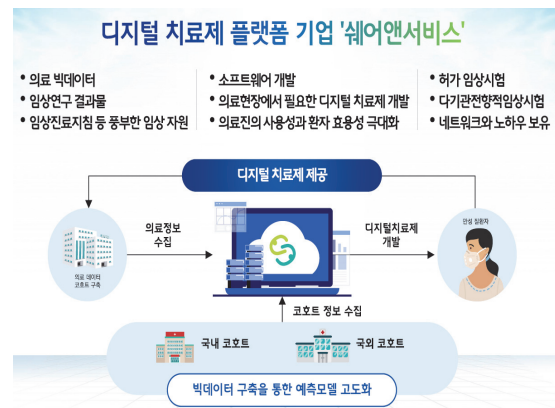
• (회사개요)

회사 설립일	2020년 4월 6일
대표자	최 희 은
임직원 수	4명
해당 SDGs	건강과 웰빙
21년도 매출(예상)	약 35,000만 원

• (주요 사업 내용)

- 호흡기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제대학교 창업기업)로, 이지브리드라는 제품을 통해 호흡 관련 재활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고 디지털 치료 연계 서비스 제공 목표

• (투자금액) 2.0억 원



■ 시사점

• 지역 기관 간 협력 강화

- 거제시, 통영시, 금융기관, 공기업 등 다양한 출자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 내 기관 간의 협력 구조가 강화

• 경남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립성을 증진

•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시드머니 투자, 스케일업 투자 단계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2.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개요

- (조성 목적)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R&D, 시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기반 마련 및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
 - 모태펀드(Fund-of-Funds):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투자 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 대상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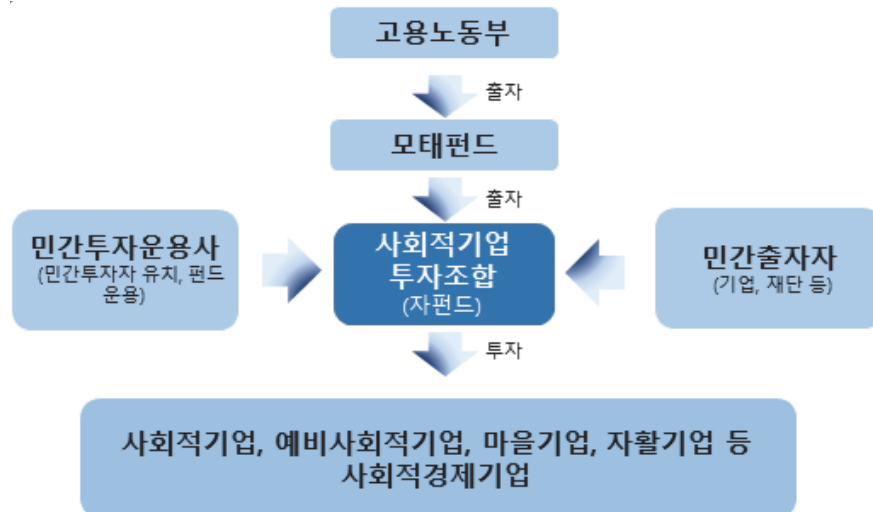
〈표 4-5〉 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

(단위: 억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결성일	'11.6.22.	'12.9.6.	'13.11.27.	'15.2.2.	'18.11.7.	'20.11.3.	'21.12.20.	'22.4.29.	'23.5
결성금액 (고용부/민간)	42 (25/17)	40 (25/15)	60 (25/35)	40 (25/15)	108 (75/33)	58 (40/18)	60 (45/15)	60 (45/15)	70 (50/20)

■ 주요 내용

- (출자) 고용노동부에서 모태펀드에 출자금 납입
- (투자운용사 모집 및 선정) (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자펀드)을 구성·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
- (투자조합 결성) 투자운용사가 투자자(조합원)를 모집, 조합원 총회를 거쳐 투자조합 등록
 - 투자조합 결성 요건: 총 결성액의 25% 이상이 민간출자금으로 조성되어야 함
- (투자조합 운용) 투자운용사는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며, 펀드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60% 이상 투자, 40% 미만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일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
- (수익 및 손실 배분) 수익 또는 손실된 회수금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및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
- (투자조합 해산) 만기 도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해산계획 신고·수리 후 해산 및 청산, 등록 말소
- (회수금 재출자) 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재출자
 - 특징: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하여 재출자함



〈그림 4-3〉 투자조합 결성 절차

- (주요 성과) 총 468억 원 규모의 8개(1~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등 총 61개 기업에 353억 원을 투자함
 - (매출액) 투자 이전 총 2,404억 원 → '21년 말 총 1조 2,671억 원
 - (고용인원) 투자 이전 총 1,189명 → '21년 말 총 3,704명

■ 투자기업 성과 사례

- 코끼리공장(사회적기업)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는 사업장으로 버려지는 장난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21년 5억 원을 투자받아 재생소재 원료를 연구한 결과 친환경 LED 조명 대체품 생산함. 주요 성과는 투자 전년 대비 매출 48.7% 증가, 고용인원 72.2% 증가
 - ('20) 7.8억 원, 18명 → ('21) 11.6억 원, 31명
- ㈜오마이어스(예비사회적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테이프를 대체하고자 '21년 5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친환경 종이테이프 발명함. 주요 성과는 투자유치로 인한 매출 최초 발생, 고용인원 400% 증가
 - ('20) 0억 원, 3명 → ('21) 21.5억 원, 12명

■ 시사점

- 자금 조달의 다양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
 -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R&D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규모화와 성장을 지원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고용 창출 및 성과기반 투자
 - 투자 이전에 비해 고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함
 - 투자 성과 사례를 통해 고용인원 증가 및 매출액 증가 등 성과기반의 투자접근 방식이 효과적임을 증명

3.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

■ 개요

- (조성배경)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규제자유특구 개인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되며 설립
 - 한국모태펀드, 강원도(강원테크노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의 다양한 기관과 강원 지역 출신 비즈니스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조성목적) 강원도 내 초기 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분야에 속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 수소 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 (투자대상) 강원도 소재 초기 기업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디지털헬스케어, 액화 수소 산업 분야의 기업
 - 전체 투자 가능 금액의 약 80%가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에 투자되며, 본점이 강원도에 있거나 주 사업장이 강원도에 위치한 기업이 투자 대상임
- (추진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주요 내용

- (운용방식)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은 소풍벤처스와 강원테크노파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운영(Co-GP)하며, 펀드의 운용 및 투자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진행
 - 소풍벤처스는 강원도에 본사를 이전하고 로컬펀드를 조성해 강원도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소풍벤처스는 'K-CAMP 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 기반과 지역 기반의 창업팀을 지원하며, 전문 멘토링, 비즈니스 교육,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펀드 규모 및 투자 계획) 총 32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9.2억 원, 강원도와 강원혁신센터, 소풍벤처스 컨소시엄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구성
- (주요 프로그램) K-CAMP 강원, 로컬 마이스터 코스 등
 - K-CAMP 강원은 소풍벤처스가 운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하는 지역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임
 - 강원도 소재 설립 7년 이하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트랙(Tech Track)'과 '지역 기반

트랙(Local Track)'으로 구분하여 총 8팀 선발하여, 1:1 전담 멘토링, 전문 멘토링, 소그룹 비즈니스 교육, 벤처 생태계 네트워킹 지원, 데모데이 등을 추진함

- 로컬 마이스터 코스는 강원 혁신센터와 소풍벤처스가 지역 창업가들이 창업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성과) 강원 청년창업 펀드 1호 결성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강원도 전략·특화산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가와 기업을 지원
 - 현재까지 시드머니 직접투자 9개 사, 피크닉 투자조합 7개 사, 강원 청년 창업 펀드 1호 2개 사 등 18개사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 일반적인 투자펀드와 다르게 지역 내 취업·주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에 주목
 - 강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무형 문화 콘텐츠, 식음료(F&B), 관광·레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도 지원하여 (주)이쁜꽃, 오늘의이야기, 라온서피리조트 등 3개 기업에 총 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 시사점

- 강원도 내 디지털 헬스케어 및 액화 수소 산업 등 혁신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 지역 내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
 - 'K-CAMP 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전문 멘토링과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팀의 역량을 강화
 - 로컬 마이스터 코스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창업가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함

4. 메디치 펀드

■ 개요

- (운용사) 메디치인베스트먼트
- (설립 연도) 2016년
- (설립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펀드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함
- (투자 대상) 환경 보호,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교육 및 건강 증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투자함
 -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사회적 불평등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에 투자

- 지속가능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선호
- 혁신성: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기업에 관심

■ 주요 내용

- (투자 전략) 주로 초기 단계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며,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지원, 네트워크 연결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
 - 기업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
 - 메디치 펀드는 투자한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주요 투자 분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교육, 건강, 사회적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환경: 친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 등의 분야
 - 교육: 교육 격차 해소, 혁신 교육 플랫폼 등
 - 건강: 저소득층 건강 지원, 헬스케어 기술 혁신 등
- (주요 투자 사례) 메디치 펀드는 친환경 기술과 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하여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
 - 에코앰파트너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에코앰파트너스에 투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
 - 헬스케어 스타트업: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투자 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리틀빅히어로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틀빅히어로즈에 투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다양한 교육 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시사점

-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 다른 금융 기관과 투자자들에게도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투자 생태계의 다양화
 - 환경,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소셜벤처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5. 하나 ESG 더블 임팩트 매칭 펀드

■ 개요

- (조성 목적)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사회투자가 사회적기업이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고자 함
- (투자 대상)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고 성장성 있는 사회혁신기업(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포함), 친환경 기술 및 사업역량을 보유한 ESG스타트업

■ 주요 내용

- (투자 규모) 최소 5천만 원 ~ 최대 5억 원 (투자기업 당)
- (투자 금액) 2023년 기준 총 26.5억 원(선정기업 가치는 총 1,397억 원, 후속투자유치액 총 107.3억 원)
- (투자방식) 매칭 투자, 브릿지 투자, 공동투자
 - 하나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및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 펀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방식을 채택

■ 시사점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구축 및 투자 생태계 조성
 - 투자와 회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을 창출하고,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ESG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촉진함

2. 충남 사회적경제 임팩트 펀드 조성방안

1) 개요

■ 임팩트 투자 개요 및 현황

- (임팩트투자 정의)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사회 및 환경적 영향도 창출하는 자본투자”(2017, KDB)로 정의
 -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 조달의 방식이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 투자 방식인 임팩트투자에서 핵심은 임팩트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1,400조 원(\$1.33T), 2029년 \$1.88T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로날드 코헨 경(Sir Ronald Cohen / 영국 임팩트 투자 선구자)

“임팩트는 특정 활동이 사회와 지구에 끼치는 편익에 대한 것”(impact is the measure of an action's benefit to society and the planet)으로 설명 (2018, On Impact: A Guide to the Impact Revolution)

■ 지자체 임팩트 펀드 의미 및 방식

- 투자사의 경우 출자자(LP) 의도가 중요한데, 현재 정책자금들이 하나의 기금(funds of fund/모태펀드)으로 모여 출자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임팩트투자 조건이 붙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
 - (출자 콘테스트 방식 제안) 펀드에 납입된 지자체의 정책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에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기의 ‘모태펀드’출자 방식이 아닌 직접 출자 방식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확정 지은 투자사에게 지역 내 투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출자하는 ‘출자 콘테스트’방식이 적합
 - 지자체가 해당 결성 펀드에 유일한 출자자(single LP)인 경우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지자체의 정책 목적과 연결하여 진행 가능(ex. 해당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거나 지점 설치하며 사업 실행 조건 등)하며, 여러 출자자 중 하나인 경우 출자한 금액 대비 1~2배 이내에서 정책 목적과 연결하여 진행 조건 부여 가능

■ 지자체 임팩트 펀드 사례

- 경상남도
 - 2020년 22억 원 규모의 청년임팩트투자 펀드 결성
 - 경상남도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투자사(운용사)를 선정
 - 통영개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 및 지역 소재 공공기관(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기관(경남은행) 및 지역 기업(센트랄, 한국항공우주) 등이 출자자 참여
-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
 - (성동임팩트벤처투자) 2020년 5억 출자를 통해 20억 규모

- (성동 ESG 임팩트펀드) 2022년 15억 출자를 통해 30억 규모 결성
-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 자원 마련

•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을 통해 매년 50억 출자금 마련
- 2023년 3개 투자사(운용사)에 출자하여 총 278억 규모의 펀드 조성
- 2024년에도 3개 투자사(운용사)를 선정 완료하였고, 전년 대비 더 큰 규모의 펀드 조성 중

〈표 4-6〉 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 투자 사례

시기	성격/명칭	GP	규모	LP 및 투자내용
'18. 9.	크립톤-제주 액셀러레이팅 개인투자조합	크립톤	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지역 개인투자자 10여 명 - 제주 최초의 액셀러레이팅 펀드로, 현지 스타트업에 100% 투자
'20. 2.	엑스트라마일 임팩트2호 개인투자조합	미스크	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지방계정) 12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4억, 와디즈플랫폼 2억, MYSC 2억 - 서울, 인천, 경기권 이외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초기기업(기업가치 10~50억 수준의 극초기기업)에 60% 이상 투자
'20. 3.	[개인투자조합] 소셜벤처 피크닉 1호 투자조합	소풍	3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세대 창업지원단, 사회가치연대기금(2.5억), 아산나눔재단, 디캠프, 카카오임팩트, V자산운용 김강석(전 크래프톤 대표), 정경선(HGI 대표), 제현주(옐로우독 대표), 이재웅(쏘카 대표) 등 개인투자자 6명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모델을 갖춘, 창업 3년 이내 또는 법인 설립예정인 신생·초기단계 소셜벤처에 80% 이상 투자 - 3천~1억 원 투자금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18. 11.	[벤처투자조합]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다담인베스트먼트	14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10억 원(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출자), 대전시 10억 원* * 2018 2차추경("소셜벤처 임팩트 펀드 조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자 한국남부발전 10억 원, 모태펀드 100억 원, 운용사 3억 원 등
'18. 11.	[벤처투자조합]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19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태펀드 140억 원, 부산시 10억 원, 주거복지재단(LH) 20억 원 운용사 및 지역 중견기업 25억 원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SDGs 17개 목표 내의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70% 이상 투자 - 창업경진대회 및 포럼 등에서 양질의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집중 투자 - 도시재생분야(40억 이상)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에 기여하거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벤처 등

2) 충남 사회적경제 임팩트펀드 조성 방안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0.10.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8.12. 시행)
 - ※ 현행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


■ 기본 방향

- 탄소중립, 인구소멸 위기 대응, 청년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기반의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셜 벤처에 대한 초기 투자
- 도내 금융기관·공기업·지자체 등이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펀드)의 형태로 추진
-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을 펀드 운용사로 선정

■ 펀드 조성

- 펀드명 : 충남 로컬 임팩트투자 펀드(가칭)
- 결성예정 금액 : 최소 20억 원 이상(LP 출자 규모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며, 필수 10억 이상 필요)
- 펀드 존속 기간 : 8년(투자기간 4년 이내)
 - ※ 존속기간 연장 가능

〈표 4-7〉 주목적 투자 대상 및 출자자(안)

	<p>UN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임팩트를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 중인 스타트업</p> <p>주목적(60% 이상) : 충남에 본점을 두거나, 신규로 충남에 본점 이전 또는 지점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등</p> <p>비주목적 : 충남이 직면한 미래 아젠다(인구소멸, 기후 등)와 관련된 스타트업</p>		
구분	출자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GP)	운용사	2억	10%
일반조합원(LP)	충청남도/기금	10억	50%
일반조합원(LP)	충남 관내 공공기관	5억	25%
일반조합원(LP)	충남 지역기업, 기타 전략적 출자자	3억	15%
합계		20억	100%

■ 펀드 운용 방식

- (운용사) 지역 사회적경제관련 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임팩트 투자사
- (투자조건) 투자대상에 60~70% 이상 주목적 투자
- (투자대상)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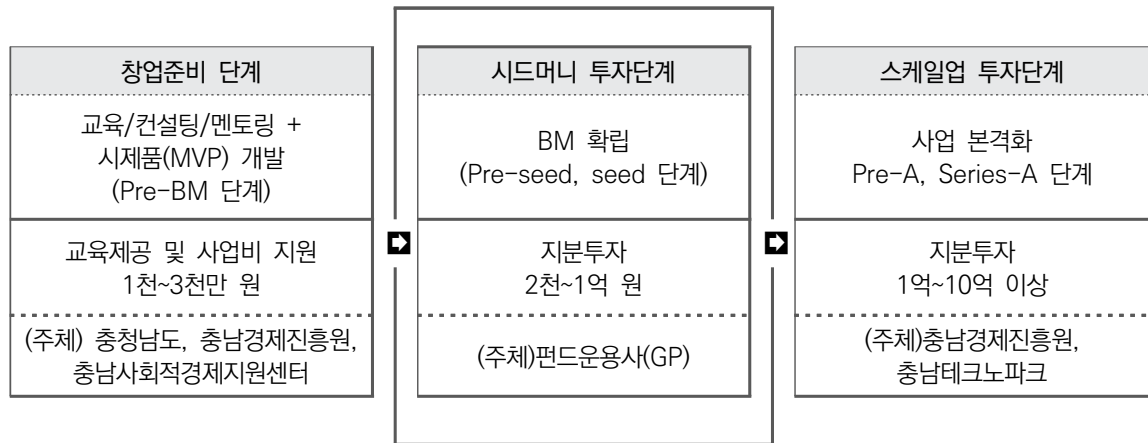
구분	대상	비고
지역	충남 소재	본사 또는 사업소가 충남에 소재
연령	전연령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함 (만 39세 미만)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청년비중 50% 이상 기업의 경우 가점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제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③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주요 영역	도정 핵심과제	인구소멸, 고령화, 필수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이민, 환경문제, 기후위기 등 해결 기업
형태	창업기업 등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3년 이내 법인(또는 법인준비 중)

- (투자방식) 시드머니 투자(pre-seed/seed단계) 및 액셀러레이팅 필수 제공
 - (시드머니 투자) 2천만 원 ~ 1억 원(보통주 지분 5~10% 취득방식)
 - (액셀러레이팅) 사전(2주), 본(3개월), 사후(6개월)
- (투자목표) 총 15~20개 사 (연간 5개 사 내외)
- (목표수익률) 0% (GP와 협의 가능)
- (운용보수)
 - 관리보수 : 결성 후 3년 간 : 결정액의 2.5%(연)
 - 성공보수 : 기준 수익률 0% (임팩트투자 정책펀드 기준 준용), 초과 수익의 20%
- (GP 선정) 상호 협약
- 납부방식 : 3회 분납

■ 임팩트 펀드 활용방안

- (성장 단계별 접근) 창업준비단계(발굴) - 시드머니 투자단계(투자펀드) - 스케일업 투자단계별로 성장지원 및 투자연계 지원
- (발굴 및 육성) 인구소멸, 고령화,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국가적 아젠다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 및 소셜벤처의 충남 내 창업, 또는 다른 지역에서 충남으로의 유입을 촉진

-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투자 이후 충남 전역을 ‘임팩트 테스트베드’(impact test-bed)로 활용하여 충남이 먼저 그 효과를 실증하며, 실증된 내용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방식



3) 임팩트 펀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혼합금융협의체 설치 및 운영
- 임팩트 펀드 조성 기획 및 관계자 업무협약 체결
- 도내 LP 및 운용사 사전 기획협의
- 펀드추진협의체 구성 및 펀드 준비
- 「충남사회적경제임팩트펀드」 계획 수립 및 보고
- 펀드 운용사(GP) 선정
- 투자예정기관 대상 펀드 설명회 개최
- 투자기관 확정(투자확약서/의향서 접수)
- 하모펀드 결성 업무협약식 개최
- 펀드 결성총회 개최
- 창업희망자기업 모집
- 대상기업 엑셀러레이팅 착수

■ 펀드 조성 후 추진 계획



■ 혼합금융 협의체 조성

- 조성 목적 : 사회적경제 임팩트 조성을 위한 사전적 협의체로서 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비롯해 도내 공공기관(발전사 등), 대중소기업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 조성 방식 : 충청남도가 총괄하며, 도내 발전사, 대중소기업 등 ESG, CSR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
- 주요 내용 :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인구소멸위기지역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등의 육성을 위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 논의
 - 실천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임팩트 펀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
 - 참여주체의 동기 부여를 위해 사회적기여 부분을 명확하게 설계하여,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의 이미지 및 사회공헌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도출

4)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

〈표 4-8〉 충청권 소재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2023년 엑셀러레이터 등록현황)

법인명	본사	전문분야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씨앤티아이	충남	기술기반 전 분야. 바이오. 농식품
골드아크	충남	기술분야 전 분야
순천향대학교기술지주회사	충남	바이오, 테크, 콘텐츠 분야
제이비	충남	F&B, Bio-healthcare, IT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탄소산업, 농생명식품, 문화CT융복합기업
JB벤처스	충남	신재생에너지, 서비스플랫폼,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	충남	AI, 바이오, 블록체인, 플랫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바이오, 전기자동차(배터리), 헬스케어, AI, ICT 분야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IT, O2O, IoT, B2C
에이비엘기술사업협동조합	충남	청년창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 바이오
로우파트너스	대전	바이오, ICT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전	ICT,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등
제이엔피글로벌	대전	기술창업분야
카이트창업가재단	대전	ICT, 의료/바이오, 소부장
한국과학기술지주	대전	기술사업화, 투자 컨설팅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기술기반 전 분야
컴퍼니에이	대전	기술기반 전 분야
밸류업그라운드	대전	ICT, 바이오 등
와이플래닛	대전	정보통신, ICT
충남대학교기술지주	대전	모든 분야
한국인증협회	대전	경영컨설팅
다차원스마트아이티 융합시스템연구단	대전	임팩트투자(제조업제외)
렛츠	대전	기타
대전세종경영시스템협회	대전	IT, ICT, AI, 빅데이터, SW, 플랫폼 등
엠엠에스벤처스	대전	차산업, 소·부·장, 바이오, 제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글로벌스퀘어	대전	생활 기반 아이디어 제품, 에듀테크, 모바일 서비스 분야
주식회사 미래엔벤처스	대전	IT, 바이오, 4차 산업, 콘텐츠
엑셀베스트	대전	IT, 바이오, 4차 산업, 콘텐츠, 기타
조슈아파트너스	대전	전 분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	IoT시제품
에프원파트너스	세종	해외진출(투자+해외파트너탐색)
라이트형제	세종	전 분야
히스토리엑트원	세종	전 분야
(주)비욘드랩	세종	IT, 바이오, 4차 산업, 콘텐츠, 기타

〈표 4-9〉 서울 소재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2023년 엑셀러레이터 등록현황)

법인명	전문분야
와이앤아처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 글로벌, 바이오, 소프트웨어융합 등
엔슬파트너스	정보통신(플랫폼, IOT등), 전기전자(제조, SW),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ICT융합, 초기창업기업투자
빅뱅엔젤스	AI, 헬스케어, 메디칼, AgTech, 플랫폼
더인벤션랩	패션/뷰티 커머스, 푸드테크, B2B SaaS, Edutech, O2O/On-Demand 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레이징	IT, Healthcare IT, 신재생에너지, 식품, 농업, 스마트기기
스프링캠프	전 분야
벤처스퀘어	ICT, 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등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AI, 빅데이터, 모바일, O2O, 콘텐츠, 헬스케어, 소비재 등
엘스톤	제조, ICT, 엔젤투자
오피스이앤씨	초기스타트업 사업아이템 선정을 위한 창업교육 및 투자유치 멘토링
상상이비즈	농식품, ICT 등
페이스메이커스	기술창업 및 콘텐츠
후앤후	ICT, 제조업
지구파트너스	기술창업분야
메디톡스벤처투자	바이오/헬스케어
요즈마그룹코리아	IoT분야, 바이오/헬스케어
프라이머시즌5	이커머스, 솔루션, 콘텐츠
벤처필드	ICT, 바이오 등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전 분야
오너스코리아	첨단제조, 부품소재, 바이오, ICT
씨엔티테크	전 분야
다스킨트	기술기반 전 분야
크립톤	기술기반 전 분야
다래전략사업화센터	ICT,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액트너랩	ICT, AI, 농식품, 바이오 등 전 분야
제타플랜인베스트	ICT, 바이오 등 전 분야
오픈위터엔젤스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기업제외)
이그나이트이노베이터스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기업제외)
내비온	기술기반 전 분야
한국엔젤투자협회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소셜벤처
기술과가치	기술기반 전 분야
에스티지벤처스	하드웨어, 제조, 바이오 및 기술 전 분야
인트로매그나	정책연구
엠와이소셜컴퍼니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기업제외)

법인명	전문분야
리온아이피엘	소셜벤처, 환경&에너지, 공유경제&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기업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김기사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데일리파트너스	디지털 헬스케어
타이탄벤처스	모든 분야
케이엑셀러레이터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기업제외)
엔텔스	기술기반 전 분야
아이피에스벤처스	테크핀
이암허브	농촌, 관광
어썸벤처스	기술기반 전 분야
라쿠카라차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기업제외)
컴퍼니엑스	AI, 미디어, 핀테크, 모빌리티, 동남아진출
주식회사 퓨처플레이	ITC, 바이오, 헬스케어분야
시저스랩	ICT
한국사회혁신금융	디지털콘텐츠, 의료기 및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어플리케이션
벤처기업협회	기술기반 전 분야
오픈놀	기술기반 전 분야
크리액티브헬스	물류유통, 프롭테크, 도시재생, 수출B2B제조, F&B(유통특화)
엑센트리벤처스	기술기반 전 분야
빅베이스캐피탈	스마트시티, 기술분야
아이피씨앤비	4차산업 관련
플랜에이치벤처스	기술기반 전 분야
더웍스코리아	핀테크, SW, ICT 등
유스업파트너스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업 제외)
젠엑시스	기술기반 전 분야
원베스트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기술경영
젠티움파트너스	IT, 보안
스파크랩	푸드테크, 바이오, 플랫폼서비스
홍합밸리	기술창업 전 분야
픽스텍	IT, IoT, 의료기기, 신약 등
카페캠프둥	임팩트 투자(소셜벤처)



제5절

사회적경제기금 거버넌스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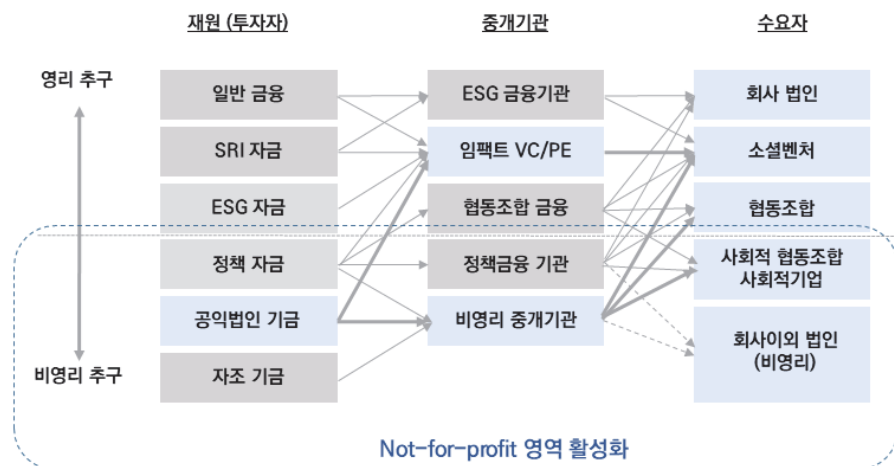
1. 충남 사회적경제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금융 거버넌스 구조 구축

- 도내 공공기관, 민간금융기관, 민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 협의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채널 마련
 - 충청남도에는 기금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실무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협의회’ 구성·운영
 - 기금의 운영방향 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 평가, 기관별 성과 공유 등을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 다양한 중개기관의 발굴·육성을 통한 자금공급 사각지대 해소

- 신탁, 투자조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영리법인 등 비제도권 전달체계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자금공급 사각지대 해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급하는 자금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별도의 기금회계를 도입해 민관 자금이 혼합되더라도 회계 장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당 내역이 공시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그림 4-4〉 충남사회적경제금융의 생태계 구조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23)

2. 사회적금융의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개방형 거버넌스 구축

■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강화

- 실시간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
 - 충청남도도는 기금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예: 자금 배분 내역, 성과 평가 결과, 회의록 등)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임팩트 투자 포함)의 성과 보고서 발간
 -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운영 보고서(재정 상태, 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이 포함)를 발간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

■ 도민 참여형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

- 도민참여 기반의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명확한 사회적가치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현재 활용되고 있는 SVI 지표나 ESG 평가지표 등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금 활용 사회적경제기금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 수혜 조직이나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시 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지원 비율을 상향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의 도민 참여 확대
 - 향후 임팩트 펀드의 조성과정에서 도민이 기금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며, 관련 위원회에 포함시키거나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등을 검토 필요

■ 평생교육 등 연계를 통한 도민참여형 사회적금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 및 금융 관계자 대상 사회적경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장형 교육 강화
 - 기금 운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강화 필요
- 도민 대상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교육 강화
 -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과 결합한 교육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반의 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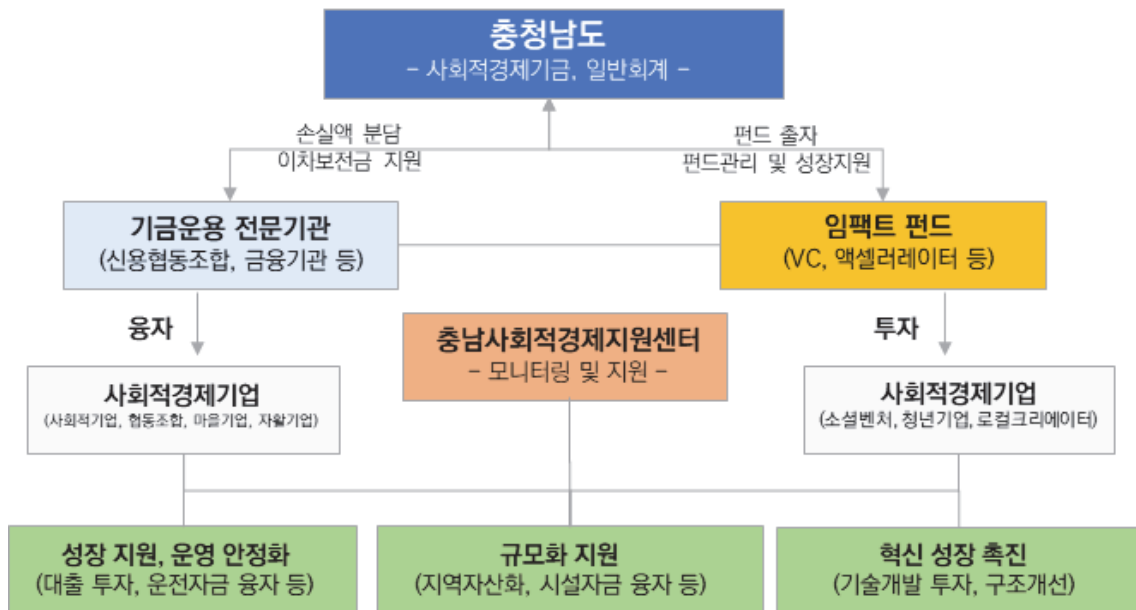
3.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추진체계

■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지원체계 정립

- 충청남도(주무부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총괄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
 - 사회적기금 운용사의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임팩트 펀드의 조성, 거버넌스 기구 설치·운영, 기금 성과 평가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
- 광역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금운용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 역할을 부여
 - 사회적경제기금 활용기업의 운영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발굴·관리
 -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성장지원 사업 연계 추진
 - 현재 계획 중인 소셜임팩트펀드를 통한 투자뿐 아니라 비영리 융자,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지원 역할 수행

■ 기금 운용사 다양화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력 강화

- 현재 신용협동조합과 함께 도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사 다양화 필요
- 비영리 중개기관, 임팩트 펀드 운용사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협력 파트너십 강화



〈그림 4-5〉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추진체계



제6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1. 단계별 추진 계획

분야	세부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이후
사회적 경제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1-1]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지속운용 및 운용체계 개선	• 기금 지속 운용 • 운용사 선정	• 성과기반 이차보전 지원 도입	• 기금 성과 발굴 및 공유		
	[1-2] 기금 운용사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 기금운용사 파트너십 구축	• 엑셀러레이터 등 중개기관 협약 체결	• 중개기관 확대 협약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1-3] 민간재원 사회적금융 참여 유인체계 구축	• 중앙정부 역제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중앙정부 및 의회 대상 역제안, 입법 촉구 제반활동 추진 • 충남사회적금융협의회 구성 운영			
민관협력형 기금 운용 환경 조성	[2-1]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	• 중개기관 발굴 및 협약	• 중개기관 대상 교육 및 협력사업 발굴	• 중개기관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 협력사업 지속 추진	
	[2-2] 시군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 기금설계 컨설팅 지원	• 기금설계 컨설팅 지원	• 성과 발굴 및 홍보		
	[2-3] 자조기금 협력체계 구축	• 자조기금 현황파악	• 자조기금 협의회 설치·운영	• 자조기금 촉진 프로그램 지원	• 성과 발굴 및 홍보	• 성과 발굴 및 홍보
성과중심의 기금 관리·평가체계 구축	[3-1] 중간지원조직의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현장관리 • 맞춤형 성장지원				
	[3-2] 기금활용 기업 대상 성장지원사업 연계 강화	• 기금활용 기업 대상 금융 및 정책 정보제공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3-3] 사회적경제기금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 지표 발굴	• 성과평가 분석	• 성과공유 및 성공사례 공유		
사회적경제 투자생태계 조성	[4-1] 사회적경제 임팩트 펀드 조성	• 임팩트 펀드 조성계획 수립	• 임팩트 펀드 조성	• 임팩트 펀드 투자 실시 •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및 공유		

2. 자원조달 방안

■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투자계획

- 총 22.3억 원 규모(2025년 4.7억 원, 2026년 6억 원, 2027년 7억 원, 2028년 3.2억 원, 2029년 1.3억 원)
- 손실분담금 : 총 6.3억 원
 - 50% 손실부담율을 가정할 경우 2025년 3.1억 원, 2026년 1.9억 원, 2027년 1.3억 원 산정
- 이차보전금 : 총 16억 원
 - 일반대출(3%) 160억 원 규모로 가정할 경우, 2025년 1.2억 원, 2026년 3.1억 원, 2027년 4.3억 원, 2028년 2.4억 원, 2029년 1억 원 규모
 - 우수기업대출(4%) 40억 원 규모로 가정할 경우, 2025년 4천만 원, 2026년 1억 원, 2027년 1.4억 원, 2028년 8천만 원, 2029년 3천만 원 규모

〈표 4-10〉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자금 규모	합계	2025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자금 규모	예산액
계			22.3		4.7		6.0		7.0		3.2		1.3
손실추정액		100	6.3	50	3.1	30	1.9	20	1.3		0.0		0.0
이차 보전액	계	200	16.0	100	1.6	60	4.2	40	5.8	0.0	3.2	0.0	1.3
	일반대출 (3%)	160	12.0	80	1.2	48	3.1	32	4.3	—	2.4	—	1.0
	우수기업대출 (4%)	40	4.0	20	0.4	12	1.0	8	1.4	—	0.8	—	0.3


■ 충남 임팩트펀드 투자계획

- 충청남도 10억 원의 재정 투입
-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기업, 운용사 등 10억 원 매칭

〈표 4-11〉 충남 임팩트 펀드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2025년 (1차년도)	2026년 (1차년도)	2027년 (1차년도)	2028년 (1차년도)	2029년 (1차년도)
계	20		10	6	4	
충청남도	10	-	5	3	2	-
민자	10		5	3	2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록1.설문조사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실태조사

ID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청도청 경제정책과와 함께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며, 충남 사회적경제 **공식 통계 DB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설문은 25문항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응답자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주관기관: 충남연구원(이홍택 박사)

연락처 : 041-840-1211

E-Mail : lht@cni.re.kr

조사대행기관: (주)중부리서치

연락처 : 010-8806-3335

E-Mail : shymaria@naver.com

● 응답자 정보

기업명		응답자 직위	
기업 소재지	() 시·군 () 읍·면·동		
연락처			

● 일반 현황

1) 대표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대표자 연령(만)	() 세
3) 대표자 경력	① 일반기업 ② 공공기관 ③ 시민단체·비영리기관 ④ 사회복지기관 ⑤ 사회적경제기업 ⑥ 교육기관 ⑦ 영농조합 ⑧ 기타()		
4) 법인설립일	()년		
5) 성장단계	① 창업기 ② 초기성장기 ③ 고도성장기 ④ 성숙기 ⑤ 쇠퇴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출시되어 매출이 처음 발생하는 단계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 고성장기를 지나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6) 법인 유형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영농조합 ④ 주식회사 ⑤ 일반협동조합 ⑥ 사회적협동조합 ⑦ 기타()		
7) 사회적경제 유형 (복수응답 가능)	① 인증 사회적기업 ② 예비 사회적기업 ③ 마을기업 ④ 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8) 주 사업분야	① 농·축산·어·임·광업 ② 제조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도·소매, 유통 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⑧ 교육 서비스업 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⑩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⑩ 기타()		
9) 사업활동 설명 (주사업)	()		

1. 일반 현황

1. 귀사의 자금조달 현황은 어떻습니까? (합계가 100%이 되도록 맞추어 주세요)

후원 및 기부	보조금 (정부)	대출			투자	기타	합계
		1금융권 (은행 등)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충남사회적경제 기금			
()%	()%	()%	()%	()%	()%	()%	100%

2. 귀사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경험은 어떻습니까?

종류	활용 여부	대출시기	대출액	대출이율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②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대출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③ 사회적경제기업 소액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④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④ 사회적기업공제기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⑦ 시중은행 사회적기업 대출 (기업, 산업, 국민 등)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⑧ 신탁 및 새마을금고 대출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⑨ 기타()	① 있음 ② 없음	()년	()만 원	()%

2-1. 귀사의 타 금융기관 자금의 조달 용도는 무엇입니까?

- ① 운영자금(인건비 등) ② 시설자금(설비 및 인테리어 등)
 ③ 사업개발비(R&D비용 등) ④ 건물 및 토지자금
 ⑤ (고금리)차입금 대환 ⑥ 기타 ()

2-2. 귀사의 타 금융기관 자금은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만기일시상환 ② 분할상환
 ③ 거치식 상환 ④ 기타()

3. 귀사에서 타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서류 작성 및 제출의 어려움 ② 담보 부족 ③ 높은 경영성과 기준
 ④ 대출가능액 작음 ⑤ 높은 재무기준 ⑥ 승인까지 오랜 소요시간
 ⑦ 대출금리 높음 ⑧ 상환기간 및 방법이 맞지 않음 ⑨ 사회적 성과에 대한 미고려
 ⑩ 기타 ()

4. 현재 시점에서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① 정부 보조금 (사업비보조) | ② 정책 금융 대출 | ③ 자조 기금 대출 |
| ④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활용 | ⑤ 후원금 | ⑥ 회비 |
| ⑦ 외부 지분투자자 유치 | ⑧ 특수관계인(대표자 등) 차입 | ⑨ 투자 유치 또는 추가 출자 |
| ⑩ 크라우드펀딩 | ⑪ 기타() | |

5. 귀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십니까?

- | | |
|--------------------------|-----------------------|
| 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 ② 건축물 조성 및 인테리어 등 비용 |
| ③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 ④ 사업확대를 위한 개발비 마련을 위해 |
| ⑤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 ⑥ 기타 () |

5-1. (해당기업만) 만약 귀사가 희망하는 대출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 ② 건축물 조성 및 인테리어 등 비용 |
| ③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 ④ 사업확대를 위한 개발비 마련을 위해 |
| ⑤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 ⑥ 기타 () |

6. 귀사께서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사회적가치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 ② 타 금융기관의 융자가 어려워서 |
| ③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 | ④ 기타 () |

7. 귀사는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7-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사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이 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제출서류 간소 | ②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 ③ 타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 | ④ 경영위험시 긴급자금으로 신속하게 활용 가능 |
| ⑤ 사회적성과 인정 | ⑥ 기타 () |

2.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성과

A. 사회적경제기금 활용에 따른 직접적 성과

9. 귀사의 사회적경제기금 이용 전후의 경영성과는 어떻습니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추정치)
매출액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영업이익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총 종사자수	()명	()명	()명	()명
취약계층 종사자수	()명	()명	()명	()명

10.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재무적 성과가 어떻습니까?

- ① 증가 : 20% 이상 ② 증가 : 10%~19% 수준 ③ 증가 : 1~9% 수준
 ④ 비슷한 수준(±1% 이내) ⑤ 감소 : 1~9% 수준 ⑥ 감소 : 10% 이상

11.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이후 고용 성과는 어떻습니까?

- ①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을 늘림 ②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함
 ③ 직원 복지를 강화함 ④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⑤ 기타()

12. 사회적경제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시설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확대에 기여
 ② 사업장 확장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경쟁력을 확보
 ③ 신규 사업 또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
 ④ 인건비 등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
 ⑤ 기타 (구체적으로)

13. 사회적경제기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 사례(성과)를 작성부탁드립니다.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B.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기업의 간접적 성과

14. (사회적 미션) 귀사는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②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
|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④ 교육기회 증진 |
| ⑤ 성평등 보장 |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 ⑨ 사회기반시설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 ⑩ 불평등 해소 |
|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
| ⑬ 기후변화 대응 | ⑭ 해양생태계 보전 |
| ⑮ 육상생태계 보전 | ⑯ 인권/정의/평화 |
| ⑰ 지구촌 협력 강화 | |

14-1. 충청남도의 어떠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지역공동체의 관계망 형성·강화 | ②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 ③ 부족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개선 | ④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확대 |
| ⑤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 | ⑥ 로컬푸드 소비 확산 |
| ⑦ 근로자의 근무여건 증대 | ⑧ 기타() |

14-2. 귀사가 창출하는 가치의 핵심 수혜대상은 누구입니까?

- | | | | |
|-------|--------|-----------|---------|
| ① 장애인 | ② 저소득층 | ③ 아동 | ④ 청소년 |
| ⑤ 노인 | ⑥ 여성 | ⑦ 다문화/외국인 | ⑧ 탈북자 |
| ⑨ 한부모 | ⑩ 일반대중 | ⑪ 지역민 | ⑫ 기타() |

15. (의사결정) 귀사는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 | | | |
|---------------|-------------------------|--------------|
| ① 주주와 대표만이 참여 | ② 대표, 이사와 함께 근로자 대표도 참여 | ③ 근로자 다수가 참여 |
|---------------|-------------------------|--------------|

15-1. 귀사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등의 실제 참여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 ① 61~100% | ② 41~60% | ③ 21~40% |
| ④ 1~20% | ⑤ 0% | |

15-2.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달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 ① 수시로 | ② 1회~2회 | ③ 3회 이상 | ④ 별도의 기회 없음 |
|-------|---------|---------|-------------|

16. (구성원 처우노력) 귀사의 근로자들은 평균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 ④ 1년 이상~2년 미만 | ⑤ 2년 이상~3년 미만 | ⑥ 3년 이상 |

16-1. 귀사는 어떠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유연 출·퇴근제 ② 재택근무제 ③ 일자리 공유제
④ 집중근무제 ⑤ 한시적 근무제 ⑥ 없음

16-2. 근로자들이 매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 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법정의무교육 제외)

- ① 수시로 교육에 참여 ② 1회~3회 ③ 4회~6회
④ 7회~10회 ⑤ 11회 이상 ⑥ 별도의 교육기회 없음

16-3. 근로자들이 받는 교육은 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교육 ② 사회문제교육 ③ 마케팅·홍보
④ 생산·품질관리 ⑤ 인사·조직관리 ⑥ 회계·재정관리
⑦ 법무 및 법률 ⑧ 노무 관리 ⑨ 사업계획서 작성
⑩ 비즈니스모델 발굴 ⑪ 리더십 ⑫ 기술연수
⑬ 기타()

17. (협력 및 연대) 지역사회의 주체들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매년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 관련 프리마켓, 판매전, 공식 회의, 네트워크 활동 등

- ① 참여하지 않음 ② 1회~5회 미만 ③ 5회~10회 미만
④ 10회~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17-1. 귀사의 네트워크 수준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구분	현재 교류 수준				
	전혀없음	교류부족	보통	활발	매우활발
①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도·시군)	①	②	③	④	⑤
②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①	②	③	④	⑤
③ 사회적경제 협의회/업종 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④ 사회적경제기업	①	②	③	④	⑤
⑤ 시민단체·비영리조직	①	②	③	④	⑤
⑥ 민간기업	①	②	③	④	⑤

17-2. 귀사는 어떠한 목적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교류 및 친목 활동 ②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
③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 ④ 공동 R&D 등 협업 프로젝트 추진
⑤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 ⑥ 기타()

18. (사회적 환원 노력) 귀사의 사회공헌지출비용은 얼마입니까? (기부, 자원봉사, 서비스 가치 등 환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추정치)
사회공헌 비용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18-1. 귀사는 수익금을 어떤 부문에 가장 많이 재투자 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원 | ② 지역사회(사회취약계층)에 직접 환원 |
| ③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 ④ 유보 이윤으로 적립 |
| ⑤ 직원 성과급 등 사내복지에 사용 | ⑥ 기타() |

3. 사회적경제기금 정책수요

19. 귀사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9-1. 사회적경제기금 대해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 ① 도 ② 시·군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④ 신협 ⑤ 네트워크 조직(광역 및 시군) ⑥ 기타()

19-2. 현재 이차보전금 지원(3%)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상황에 만족함 ② 이차보전금 지원 규모의 확대 필요
③ 상환실적 우수기업에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필요 ④ 기타()

19-3. 충남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한 기업들에게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20.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2024년 ② 2025년 ③ 2026년
④ 2027년 ⑤ 2028년 ⑥ 아직 잘 모르겠음

20-1.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필요 기업만)

- ① 운영자금(인건비 등) ② 시설자금(설비 및 인테리어 등) ③ 사업개발비(R&D비용 등)
④ 건물 및 토지자금 ⑤ (고금리)차입금 대환 ⑥ 기타 ()

20-2. 만약 자금조달 한다면, 귀사가 추진할 자금조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필요 기업만)

- ① 담보대출 ② 보증서 대출 ③ 특수인(대표, 이사 등) 개인대출
④ 출자 및 증자 ⑤ 투자 ⑥ 후원금
⑦ 보조금(정부 및 민간) ⑧ 기타 ()

20-3.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필요 기업만)

-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⑤ 1억 원 ~ 3억 원 미만 ⑥ 3억 원 ~ 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참여 연구진

연구 책임

이훈택 책임연구원(총괄)

내부 연구진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

박춘섭 책임연구원

김강현 책임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홍은일 연구원(연구 간사)
